

송
암
집

호남 선현문집 국역총서 1

송암집

松巖集

下

기정의 지음
奇挺翼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일러두기

- * 이 책의 번역 대본은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송암선생문집(松巖先生文集)》 상·하본 2책으로 하였다.
- *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間註)로, 긴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 * 한자는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었으며, 운문(韻文)은 원문을 병기하였다.
- * 이 책은 번역문과 원문을 함께 실었다.

송암집 제5권

시 詩

도연명의 〈사시사〉에 차운하다 次陶靖節四時詞	17 401
또 본편의 수·운·월·송 글자를 써서 짓다 又用本篇水雲月松字	18 401
눈이 많이 내린 날 말을 타고 친구를 찾아가며 읊조리며 짓다 大雪 訪友人馬上口號	19 401
내장산 영은사에서 운자를 불러 읊다 內藏靈隱寺呼韻	20 402
사촌 동생 자립 정연 에게 주고 또한 김뇌숙에게 주다 贈從弟子立 挺然 仍呈金賚叔	21 402
또 뇌숙에게 주다 又贈賚叔	22 402
황자평을 붙잡으며 주다 贈留黃子平	23 402
자평과 김대명을 붙잡으며 주다 贈留子平金大鳴	24 403
사촌 동생 정지가 남긴 글씨를 보고 감회가 들다 見從弟挺之遺筆有感	25 403

자평의 시에 차운하다 次子平韻	26 403
또 자평의 시에 차운하다 又次子平韻	27 403
이 동지 명 를 애도하다 輓李同知 溟	28 404
글을 읽는 제자들 김명학·이섭 에게 부치다 寄讀書二三子 金鳴鶴·李燮	29 404
우연히 읊다 偶吟	30 404
유군 재영 을 애도하다 輓劉君 再榮	31 404
을미년 설달 자립에게 주어 김자퇴에게 전하다 오언율시 乙未臘月 贈子立及金子倭 五律	32 405
김대명의 〈식별〉 시에 차운하여 장난삼아 짓다 戲次大鳴食鼈韻	33 405
박공 행간 을 애도하다 輓朴公 行簡	34 405
가을비 秋雨	35 406
김공 여순 을 애도하다 輓金公 汝筭	36 406
신공 정만 을 애도하다 輓愼公 貞萬	37 406
유공 수함 을 애도하다 輓柳 壽咸	38 407
변 주부 부인을 애도하다 輓邊主簿夫人	39 407
강 정언 시경 을 애도하다 輓姜正言 時儼	40 407
박 상사 정린 를 애도하다 輓朴上舍 廷麟	41 408
방화경을 애도하다 輓房和卿	42 408
백공 홍원 을 애도하다 輓白公 弘源	43 408
최 상사 익 를 애도하다 輓崔上舍 瀾	44 409
오 상사 상주 를 애도하다 輓吳上舍 相胄	45 409

어떤 이에게 주다 贈人	46 409
벗 이 희 에게 화답하다 答李友 熺	47 410
박공 승을 애도하다 輓朴公勝	49 410
김공을 애도하다 輓金公	51 411
양 참봉 세남 을 애도하다 輓梁參奉 世南	52 411
눈이 많이 내린 날 한창려의 〈증장적〉에 차운하다 大雪 次昌黎贈張籍韻	53 412
소 疏	
모암서원 현판을 요청하는 소장 慕巖書院請額疏	59 414
우암 송 선생을 친구하는 소장 伸救尤庵宋先生疏	65 416
서 書	
도백에게 올리는 편지 上道伯書	74 420
홍 부사 석귀 에게 주다 與洪府使 錫龜	78 421
홍 부사에게 주다 與洪府使	81 422
별지	82 422
《참동계》 공혈법(孔穴法)	89 424
김 아무개에게 답하다 答金	97 427
김 아무개에게 답하다 答金	98 427
박수철에게 답하다 答朴守哲	99 428
박수철에게 답하다 答朴守哲	100 428
박수철에게 답하다 答朴守哲	111 432

박수철에게 답하다 答朴守哲	113 433
박수철에게 답하다 答朴守哲	114 433
박수철에게 답하다 答朴守哲	116 434
박수철에게 보낸 편지 與朴守哲	126 437
박수철에게 보낸 편지 與朴守哲	127 438

서序

조 도사 귀상 를 전송하는 글 送趙都事 龜祥 序	128 439
----------------------------	-----------

기記

예미정기 절필 曳尾亭記 絶筆	130 440
-----------------	-----------

상량문 上樑文

장성 성전 이건 상량문 長城聖殿移建上樑文	135 442
필암서원 사우 상량문 筆巖書院祠宇上樑文	142 443
관서순영연막상량문 關西巡營蓮幕上樑文	150 444

행장 行狀

호암 변 선생 행장 壺巖卞先生行狀	156 446
화암 송공 행장 花庵宋公行狀	166 448
영주 양공 행장 瀛州梁公行狀	171 449

묘갈명 墓碣銘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 유공 묘갈명 병서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柳公墓碣銘 并序 181 | 453

증 효충장의 선무공신 자헌대부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개백군에 추증된 행 통정대부 남해현령 기공 묘갈명
贈效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皆伯君
行通政大夫南海縣令奇公墓碣銘 186 | 454

제문 祭文

만취당 공공에게 드리는 제문 祭晩翠堂孔公 198 | 458

통문 通文

양산 군수 조영규 부자를 모암서원에 추가하여
배향한다는 통문 趙梁山父子追配慕巖書院通文 204 | 459

전문 箋文

임금 탄신일의 전문(箋文) 大殿誕日箋文 212 | 462

송암집 제6권

논 論

날개를 떨쳐 나니 큰 새가 된다는 말에 대한 논
拚飛維鳥 217 | 465

잠 箴

도로써 뜻을 두면 편안하다는 잠 志以道寧箴 221 | 467

책 策

심이 성과 정을 거느린다는 질문에 대한 책문 問心統性情 224 | 468

거문고를 물은 것에 대한 책문 問琴 232 | 471

사람을 알아보는 것을 질문한 것에 대한 책문 問知人 242 | 473

기량을 물은 것에 대한 책문 問器量 254 | 476

의 擬

당나라 시어사 마주가 정관 초기에 장구할 계책을
세우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의
唐侍御史馬周請如貞觀之初以爲長久之計 264 | 480

송나라 좌복야 이강이 장방창 몰래 반역한 죄를 다스려
성 안팎의 민심을 엄숙하게 만들라고 요청한 의
宋左僕射李綱請治張邦昌潛逆之罪以勵中外 269 | 481

송나라 무주 처사 여조태가 한탁주를 빨리 처형하고
주필대로 대신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의
宋婺州處士呂祖泰請亟斬韓侂胄代以周必大 274 | 482

송나라 병부시랑 주희가 천리와 인욕의 분기점을 살펴
마음 씹씹이와 선비처럼 거처하는 공변됨으로 삼으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의
宋兵部侍郎朱熹請察天理人欲之分以爲用心處士之公 281 | 483

한나라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협서율을 제거한 것을
하례한 것에 대한 의 漢朝群臣賀除挾書律 286 | 484

한나라 대장군 광광이 〈주공이 성왕을 업고 있는 그림〉을

하사받았으나 사양한 것에 대한 의 漢大將軍霍光謝賜周公負成王圖	292 485
한나라 공장이 태상이 되어 가업을 맡아 지키려고 요청한 것에 대한 의 漢孔臧乞爲太常典守家業	298 486

송암집 부록

부록 附錄

송암 기공 묘표 松巖奇公墓表	307 489
기 참봉을 애도하다 輓奇參奉	311 490
송암 기 참봉의 부음을 듣고 놀라 애도하며 짓다 聞松巖奇參奉訃音, 驚悼有作	314 491
애도시 3수 輓章 三首	315 491
송암 기공 참봉을 애도하다 輓松巖奇公參奉	318 492
여러 현인의 편지 諸賢手札	319 493
기 상사의 경안 奇上舍經案	319 493
〈이 여사가 황정군에게 주다〉라는 작품의 운자를 써서 기처사 도안에 보내다 用李繡衣贈黃澂君韻 奉訊奇處士道案	335 499
송암 유희의 감회 松巖遺墟感懷	351 505
송암기 松巖記	353 506
송암운 松巖韻	356 507
또 又	357 507

또 서를 붙이다 又 並序	358 507
또 又	360 508
또 又	361 509
또 又	362 509
또 又	363 509
또 서를 붙이다 又 並序	364 510
또 又	367 511
또 又	368 511
또 又	369 512
또 又	370 512
또 又	371 512
또 又	372 513
또 又	373 513
또 又	374 514
또 又	375 514
또 又	376 514
또 又	377 515
또 又	378 515
또 又	379 516
또 又	380 516
또 又	381 516
또 又	382 517

또 又	383 517
또 又	384 518
또 又	385 518
또 又	386 518
또 又	387 519
또 又	388 519
또 又	389 520
또 又	390 520
또 又	391 520
또 又	392 521
또 又	393 521

발 跋	394 522
-----	-----------

송
암
집

제
5
권

序서 書서 疏소 詩시

墓묘갈명 行狀 上량문
碣銘 行狀 上량문

箋전문 通통문 祭제문
文 文 文

시 詩

도연명의 〈사시사〉¹에 차운하다

次陶靖節四時詞

봄에는 꽃 핀 연못을 즐거이 거닐고

春行喜芳澤

여름에는 높은 봉우리 누워 바라보네

夏臥仰高峰

가을에는 밝은 햇살 사랑하고

秋愛皎皎日

겨울에는 푸르른 솔 어루만지네

冬撫青青松

1 사시사(四時詞) : 도연명(陶淵明)이 사계절 변화의 특징을 읊은 시로, 다음과 같다.
“春水滿四澤，夏雲多奇峯。秋月揚明暉，冬嶺秀孤松。”

또 본편²의 수·운·월·송 글자를 써서 짓다

又用本篇水雲月松字

봄 물은 기운이 바야흐로 지극하고

春水氣方至

여름 구름은 만물의 모양 갖추었네

夏雲物流形

가을 달은 맑고 엄숙하며

秋月澄清肅

겨울 추위에 소나무의 절개를 보네

冬沍見松貞

2 본편(本篇) : 앞의 시 도연명(陶淵明)의 〈사시사(四時詞)〉를 가리킨다.

눈이 많이 내린 날 말을 타고 친구를 찾아가며 읊조리며
짓다

大雪 訪友人馬上口號

나는 오늘 대설이 걱정인데
사람들은 작년의 바람을 말하네
눈바람은 어느 때 잦아지려나
하늘은 내 마음 비춰 알리

我憂今日雪
世道去年風
風雪何時定
皇穹照我衷

내장산 영은사³에서 운자를 불러 읊다

內藏靈隱寺呼韻

나옹화상(懶翁和尚) ⁴ 에 대해 들었는데	聞道懶翁子
당시 선정 ⁵ 에 들었다네	當年入定禪
어디에서 유적을 찾을까	遺蹟尋何處
석장(錫杖) 날려 도 ⁶ 가 우뚝하다네	飛來斗重玄

3 영은사(靈隱寺) :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內藏山)의 영은사를 가리키나, 여기에서는 나옹화상(懶翁和尚)이 세운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소재 나옹암(懶翁庵)으로 추정된다.

4 나옹화상(懶翁和尚) : 고려 후기의 고승 혜근(惠勤, 1320~1376)을 가리킨다. 혜근의 성은 아씨(牙氏)이고 속명은 원혜(元惠), 호는 나옹 또는 강월헌(江月軒), 시호는 선각(禪覺)이다. 보우(普愚)와 함께 조선 불교의 초석을 세운 고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이 56세, 법랍 37세로 신록사에서 입적하였고, 이색(李穡)이 글을 지어 세운 비와 부도가 신록사에 있다. 저서는 《나옹화상어록(懶翁和尚語錄)》 1권과 《가송(歌頌)》 1권이 전한다.

5 선정(禪定) : 불교의 근본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로, 반야(般若)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하여 마음을 닦는 수행법을 말한다.

6 석장(錫杖) 날려 도 : 원문의 '중현(重玄)'은 도(道)의 차원을 말한다. 《도덕경(道德經)》 1장에 “도는 현묘한 중에서도 더욱 현묘하여 만물이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玄之又玄 衆妙之門〕”라고 하였다.

사촌 동생 자립 정연 에게 주고 또한 김뇌숙에게 주다

贈從弟子立 挺然 仍呈金賚叔

그대에게 약재를 하나 주니

贈君一藥物

병을 치료하고도 남을 걸세

攻疾有餘醫

청컨대 보게나 비 갠 밤하늘에

請看霽天夜

오동나무 위로 달이 떠오를 때를

梧桐月上時

또 뇌숙에게 주다

又贈賚叔

장경⁷은 병이 많은 사람이요

長卿多病人

자하는 외로이 가난했네⁸

子夏索居貧

이 말을 그댄 아는지

此語君知否

정녕 우리 같은 사람이었네

正如我輩人

7 장경(長卿) :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이다. 상여가 일찍이 소갈병(消渴病)이 있어 벼슬을 탐탁히 여기지 않고 항상 한가히 지내기를 좋아하였다. 《史記 司馬相如列傳》

8 자하(子夏)는 외로이 가난했네 : 자하는 공자(孔子)의 제자 복상(卜商, 기원전507?~기원전420?)의 자이다. '색거(索居)'는 벗들과 떨어져 외로이 사는 것을 말하는데, 자하가 "내가 벗을 떠나 쓸쓸히 홀로 산 지가 오래이다.〔吾離群而索居, 亦已久矣.〕"라고 하였다. 《禮記 檀弓》

황자평을 붙잡으며 주다

贈留黃子平

하늘은 이별의 아픔 알아

예나 지금이나 밝은 해 기울었네

가장 머물기 좋은 이곳

초가에도 밝은 달빛 많다네

皇天知別苦

故今白日斜

最可留連處

茅屋明月多

자평과 김대명을 붙잡으며 주다

贈留子平金大鳴

그대들 떠나선 안 되는 세 이유 있으니

나는 대명을 생각할 때 많으며

푸른 하늘에 달빛이 다정하며

이별의 자리 더욱 밝게 비추어서라네

君不宜去有三事

我思多時又大鳴

多情最有青天月

爲照離筵十分明

사촌 동생 정지가 남긴 글씨를 보고 감회가 들다

見從弟挺之遺筆有感

이백이 고래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니 ⁹	李白騎鯨飛上天
경루 ¹⁰ 의 아름다운 시구로 신선들을 감동시켰네	瓊樓佳句動群仙
옥황상제는 명필 없음이 오랫동안 한스러워 ¹¹	玉皇久恨無眞筆
네 수명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셨구나	爾壽如今更不延

9 이백(李白)이……날아오르니 : 이백이 일찍이 채석강(采石江)에서 취중에 뱃놀이를 하다가 달을 잡으려고 물에 뛰어들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에서 온 말이다. 매성유(梅聖俞)의 〈채석월증곽공보(采石月贈郭功甫)〉에 “응당 굶주린 교룡의 입에 떨어지지 않고 고래를 타고 푸른 하늘로 올라갔으리.[不應暴落飢蛟涎, 便當騎鯨上青天.]”라고 했으며, 마존(馬存)의 〈연사정(燕思亭)〉에 “이백이 고래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니 강남의 풍월은 오랜 세월 한산해졌어라.[李白騎鯨飛上天, 江南風月閑多年.]”라고 하였다. 《古文眞寶前集 卷5》

10 경루(瓊樓) : 신화 속에 나오는 월궁(月宮) 속의 누각을 말한다. 《拾遺記》

11 옥황상제는……한스러워 : 사촌 동생 정지(挺之)가 문학적 역량이 뛰어났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다. 당(唐)나라 시인 이하(李賀)는 시문에 뛰어났으나 뜻을 펴지 못했는데, 어느 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가져온 “상제께서 백옥루를 지었는데, 그대를 불러 기문을 짓게 하노라.[帝成白玉樓, 立召君爲記.]”라는 글을 보고, 27세의 나이에 죽었다. 《李賀小傳》

자평의 시에 차운하다

次子平韻

우로가 내린 뒤 풍수지탄 깊었는데 ¹²	風樹哀深雨露後
그날 경건하던 자태 ¹³ 다행히도 만났네	幸逢當日攝衣姿
산소에 절하는 그대의 감회 알아	知君拜墓應多感
손잡고 마주 보니 눈가에 피눈물이 가득하네	握手相看血滿眦

12 우로(雨露)가……깊었는데 :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말한다. 《예기(禮記)》〈제의(祭義)〉에 “서리와 이슬이 내렸을 때 군자가 그것을 밟게 되면 반드시 슬픈 마음이 일어나니, 추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봄에 우로가 내려 적셨을 때 군자가 그것을 밟게 되면 반드시 놀라는 마음이 있어서 장차 어버이를 다시 뵈을 듯이 한다.[霜露既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也. 春雨露既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之.]”라고 하였다.

13 경건하던 자태 : 섭의(攝衣)는 옷을 땅에서 떼어서 경건히 예를 행함을 이른다.

또 자평의 시에 차운하다

又次子平韻

집 가까이 푸른 산과 강이 흐르니

객이 찾아와 옛날을 논하고 승경을 찾네

한가로운 곳에 집 짓고 사는 마음 알고프니

청풍명월의 별천지를 차지하였네

宅近青山與水流

客來論古更探幽

欲知卜築閒中意

明月清風擅別區

이 동지¹⁴ 명 를 애도하다

輓李同知 溟

오래 사는 건 백년해로와 상관없고	得壽非關偕老貴
아들 많기는 쉬워도 손자 안기는 어렵네	多男雖易抱孫難
하늘의 보살핌이 치우친 걸 비로소 알겠나니	始覺蒼天偏有佑
팔순 금슬에 빠어난 자손이 뜰에 가득하네	八旬琴瑟滿庭蘭

14 이 동지(李同知) : 이명(李溟, 1570~1648)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연(子淵), 호는 구촌(龜村)이다. 1627년(인조5) 정묘호란 때에는 경기도 관찰사로서 전란 수습에 공을 세웠고, 그 뒤 평안도 관찰사로 나가 국경 방비를 강화하였다. 말년에는 지중추부사로 전의제조(典醫提調)를 겸임하였으며, 좌찬성에 증직(贈職)되었다. 저서는 《구촌유고(龜村遺稿)》가 있다.

글을 읽는 제자들 김명학·이섭 에게 부치다

寄讀書二三子 金鳴鶴·李燮

승려가 글 읽는 곳에서 와서

자네들이 학업에 매진한다 하더군

공부의 진실한 경지를 알고자 한다면

오직 마음에서 천연을 찾는 것

衲衣來自讀書邊

爲道吾君學業專

欲識工夫眞實地

獨於心上索天然

우연히 읊다

偶吟

천지가 흔들려도 땅은 꺼지지 않고
해가 진 뒤에 달이 밝아지네
음양이 서로 의지하는 이치를 알려거든
저 속에 움직이는 뜻을 먼저 불지어다

天地動時地不墜
日方交後月生明
欲識陰陽依附理
先看這裡幹旋情

유군 재영 을 애도하다

輓劉君 再榮

일찍이 옥수 ¹⁵ 가 우리 사문을 빛냈으니	曾蒙玉樹照吾門
본원을 깨우친 임랑 ¹⁶ 을 사랑하네	爲愛琳瑯及本根
지금 만사를 짓는 아픈 마음 누가 알까	誰知刺刺今求輓
시에 기대어 눈물 뿌리며 그대의 넋을 위로하네	灑淚憑題慰斷魂

15 옥수(玉樹) : 고귀한 가문의 자제를 일컫는 말로, 여기에서는 유재영(劉再榮)을 가리키는 말이다.

16 임랑(琳瑯) : 아름다운 옥석(玉石)으로, 어질고 재주 있는 인재를 뜻한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왕 태위(王太尉)를 찾아갔다가 보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명사(名士)와 인재들이었다. 이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가서 보니 눈에 보이는 것마다 모두 임랑과 주옥(珠玉)이었다.”라고 하였다. 《世說新語》

을미년 선달 자립에게 주어 김자퇴에게 전하다 오언율시

乙未臘月 贈子立及金子倭 五律

가난하여 살림살이 변변찮은데	貧居無長物
흰 눈이 앞산에 가득 쌓였네	白雪滿前林
맹호연이 두 어깨 곧추세웠고 ¹⁷	孟浩雙肩聳
문원령은 일생 동안 병이 깊었네 ¹⁸	文園一病深
시대가 위태로우니 곤궁함도 낙이 되고	時危窮亦樂
추위가 매서우니 응당 술잔 나누어야지	寒緊酒宜斟
자퇴 형은 잘 계시는지	子倭兄在否
내 온갖 근심 아시는지	知我百憂心

17 맹호연(孟浩然)이……곧추세웠고 : 좋은 시상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두 어깨를 곧추세웠다는 말이다. 성당(盛唐)의 시인 맹호연(689~740)이 일찍이 좋은 시를 지으려고 고심하다가 나귀 등에 타고서 눈발이 휘날리는 파교(灞橋) 위를 지나갈 때에야 그럴듯한 시상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송(宋)나라 소식(蘇軾)이 〈증사진하충수재(贈寫真何充秀才)〉라는 시에서 “또 보지 못했는가? 눈 속에 나귀를 탄 맹호연이, 눈썹을 찌푸리고 시를 읊느라 어깨가 산처럼 솟은 것을.[又不見雪中騎驢孟浩然，皺眉吟詩肩聳山.]”이라고 하였다.

18 문원령(文園令)은……깊었네 : 원문의 ‘문원(文園)’은 일찍이 효문원령(孝文園令)을 지낸 한(漢)나라의 문장가 사마상여(司馬相如)를 가리키는데, 그는 소갈병(消渴病)에 걸려 일생을 시달렸다고 한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김대명의 〈식별〉 시에 차운하여 장난삼아 짓다

戲次大鳴食鼈韻

성인도 자라를 먹거늘	聖人猶食鼈
혹여나 공명을 방해할까 의심하다니	或訝妨功名
예로부터 입맛은 똑같으니	自古口同耆
그대의 지혜 밝지 않으니 한스럽네	恨君智不明
장원은 상서로운 등딱지에서 짐쳐 볼 일	壯元看瑞甲
서법은 푸줏간 포정 ¹⁹ 에게 있네	書法有庖丁
가마솥은 본래 나쁜 물건이 아니니	鼎鼔元非惡
지금 막 조리법을 익히고 있네	今方習調烹

19 포정(庖丁) : 서법의 경지가 높아져서 글씨를 능숙하게 쓰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장자(莊子)》〈양생(養生)〉 주(注)에 “지금 내가 칼을 잡은 지 19년이나 되었고 잡은 소만도 수천 마리를 헤아리는데, 칼날이 지금 숫돌에서 금방 꺼낸 것처럼 시퍼 령기만 하다. 소의 마디와 마디 사이에는 틈이 있는 공간이 있고 칼날은 두께가 없으니, 두께가 없는 것을 그 틈 사이에 밀어 넣으면 그 공간이 널찍하여 칼을 놀릴 적에 반드시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今臣之刀十九年矣, 所解數千牛矣, 而刀刃若新發於硎. 彼節者有間, 而刀刃者無厚, 以無厚入有間, 恢恢乎其於遊刃, 必有餘地矣.]” 라고 하였다.

박공 행간 을 애도하다

輓朴公 行簡

어른의 풍류 멀어지니
생사의 한이 가라왔지 않네
생전엔 자식 잃어 눈물 흘리고
사후엔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뿐
쥔 살에 한바탕 춘몽을 이루니
천추에 오늘 이름 남았네
한식날 새벽 꽃만이
쓸쓸한 무덤을 지키네

長者風流遠
幽明恨未平
生前哭子淚
死後憶親情
五十成春夢
千秋有今名
曉花寒食節
寂寞閉佳城

가을비

秋雨

올해는 가을에 비가 많이 내려	今歲秋多雨
산중의 삶이 더욱 고달프네	山居更隘湫
병든 아내는 지붕 새는 게 걱정이지만	病妻愁屋漏
어린 아들은 처마 물줄기로 장난치네	稚子戲簷流
흥취가 있어 시어를 보태고	有興添詩語
전답이 없어 근심도 없네	無田免獲憂
천하를 감싸 주려는 책임을 생각하나 ²⁰	因思大庇責
당세에 이런 사람 있을런지	當世有人不

20 천하를……생각하나 : 원문의 ‘대비(大庇)’는 온 천하 사람들을 보호하고 감싸 주려는 뜻을 말한다. 두보(杜甫)의 시에 “어떡하면 천만 칸의 널찍한 집을 얻어서, 천하의 빈한한 선비들을 크게 감싸 주어 모두 즐거운 얼굴이 되게 하고, 풍우에도 동요하지 않고서 산처럼 안정되게 할까.[安得廣廈千萬間, 大庇天下寒士俱歡顏, 風雨不動安如山.]”라고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0 茅屋爲秋風所破歌》

김공²¹ 여순 을 애도하다

輓金公 汝鎔

진솔한 그 성품	眞率乃其性
시세에 따라 아첨하지 못하였네	不爲時世粧
인간 세상에 맞은 담박하였으니	人間滋味淡
천상에서는 주성 ²² 을 빛내리	天上酒星光
살아서 갇혔던 우애	友愛當年著
오늘의 존망에 가슴 아프네	存亡此日傷
늙도록 우정을 변치 말자던	全交餘白首
예전의 그 약속 잊을 수 없네	曩說未能忘

21 김공(金公) : 김여순(金汝鎔, 1569~?)이다. 자는 극화(克和), 본관은 통천(通川)이며, 유학(幼學)으로, 전주에서 거주하였다.

22 주성(酒星) : 술을 관장하는 별 이름으로, '주기성(酒旗星)'이라고도 부른다. 이백(李白)의 시 〈월하독작(月下獨酌)〉에 “하늘이 만일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주성이 하늘에 있지 않았다네.[天若不愛酒, 酒星不在天.]”라고 하였다. 《全唐詩 卷182 月下獨酌》

신공 정만 을 애도하다

輓愼公 貞萬

늙어서 자주 만사를 지었네만	白首頻題輓
그대가 가장 슬프다네	如君最可悲
탁상 앞에 두 딸이 외롭고	床前兩姪子
구름 너머엔 외기리기 위태롭네	雲外獨鴻危
치량하다 그대 죽은 뒤에	淒涼身後事
영결의 말만 많구나	多少訣時辭
끝없는 저승의 한을	無限泉臺恨
천년 전의 백도 ²³ 는 알리	千年伯道知

23 백도(伯道) : 진(晉)나라 등유(鄧攸)의 자이다. 등유가 하동 태수(河東太守)로 있을 적에 석록(石勒)의 난을 만나 자기 아들과 동생의 아들을 데리고 피난 가다가 적을 만났다. 등유는 두 아이를 모두 살리지 못하리라고 여겨 동생의 아들만 살렸는데, 그 뒤에 끝내 후사를 얻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행실을 의롭게 여기면서 슬퍼하며 “천도(天道)가 아는 것이 없어서 백도에게 아들이 없게 했다.〔皇天無知, 使伯道無兒.〕”라고 하였다. 《晉書 卷90 良吏列傳鄧攸》

유공²⁴ 수함 을 애도하다

輓柳 壽咸

육기가 <문부>를 지은 나이 ²⁵ 는	陸機作賦歲
유 선생이 급제하는 나이였지	柳子登龍年
생명을 주고 빼앗는 하늘의 뜻은 무얼까	與奪天何意
단명하고 장수하는 이치도 치우쳤네	短長理亦偏
그대의 문장은 <등왕각서> ²⁶ 에 견줄 만하고	惟看滕閣咏
그대의 시는 <고현과> ²⁷ 와 나란하네	并軌高軒篇
지금 죽고 없다고 한스러워 말라	莫恨今無也
높은 명성 죽어도 더욱 전하리라	高名沒益傳

24 유공(輓柳) : 유수함(柳壽咸)으로, 1682년(숙종8) 증광시(增廣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25 육기(陸機)가……나이 : 20세를 말한다. 육기(261~303)가 <문부(文賦)>를 지은 해는 대략 20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두보(杜甫)의 <취가행(醉歌行)>에 “육기는 스무 살에 문부를 지었네. [陸機二十作文賦]”라고 하였다.

26 등왕각서(滕王閣序) : 당(唐)나라 때 왕발(王勃, 650~676)이 지은 글이다. 홍주 목사(洪州牧使) 염백서(閔伯嶼)가 등왕각(滕王閣)에서 빈객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열 때 소년 시절의 왕발이 우연히 연회에 참석하여 지은 것으로, 고금에 회자되는 명작으로 꼽힌다. 《新唐書 卷201 王勃列傳》

27 고현과(高軒過) : 이하(李賀, 790~816)의 작품이다. 이하는 당(唐)나라의 시인으로, 자가 장길(長吉)이다. 7세 때 벌써 글을 잘 짓는다는 소문이 퍼졌으므로 한유(韓愈)와 황보식(皇甫湜)이 시험하려고 찾아갔다가 즉석에서 <고현과>라는 시를 지어 내는 것을 보고는 경악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그 뒤 27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는데, 그의 시는 이상온(李商隱)과 두목(杜牧) 등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저서로는 <창곡집(昌谷集)>이 있다. 《新唐書 卷203 李賀列傳》

변 주부 부인을 애도하다

輓邊主簿夫人

부인은 부덕이 훌륭하여
복록은 절로 이루었네
시집와 오래도록 덕이 일컬어졌고
만년에 남편을 여의고 눈을 잃었네
눈으로 두 아들 보고
손으로 훌륭한 자손 어루만졌네
그런 뒤에 백발의 만년 이르렀으니
하늘나라에서 만세 영화 누리리

夫人閼範懿
福履自能成
入室宿稱德
哭夫晚喪明
眼看雙鵠峙
手撫衆蘭馨
然後髦期迫
帝鄉萬歲榮

강 정언²⁸ 시경 을 애도하다

輓姜正言 時儼

사이좋은 집안 어른 스승으로 모셨는데	通家始奉袂
참다운 신선임을 뒤늦게 깨달았네	晚覺有眞仙
곧은 절개로 권세와 부귀를 꺾고	直節摧權貴
맑은 풍모로 속세의 인연 멀리했네	清風謝俗緣
넓은 바닷가에 작은 정자 짓고	小亭滄海上
흰 구름 가에서 깊은 흥취 얻네	深趣白雲邊
하룻밤에 훌쩍 가시니	一夕翩然去
천추에 무슨 유감 있으리	千秋何辱焉

28 강 정언(姜正言) : 강시경(姜時儼, 1612~1682)으로,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오(敬吾)이다. 이황(李滉)을 본받아 향약(鄉約)을 조직하였다. 1682년에 (숙종8) 종부시정 겸 춘추관 편수관(宗簿寺正兼春秋館編修官)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박 상사²⁹ 정린 를 애도하다

輓朴上舍 廷麟

여든 인생에 복록을 누렸으니	八十人間福履將
한가로운 그대의 신세 부럽기도 하지	羨君身世最閒康
백규 ³⁰ 는 재산을 다스려 전답과 주택 늘렸고	白圭治產多田宅
숙야 ³¹ 는 수명을 연장하는 약주머니 많았네	叔夜延齡富藥囊
상자 가득 도서는 만 축을 이루고	滿篋圖書成萬軸
온 동산 꽃나무는 천 그루를 헤아리네	一園花木近千行
죽는 날 그대 유감이 없던 것을 내 아나니	吾知死日無遺憾
가업 이어갈 아들 만년에 얻어서라네	竟得孤兒臨構堂

29 박 상사(朴上舍) : 박정린(朴廷麟, 1607~?)으로, 자는 응화(應化), 본관은 태인(泰仁)이다. 유학(幼學)으로 장성에서 거주하였다.

30 백규(白圭) : 전국 시대 사람으로 경제에 매우 밝았다. 이름은 단(丹), 규(圭)는 그의 자이다.

31 숙야(叔夜) : 진(晉)나라 때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혜강(嵇康, 223~262)의 자이다. 혜강은 방외(方外)의 선비로서 세속을 초탈하여 산택(山澤)에 노닐면서 약(藥)이나 캐며 지냈는데,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입고 동시(東市)에서 처형되었다. 《晉書 卷49》

방화경을 애도하다

輓房和卿

말하기 전 눈물부터 떨어져 시를 이루지 못하는데	淚落言前句不成
누가 오늘 화경을 위해 만사를 지으라 하는가	誰教今日輓和卿
상 치른 여섯 해 애모하는 마음만 남고	素冠六載遺哀慕
부모 잃고 삼 년 원망의 소리로 오열했네	紫樹三秋咽怨聲
두 딸은 봉황 ³² 처럼 훌륭한 배필을 맞았고	二姪寧添丹穴慶
막내는 손쉽게 장원급제 영예 ³³ 얻었네	小名非敵桂宮榮

끝의 두 구절은 빠져 있다.

32 봉황(鳳凰) : 원문의 '단혈(丹穴)'은 《산해경(山海經)》에 나오는 봉황이 산다는 전설상의 산의 이름인데, 여기에서는 봉황을 말한다.

33 장원급제 영예 : 원문의 '계궁(桂宮)'은 계수나무가 있는 월궁(月宮)인데, 월궁의 계수나무 가지를 꺾는 것으로 장원급제를 비유한다.

백공³⁴ 홍원 을 애도하다

輓白公 弘源

덕행 있는 가문인 증조부의 말씀 청하니	德門請自曾公說
헌납이 삼경에 홀로 임금께 인도하였네	獻納三更獨啓人
걸출한 후손이 지금 적지 않으나	傑出仍孫今不少
그대처럼 빼어난 사람 짝을 찾기 어렵네	粹然如子蓋無倫
간절한 자식의 마음 ³⁵ 그 몇 해였을까마는	幾年寸草心猶切
오늘 어머니는 한을 풀 길 없네	此日高堂恨莫伸
애석하구나 입신양명의 굳은 의지	可惜立揚勤苦志
두견새 우는 봄날 옛 산의 달만 쇠잔하네	古山殘月杜鵑春

34 백공(白公) : 백홍원(白弘源, 1620~1674)으로, 본관은 수원(水原), 자는 이중(伊重), 호는 사담(沙潭)이다. 유학(幼學)으로, 흥덕(興德)에서 거주하였다.

35 간절한 자식의 마음 : 당나라 시인 맹교(孟郊)의 〈유자음(游子吟)〉에 “한 치의 풀과 같은 자식의 마음을 가지고서, 봄날의 햇볕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보답하기 어려워라. [難將寸草心 報得三春暉]”라는 구절이 있다.

최 상사³⁶ 익 를 애도하다

輓崔上舍 灝

일찍이 월산 이어중과	曾與月山李汝重
그대의 자질 비범하다고 말했지	說君資質異凡倫
영락하였지만 재주가 없는 것이 아니며	沈淪非是無才地
소탈하니 본성대로 사는 걸 알았네	疎廣方知任性真
한 귀신 ³⁷ 막지 못해 만년이 짧았지만	一鬼不鎖欺暮歲
세 난초 ³⁸ 가 있어 남은 봄을 이어 가네	三蘭猶在引餘春
호연한 죽음으로 아득히 떠나며	浩然觀化悠然去
풍진에 번뇌하는 사람들을 비웃는구려	應笑風塵火宅人

36 최 상사(崔上舍) : 최익(崔灝, 1625~?)으로, 본관은 수원(水原), 자는 언명(彦明)이다. 유학(幼學)으로, 영광에서 거주하였다.

37 한 귀신 : 학질(虐疾)을 말한다. 두보(杜甫)의 시에 “삼 년 지나도록 지겨운 학질, 이 병 귀신은 죽지도 앓나. 하루걸러 살과 뼈 육신육신 썩서 오고, 눈과 서리 안은 듯 오슬오슬 한기 도네. [三年猶瘧疾, 一鬼不銷亡. 隔日搜脂髓, 增寒抱雪霜.]”라고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8 寄彭州高三十五使君適虢州岑二十七長史參》

38 세 난초 : 세 아들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난초는 흔히 상대방의 아들을 칭하는 미사(美辭)로 쓰인다.

오 상사 상주 를 애도하다

輓吳上舍 相胄

그대 집의 문장은 호남 제일이라
높은 재주 세상에 절대로 없다고들 말하네
칼을 담금질해 당시에 조금 시험했으나
중년에 병들어 먼 길 떠나 버렸네
큰길가에 버려진 보배 안타깝더니
이토록 저승길 빠를 줄 그 누가 알았으랴
아! 나는 백발에도 재앙이 넘치니
바람 앞에 눈물 닦으며 홀로 서글피 우네

君家詞翰擅南湖
人道高才絕世無
刃淬當時能少試
豎嬰中歲誤長趨
每憐衢路橫奇寶
誰識光陰促暝途
嗟我禍孽餘白首
臨風拭淚獨悲呼

어떤 이에게 주다

贈人

그대와 나 상을 계속해서 당하니	君我聞凶纔後前
시린 뼈 부서진 마음 서로 가련히 여기네	骨寒心碎共相憐
사나운 범을 대비하여 범의 울음소리를 견딜 수 있는데	曾備猛虎堪聞虎
다만 푸른 하늘 바라볼 뿐 어찌 하늘을 원망하랴	但仰蒼天豈怨天
천운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진실한 이치	無往不還真是理
올해도 묵은 일 가고 새것이 오네	更新替舊在今年
정녕 이 한마디 헛된 말 아니니	丁寧一語非閒說
이 말 들어 보고 흐르는 눈물 훔치게나	聽此須除涕灑漣

벗 이 희 에게 화답하다

答李友 燾

사내종이 벼가 일찍 패었다기에	奴告早稻發
지팡이 짚고 들판에 서 있네	杖策立野中
별이 바위에 내려앉아	星來坐巖石
궁색한 내 마음 보네	看我意象窮
돌아와 편지를 뜯어 보니	歸來立開緘
의심스런 문제 풀어 달라 하네	責出疑心題
부러워라 그대의 노익장	羨君老益壯
풍우에도 그치지 않는 닭 울음소리 ³⁹	正是風雨雞
점옹 ⁴⁰ 은 탄식하며	店翁喟 ⁴¹ 然歎
공부자의 책을 억지로 펼치네	強披夫子書
다섯 마디 말을 묻고서	爲問五箇語

39 풍우에도……울음소리 : 혼란한 세상에서 평소의 소신을 바꾸지 않고 올곧은 말과 행동으로 일관하는 것을 말한다. 《시경》〈정풍(鄭風) 풍우(風雨)〉에 “비바람이 을 씨넨스려운데 닭이 꼭꼭 울어 대네.[風雨淒淒，雞鳴喈喈.]”라고 하였다. 주희(朱熹)는 이 시를 음란한 여자가 비바람 불고 어두운 때에 사랑하는 남자를 몰래 만나는 내용을 읊은 시라고 보았지만, 〈모시서(毛詩序)〉에서는 혼란한 세상에서 군자가 자신의 법도가 변치 않는 것을 그리워한 시라고 보았다.

40 점옹(店翁) : 기정익(奇挺翼)의 자호(自號)이다.

41 위(喟) : 저본에는 ‘渭’로 되어 있으나, 《송암유고(松巖遺稿)》 권8 〈시(詩)〉에 의거 하여 바로잡았다.

42 삼태기……돌아가네 :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은둔하려는 마음을 말한 것이다. 《논어》〈헌문(憲問)〉에 “공자(孔子)가 위(衛)나라에서 경쇠를 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삼태기를 메고 공자가 사는 문 앞을 지나가며 말하기를 ‘세상에 집착이 있구나! 경쇠 소리여.’ 하였다. 잠시 후에 또 말하기를 ‘비루하구나, 매달리는 것이여!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떠나면 될 것을.’ 하였다.〔子擊磬於衛，有荷蕢而過孔氏之門者曰：‘有心哉擊磬乎!’ 既而曰：‘鄙哉硜硜乎! 莫己知也，斯已而已矣’.〕”라고 하였다.

박공 승을 애도하다

輓朴公勝

내 친구 박승은	吾友朴公勝
평생 글을 읽었네	平生讀書人
늙어서도 게으름 부리지 않고	兀兀老不倦
온종일 읽으며 백발이 되었네	白首窮晷辰
좋은 심성 타고나	由來好心事
천진을 간직하여 정직하고 신신했네	直諒存天真
세상과 어긋난 일 많았으나	與世多扞掇
내게는 친한 마음 두었네	於我置心親
항상 좋은 선물 ⁴³ 로 찾아와	每將瓊琚問
갈아도 닳아지지 않음을 구하였네 ⁴⁴	追琢求無磷
각고의 뜻을 다해	看君刻苦意
지극한 정성 귀신과 통하였네	至誠宜通神
어느덧 환갑 되어	遽爾一甲周

43 좋은 선물 : 원문의 '경거(瓊琚)'는 아름다운 옥으로, 아름다운 시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시경(詩經)》〈모과(木瓜)〉에 “나에게 모과를 던져 주기에 아름다운 옥으로써 갚네.〔投我以木瓜，報之以瓊琚。〕”라고 하였다.

44 갈아도……구하였네 : 심지(心志)가 지극히 견고하고 결백해서 주위 환경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다. 《논어(論語)》〈양화(陽貨)〉에 “아무리 갈아도 닳아지지 않으니, 견고하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염색을 해도 검어지지 않으니, 결백하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不曰堅乎 磨而不磷 不曰白乎 涅而不緇〕”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백년의 몸 스러졌네

아! 과거 급제의 명예 끊어져

자손은 더욱 슬프구나

아! 명이라는 한 글자

빈궁과 영달은 본래 고르지 않네

내 신세를 보라

푸른 하늘에 물어볼 필요가 없네

고개 돌려 고향으로 떠나는 날을 위로하니

눈물 뿌리며 공연히 수건만 적시네

誤却百年身

科名嗟已矣

嗣續更悲辛

噫嘻一命字

窮通本不均

請看吾身世

蒼天問無因

回首慰旅櫬

雪涕空沾巾

김공을 애도하다

輓金公

화복은 진실로 일정하지 않으니	禍福固無常
감히 옥황상제에게 물을 수 없네	不敢問上帝
전에 공은 후사 없다더니	宿昔公無嗣
훗날 아이가 돌이라고 했다네	後以兒一歲
나는 당시 자녀가 많았으니	我時多子女
형제들이 늙름하였네	儼然兄若弟
세월이 지금 몇 해 되었나	日月今幾何
홀연히 성쇠가 바뀌었네	倏爾殊興替
어진 자손 ⁴⁵ 에다 또 수를 누리니 ⁴⁶	鸞亭鵲峙更玉屑
그대 집은 부자가 삼대를 이루었네	公家父子成三世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아들을 잃고	我何人哉哭四子
넓고 넓은 천지에 돌아갈 곳이 없네	茫茫天地無歸處
공은 죽고 나는 살았으니 또 무슨 도리인가	公歸我留亦何理
다만 홀로 통곡할 뿐 감히 상제에게 물을 수 없네	只自號泣不敢問上帝

45 어진 자손 : 저본에는 '난정곡치(蘭亭鵲峙)'로 되어 있으나, 《송암유고(松巖遺稿)》 권8 〈시(詩)〉에 의거하여 '난정곡치(鸞亭鵲峙)'로 바로잡았다.

46 수를 누리니 : 옥설(玉屑)은 불로장생의 선약으로, 여기서는 김공이 수를 누린 것을 말한다.

양 참봉⁴⁷ 세남 을 애도하다

輓梁參奉 世南

훌륭한 명성 호남 사람이 함께 추대하지만	南服高名人共推
평생의 외로운 지조 세상이 알기 어렵네	平生孤操世難知
효심은 오래된 숲속 암자 무덤 달빛에 어리고	孝思樹老庵墳月
아취는 자욱한 구름처럼 강학하는 장막에 남았네	雅趣雲深講學帷
예전부터 사귀 마음 십 년을 못 채웠는데	夙昔襟期違十歲
작년의 단란한 모임 정녕 오늘 같네	去年團會正今時
갑자기 옛날의 그 약속 어디서 찾을까	遽然舊約尋何處
먼저 가는 길 향해 우나니 백발이 위태롭네	泣向前途白髮危

47 양 참봉(梁參奉) : 양세남(梁世南, 1627~1682)으로,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영숙(永叔), 호는 용강(龍江)이다. 숙종(肅宗) 때의 문신이다.

눈이 많이 내린 날 한창려의 <증장적>⁴⁸에 차운하다

大雪 次昌黎贈張籍韻

한 해가 가니 안타깝지만	只憐歲色去
눈꽃 피어 기쁘네	飜喜雪花來
촘촘한 체 질에 더욱 가늘며	密密篋仍細
두둥실 바람에 가버이 날리우네	浮浮風更催
하늘에는 버들개지 어지럽고	漫空柳絮亂
햇살 아래 춤추는 나비 허리 어여쁘네	舞日蝶腰倩
비가 아니지만 촉촉한 기운 만들고	非雨能成濕
구름처럼 홀연히 언덕을 이루네	如雲忽作堆
가지런히 펼쳐져 두텁고 얇음이 없고	排鋪無厚薄
천천히 내리다가 문득 회오리 치네	徐緩却旋回
하늘은 곱고 미운 모양 동시에 만들고	天造同妍惡
땅은 진펄과 굽이 따라 모습 바꾸네	地形隨隤隄
깊은 강은 사랑해 마지않고	河深肯厭愛
높은 산은 무너짐을 근심 않네	山兀不愁摧
천 칸 지붕 넓게 덮고	廣庇千間屋
구 층 누각까지 높이 솟네	高起九級臺
들은 평평하니 격자 모양 드넓고	野平規裡大

48 증장적(贈張籍) : 한유(韓愈)가 눈이 내린 풍경을 노래한 <영설증장적(詠雪贈張籍)>을 가리킨다. 《韓昌黎集 卷9》

내는 구불구불 비단 한 폭 잘라냈네	川曲幅邊裁
붉은빛은 동산의 잣나무인 듯	紅見園中柏
푸른빛은 우물 아래 이끼인 듯	青知井底苔
봄날에 매화꽃 다 지고 ⁴⁹	陽和五出盡
짝의 수 눈꽃이 피었네 ⁵⁰	陰數六稜接
침중한 자질은 돌보다 낮고	凝重質勝石
맑은 빛은 옥보다 낮네	清瑩色邁瑰
가난한 마을에 윤기가 돌고	貧村生潤澤
세상 길엔 먼지를 덮었구나	世路埋塵埃
오문의 비단 ⁵¹ 처럼 어지러이 빛나고	迷亂吳門練
두곡 ⁵² 의 눈서리처럼 가라앉아 사라지네	沒沈杜谷皚
장주처럼 만물을 평등하다 여기고 ⁵³	欲齊莊叟物

49 봄날에……지고 : 원문의 ‘오출(五出)’은 다섯 잎의 일반적인 꽃을 말하나, 여기에 서는 오각형의 매화꽃을 가리키는데, ‘매화장(梅花粧)’에서 나왔다. 한(漢)나라 무제(武帝)의 딸 수양 공주(壽陽公主)가 함장(含章)의 처마 아래에 누워 있을 때, 매화 꽃잎이 이마로 떨어져 오출의 꽃무늬가 되었는데, 손으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후인들이 이것을 흉내내어 매화꽃 모양의 화장을 하였다고 한다. 《古今事文類聚前集 卷6 梅花粧》

50 짝의……피었네 : 《주역》에서 음양의 표시를 숫자로 하는데, 9는 양수(陽數)의 극을, 6은 음수(陰數)의 극을 표시하며 9는 노양(老陽), 6은 노음(老陰)이다. 《주역(周易)》〈총론(總論)〉 그러므로 ‘육릉(六稜)’은 육각형이니, 숫자로는 음수이나, 여기에서는 눈꽃을 가리키는 말이다.

51 오문(吳門)의 비단 : 공자(孔子)가 안연(顏淵)과 함께 태산에 올랐을 때 오(吳)의 창문(閶門)을 바라보고 안연이 말하기를 “한 필의 누인 베가 보입니다.[見一匹練]”라고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그것은 흰말[白馬]이다.”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여기서 는 하얀 눈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太平御覽 卷818》

52 두곡(杜谷) : 미상이다.

53 장주(莊周)처럼……여기고 : 원문의 ‘장수(莊叟)’는 장주를 가리킨다. 모든 사물은

백이의 재물 ⁵⁴ 을 깨끗이 쌓네	乃積伯夷財
차가운 자리에 보배 놓여 따스한 듯	席寒登珍暖
높은 담장에 흙을 이고 우뚝 솟네	危牆戴土嵬
소금 호랑이의 포효가 아련히 들리고	暗聞鹽虎吼
옥룡의 우레가 가만히 울리네 ⁵⁵	潛動玉龍雷
이주 ⁵⁶ 의 눈을 빼앗을 만하고	可奪離朱目
가섭 ⁵⁷ 의 잔을 띄울 만하네	宜浮伽葉杯
울타리 둘레 난초와 향풀 돋고	繞籬蘭蕙茁
숲을 두른 살구와 배꽃 핀 듯	遍樹杏梨開
검든 희든 어떤 모양이든	黔皙寧殊樣
기울게 쌓여도 모두 두텁게 자라네	傾裁摠厚培
새벽 무렵 오락가락 내리더니	崇朝停或乍
다시 날이 돌아와 개었네	終夕晴還來

존재의 근원인 도로써 하나로 통일된다고 보는 《장자(莊子)》의 〈제물론(齊物論)〉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눈이 세상 사물을 고르게 덮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54 백이(伯夷)의 재물 :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殷)나라의 주왕(紂王)을 토벌하자 이를 반대하고 동생인 숙제(叔齊)와 더불어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다가 죽은 백이(伯夷)의 절개를 가리키는 말이다.

55 소금……울리네 : 송(宋)나라 한기(韓琦)의 시 〈임자년 11월 29일에 대설이 내리다〔壬子十一月二十九日大雪〕〉에 “큰 바위 깊숙이 덮이니 소금 호랑이 빠져 있고 늙은 가지 힘겹게 떠받치니 옥룡이 차갑네.〔危石蓋深鹽虎陷，老枝擎重玉龍寒。〕”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소금 호랑이와 옥룡은 모두 바위와 나뭇가지에 대설이 내린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

56 이주(離朱) : ‘이루(離婁)’의 별칭(別稱)인데, 중국 고대 시대에 눈이 가장 밝았다는 사람이다. 《莊子 駢拇》

57 가섭(伽葉) : 석가여래의 제자로, 석가여래가 꽃을 따서 비비면서 빙그레 웃는 것을 보고, 자기도 따라서 웃으며 선(禪)의 교리(敎理)를 밝혔다고 한다.

군자는 오직 대나무만 보고	君子唯看竹
시인은 헛되이 매화를 읊네	騷人謾詠梅
눈빛은 담담히 사라져 가나	色聲淡淡泯
온갖 사물의 모습 갖추었네	形象蔥蔥該
차가운 불처럼 빛이 옅고	火冷光猶薄
어지러운 연기처럼 기운은 잠시 맴도네	煙迷氣暫回
황제가 구획한 땅을 하나로 이어 ⁵⁸	區連黃帝畫
현명 ⁵⁹ 의 땅까지 맞닿네	封接玄冥垓
남전 ⁶⁰ 의 옥가루 부럽지만	縱妬藍田屑
가관의 재 ⁶¹ 와 다룰 수 있네	敢爭葭管灰
새의 무늬로 옛날 전자를 전하는 듯하고	鳥文傳古篆
기러기 무리는 언덕의 우두머리를 잃었네	雁陣喪阿魁
퍼붓어 쏟아지는 거센 눈에 놀라니	勢大驚凌壓

58 황제(黃帝)가……이어 : 황제가 들판에 구획을 지어 주(州)로 나눈 것을 가리킨다. “옛날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들어 통하지 못하는 곳을 다니게 하였고,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사방 만 리로 기준을 정하여 들을 그어 주를 나누니 백 리의 나라가 1만 구(區)였다.〔昔在黃帝，作舟車，以濟不通，旁行天下，方制萬里，畫壘分州，得百里之國萬區。〕”라고 하였다. 《前漢書 卷28 地理志》

59 현명(玄冥) : 북방(北方)의 신으로, 동신(冬神)을 말한다. 《예기(禮記)》〈월령(月令)〉에 “맹동(孟冬), 중동(仲冬), 계동(季冬)의 달은 그 제(帝)는 전옥(顓頊)이고, 그 신(神)은 현명이다.”라고 하였다.

60 남전(藍田) : 중국 섬서성 남전현(藍田縣)을 가리키는 말인데, 고급 옥(玉)의 산지이다. 옛날 옹백(雍伯)은 그 땅에다 옥을 심어서 가을에 많이 수확하였다고 한다.

61 가관(葭管)의 재 : 갈대 속에 든 옅은 막(膜)을 태워서 만든 재를 악기(樂器)의 율관(律管) 속에 넣어 기후를 점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재가 멀리까지 날아가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든다는 말과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성긴 뿌리는 쓰러질까 경계하네	根疎戒仆顛
어둡고 탁한 기운 맑게 하고	瘴嵐澄暗昧
계곡 폭포의 요란한 소리도 틀어막네	溪瀑塞喧歷
장대가 내리꽃히듯 은빛 줄기 현란하고	竿豎銀莖幻
비녀를 매단 듯 구슬을 잉태하네	筓懸玉子胎
-원문 빠짐- 보니 주살을 일찍 맞고	看□矰弋早
한낮에 창문을 닫아거네	當午牕扉推
까마귀와 까치는 무엇을 찾아 먹을까	烏鵲食何覓
봉황은 굶주려도 슬퍼하지 않네	鳳凰飢不哀
풍년의 복을 자랑하니	爲矜登歲福
평원 태우는 재앙이 두려우라	寧恍燎原災
어린 딸은 가마 타는 일 익숙하고	稚女慣行攢
늙은 아내는 술 따르는 일 알았네	老妻解酌壺
섬계 포구에 샷대 젓지 않았는데 ⁶²	未搖剡浦棹
양원 ⁶³ 의 시 누가 지을까	誰賦梁園才
밤 학은 깃털 남기기를 잊고	夜鶴忘遺羽
봄 물고기는 아가미 마를까 염려하네 ⁶⁴	春魚念曝鰓

62 섬계(剡溪)……않았는데 : 친구의 방문을 뜻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가 폭설이 내린 밤에 술을 마시며 좌사(左思)의 초은(招隱) 시를 읊다가 갑자기 섬계에 있는 친구 대규(戴逵)가 생각이 나서 밤새 배를 저어 그 집을 찾아갔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世說新語 任誕》

63 양원(梁園) : 서한(西漢)의 양(梁)나라 효왕(孝王)이 조성한 매우 크고 호사스러운 원림(園林)이다. 양나라 효왕이 당대의 문사인 사마상여(司馬相如)·매승(枚乘)·추양(鄒陽) 등과 함께 주연(酒筵)을 베풀고 놀다가, 눈이 오자 흥에 겨워 시를 주고받았던 고사가 유명하다. 《史記 卷58 梁孝王世家》

64 봄 물고기는……염려하네 : 폭새용문(曝鰓龍門)의 고사이다. 즉 물고기가 용문에

근년에 드문 일이거늘	比年所罕也
이제야 뜻을 이루었네	今猶遂初哉
그림 그려 기교를 뽐내나니	繪畫方施巧
단단한 얼음을 어찌 쓰라	冰堅豈作媒
구슬 토하니 찬란함을 보고	吐珠見爛爛
칼을 들고 넓음을 알았네 ⁶⁵	提刀覺恢恢
늑은이의 부질없는 시 부끄러우니	謾愧詩篇老
말 배우는 아이에겐 전하지 말라	莫傳學語孩

오르면 용이 되지만, 용문에 오르지 못하면 아가미와 비늘이 용문 아래에서 말라 가니, 죽기를 각오하고 수행해야 함을 말한다. 여기서의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정확하지 않다.

65 칼을……알았네 : 원문의 '회회(恢恢)'는 칼날을 놀리는 능숙한 솜씨를 이르는 말로 포정(庖丁)의 고사에서 온 말이다. 《莊子 養生》

모암서원⁶⁶ 현판을 요청하는 소장

慕巖書院請額疏

신들이 조용히 생각하건대, 성조(聖朝)에서 학문을 우대하여 치도로 삼고 어진 이를 높여 덕을 숭상함이 옛날과 차이가 없습니다. 가까운 한양과 먼 지방까지 사원(祠院)을 설립하여 현판을 하사하였는데, 게다가 근래에는 문묘의 종사를 바르게 다스려 배향할 인물과 쫓아낼 인물을 적절하게 조정하였으니 이른바 옛날에 할 겨를이 없던 것을 지금 비로소 완전히 거행하였다는 말에 해당합니다.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눈을 부비고 우리러 바라보는데, 유독 고려의 절효공(節孝公) 서릉(徐稜)⁶⁷의 사원은 아직도 현판을 하사받지 못하였습니다.

66 모암서원(慕巖書院)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에 있었던 서원이다. 1590년(선조23)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서릉(徐稜)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48년(인조26)에 중건하였으며, 1667년(현종8)에 조영규(趙英圭)·조정로(趙廷老), 1698년(숙종24)에 최학령(崔鶴齡), 1758년(영조34)에 정운룡(鄭雲龍)·김우급(金友偈), 1788년(정조12)에 박수량(朴守良)을 추가 배향하였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5)에 훼철된 뒤 복원하지 못하였다.

67 서릉(徐稜) : 고려 고종 시기의 인물로, 전라도 장성현(長城縣) 출신이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벼슬을 그만두었으며, 그의 행실이 《삼강행실도》에 실려 있다.

비록 신들에게 건의하고 요청하지 못한 죄가 있지만 실상 또한 국가의 성대한 의전(儀典) 가운데 한 가지 흠이라 하겠습니다. 신들이 지금 추위를 무릅쓰고 험하고 먼 길을 걸어와서 피를 토하며 호소하오니,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이에 유의하시어 자세히 살펴 주십시오.

신들이 삼가 살펴보건대, 서릉의 자는 대방(大方)으로 장성현 출신입니다. 고려 안효왕(安孝王) 시절에 출사하여 지위가 시중(侍中)에 이르렀는데, 본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서릉의 학문과 도덕을 현재 자세히 고증할 수 없기에 청컨대 역사책에 실려 선현들이 존경하여 믿는 바 그의 실제 행실을 아뢰겠습니다. 대개 서릉이 관직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한 지 오래된 어느 날 어머니께서 목에 종기가 났는데 의원이 “산 개구리를 잡아 약에 집어넣어야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는 날이 얼어붙을 만큼 추워 산 개구리를 잡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서릉이 이에 의원에게 요청하기를 “개구리를 잡지 못하면 병이 장차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고 곧 크게 소리 내어 울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말하기를 “개구리를 잡아 약에 넣지 못하면 곧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서릉이 나무 아래에서 약을 달이면서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 나무 위에서 술 안으로 떨어졌으니, 바로 산 개구리였습니다. 의원이 놀라면서 “그대의 진실한 효도가 하늘을 감동시켜서 개구리를 얻었으니, 병이 낫는 것을 어찌 의심하리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약을 쓰니 곧바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 일은 《고려사》와 《삼강행실도》에 실려 있습니다.

서릉은 또한 일찍이 <거가십훈(居家十訓)>을 저술하였는데, 첫 번

째는 강상(綱常)을 붙들어 세울 것, 두 번째는 오륜을 두텁게 펼칠 것, 세 번째는 너그럽게 아랫사람을 대할 것, 네 번째는 예로써윗사람을 섬길 것, 다섯 번째는 상을 당하면 대단히 애통해할 것, 여섯 번째는 제사를 지낼 때 매우 공경할 것, 일곱 번째는 마음가짐을 공변되게 할 것, 여덟 번째는 의리로써 일을 처리할 것, 아홉 번째는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칠 것, 열 번째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것 등입니다. 이것은 집안의 기록에서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외워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정신(先正臣) 박순(朴淳)이 비문을 지으면서 그가 하늘을 감동시킨 일을 대단히 칭송하였고, 또한 십훈을 <여씨향약>의 우익(羽翼)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가 올바르게 학문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편 그가 살았던 옛 집의 서쪽에 대단히 맑고 경치가 좋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골짜기에는 용추(龍湫)가 있었고 그 용추 옆에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바위에는 큰 글자로 ‘모암(慕巖)’이라고 깊이 새겨져 있었으며, 그 아래에 이를 설명하여 “오십이 되어도 부모님을 존모하는 의미⁶⁸를 취하였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글씨는 언제 누가 만든 것인지 모릅니다. 대개 이 골짜기는 서릉이 오가면서 노닐며 시를 읊조리던 곳이었습니 다. 그러므로 후학들이 그의 효성과 덕, 풍모와 위의를 존모하여 새겼는데, 오십이 되어도 부모님을 존모하는 것처럼 그를 존모한다는 의미를 담았으니, 서릉의 덕행은 당대로부터 후세까지 사람들이 존모하여 우러러보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만력 경인년

68 오십이……의미 : 《맹자》〈만장(萬章)〉편에 보인다. 즉 “큰 효도는 죽을 때까지 부모를 사모하나니, 오십이 되어서도 사모한 자를 나는 대순에게서 보았노라.[大孝，終身慕父母，五十而慕者，予於大舜，見之矣.]”라고 하였다.

(1590, 선조23)에 그를 위해 그곳에 사원을 세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을 만났으니 오랜 기간 동안 사원은 황폐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기축년(1649, 인조27)에 마을 사람들이 옛터에 사원을 중건하니, 대개 이 사원은 실로 겹치레로 지어져 등한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후에 군수 고(故) 조영규(趙英圭)⁶⁹와 그의 아들 조정로(趙廷老)를 배향하였는데, 조영규는 우리 선조 연간의 무신입니다. 그 또한 장성현 출신으로 본성이 대단히 효성스러워 부모님을 모시는 데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무관으로 출세하였으나 그의 마음가짐이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이름난 유자(儒者)들도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모두 일곱 차례 고을을 다스렸는데 그때마다 치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변방 고을로 가게 되었는데 법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 편지를 묶어 어머니가 계시던 곳을 오가게 하였으니,⁷⁰ 사람들은 이 또한 효성이 짐승을 감화시켰다고 칭송하였습니다.

69 조영규(趙英圭) : ?~1592. 본관은 직산(稷山)으로 자는 옥침(玉瞻)이며 장성 출신이다. 무과를 거쳐 환로에 나아가 용천 부사를 역임하고 양산 군수가 되었다. 양산 군수로 재임 중이던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의 선봉이 부산·동래성을 공격하자 경상우병사 이각(李荇)은 군사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조영규는 동래 부사 송상현(宋象賢)을 찾아가 생사를 같이하기로 기약하였다. 1669년(현종 10) 송준길(宋浚吉)의 상계로 조영규의 효행과 충절이 알려져 호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동래의 안락서원(安樂書院), 양산의 충렬사(忠烈祠), 장성의 모암서원(慕巖書院)에 배향되었다.

70 기르던……하였으니 : 진(晉)나라 육기(陸機)가 아끼던 황이(黃耳)라는 개가 있었다. 황이는 총명하여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었으므로 육기가 편지를 넣은 죽통(竹筒)을 그 개의 목에 걸어서 낙양(洛陽)과 오지(吳地)의 몇천 리 길을 오가며 소식을 전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진서(晉書)》〈육기열전(陸機列傳)〉에 보인다.

임진년(1592, 선조25)에 그가 양산(梁山) 수령이 되었을 때 왜구가 세상에 가득하자, 말을 내달려 동래로 가서 부사 송상현(宋象賢)과 함께 성을 지키자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와 어머니와 이별한 뒤에 아들 정로에게 집으로 돌아가 난리를 피하라고 부탁하고 다시 말을 달려 동래로 돌아오니 성은 포위되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영규는 앞장서서 나아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포위망에 돌진하여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이 함락할 즈음에 송상현과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조정로는 장성으로 돌아가 왜병을 피할 만한 장소를 골라 할머니를 숨겨 두고 나와 동래부의 상황을 염탐하였는데, 성은 함락된 지 이미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조정로는 죽을 각오로 적진으로 뛰어들었는데, 적은 이미 그곳에서 철수하여 옮겨 간 뒤였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혼을 부른 뒤에 돌아와 피눈물을 흘리면서 상(喪)을 지켰습니다. 이윽고 대상(大祥)과 담제(禫祭)를 치른 뒤,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지 못하였기에 하늘의 태양을 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토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 거처하였습니다. 심상(心喪)을 하기로 결정하고 죽만 먹으니 검어진 얼굴로 잠시도 복수의 의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토굴에서 나오지 않고 생을 마치니, 이것이 조영규 부자의 대략적인 사실로, 오래전의 일이 아니라 고을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이 선대왕(효종)에게 아뢰어 조정에서 비로소 정려(旌閭)⁷¹하였으며, 지금 봉조하인 송시열이 또한 부자의 사적을

71 정려(旌閭) : 국가에서 미풍양속을 장려하기 위해 효자·충신·열녀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을 가리킨다.

〈동래비명〉⁷²에 기록하였으니, 두 신하가 이 사원에 배향됨은 또한 숭상할 만한 일입니다.

아! 효도와 충성은 인류의 큰 도리인데, 서릉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은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으며, 조영규 부자의 충성과 효도 또한 세상에 드문 일입니다. 서릉과 두 신하는 시대가 비록 다르지만 같은 고을 출신이며 또한 그 때문에 같은 사원에서 배향하고 있는데, 도체(道體)를 온전히 한 것과 한 가지만 뛰어난 것⁷³은 자체적으로 가치가 높고 낮은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모두 백대를 감동, 흥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원은 마땅히 영원토록 폐추(廢墜)되지 않아 후세의 모범으로 삼아야 하거늘 아직도 현판이 없어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 세대가 멀리 흘러가 사원이 무너져 내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국가에서 백성을 흥기, 진작시키며 권면하고 경계하는 방법에 흠결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확신하겠습니까.

신들이 개탄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주체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당돌하게 소장을 올리오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예조에 명령을 내려 그에 합당한 의식을 고찰하게 하며 훌륭한 생각을 환하게 드러내어 특별히 아름다운 현액을 하사하신다면 사문(斯文)은 매우 다행할 것이며 신들도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신들은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니다.

72 동래비명 : 정확한 이름은 동래남문비(東萊南門碑)로, 그 비문은 《송자대전》 171권에 실려 있다.

73 도체(道體)를……것 : 도체를 온전히 한 것은 서릉을 가리키고, 한 가지만 뛰어난 것은 조영규와 조정로를 가리킨다.

우암 송 선생을 신구하는 소장

伸救尤庵宋先生疏

삼가 아웁니다. 현재 송시열(宋時烈)을 죽이라고 요청하는 자는 과연 무슨 마음입니까. 마음이 아픈 자는 느긋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하니 신들은 짐짓 지루하고 한가한 말로 전하의 귀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말이 공변된 자는 말하려는 의도를 전달할 뿐이라고 하니 신들은 먼저 송시열의 사람됨을 말하여 그를 죽일 만한 죄가 없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비록 그러나 어떤 사람의 선이나 악을 말하려는 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실제로 행한 사실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그 사람의 대단히 좋은 선(善)이나 매우 나쁜 악(惡)을 낱날이 거론하여 그 실상을 감추려고 꾸민다면 그 말이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도리어 듣는 사람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청컨대 일단 송시열의 학문의 조예와 충성의 독실함은 차치하고,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알아서 속일 수 없는 그의 출처의 대강과 마음 씩씩이의 요점을 전하에게 아뢰어 그의 예론에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멀리 떨어진 시골의 어리석은 이들의 논의라고 여겨 버리지 마십시오.

신들이 조용히 생각하건대, 송시열은 자질이 순수하고 진실하며 문예는 일찍 성취하였습니다. 사마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명성이 널리 퍼졌으니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은 그의 분수 안의 일입니다. 그러나 책을 읽고 배움을 찾으며 망녕되이 교제하지 않았으며, 병자년(丙子年)과 정묘년(丁卯年) 이후로는 다만 존주(尊周)의 의리

를 지켜 명리(名利)를 멀리하고 산에 들어갔으니, 구차하지 않은 그의 뜻은 애초부터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효종대왕(孝宗大王)께서 “그가 큰 뜻에 응할 것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하시고, 이에 손수 쓴 편지를 내렸으며 예를 갖추어 조정으로 불렀습니다. 높은 자리에 임명하고 원대한 계책을 물으시니, 군신 간의 가부(可否)가 일치하여 의기투합이 날로 두터워졌습니다. 이에 아주 짧은 의견이라도 송시열의 말을 들어 주었으니, 임금과 신하 사이에 서로 제대로 만난 모범은 삼대(三代) 이후에 처음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큰 재앙을 내려 효종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우리 현종(顯宗)에 이르러서는 물고기와 물이 만난 것처럼 기뻐하였는데, 불행하게도 효종의 삼년상을 치르던 초기부터 이미 유언비어로 비방하였으니 송시열이 조정에서 물러나 귀향한 것은 참으로 어쩔 수 없어서였습니다. 선왕의 예우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지만 송시열이 은혜로운 명령을 받기만 하면 곧바로 비방이 일어났으며 간혹 윤리도 없고 무도(無道)하다는 터무니없는 말까지 그에게 보태졌으니, 송시열이 앞선 조정에서 편안할 수 없었던 것은 선왕의 본심도 아니며 송시열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이 송시열의 출처의 대강입니다.

그의 마음 씀씀이로 말해 보겠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당색은 우리 조정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송시열의 학문은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에게서 나왔는데, 동인과 서인의 당색을 없애려고 했던 것은 이이가 평생 바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시열 또한 이것을 염두에 두었으니, 그가 정권을 잡게 되자 한결같이 공도(公道)를 따라 동서 당색에 대한 말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일찍이 정당(政堂)에서 색목에 대해 언급하는 낭관(郎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당시 윤휴(尹鑄)⁷⁴는 이름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송시열은 그가 과거 공부를 버리고 책을 읽으며 등용할 만큼 총명하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추천하여 지평(持平)을 삼았는데, 윤휴가 《중용》의 주를 고치며 주자를 깔보고 업신여기자 송시열은 곧바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가 학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천거하여 재주를 시험하였으며, 그가 성현을 업신여긴 것을 보고는 배척하여 끊어 버렸으니, 이에 송시열의 공변된 마음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응시(李應蓍)⁷⁵와 허목(許穆) 등 10여 명은 모두 남인인데 상당히 어질고 훌륭하다는 명성이 있었기에 동시에 등급을 뛰어넘어 승진시켰습니다. 그 후에 비록 그들을 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송시열의 마음속에 서인과 남인의 당색이란 글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자년(1660, 현종 원년)에 권시(權諤)가 소장을 올려 송시열이 예를 논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배척하고 윤선도(尹善道)가 죄가 없다고 힘써 구원하자, 송시열은 사람의 논의에는 각각 자신의 견해가 있다고 여겼기에 끝내 그를 탓하지 않았으며 도의(道義)로서 교유함을 온전히 지

74 윤휴(尹鑄) : 1617~1680. 자는 희중(希仲), 호는 백호(白湖) 또는 하헌(夏軒)이다. 초명은 정(鎭)이었으나 25세 때 휴로 고쳤다. 《중용(中庸)》의 재해석은 윤휴가 송시열(宋時烈) 등 노론계로부터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리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데, 주자가 33장으로 전체 편차를 구성했던 것과 달리 그는 10장 28절로 체제를 나누고, 그 내용도 《효경(孝經)》과 관련하여 이해했던 것이다. 예송(禮訟) 때 남인으로 활동하며 송시열 등 서인계와 맞섰으며, 숙종 즉위 후부터 경신대출척 때까지 많은 개혁안을 제기하고 실행하려 했다. 서인계로부터 사문난적으로 규탄받고 끝내 처형당했다.

75 이응시(李應蓍) : 1594~1660. 자는 군서(君瑞), 호는 취죽(翠竹) 또는 죽창(竹窓)이다. 1633년(인조11)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성품이 강직하고 생활이 검소하며 관직에 충실하여 사람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과 논의할 때 권시에 대해 언급하면 항상 그의 조예를 칭송하였으니 평소 송시열의 마음가짐은 결단코 이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시열의 마음 씬씀이의 대강입니다.

아!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에 그 사람의 출처(出處)를 차치한다면 그보다 더 정확하게 살펴볼 것이 없거니와, 더구나 마음 씬씀이는 그 출처의 본원이 됩니다. 송시열의 출처로 말해 본다면, 송시열은 효종의 은혜로운 지우를 받았으니 충심으로 감격하여 받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면 쉬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송시열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 씬씀이로 말해 본다면, 사람들이 송시열에 대해 무고할 때 저들의 말이 반드시 그렇다고 믿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면 저들의 말이 그렇지 않다고 살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에 대해 논의한 한 가지 사항은 현재 나라의 으뜸가는 금기이므로 신들이 망녕되이 말씀을 올리지 않겠지만, 송시열이 효종을 폄하하였다고 말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설령 효종의 지우가 이와 같지 않고 송시열의 심술이 저와 같지 않더라도, 참으로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지녔다면 이미 돌아가신 임금에 대해 예를 어기며 뒤미처 폄하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효종은 송시열에 대해 부자간처럼 은혜를 베풀었고 자신을 알아주는 벗처럼 살갑게 대했으며, 송시열은 효종을 섬길 때 칠십 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한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며 복종하였으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약 송시열이 군자라면 마땅히 군신 간에 뜻이 서로 일치한 은혜에 감격하여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요, 만약 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작록(爵祿)의 이익을 그리워하여 반드시 그 후예와 굳게 체결하

려 할 것인데, 어찌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갈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공연하게 마음으로 복종했던 임금에게 원망을 드러내고 감히 뒤미처 폄하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천리와 인정으로 따져 보면 반드시 없는 이치인데, 송시열이 이렇게 하였다고 말한단 말입니까. 또한 사람은 모두 자신을 아끼나니, 송시열은 평생토록 지킨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루아침에 자신이 지킨 것을 무너뜨리고 공공연하게 임금을 폄하하여 스스로 죽을죄에 빠지겠습니까.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자라도 결단코 이런 일은 하지 않거늘, 송시열이 이렇게 하였다고 말한단 말입니까. 만약 병에 시달리다가 정신을 잃어버려서 망녕되이 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송시열이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그가 이런 일을 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송시열의 마음을 뒤미처 논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 장사 지내야 한다.”⁷⁶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집전》에서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모두 불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송시열은 예를 논할 당시에 그는 마음속으로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을 갖춘 선왕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흠족하지 않은 예에 대하여 불안하게 여길 것이니, 지금 예를 논할 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예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이후에 바야흐로 공자가 말한 예로써 한다는 교훈⁷⁷을 다할 수

76 살아……한다 : 《논어》〈위정(爲政)〉 편에 보이는 말로, 번지(樊遲)가 효에 대해 물을 때 공자가 답한 말이다.

77 공자가……교훈 : 앞에 보이는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 장사 지냈다.〔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라는 말을 가리킨다.

있다. 그러므로 밝히기 어려운 고례(古禮)는 일단 제쳐 두고 이미 행하였던 지금의 제도를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시열이 효종을 폄하하였다고 의심하니, 그것은 애초부터 송시열이 생각한 바가 아닙니다. 송시열의 본심은 다만 이처럼 분명하게 다른 의도가 없는데, 반드시 이처럼 전혀 실정이 아닌 말로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니 대단히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설령 송시열의 견해가 참으로 그 예를 잃었다고 한들 그 죄는 예를 자세히 고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고금(古今)의 천하에 어찌 예를 자세히 고증하지 못하였다고 귀양 보내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보통 사람도 오히려 죽일 수 없거늘 더구나 송시열은 선대 효종께서 예우하신 대신(大臣)인데 예에 어둡다고 하여 사형을 내린다면, 신은 천하 후대에 전하를 어떤 군주로 여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현재 송시열을 죽이자고 요청하는 자는 과연 무슨 마음입니까. 송시열이 출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높은 자리를 요구한다고 하며, 송시열이 올바른 것을 보면 손가락질하며 한 당파에 치우쳤다고 합니다. 끝내는 ‘군주를 폄하하였다(貶君)’는 두 글자로 결론을 내려 반드시 죽이려고 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해와 달처럼 밝으신 전하께서 어두운 곳도 환하게 밝혀 주심을 힘입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또다시 전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종묘에 고하기를 남몰래 요청하면서 이에 “죄인을 토벌하는 형전(刑典)을 다시 의논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대단히 음흉한 간계가 아니겠습니까. 조정의 전례(典禮)를 비록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반역자를 토벌하는 것과 일죄(一罪)⁷⁸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는 종묘에 고하는 행위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로 종묘에

고하는 것은 장차 무슨 일을 고하려는 의도입니까. 게다가 “죄인을 토벌하는 형전(刑典)을 다시 의논할 수 없다.”라고 하다니요. 이미 “다시 의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종묘에 송시열을 고하였으니 이것은 전하를 속이는 것이요, 이미 “종묘에 고한다.”라고 하면서 송시열이라 분명히 고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종묘를 속이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겠습니 다만, 사헌부에서 올린 계사(啓辭)의 의도는 장차 누구를 속이려는 것입니까. 저들은 감히 전하께서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여 짐짓 ‘다시 의논할 수 없다.’라는 말로 먼저 전하를 속여 비지(批旨)를 얻은 뒤에 종묘에 고하였으니, 이는 전하에게 죽이지 않을 수 없다는 의도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른 데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뒤에 살펴서 충분히 죽일 만한 이유를 본 뒤에 죽여야 한다.”⁷⁹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죽여야 할 사람은 전하의 좌우에서 전하를 속이는 자들 약간 명”이라고 하니, 참으로 나라 사람들의 요청이 있지도 않았으며, 설령 나라 사람들이 모두 요청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본다면 어디에서 죽일 만한

78 일죄(一罪) : 조선 시대에는 죄를 크게 일죄, 이죄(二罪)의 둘로 구분하였다. 일죄는 매우 중한 형벌 즉 사형(死刑)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속대전》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거나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경우에 일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죄, 이죄의 구분은 대개 국가에서 사면(敍免)을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었다. 조선 시대에 사면은 중국의 조칙(詔勅)을 받아 시행되거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반(謀反) 사건을 진압했을 때, 나라에 재해가 있을 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시행되었다. 때에 따라서 일죄 이하 혹은 이죄 이하의 죄수를 사면하였는데 이죄 이하의 죄수에 대한 사면은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사형수에 대한 사면은 드물었다. 《조운선, 조선시대 사면(敍免), 소결(疏決)의 운영과 법제적, 정치적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38, 조선시대사학회, 2006》

79 나라……한다 : 《맹자》〈양혜왕 하(梁惠王下)〉에 보이는 말이다.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죽일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면 이른바 ‘어찌 구실이 없는 것을 걱정하라.’⁸⁰라는 경우에 해당하니, 유독 만대의 공론을 염려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 말을 한 자가 자신의 몸과 명예를 돌보지 않음이 심합니다.

신들이 비록 모두 먼 시골의 천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옛날 책은 읽었습니다. 《서경》에서 “하늘이 백성을 내리면서 임금을 정해 주고 스승을 정해 주었다.”⁸¹라고 하였으니, 하늘이 임금과 스승을 정해 주니 스승은 임금 다음의 존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신들이 모두 송시열의 문생이라고 하여도 만약 송시열이 참으로 그런 죄를 지었다면 결단코 임금을 속이면서까지 스승을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신들은 송시열에 대해 그가 유종(儒宗)이라 여겨 존모할 뿐이지, 일찍이 그에게 학문을 배운 적이 없으니 그 의리의 경중으로 따져 볼 때 어찌 감히 돌아가신 뒤에도 잊지 못하는 성덕을 지닌 효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효종이 참으로 송시열의 무고를 받았고 송시열이 참으로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도, 더위를 무릅쓰고 먼 길을 가서 장황하게 말을 하면서 효종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감히 송시열을 위해 변론한다면 신들은 참으로 짐승이며 오랑캐나 마찬가지로이니 반역한 백성을 다스리는 법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효종의 영혼은 분명 환하게 살펴볼 것인데,

80 어찌……걱정하라 : 《춘추》 회공 10년 기사에 보이는 말로, 기정익은 고사의 의미가 아닌 다만 말의 내용만을 인용하였다.

81 하늘이……주었다 : 《서경》〈태서(泰誓)〉에 “하늘이 아래 백성들을 도와서 임금과 스승을 만들어 주었다.〔天佑下民，作之君，作之師。〕”라고 하였다. 이 구절은 《서경》을 약간 다르게 인용한 《맹자》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와 달처럼 밝은 전하께서는 오히려 가려진 바가 있으니 그러므로 신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들의 이치에 맞지 않고 주제념음을 용서하시고 신들의 성심을 살피셔서 전하의 결단을 봄날 봄물처럼 막힘없이 펼쳐 주십시오. 이에 송시열을 죽이기를 요청한 소장을 빨리 물리치시고 죽을 지경에 빠진 목숨을 특별히 방면하여 사방으로 하여금 대성인(大聖人)의 행위가 대단히 뛰어난 것을 알게 한다면 어찌 다만 신들만 다행으로 여기는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끝없이 전해지는 국가의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신들은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건달 수가 없으니,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서 書

도백에게 올리는 편지

上道伯書

삼가 아웁니다. 저희 백성들이 듣건대, 이전에 유생들이 향교를 옮기
자고 요청하였는데 풍수에 대한 미혹이 없지 않아 조정에서 금지하
고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의도가 지극하니, 오늘 저희들이
또한 어찌 조정의 의도를 어기면서 주제님도록 번거롭게 요청하겠습
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본 고을의 성묘(聖廟)는 오랫동안 자리
잡을 터를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목전의 건물이 기울어 가는 근심
거리는 실로 구차하게 미룰 상황이 아니며 현재 옮기자고 요청하는
행위는 원래부터 풍수에 대한 미혹됨이 없으니, 저희가 어찌 학문을
숭상하는 합하(閣下)에게 아뢰지 않겠습니까.

대개 우리 고을 향교가 옛터를 버리고 새 지역으로 옮기려는 것은
난리 이후에 현(縣)을 합한 때⁸²에 제기되었는데, 전쟁의 참화를 겪은
뒤라 모든 일처리가 거칠어서 터를 고를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에 일단

82 현(縣)을 합한 때 : 1600년(선조33)에는 장성과 진원을 합병하여 관청을 영천으로 옮겼다.

한 지역 산골을 선택하였는데 지세가 매우 좁아 겨우 재우(齋宇)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차하게 그대로 사용하면서 여러 해를 보냈는데, 경자년(1660년, 현종 원년)에 이르러 우리 고을이 승호(陞號)⁸³되어 십철(十哲)⁸⁴을 추가하여 받들게 되었으니 제식(祭式)을 변경한 뒤 성묘(聖廟)를 확대하려 하였는데 대지가 좁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비로소 조정에 요청하여 성안으로 옮겨 건립하려 하였는데, 성안의 지역에는 마땅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약간 넓은 지역을 선택하였는데 또한 정밀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논을 골라서 낮은 곳을 메우고 돌을 쌓으니 공력이 대단히 소비되었습니다. 이에 묘우(廟宇)를 안치하긴 했는데, 다만 사람들이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만 고려하였고 물과 토질로 인한 재앙은 헤아리지 못하였으니, 우리 고을 향교의 선비들이 풍수설에 대해 미혹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리(事理)에 우월한 죄는 모면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 2~3년 동안 여러 번 큰 홍수를 겪게 되자, 땅 속의 수맥(水脈)이 향교 옆으로 지나가게 되어 토양이 꺼지고 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묘궁(廟宮)의 땅바닥이 날로 조금씩 꺼져 들어가서 주춧돌이 위태롭고 기둥이 기울었으니 더 이상 지탱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옮기는 것을 도모하지 못하고 다만 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술년(1670, 현종11)부터 갑인년(1674)까지 5년 동안

83 승호(陞號) : 고을의 호칭을 승격시킨다는 의미이다. 1655년(효종6)에 장성현이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84 십철(十哲) : 공자의 제자 가운데 특히 뛰어난 열 사람을 가리킨다. 안연, 민자건, 염백우, 증궁, 재야, 자공, 자로, 자유, 자하, 염유 등이다.

두어 번 보수하였으니, 향과 축문에 쓸 종이를 내려 달라는 요청은 이미 대단히 더러운 행위이며 경건하게 신령을 모시는 의식은 또한 공경과 조심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습에 얽매어 구차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어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매번 풍수에 대한 혐의가 장소를 선택하려는 계책을 물리쳐 버리니, 그 또한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무너지는 형세가 더욱 심합니다. 전우(殿宇)는 서쪽으로 기울었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으며 지도리와 문지방, 모탕과 문설주 등은 모두 있을 곳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에 세월이 오래 흐를수록 더욱 무너지게 되어 변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잠깐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중수한 것으로는 무너짐을 막을 수 없고 또한 다시 짓는다고 해서 견고하지도 않을 것이니, 현재 최선의 계책은 다른 장소로 옮겨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채고 따지면서 입을 닫고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일반 가정에서 필부의 장례도 오히려 장소를 선택하거늘, 대성인의 영혼을 모셔 공경히 받드는 곳을 도리어 대단히 편안한 길지를 잡지 못하고 완전히 습기에 젖어 극도로 나쁜 땅에 구차히 모시려고 합니까. 만일 풍수에 대해 미혹되었다고 여겨 공경과 조심하는 정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저희들의 죄는 간사한 술법에 미혹된 것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고을 안의 모든 지역에서 찾는다면 어찌 성묘(聖廟)를 안치할 만한 곳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매우 안전하며 오랫동안 유지될 만한 지역이 없겠습니까.

이에 논의를 모아 합쳐 올려서 땅을 선택하여 장소를 옮겨 건물을 세우자는 의견을 아뢰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합하께서는 몸소 봉심(奉

審)⁸⁵하여 감히 속이지 않는 저희들의 뜻을 살펴보시고, 보사(報使)⁸⁶가 조정에 아뢰어 마땅히 장소를 옮겨 건물을 세울 기초로 삼는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85 봉심(奉審) : 임금의 명을 받들어 능이나 종묘를 보살피는 일을 이른다.

86 보사(報使) :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에 보고하기 위해 보내는 사자를 이른다.

홍 부사⁸⁷ 석귀에게 주다

與洪府使 錫龜

제가 지난 9월 초부터 감기로 앓아누워 자못 인사불성의 상태로 있을 때 하사하신 《참동계(參同契)》⁸⁸가 도착하였습니다. 두어 달 동안 병이 낫지 않아 책을 열람하지 못하다가 이번 달부터 조금 병이 나은 뒤로 비로소 책을 펼쳐 읽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략 그 실마리는 탐구하였지만 아직도 그 자세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주자도 뜻을 알기 어렵다는 탄식을 하였습니다.⁸⁹ 《참동계》에서 또한 “천번 만번을 읽어야 신명함을 볼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있는

87 홍 부사(洪府使) : 홍석귀(洪錫龜, 1621~1679)로, 자는 국보(國寶), 호는 동호(東湖) 또는 구곡산인(九曲山人) 또는 지리재(支離齋)이다. 1645년(인조23) 생원이 되고, 1650년(효종1)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해주 목사가 되고 이어 정평 부사, 경서교정관(經書校正官)을 거쳐 1672년(현종13)부터 평산 부사를 역임하였다. 독서에 힘써 천문학에 정통하여 나무로 혼천의(渾天儀)를 만들어 성관(星官)들의 연구에 표본이 되게 하였다.

88 참동계(參同契) : 총 3권으로 후한(後漢) 때 위백양이 지었다. 연단, 도교의 신선사상, 《주역》의 3자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참동계’라고 부르게 되었다. 《참동계》는 내용이 매우 어렵고 심오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분분하다. 사람은 정·기(精氣)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정과 기는 바로 음·양이다. 연단은 음양을 잘 조제해 정기를 충실하게 유통시킴으로써 사람의 건강과 장수를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교의 내단에서는 각각의 생리에 따른 음양운동의 변화 법칙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욕(嗜欲)을 버리고 오로지 허정(虛靜)한 마음을 지님으로써 원기를 단전(丹田)에 간직하도록 해야 한다. “신운정기(神運精氣)로 결합할 때 단(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는 후세의 기공(氣功)과 유사하다. 《참동계》에서는 내적인 수련 외에도 광물을 연소시켜서 만든 금단을 복용하면 인체를 보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89 주자도……하였습니다 : 주자는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를 지으면서 서문에서 《참동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데, 어리석은 저에게 하문(下問)하여 어찌 급하게 은밀한 비밀의 답을 구하려 합니까.

그러나 이미 가르쳐 타이르시고 학문을 권면하는 지도를 받았으며 또한 책까지 받으니 옆으로 밀쳐 두고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자의 해석은 개략적이면서도 내용을 빠트리지 않았는데 비록 주자가 자신이 관심을 기울인 핵심적인 내용은 이해하였지만 ‘공혈(孔穴)과 작료(作料)’⁹⁰에 대해서는 끝내 의심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질문에 조금도 대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차분히 기억해 보니, 지난번 저와 만났을 때 “이 간의가 이 법을 시험하고자 하여 편지를 주고받으며 알기 어려운 곳을 물어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잘 알지 못하겠습시다만, 그가 해석한 공혈법은 과연 어떻습니까. 특별한 혐의가 없다면 제가 그 편지를 보고 저의 견해를 증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자가 말한 ‘책수(策數)’⁹¹는 지금 상고하여 찾아낼 수 없는데,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본떠서 탐구할 수 없습니다. 주자는 또한 “위백양(魏伯陽)⁹²이 말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였

90 공혈(孔穴)과 작료(作料) : 공혈은 음양의 법칙을 따라 신체의 기운을 단전에 간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작료는 단약을 만드는 법을 가리키는 듯하다.

91 책수(策數) : 이익의 《성호사설》〈경사문〉에 “주천(周天)을 균평하게 나누면 각각 1백 28도가 되고, 해가 뜨고 질 때의 어슴푸레한 때와 어두운 아침이 각각 18도로서 모두 36도인데, 낮해(晝景)를 보태면 도합 2백 16이 되고, 밤 시각을 감하면 나머지 1백 44가 되니, 곧 건(乾)과 곤(坤)의 책수이다. 건·곤의 책수가 무릇 3백 60인데 1주야의 시일에 해당되므로, 각각 1백 80도란 것은 곧 한·서(寒暑)와 주·야가 병행되는 본체의 수이다. 그러나 양은 발생시키고 음은 죽이며, 양은 밝고 음은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양은 넉넉하나 음은 모자라고, 양은 충만하나 음은 허하다.”라고 하였다.

으니, 만약 깊이 연구하면 간혹 깨닫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책은 오랫동안 이곳에 놔둘 수 없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2 위백양(魏伯陽) : 100~170. 호는 운야자(雲牙子)로 중국 후한 때의 철학자이다. 《참동계》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학설은 《주역》과 유사해 《주역》에 나오는 효상(爻象)의 원리를 그대로 빌려 와 신단(神丹)을 만드는 방법과 과정을 논하였다. 신비주의 색채가 강하면서도 당시로서는 과학적인 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중국 과학기술사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홍 부사에게 주다

與洪府使

귀천과 영옥은 우리 명부(明府)⁹³의 마음을 얻어매지 못하는데, 큰 길과 황하 같은 인생길에서 길을 가는 고단함을 볼 수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삼가 여쭙건대 근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우러러 기거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불러서 상대해 주시니 저에게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병이 날로 고통스러워 정회를 펼치지 못하니⁹⁴ 평소에 그 대우를 저버린 죄를 스스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훌륭한 부사[穎川]⁹⁵의 임기가 끝나 가는데 그대의 전별[山陰奉餞]⁹⁶에 갈 방법이 없으니, 다만 더욱 탄식할 따름입니다. 《참동계》는 근래 여러 책을 참고하여 연구하였는데, 늘 병이 생겨 정신이 캄캄하고 멍하였습시다. 책은 오래 봐들 수 없기에 지금 돌려보내니, 또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탄식할 따름입니다. 삼가 연구했던 것을 별지에 기록

93 명부(明府) : 지방 장관의 별칭이다.

94 정회를 펼치지 못하니 : 기정익이 편지를 보내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95 훌륭한 부사 : 원문의 '영천(穎川)'은 한(漢)나라 영천 태수(穎川太守)를 지낸 황패(黃覇)를 가리킨다. 그가 태수로 있을 때에 봉황이 관사(官舍)에 날아들었는데 치적(治績)이 천하에 제1이 되었고, 장승으로 조정에서 불러들였다. 《漢書 卷89 黃霸傳》

96 그대의 전별 : 원문의 '산음봉전(山陰奉餞)'은 후한(後漢) 유충(劉寵)의 고사를 말한다. 그가 세 번 벼슬을 옮겨 회계 태수(會稽太守)가 되었다. 조정에서 그를 대신으로 불러 회계를 떠날 때, 눈썹에 흰 털이 난 대여섯 늙은이가 산음현(山陰縣)의 약야산(若邪山) 골짜기에서 한가로이 나와 각각 백 전(百錢)씩의 돈을 유충에게 보내주었다. 《後漢書 卷106 劉寵列傳》

하여 그대의 눈을 더럽힙니다. 삼가 바라건대, 잘못을 지적하여 바로 잡고 가르침을 주시며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 주지 마셔서 이치에 맞지 않고 주제넘는다는 오명을 얻지 않게 해 주심이 어떨겠습니까.

별지 : 한 달 30일에 60괘를 날짜에 대응하여 갑자를 맞추는 법

인의(仁義)와 상벌(賞罰), 혼명(昏明)과 희로(喜怒)에서 양은 마땅히 문화(文火)⁹⁷를 쓰고 음은 마땅히 무화(武火)⁹⁸를 써야 하는데, 《환단복명편(還丹復命篇)》⁹⁹에서는 시로 비결을 읊조리기를

97 문화(文火) : 약재를 달일 때 불기운이 약하고 천천히 타는 불을 가리킨다.

98 무화(武火) : 약재를 달일 때 불기운이 세고 강렬하게 타는 불을 가리킨다.

“음은 문화, 양은 무화를 마땅히 높이고 줄여야 하네.[陰文陽武宜加減]”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더욱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인의(仁義)는 다만 음양의 효(爻)이며, 상명희(賞明喜)는 주자가 말한 ‘정신을 집중하여 운행한다.’라는 것에 해당하며, 벌혼노(罰昏怒)는 주자가 말한 ‘정신을 놓고 조용히 있다.’¹⁰⁰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 조심스레 <둔괘(屯卦)>와 <몽괘(蒙卦)> 두 괘의 음효와 양효에 나아가¹⁰¹ 내 임의대로 작료법(作料法)을 정하였는데, 요컨대 이 괘들의 본질을 취하였습니다.¹⁰² 삼가 바라건대 엄격하게 분석하고 바로잡아 회답해 주시면 어떨겠습니까.

《참동계》를 어찌 쉽게 말하랴. 소옹(邵雍)이 말하기를 “노자(老子)는 《주역》의 체(體)를 얻었고, 맹자는 《주역》의 용(用)을 얻었다.”¹⁰³라고 하였는데, 비록 위백양(魏伯陽)의 혼후와 함광(含光)¹⁰⁴은 노자에 미치지 못하고 영민함과 올바름은 맹자만 같지 못하지만, 그러나

99 환단복명편(還丹復命篇) : 송나라 때의 설도광(薛道光)이 지은 책이다.

100 상명희는……있다 : 주자의 《회암집》 권67 <참동계설>에서 “양은 정신을 집중하여 운행하고, 음은 정신을 놓고 조용히 있다.[陽卽注意運行, 陰卽放神冥寂.]”라고 하였다.

101 둔괘(屯卦)와……나아가 : 납갑설(納甲說)에서는 둔괘와 몽괘(蒙卦) 모두 상하괘의 초효를 사용한다.

102 이 괘들의……취하였습니다 : 둔괘(屯卦)는 하괘가 진괘(震卦)로 우레를 상징하고 상괘는 감괘(坎卦)로 물을 상징하며, 몽괘(蒙卦)는 하괘가 감괘이고 상괘가 간괘(艮卦)로 산을 상징한다.

103 노자(老子)는……얻었다 : 소옹의 저작에는 보이지 않고 《주자어류》 권100에 보인다.

104 함광(含光) : 《주역》 <곤괘> ‘문언전’에 보이는 “만물을 포함하여 공화(功化)가 빛난다.[含萬物而化光]”라는 말을 차용하였다.

체용(體用)에 대해 각각 한 가지 이치를 얻었으며 방술의 오묘함을 극진히 하였으니 노자와 맹자를 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자가 깊이 인정하고 그 의견을 취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이미 지어진 책에 나아가서 오자(誤字)를 고증하였고 또한 주해를 달았으며¹⁰⁵ 나아가 배우고 싶다는 의견을 말로 드러내었으니, 비록 이것은 공자가 ‘나에게 몇 년을 빌려 주면 끝내 《주역》을 배우겠다.’¹⁰⁶라는 의미와 같기는 하지만 또한 《참동계》가 이단의 거짓되고 망령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책은 선천(先天)으로 그 체(體)를 밝히고 후천(後天)으로 용(用)을 지극히 하였으니, 납갑(納甲)은 상(象)을 취하고 직사(直事)¹⁰⁷는 효(爻)를 사용하는 법으로 체(體)를 밝히고 용(用)을 극진히 한 오묘함이 아님이 없다. 곧 이는 이른바 ‘헛되이 짓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을 수 있다. 다만 주자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곳에서 대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만 제기하고 결론을 내지 않았으며, 작료법과 공혈법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어떻게 착수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모든 학문에 거의 통달하지 않음이 없으면서도 오히려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아! 체용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보았는데 다만 도수(度數) 한 조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으니, 공자(孔子)가 예를 묻고 관직을 물은 것¹⁰⁸과 같은 부류가 아니겠는가.

105 지어진……달았으며 :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를 가리킨다.

106 나에게……배우겠다 : 《논어》〈술이(述而)〉 편에 보이는 말이다.

107 직사(直事) : 《주역(周易)》의 60괘를 날짜에 대응시키는 것을 이른다.

108 공자(孔子)가……것 : 《중용》 12장의 주에 “후씨가 말하기를 성인이 알지 못한 것은 공자가 예를 묻고 관직을 물은 것 같은 것이다.[侯氏曰, 聖人所不知, 如孔子

조용히 생각해 보건대, 주자가 공부하는 방법만 제기하고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을 논리적으로 따져 연구해 보면 그 체용(體用)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십이벽괘(十二辟卦)¹⁰⁹와 책수일법(策數一法)¹¹⁰은 아마도 위백양의 본래 의도가 아닐 것이다. 대개 선천(先天)의 납갑(納甲)에 체(體)가 서고 후천의 효위(爻位)에 용(用)이 행해지니, 효상에 육갑을 납음(納音)¹¹¹할 때 반드시 먼저 선천수(先天數)를 사용하여 호흡의 적당한 숫자를 정한 뒤에야 후천의 때에 응하여 유행하는 기운이 바야흐로 어긋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참동계》에서 “법칙이 되는 수가 율려(律呂)나 역법(曆法) 속에 들어 있다.”,¹¹² “오행의 수를 헤아리고 풀어 보면”,¹¹³ “육갑으로 일진을 꼽는다.”,¹¹⁴ “음도는 구일(九一)을 싫어한다.”¹¹⁵라고 한 것들은 선천수(先天數)를

問禮問官之類.}]”라고 하였다.

109 십이벽괘(十二辟卦) : 《주역》 대연수(大衍數)의 근본이 되는 12괘를 칭하며 이를 12벽괘(十二辟卦) 또는 12소식괘(十二消息卦)라고도 한다. 이는 음양으로 나뉘어 사계(四季)에 해당시켜 12월(地支)에 배정되어 있다. 일양(一陽)에서 육양(六陽)까지가 복(復) : 子月卦(冬至卦 즉 11월), 임(臨) : 丑月卦(12월), 태(泰) : 寅月卦(정월), 대장(大壯) : 卯月卦(2월), 괘(夬) : 辰月卦(3월), 건(乾) : 巳月卦(4월)이며, 일음(一陰)에서 육음(六陰)까지는 구(姤) : 午月卦(5월), 돈(遯) : 未月卦(6월), 비(否) : 申月卦(7월), 관(觀) : 酉月卦(8월), 박(剝) : 戌月卦(9월), 곤(坤) : 亥月卦(10월)이다.

110 책수일법(策數一法) : 자세한 내용은 79쪽 주91 참조.

111 납음(納音) : 육십갑자를 궁, 상, 각, 치, 우의 5음에 분배하여 오행으로 나타낸 것이다.

112 법칙이……있다 : 원문의 ‘수재률력기(數在律歷紀)’는 《참동계》 1장에 보이는 내용이다. 이하 장수만 기록한다.

113 오행의……보면 : 원문의 ‘추연오행수(推演五行數)’는 15장에 보이는 내용이다.

114 육갑으로 일진을 꼽는다 : 원문의 ‘육갑이일진(六甲以日辰)’은 8장에 보이는 내용이다.

가리켜 말한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효상의 육갑은 끝내 노력을 기울이는 공부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대부분의 공부와 적절한 도수가 모두 기준으로 삼을 것이 없게 된다. 주자는 스스로 이르기를 “작료법은 이해하지 못하였다.”¹¹⁶라고 하였는데, 참으로 이에 대한 언급이다. 그가 책수(策數)를 추론하여 계산한 것이 비록 매우 정제되었지만 또한 이것은 선천(先天)에 해당하며, 효상의 육갑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으니 곧바로 선천수를 써서 후천의 효(爻)를 정한 것이 정밀하고 자세한 결과를 가져온 것만 못하다. 이것은 이른바 ‘노자는 알지만 공자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험 삼아 선천(先天)의 갑(甲)·기(己)·자(子)·오(午)를 9에 해당시키는 예로써 후천 효상에 육갑을 납음(納音)할 원래 숫자를 배정한 뒤에 감(坎)·리(離)·태(兌)를 막고 삼광(三光)¹¹⁷을 몸속에 가둬 두는¹¹⁸ 법을 사용하는데, 매번 본효(本爻)를 만나 호흡을 정하면 자(子)·신(申)·인(寅)·술(戌)의 때를 잃지 않게 된다. 육갑 납음의 수가(數)가 인의(仁義)를 좇아 희로(喜怒)를 발하며, 상벌과 혼명(昏明)이 문무화(文武火)를 사용하면 선천의 서로 영향을 주는 물과 불¹¹⁹이 변하여 후천의 자리를 차지한 감(坎)과 리(離)가 된다. 이것이 이른바 “양기의

115 음도는 구일(九一)을 싫어한다 : ‘음도염구일(陰道厭九一)’은 8장에 보이는 내용이다.

116 작료법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의 서문에 보인다.

117 삼광(三光) : 해와 달과 별을 말한다.

118 삼광(三光)을…두는 : 6장에 ‘삼광육침(三光陸沈)’이란 말이 있다.

119 서로……불 : ‘수화상체(水火相逮)’라는 말은 물(水) 기운과 불(火) 기운이 서로 견제(牽制)해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씩이 되는 구슬이 따뜻하게 길러져서¹²⁰ 단약이 된다.”라는 것이다. 주자는 “그 말이 대단히 기이하다.”¹²¹라고 하였으니, 이를 이해한다면 《참동계》를 배우는 일이 거의 끝나게 된다. 비록 그렇지만 참으로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의 공부가 지극하여 이치를 밝게 보고 욕심을 제거한 자가 아니면 그 누가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참동계》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위 문장은 주자의 해석에 의거하여 추론한 것으로 감히 십이벽괘(十二辟卦)와 책수(策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유염(兪琰)¹²²의 주해서 한 권¹²³을 얻었는데, 대간 남구만(南九萬)¹²⁴이 말한 ‘유염의 주해서가 진일(眞一) 등¹²⁵과 노(魯)나라와 위(衛)나라의 형제¹²⁶를 이룬다.’¹²⁷라고 한 것은 참으로 틀린 말이

120 양기의……길러져서 : 6장에 “양기의 싹이 되는 구슬이 따뜻하게 길러진다.[子珠溫養.]”라고 하였다.

121 그 말이……기이하다 :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의 서문에 보인다.

122 유염(兪琰) : 1258~1327. 남송, 원나라 초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자는 옥오(玉吾), 호는 전양자(全陽子) 또는 임옥산인(林屋山人)이다. 남송이 멸망하자 문을 닫아걸고 책을 읽으며 지냈다. 저서로 《주역참동계발휘(周易參同契發揮)》 9권과 《주역참동계석의(周易參同契釋義)》 1권이 있다.

123 유염(兪琰)의……권 : 뒤에 보이는 내용상 《주역참동계발휘》를 가리킨다.

124 남구만(南九萬) : 1629~1711. 자는 운로(雲路), 호는 약천(藥泉) 또는 미재(美齋)이다. 《주역참동계주(周易參同契註)》를 남겼다.

125 진일(眞一) 등 : 진일, 포일(抱一), 상양(上陽) 등 삼가(三家)의 해석을 가리킨다.

126 노(魯)나라와 위(衛)나라의 형제 : 《논어》〈자로(子路)〉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사가 형제간이로다.[魯衛之政, 兄弟也.]”라고 하였는바, 노나라는 주공(周公)의 후손이고 위나라는 강숙(康叔)의 후손으로서 원래 형제의 나라였으며, 똑같이 국력이 쇠약해지고 어지러워져 정사도 흡사하였으므로 한 말이다. 이에 뜻이 전변하여 어떤 일이 유사하여 분간할 수 없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아닙니다. 진일 등 삼가(三家)의 해석을 비록 보지는 못하였지만, 노나라와 위나라의 형세를 이룬다는 말로 생각해 보면 유염의 해석과 삼가의 해석이 참으로 노와 위의 형세를 이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니, 어찌 불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염의 해석 가운데 인용한 《취허(翠虛)》 등의 시(詩)로 된 비결은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¹²⁸ 그 의미는 이따금 위백양의 《참동계》와 부합하였으니, 이것은 아마도 도가에서 입으로 전수되는 비결을 얻은 것일까요. 그 구절들의 말이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여 바야흐로 가려 모으려고 하였는데 아직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간 남구만의 발문은 견해가 높으니, 생각해 보건대 기운을 배양하는 학문¹²⁹에 넉넉하여 아마도 이 법에 통달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현격한 지위의 차이가 있고¹³⁰ 사적으로 평소의 교분이 없어서 강론하며 질정할 수 없으

127 유염의……이룬다 : 남구만의 《약천집》 권27 〈주자해주역참동계발(朱子解周易參同契跋)〉에 보이는 말이다.

128 취허(翠虛)……없지만 : 뒤에서 니환(泥丸) 진남(陳楠)이 지었다고 다시 밝히고 있다.

129 기운을 배양하는 학문 : 원문의 ‘부학(涪學)’은 부주(涪州)로 귀양 갔다가 돌아온 정이(程頤)를 가리킨다. 그가 귀양에서 돌아왔을 때 기색, 용모, 수염, 머리털이 모두 예전보다 낫기에 문인(門人)이 “어떻게 하여 이럴 수 있었습니까?” 하자 정이가 대답하기를 “학문의 힘이다. 무릇 학문이란 환난(患難)과 빈천(貧賤)에 처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법이니, 부귀영달에 처하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 하였다. 《心經 卷2》 이는 양기(養氣)의 기본은 학문에 있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기를 배양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130 공적으로……있고 : 원문의 ‘운니지혐(雲泥之嫌)’은 “한 사람은 하늘 위의 구름에 올라타고, 한 사람은 땅 위의 진흙탕을 밟고 다닌다.〔乘雲行泥〕”라는 말에서 나왔다. 두 사람의 지위가 예전과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말이다.

니 대단히 개탄스럽습니다. 광주 목사의 예전 편지를 또한 함께 보내 올립니다. 《참동계》는 선본(善本)의 책자가 없으니, 후에 혹시라도 다시 빌려 보기 어려울 것이라 개탄스럽습니다.

《참동계》 공혈법(孔穴法)

삼가 주자의 해석을 위주로 하고 유염(兪琰)이 말한바 《주역》에 근본한 도가의 비결을 참고하여 공혈법과 작료법을 정하였다. 유염의 주해 가운데 상고할 수 없는 것은 전혀 채택하지 않았다. 《환금편(還金篇)》, 《오진편(悟眞篇)》, 《복명편(復命篇)》, 《취허편(翠虛篇)》 등 여러 비결 가운데 위백양의 《참동계》 정문(正文)의 의미와 부합하며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각각 정문의 구절에 맞춰 기록하여 공혈법을 증명하였다.

‘건곤(乾坤)’부터 ‘율력기(律歷紀)’까지.¹³¹

위의 말은 주자가 해설한 《참동계고이》에 보인다. 유염의 《참동계발휘》 서문에 “내가 이인(異人)을 만났는데 선천 진일(眞一)의 요지를 보여 주고, 후천 화후(火候)¹³²의 정미함을 알려 주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삼가 살펴보건대, 주자는 “소옹이 〈선천도(先天圖)〉를 발명했는데 이 그림은 희이(希夷)¹³³로부터 전수받은

131 건곤(乾坤)부터 율력기(律歷紀)까지 : 《참동계》 1장 처음부터 1장의 ‘數在律歷紀’까지를 가리킨다.

132 화후(火候) : 도교(道敎)에서 단약(丹藥)을 만들 때 알맞은 불의 정도를 말한다.

133 희이(希夷) : 본명은 진단(陳搏, 871~989)으로, 오대 말기에서 북송 초기에 활약

것이다. 회이도 또한 방사(方士)로부터 전수받아 수련에 사용한 것이니, 《참동계》가 바로 그것이다.”¹³⁴라고 하였다. 대개 ‘건곤(乾坤)’으로부터 ‘역기(歷紀)’까지 선천으로 사람 몸 안의 음양이 오르고 내리는 궤철(軌轍)¹³⁵을 밝혔다.

‘월절(月節)’부터 ‘득기서(得其序)’까지.¹³⁶

위의 말은 주자가 해설한 《참동계고이》에 보인다. 삼가 살펴보면 대, 후천을 비록 주자가 말하지 않았지만 60괘에서 후천의 괘위(卦位)를 사용하였으니, 바로 위백양의 본래 의도이다. 그렇다면 이 단락은 후천으로 공부 가운데 절차와 도수(度數), 차례 등의 요점을 밝힌 것이다. ○ 자양(紫陽) 장백단(張伯端)¹³⁷의 《오진편(悟真篇)》에서 말하기를 “이에서 뜻을 얻어 상(象)을 구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만약 군효(群爻)를 연구한다면 부질없이 생각만 힘쓰게 되나니.[此中得意休求象 若究群爻謾役情]”라고 하였는데, 이는 “초하루 아침에 둔괘가 직사가 된다.[朔旦屯直事]”¹³⁸를 가리

했던 유명한 도사이다. 화산에서 수도를 하고 송의 태종(太宗)으로부터 회이 선생(希夷先生)이란 호를 사사받았으며, 일생 동안 양생의 도에 힘썼다. 저작으로 <무극도(無極圖)>와 <선천도(先天圖)>가 있다.

134 소옹이……그것이다 :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의 서문에 보인다.

135 궤철(軌轍) : 주자는 드나드는 문이라 해석하였다.

136 월절(月節)부터 득기서(得其序)까지 : 1장의 ‘月節有五六’부터 1장의 ‘五行得其序’까지를 가리킨다.

137 장백단(張伯端) : 987~1082. 자는 평숙(平叔)으로 뒤에 용성(用成)으로 바꿨으며, 호는 자양(紫陽)이다. 《오진편》은 단학(丹學) 사상사에 있어 《주역참동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저(名著)로, 93편의 시와 사로 구성되어 있다.

켜 말한 것이니 여러 효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또 말하기를 “단약을 고을 때 모름지기 아침과 저녁을 알아야 하네.[煉藥須知曉昏]”라고 하였는데, 이는 “동정(動靜)에 빠름과 늦음이 있고”¹³⁹ 및 “봄과 가을, 추위와 더위”¹⁴⁰를 가리킨다.

자현(紫賢) 설도광(薛道光)¹⁴¹의 《복명편(復命篇)》에서 이르기 “화후(火後)를 올리거나 내리고 생각은 더러움을 끊으며, 한 효가 지나자마자 한 효가 생기네. 음은 문화(文火) 양은 무화(武火)를 마땅히 높이고 줄여야 하니, 한 알의 환단이 불 속에서 만들어지네.[火候抽添思絕塵 一爻纔過一爻生 陰文陽武宜加減 一顆還丹火裡成]”라고 하였다. 이 말은 화후는 효의 공용(功用)에 의지하는데, 음효를 만나면 문화(文火)를 사용하고 양효를 만나면 무화(武火)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환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대개 “효사에 인의가 있는데, 때에 따라 희로(喜怒)를 발한다.”¹⁴²라는 말과 그 아래 문장¹⁴³을 가리킨다. 니환

138 초하루……된다 : ‘삭단둔직사(朔旦屯直事)’는 《참동계》 1장에 보이는 말로, 초하루날 아침에는 <서괘전>의 세 번째인 둔괘(屯卦)가 당직이 된다는 말이다. <주역>의 60괘를 날짜에 대응시키는 것을 직사(直事)라고 한다.

139 동정(動靜)에……있고 : 원문의 ‘동정유조만(動靜有早晚)’은 1장에 보인다.

140 봄과……더위 : ‘상벌응춘추(賞罰應春秋)’와 ‘혼명순한서(昏明順寒暑)’의 두 구절을 합친 말로 1장에 보인다.

141 설도광(薛道光) : 1078~1191. 도광은 그의 호로, 이름은 식(式)이며 다른 호는 도원(道源)이다. 처음에는 승려였는데 도사를 만나 도법을 전수받았다. 장백단의 《오진편》에 주석을 달았다.

142 효사에……발한다 : 원문의 ‘효사유인의(爻辭有仁義), 수시발희노(隨時發喜怒)’는 1장에 보인다.

143 그 아래 문장 : “이와 같이 네 계절에 응해 나가니 오행이 그 이치를 얻는다.[如是應四時, 五行得其理.]”를 가리킨다.

(泥丸) 진남(陳楠)¹⁴⁴의 《취허편(翠虛篇)》에서 이르기를 “천상은 분명 열둘의 때가 있으니, 사람들은 나눠 연단을 만드네.[天上分明十二形 人皆分作煉丹程]”라고 하였는데, 이는 “해와 달이 때의 척도가 된다.”¹⁴⁵라는 것과 “표준을 세워 규범으로 삼고 징후를 점쳐서 길흉을 정하며 신호가 나오는 것은 상황을 따르고 있으니 궤의 효가 움직이는 때를 놓치지 말라.”¹⁴⁶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천지설위(天地設位)’부터 ‘국무해도(國無害道)’까지¹⁴⁷

위의 말은 주자가 해설한 《참동계고이》에 보인다. 이 한 단락은 먼저 선천의 납갑(納甲)으로써 그믐과 초하루·초승달과 보름달의 줄어들고 불어남을 밝히고 이어서 후천으로 화후(火候)의 공용(功用)의 절차와 도수를 밝혔다. ○ 《오진편》에서 이르기를 “감로가 내릴 때는 모름지기 천지가 합해야 하고, 황모가 자라려면 감과 리가 섞여야 하네.[甘露降須天地合 黃茅生要坎離交]”라고 하였다. 이는 “천지가 그 정을 결합하고 해와 달이 서로 껴안고

144 진남(陳楠) : ?~1213. 자는 남목(南木), 호는 취허자(翠虛子) 또는 진니환(陳泥丸)이다. 남송 시대의 도사로, 단학에서 남오조(南五祖)의 한 명으로 추존한다. 저술로 《취허편(翠虛篇)》과 《취허묘오전집(翠虛妙悟全集)》 등이 있다.

145 해와……된다 : ‘일월위기도(日月爲期度)’는 1장에 보인다.

146 표준을……말라 : ‘立表以爲範, 占候定吉凶. 發號順節令, 勿失爻動時.’는 4장에 보인다.

147 천지설위(天地設位)부터 국무해도(國無害道)까지 : 2장의 “하늘과 땅이 자리를 마련하니[天地設位]”부터 5장의 “나라에 도를 해치는 일이 없게 된다.[國無害道]”까지를 가리킨다.

서 수컷인 양이 현(玄)을 훌쩍려 베풀면 암컷인 음은 황(黃)으로 변화시켜 품는다.”¹⁴⁸라는 말을 가리킨다. ○ ‘은악(鄧鄂)’¹⁴⁹을 유염은 뿌리와 꽃받침이라 하였다. <단수가(丹髓歌)>¹⁵⁰에서 “옛날 스승 만나 구결을 전해 주니, 다만 정신 모아 기혈을 모으라 하네.[昔日遇師親口訣 只要凝神入氣穴]”라고 하였다. 이는 “정신이 모여 몸뚱이가 이뤄졌다.”¹⁵¹라는 것을 가리킨다. 유염은 말하기를 “7은 화수(火數)요, 8은 목수(木數)요, 9는 금수(金數)요, 6은 수수(水數)다.”라고 하였으며, 《복명편》에서 말하기를 “1달이 1번 돌면 1전(轉)이 되고, 1년에 9정(精)이 9번 돈다. 다만 두 괘에 의지하여 형과 덕을 미뤄 보고, 5와 6은 무(戊)와 기(己)로 돌아오네.[一月一還爲一轉 一年九精九還同 惟憑二卦推刑德 五六回歸戊己中]”라고 하였다. 이것은 양기가 사라져 갈 때의 공부를 말하였다. 옛 노래¹⁵²에 이르기를 “하늘 아래 달과 태양이 반절씩 함께 상승하여 하나가 되었네.[始青之下月與日 兩畔同升合爲一]”라고 하였다. 이는 “앉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살피라.”¹⁵³라는 말과 “정 이 어려서 몸에 흘러 다닌다.”¹⁵⁴라는 것을 가리켜 한 말이다.

148 천지가……품는다 : ‘天地媾其精, 日月相擇持. 雄陽播玄施, 雌陰化黃包’는 3장에 보인다.

149 은악(鄧鄂) : “경영하여 은악을 기르고,[經營養鄧鄂]”라는 말은 3장에 보인다.

150 단수가(丹髓歌) : 단학에 대해 설도광이 시 형식으로 지은 작품이다. 전체 34수로 구성되어 있다.

151 정신이……이뤄졌다 : ‘응신이성구(凝神以成軀)’는 3장에 보인다.

152 옛 노래 : 작자 미상의 <도세고현가(度世古玄歌)>에 보인다. 이 작품은 《전당시》에 들어 있다.

153 앉아서는……살피라 : ‘거칙관기상(居則觀其象)’은 4장에 보인다.

‘내이양기(內以養己)’부터 ‘소소불아기(昭昭不我欺)’까지¹⁵⁵

위의 말은 주자가 해설한 《참동계고이》에 보인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편까지 비로소 공혈법(孔穴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살펴보면, 유염은 ‘내이양기(內以養己)’ 위에 보이는 “거두어 묶어야 할 때는 물샐틈없이 막아 둔다.”¹⁵⁶라는 말에 대해 온갖 방법으로 해석한 뒤에 공혈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확신할 수 없지만, “안으로 나 자신을 기른다.”라는 말 아래 한 단락은 참으로 공혈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다. 유염은 “거두어 묶어야 할 때는 물샐틈없이 막아 둔다.”라는 말을 옮겨 온 뒤¹⁵⁷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눈은 그 빛을 머금고 귀는 그 소리를 응축하고 혀는 그 기운을 감추고 다리를 포개어 단정히 앉는다. 정신을 조용히 하여 안을 지켜 조금이라도 밖의 사물에 마음이 부림을 당하지 않게 한다. 대개 눈이 이미 보지 않으면 혼(魂)은 절로 간(肝)으로 돌아오고, 귀가 이미 듣지 않으면 정(精)은 절로 신장(腎臟)으로 돌아오며, 혀가 이미 소리를 내지 않으면 신(神)이 절로 심장으로 돌아오며, 사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의(意)는 절로

154 정이……다닌다 : ‘응정류형(凝精流形)’은 25장에 보인다.

155 내이양기(內以養己)부터 소소불아기(昭昭不我欺)까지 : 6장의 ‘안으로 스스로를 기르는데[內以養己]’부터 15장의 ‘밝고 밝아서 나를 속이지 않는다.[昭昭不我欺]’까지를 가리킨다.

156 거두어……둔다 : ‘관괄미밀(管括微密)’은 5장에 보인다.

157 유염은……뒤 : 《참동계발휘(參同契發揮)》 권3에서 유염은 ‘관괄미밀’을 앞에서 설명한 뒤에 그대로 받아 본문처럼 설명하였다. “管括微密, 閱舒布室. 管括微密者, 眼含其光, 耳凝其韻”

비장(脾臟)으로 돌아온다. 혼이 간에 있으면 눈으로 새어 나가지 않고, 신(神)이 심장에 있으면 입으로 새어 나가지 않고, 정(精)이 신장에 있으면 귀로 새어 나가지 않고, 의(意)가 비장에 있으면 사지로 새어 나가지 않고 구멍으로 새어 나가지 않는다. 이상 다섯 가지가 모두 새어 나가지 않으면 정(精)·신(神)·혼(魂)·백(魄)·의(意)가 서로 혼용하여 한 기운으로 되어 단전에 모인다. 한번 숨이 코를 통해 들어가면 나의 심장이 상쾌해지니 즉, 용과 호랑이의 관아 문에 큰길이 열리고 한 줄기 흐르는 정(精)에 경장(瓊漿)¹⁵⁸이 들어온다.” ○ 이 법은 수련(修鍊) 공부에 매우 중요하다. 정문(正文)¹⁵⁹과 비교해 보니 또한 그 의미가 일치한다. 지금 이 말¹⁶⁰로 정문을 다음처럼 해석한다. “안으로 자신을 길러 안정되고 고요하며 텅 비워 아무것도 없게 한다.’라는 말은 다리를 모아 단정히 앉고 정신을 조용히 하여 안을 지킨다는 것을 이른다. ‘근원되는 본체가 밝음을 숨긴다.’라는 말은 눈이 그 빛을 머금는다는 것을 이른다. ‘기가 빠져나갈 입구를 막는다.’라는 말은 혀가 그 기운을 감춘다는 것을 이른다. ‘삼광(三光)’은 즉 귀와 눈과 입이다. ‘자주(子珠)’는 즉 태아이다. 대개 삼광은 수련의 관건이 되니, 삼광이 잠겨 있으면 코의 호흡이 고르고 사지가 편안해지는 것이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중편(中篇)에 보이는 이른바 ‘귀, 눈, 입 세 가지 보물은 닫고 막아서 드날리지 않게

158 경장(瓊漿) : 옥으로 만든 전설상의 음료로 마시면 신선이 된다고 한다.

159 정문(正文) : 6장의 ‘內以養己, 安靜虛無. 原本隱明, 內照形軀. 閉塞其兌, 築固靈株. 三光陸沈, 溫養子珠.’를 가리킨다.

160 이 말 : 바로 앞 단락의 유염의 말을 가리킨다.

해야 한다.’¹⁶¹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이다.”

내 몸을 다스려 열 사람이 바라보듯 마음을 전일하라. 뜻을 막고 생각을 조심하여 체용(體用)을 함께 찾으라. 도깃자루 모범은 멀리 있지 않으니¹⁶² 바로 위의 여섯 구(句)¹⁶³라네. 입과 몸의 욕망을 제거하고 집세속에 더러움을 끊어 버려라. 그러면 날개가 돌아 신선이 되리라. 이 말이 어찌 근거가 없으랴. 나에게 적용하여 시행하라.

161 귀, 눈, 입……한다 : 22장에 보이는 말이다.

162 도깃자루……않으니 : 《시경》〈벌가(伐柯)〉에 “도깃자루를 뱀이여 도깃자루를 뱀이여, 그 법칙이 멀지 않네.〔伐柯伐柯, 其則不遠.〕”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즉 자기가 잡고 있는 도깃자루를 보면 도깃자루의 길이나 굵기를 알 수 있듯이 수양의 도리도 바로 앞의 구절에 있음을 의미한다.

163 여섯 구(句) : 앞의 주에 보이는 정문 위의 여섯 구이다. 즉 ‘可不愼乎, 御政之首. 管括微密, 開舒布寶. 要道魁杓, 統化綱紐.’를 가리킨다.

김 아무개에게 답하다

答金

대대로 집안끼리 친하여 다행인데 저를 깊이 돌봐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겸손하게 물어보시고 겸하여 예물을 보내주시니 못난 제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설날에 몸이 건강하여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정신이 혼미한 병을 앓고 있으니, 지금 아드님[庭玉]¹⁶⁴이 함께 강론한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정신이 혼미한 병을 앓고 있는 저를 그 대상으로 선택하려 합니까. 감히 부탁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서로 만나 공부를 한다면 혹시라도 서로에게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164 아드님 : 원문의 '정옥(庭玉)'은 빼어난 남의 자제(子弟)를 의미한다.

김 아무개에게 답하다

答金

아드님이 멀리서 도착하였는데 보배로운 편지도 함께 따라오니, 설날의 선물에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평소 건강이 복을 받아 더욱 좋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저의 집의 액운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또다시 출가한 조카딸이 죽었으니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비감은 이 때문에 더욱 깊습니다. 다만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어¹⁶⁵ 만년의 쓸쓸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데, 이를 위로해 주고 한편으로 새해를 축하해 주는 편지를 받으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머지않으면 그대의 질녀가 해산(解産)할 것인데 비록 한 달이 넘게 남았지만 아직 초순 전날이나 순산¹⁶⁶을 기원합니다. 서 참봉은 일찍이 한번 만났는데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터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애통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매번 해산물을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이곳 산중에는 과일이 매우 귀하어 한번도 보답하지 못하니 마음이 대단히 편치 않습니다. 이후로는 선물을 보내지 말아 주실 것을 깊이 바랍니다.

165 학교에 가게 되어 : 원문에 ‘등(登)’ 다음에 한 글자가 결락되어 있으나 문맥을 보충하여 해석하였다.

166 순산 : 원문의 ‘여달(如達)’은 《시경(詩經)》〈대아(大雅)〉 ‘생민(生民)’에 “아기 낳으실 달이 모두 차자, 첫아기를 양처럼 쉽게 낳았다.〔誕彌厥月，先生如達。〕”라는 말에서 나왔다.

박수철¹⁶⁷에게 답하다

答朴守哲

내가 부모님 상을 당한 이후로 정신이 아득하고 혼미한 데다가 또한 풍증(風症)¹⁶⁸을 앓게 되니, 무엇을 보면 보자마자 곧바로 잊어버리네. 자신도 조섭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대의 병을 치료하겠는가.

보내준 편지에서 하늘과 사람에 대해 논하였는데, 맹자는 이미 <진심>장의 첫머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한 자는 본성을 알고 본성을 아는 자는 하늘을 안다.”라고 하였네. 이 말은 만일 자신의 마음을 길러 그 마음이 항상 자신의 주인이 된다면, 바야흐로 마음이 고요할 때는 하나의 성이 혼연(渾然)하여 도의(道義)가 온전히 갖추어지며 마음이 동(動)하게 되면 칠정(七情)이 번갈아 작용할 때 각각 주장하는 바가 있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네. 그렇다면 군자의 학문이 어찌 마음을 기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한번 마음먹은 사이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이단으로 귀결되니 의리를 정밀히 살펴 마음으로 깊이 이해해야만 하네. 사람이 지닌 인의예지를 다하려면 반드시 하늘의 원형이정(元亨利貞)을 알아야 하네. 그 나머지 이러저러한 논의는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토론하세.

167 박수철(朴守哲) : 1662~1745. 1693년(숙종19) 2월 진사시에 합격하고, 관직은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시작으로 형조 정랑(刑曹正郎), 경산 현령, 한산 군수, 장성 도호부사(長城都護府使)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고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吏曹參判兼) 동지중추부사 오위도총부 부총판(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追贈)되었다.

168 풍증(風症) : 풍사(風邪)를 받아 생기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박수철에게 답하다

答朴守哲

바람은 드세고 파도는 솟구치니 언제나 대단히 위험한 상황¹⁶⁹을 벗어나려는지 알 수가 없다. 안부를 묻는 편지에서 안정(安定)하라는 글자는 항상 풍랑 속의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이다. 그대가 비록 나를 위로하여 마음을 편안케 하고 생각을 안정시키려 하지만 앞의 파도가 가라앉기도 전에 뒤의 파도가 몰아치니 안정이란 글자는 이미 거센 파도 위에서 산산이 부서졌도다. 옛사람은 처해진 상황을 지극히 만족스럽다고 편안하게 받아들여 곤궁과 현달로 근심하지 않았으며, 삶과 죽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천리를 즐기고 천명을 아는 것[樂天知命]’을 즐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이 또한 죄이다. 그대의 도움을 받아 온 집안이 근심에서 벗어났으니, 음(陰)이 짝 찼을 때 한 줄기 태양과 같다.¹⁷⁰ 이는 이른바 “벗은 재물을 나눠 쓰는 의리가 있다.”¹⁷¹라는 말을 실행했다고 할 수 있다.

169 대단히 위험한 상황 : 원문의 ‘습감(習坎)’은 감괘(坎卦)를 뜻하는데, 습(習)은 거듭함을 말하고, 감괘의 어려운 상황을 상징한다. 다른 괘에서는 같은 괘가 반복되어도 습 자를 붙이지 않는데, 유독 감괘에서만 습 자를 붙였다. 이에 대해서 <서괘전(序卦傳)>에 “감괘에서만 습 자를 더한 것은 거듭 험함[重險]으로, 험한 가운데에 다시 험함이 있는 바, 그 험한 상황이 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였다

170 음(陰)이……같다 : 원문의 ‘궁음(窮陰)’이란 음기(陰氣)가 짝 찼다는 뜻이다. <주역(周易)> <복괘(復卦)>에서 볼 수 있듯이 군자(君子) 또는 정의를 상징하는 양(陽)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영 소멸하는 법이 없으니 반드시 소생함을 말하고 있다.

171 벗은……있다 : <논어> <향당> 편의 “봉우가 주는 선물은 비록 수레와 말일지라도

보내준 편지에서 논한 심성(心性)과 기질(氣質)의 구분에 대해서는 전현(前賢)들이 이미 자세히 논의하였다. 대저 이(理)는 형이상자(形而上者)요, 기(氣)는 형이하자(形而下者)이다. 심과 이와 기, 세 가지가 한 덩어리로 완전하게 합쳐 조그마한 틈도 없게 되어 한 줄기로 나오니 서로의 선후도 없다. 다만 세 가지는 합쳐지는 가운데에도 심(心)이 주재(主宰)가 되니, 미발(未發)의 상태에서는 이 심(心)이 이(理)를 포함하면서 기(氣)의 근원을 거느리며, 사물을 응할 때는 이 심(心)이 여러 이(理)를 묘용하면서 기(氣)의 기를 탄다. 대개 온갖 일에 대응하는 것은 이(理)요, 그 대응할 것을 깨닫는 것은 심(心)이요, 능히 대응하는 것은 기(氣)이다. 이(理)는 사물을 대응하는 본령(本領)이요, 심(心)은 사물에 대응하는 주재요, 기는 사물에 대응하는 재료(材料)이다. 그러므로 심(心)이 사물에 대응하면 이(理) 또한 그에 따라 대응하며 기(氣)가 그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주재하는 것은 심(心)이기 때문에 심(心)이 성(性)과 정(情)을 거느리니, “성이 발하여 정이 된다.”라고 하거나 “정이란 것은 심이 발동한 것이다.”라고 한 것은 그 본령으로부터 나머지를 포함한 것이요, 혹은 그 주재(主宰)로부터 나머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는 모두 어떤 한 가지를 전적으로 말하려다가 나머지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대는 말하기를 “‘이기(理氣)는 한 줄기로 나와 선후가 없다.’라고 그대(기정익)가 말하였는데, 주자는 어찌하여 ‘먼저 이(理)가 있고 뒤에 기(氣)가 있다.’라고 하였는가? 또한 동방의 유자가 말한 ‘심(心)이

제육(제사 고기)이 아니면 절하고 사례하지 않으셨다.〔朋友之饋，雖車馬，非祭肉，不拜.〕”의 주(註)에 보이는 말이다.

먼저 발동한다.’ 또는 ‘성(性)이 먼저 발동한다.’라는 학설은 그런 것인가?”라고 하였다. 나는 이에 대해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연구해 보려니 정신이 먼저 어지럽고 혼란하다. 하나하나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대강을 들어 논해 보겠다. 이른바 ‘먼저 이(理)가 있고 뒤에 기(氣)가 있다.’라는 것은 다만 그 본원을 탐구하여 말한 것이요, 참으로 선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본체(本體)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理)가 앞서고 기(氣)가 뒤에 있으니 이(理)가 있는 연후에 기가 있는 것이다. 그 유행(流行)의 관점에서 말하면, 심(心)이 발동하면 모두 발동하여 선후가 없다. 그러나 기가 있는 연후에 이(理)가 그에 의지하게 된다.

주자는 말하기를 “기(氣)로써 형체를 이루고 이(理) 또한 부여하였다.”라고 하였다. 하늘과 사람은 같은 이치이므로 인심(人心)이 발동할 때 기로써 발동하며 이(理)가 그에 탄다. 이른바 ‘이가 탄다.’라는 것은 기가 발동하고서 이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유행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는 헛되이 유행하지 않고 이(理)를 싣고서 유행하는데, 발동의 기틀은 기에 있고 발동의 오묘함은 이(理)에 있다. 이 둘이 완전하게 합쳐 틈이 없으니 누가 선후를 분간하겠는가.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설명하기 대단히 어려우니 요컨대 묵묵히 마음으로 깊이 깨달을 뿐이다.

또한 “심(心)이 먼저 발동한다.” 또는 “성(性)이 먼저 발동한다.”라는 말에 대해 살펴보면, 심과 성은 두 갈래로 각각 주장하는 것이 있으니, 성이 발동하여도 심이 미치지 못한 것과 심이 발동하여도 성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합쳐져 틈이 없는 상태에서의 오묘함이 된다. 그러므로 “성이 먼저 발동한다.”라는

말은 ‘이(理)가 앞서고 기(氣)가 뒤에 한다.’라는 주자의 학설을 잘못 본 것으로, 동정(動靜)이 바로 이(理)가 탄 기틀이며 형이상자가 아닌 것을 모른다. “심(心)이 먼저 발동한다.”라는 말은 ‘심이 성(性)과 정(情)을 통솔한다.’라는 주자의 말을 잘못 본 것으로, 심이 발동하면 이(理)도 또한 발동하는데 동정(動靜)을 오묘하게 운용하는 것이 이(理)인 것을 모른다. 이런 말들은 천근(淺近)하니 변론할 가치도 없다. 수레에 비유하자면, 바퀴살과 바퀴와 바퀴통 세 가지가 각각 따로 굴러가면서 서로 관여하지 않게 되면 어찌 부딪쳐 부서지며 떨어져 나가지 않겠는가.

주자가 말한 ‘이(理)가 앞서고 기(氣)가 뒤에 한다.’라는 것은 이(理)를 위주로 말한 것이니, 위에서 전체를 분명히 보고 곧게 세워서 말한 것이다. 이른바 ‘성이 먼저 발동한다.’거나 ‘심이 먼저 발동한다.’라고 한 것은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에서만 보고 양쪽으로 나뉘서 비스듬하게 눕혀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분별한다면 시비(是非)가 분명해질 것이다.

이(理)가 앞서고 기(氣)가 뒤에 한다는 주자의 학설에 대해 후대의 유자들은 간혹 의심한다. 그러나 이른바 ‘앞서고 뒤에 한다.’라는 말은 형이상과 형이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상하(上下)라는 말을 음미해 보면 어찌 선후가 없겠는가. 만약 “성이 있는 이후에 정(情)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이 먼저 발동한다.”라는 말은 옳지 않다. 발동하는 것은 바로 정이다. 성에 대해 어찌 먼저 발동한다거나 후에 발동한다고 이르지겠는가. 그 병통은 ‘동(動)’ 자에 있다. 전현의 정론(定論)을 대략 기술하여 이 아래에 첨부한다.

이기(理氣)에 대한 학설을 들어 보면,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지 사이에 이(理)가 있고 기(氣)가 있다. 이(理)란 것은 형이상의 도(道)이며 생물의 근본이다. 기란 것은 형이하의 그릇(器)이며 생물에게 갖추어져 있다. 이 기가 있으면 이 이(理)가 있으며, 이 이(理)가 있으면 이 기가 있다. 이 때문에 사람과 사물이 생겨날 때 반드시 이 이(理)를 받은 뒤에 성이 있고, 이 기가 있는 뒤에 형체가 있다.”¹⁷²

“만약 본원을 논한다면 이(理)가 있는 뒤에 기가 있고, 만약 품부(稟賦) 받은 것을 논한다면 기가 있는 뒤에 이(理)가 따라서 갖춰진다.”¹⁷³

“기가 발동한 것이 바로 칠정(七情)이요, 이(理)가 발동한 것이 바로 사단(四端)이다.”¹⁷⁴

“천하에 이(理)가 없는 기가 없고, 기가 없는 이(理)가 없다.”¹⁷⁵

“사단은 이(理)가 발동하여 기가 따른 것이요, 칠정은 기가 발동하여 이(理)가 탄 것이다.”¹⁷⁶

“측은하게 여기는 것은 기요, 측은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이(理)이다.”¹⁷⁷

“동정(動靜)하는 것은 기요, 동정하도록 만든 것은 이(理)이다.”¹⁷⁸

172 천지……있다 : 《주자전서(朱子全書)》 권49에 보이는 말로, 약간의 글자 출입이 있다.

173 만약……갖춰진다 : 《주자전서》 권49에 보이는 말로, 약간의 글자 출입이 있다.

174 기가……사단(四端)이다 : 《주자어류》 권53에 보이는 말로, 약간의 글자 출입이 있다.

175 천하에……없다 : 이 말은 주자의 글에는 보이지 않고, 《명유학안(明儒學案)》의 두어 곳에 보인다.

176 사단은……것이다 : 이 말은 주자의 문집에는 보이지 않는다.

177 측은하게 여기는……이(理)이다 : 《회암집(晦庵集)》 권57에 보이는 말이다.

“기는 있지 않은 곳이 없으니, 그 왕성함은 천지의 조화가 만물을 발육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이(理)는 통(通)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 실상은 평소 사람의 일상에 유행한다.”¹⁷⁹

“모든 사물은 태극이니 이(理)와 합치되지 않음이 없다. 이(理)로써 말한다면 합치되지 않음이 없고, 기로써 말한다면 치우치지 않음이 없다.”¹⁸⁰

“기로써 말한다면 지각과 활동은 사람과 사물이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이(理)로써 말한다면 하늘에서 받은 인의예지를 사물은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다. 이에 기는 같지만 이(理)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에서 사람의 존귀함을 볼 수 있으니 사물은 이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으로 이(理)는 같지만 기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에서 이지러짐이 없는 태극을 볼 수 있으니 내(개인)가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¹⁸¹

“만물의 일원(一原)에 대해 논하면 이(理)는 같지만 기는 다르며, 만물의 이체(異體)에 대해 논하면 기는 오히려 서로 가깝지만 이(理)는 같지 않다. 만물이 처음 생명이 부여되었을 때는 천리의 유행이 모두 같기 때문에 이(理)가 같으며, 음양오행의 기가 맑고 혼탁함, 순수함과 잡박함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기가 다르다. 만물이 이미 이것을 얻은 뒤에 비록 맑고 탁한 것이 같지 않으나 이 음양오행의 기를 같이 지니기 때문에 기는 서로 가깝고, 그 어둡고 밝은 것과 열리고 막힌 것이 서로

178 동정(動靜)하는……이(理)이다 : 《회암집》 권57에 보이는 말이다.

179 기는……유행한다 : 《성리대전(性理大全)》 권34에 보이는 말로, 글자의 출입이 있다.

180 모든……없다 : 《주자전서》 권43에 보이는 말로, 글자의 출입이 있다.

181 기로써……아니다 : 《주자전서》 권43에 보이는 말로, 글자의 출입이 있다.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이(理)는 절대로 같지 않다.”¹⁸²

“무릇 사람이 능히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도모하는 것은 모두 기(氣)인데, 발동하여 효제(孝悌)와 충신, 인의예지가 되는 것은 모두 이(理)이다.”¹⁸³

면재 황간(黃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氣)에는 치우침과 바름이 있으니, 품부받은 이(理)도 그에 따라 치우치거나 바르다. 기에는 어둡고 밝음이 있으니 품부받은 이(理)도 그에 따라 어둡거나 밝다. 그러나 이 심(心)은 고요하여 물욕이 생기지 않으니 기가 비록 치우쳤지만 이(理)는 절로 바르며, 기가 비록 어둡지만 이(理)는 절로 밝다.”¹⁸⁴

“합쳐서 말하자면, 음양과 오행에서 기는 곧 이(理)요, 이(理)는 곧 기다. 나누어서 말하자면, 형이상과 형이하에서 기는 따로 기요 이(理)는 따로 이(理)이다.”¹⁸⁵

“기는 금목수화(金木水火)가 되고, 이(理)는 인의예지가 된다.”

“태어날 처음에 하늘이 반드시 나에게 부여하는 것은 인의예지의 천명이요, 태어난 뒤에 사람이 하늘에서 품부받는 것은 같지 않다.

182 만물의 일원(一原)에……않다 : 《주자전서(朱子全書)》 권42에 보이는 말로, 글자의 출입이 있다.

183 무릇……이(理)이다 : 《주자어류(朱子語類)》 권4에 보이는 말로, 글자의 출입이 있다.

184 기(氣)에는……밝다 : 《성리대전(性理大全)》 권31에 보이는 말로, 글자의 출입이 있다.

185 합쳐서……이(理)이다: 이하 《사고전서(四庫全書)》나 기타 검색 프로그램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은, 송암이 기억력에 의거하여 인용하였는데 송암이 선현의 글을 이해할 때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다시 기록하였기에 원문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理)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있고, 기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있다.”

“〈태극도〉에서 ‘동(動)하여 양(陽)을 낳고 정(靜)하여 음(陰)을 낳는다.’라고 한 것은 ‘이(理)가 기의 기틀의 발동을 타서 움직여 만물을 기르며, 이(理)가 기의 기틀의 고요함을 타서 고요함이 기를 낳는 것을 말한다.’

“유행(流行)은 양이 되어 사물을 낳고 염장(斂藏)은 음이 되어 사물을 이룬다.”

심성정(心性情)에 대한 학설을 들어 보면,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性)은 심(心)의 이(理)요, 정(情)은 심의 용(用)이요, 심은 성정의 주인이다.”¹⁸⁶

“성은 고요함[靜]이요, 정은 움직임[動]이요, 심은 동정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¹⁸⁷

“성은 태극과 같고, 심은 음양과 같다. 태극은 다만 음양 가운데 있으니 음양을 떠나지 못한다.”¹⁸⁸

“인의예지는 성이요,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는 정이다. 인으로 사랑하고 의로 미워하고 예로 사양하고 지로 아는 것은 심이다.”¹⁸⁹

186 성(性)은……주인이다 : 《회암집》 권67에 보인다.

187 성은……것이다 : 《주자전서》 권44에 보인다.

188 성은……못한다 : 《주자전서》 권45에 보인다.

189 인의예지는……심이다 : 《성리대전》 권33에 보인다.

정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性)으로부터 형체가 있는 것을 심(心)이라 이르고, 심(心)으로부터 발동이 있는 것을 정(情)이라 이른다.”¹⁹⁰

오봉 호굉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氣)의 유행에는 성(性)이 주재가 되고, 성의 유행에는 심(心)이 주재가 된다.”¹⁹¹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은 성이요, 외물에 감동하여 마침내 통하는 것은 정이요, 성정을 써서 행하는 자는 심이다.”¹⁹²

“대개 원형이정(元亨利貞)과 ‘아, 심원하여 그치지 않는다.[於穆不已]’¹⁹³라는 것은 하늘의 성이요, 만물을 생장시키고 거둬들이며 변화가 끝이 없는 것은 하늘의 정이다. 사람이 천명을 받아 태어날 때 나를 태어나게 하는 소이연을 얻으니 이것을 심(心)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그 체(體)에 원형이정의 도(道)가 구비되어 인의예지의 성(性)으로 삼으며, 그 용(用)에 생장하고 거둬들이는 기틀이 드러나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의 정(情)으로 삼는다.”

“성(性)은 안에 온축되어 정(情)의 체가 되니, 맑은 거울 같고 균형

190 성으로부터……이른다 : 《성리대전》 권29, 권33에 보이는 말로, 글자의 출입이 있다.

191 기(氣)의……된다 : 《성리대전》 권33에 보이는 말이다.

192 고요하여……심이다 : 이하는 출전 미상이다.

193 아, 심원하여 그치지 않는다 : 《시경》〈주송(周頌)〉‘유천지명(維天之命)’에 “하늘의 명이 아, 심원하여 그치지 않는다.[維天之命, 於穆不已.]”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주자(朱子)는 《집주(集註)》에서 “천명(天命)은 천도(天道)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물(事物)이 부여받은 상태가 아니라 아직 사물에 부여하기 이전의 명(命)을 가리키는 것이다.

잡힌 저울과 같다. 참으로 고요하여 발동하지 않는데 고요하여 발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어찌 마음이 주재하지 않겠는가.”

“성이 밖으로 발동하여 정의 용(用)이 되니, 불이 처음 타오르는 것 같고 샘물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다. 참으로 외물에 감동하여 마침내 통하는데 외물에 감동하여 마침내 통하게 만드는 것은, 어찌 마음이 운용하지 않겠는가.”

정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음은 비유하자면 물을 담은 그릇이요, 성(性)은 비유하자면 그릇에 담긴 물이요, 정(情)은 비유하자면 물이 그릇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기질지성(氣質之性)에 대한 학설을 들어 보면,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지지성(天地之性)이 있고 기질지성이 있다. 천지지성은 태극 본연의 오묘함으로 만 가지 다른 것[萬殊]의 하나의 근본[一本]이며, 기질지성은 음양오행이 교대로 운행하면서 하나의 근본에서 만 가지로 달라지는 것을 낳는다.”¹⁹⁴

“만약 기질이 없으면 천명지성(天命之性)은 편안하게 안주할 곳이 없으니, 비유하자면 한 잔의 물을 담은 그릇이 없다면 물은 귀착(歸着)할 곳이 없는 것과 같다.”¹⁹⁵

“성을 비유하자면 물과 같으니 물은 본래 모두 맑은데 깨끗한 그릇으

194 천지지성(天地之性)이……낳는다 : 《성리대전》 권30에 보인다.

195 만약……같다 : 《성리대전》 권30에 보인다.

로 담으면 맑은 상태로 있고, 더러운 그릇으로 담으면 더럽게 되며, 깨끗하지 않은 그릇으로 담으면 냄새가 난다. 그렇더라도 본연의 맑음은 항상 존재하지 않음이 없다.”¹⁹⁶

정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악은 모두 천리(天理)이다. 대개 품부받은 기질은 한번은 어둡고 한번은 밝으며 한번은 치우치고 한번은 바르니, 밝으면서 바른 것은 발동하여 선(善)이 되지 않음이 없으며 어둡고 치우친 것은 발동하여 악(惡)이 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악이 되는 소이연도 또한 이(理)에서 발동한 것이다. 그러므로 ‘악도 성(性)이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다.”¹⁹⁷

천지의 성이 비록 기질에 섞이지 않지만 또한 기질에서 떠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자는 “성은 기질이 아니면 붙어 있을 곳이 없고, 기(氣)는 천지지성이 아니면 이를 수가 없다.”¹⁹⁸라고 하였다.

“성을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논의이고, 기를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으면 불분명한 논의이다.”¹⁹⁹

196 성을……없다 : 《성리대전》 권30에 보이는 말로, 글자의 출입이 있다.

197 선악은……한다 : 《성리대전》 권31에 보인다.

198 성은……없다 : 《주자전서》 권43에 보인다.

199 성을……논의이다 : 정자가 한 말로 《성리대전》 곳곳에 보인다.

박수철에게 답하다

答朴守哲

근래 경박하며 시세를 붙따르는 무리들이 방자하게 눈을 부릅뜨며 미워하고 야유하며 희롱하니, 다만 마땅히 스스로 수양하고 변론하지 말며 힘써 행하여 미혹되지 말며 굳게 지켜서 변하지 말아야 한다. 폭탄 같은 강렬한 자세로 강철 같은 마음을 굳게 하니 거센 파도가 몰아쳐 와도 지주(砥柱)²⁰⁰같이 버티는 힘을 볼 수 있었으나, 결국 주 선생은 위학으로 몰려 탄압을 받게 되었다.²⁰¹

나는 나의 초가에 있으면서 나의 책을 읽고 있으니 어찌 타인을 범하고 세상을 저촉하는 경우가 있겠는가. 그러나 입은 재앙을 일으키는 문이요 기는 혐의를 부르는 매개체이다. 모름지기 입을 막아 조정의 이해(利害)를 논하지 말며 관원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며 타인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며 인사(人事)의 시비를 평하지 말며, 다만 모름지기 탕탕(蕩蕩)하여 치우치지 말며 평평(平平)하여 기울어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과 같은 의논이라고 하여 이쪽의 소인을 보호하지 말며 저들의 당(黨)이라고 하여 저쪽의 군자를 헐뜯지 말아야 한다.

근래에 귀신의 간을 지니고 물여우²⁰²의 심장을 지닌 자가 시기와

200 지주(砥柱) : 중국 삼협(三峽)의 지주산(砥柱山)을 말하는데, 탁한 황하(黃河)의 급류 속에 우뚝 버티고 서서 거센 물결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지주중류(砥柱中流)의 고사에서 유래하여, 흔히 한 몸에 중책을 지고 난국을 수습하는 사람의 비유로 쓰인다.

201 주 선생은……되었다 : 주자 만년에 당대의 실권자였던 한탁주에 의해 위학(僞學)으로 지목되어 탄압을 받게 된 것을 이른다. 이를 경원당금(慶元黨禁)이라 한다.

질투를 조장하여 오직 당파를 기준으로 사람의 어짊과 어리석음을 판단하니 어찌하면 좋은가. 우리 동방의 당파에 대한 논의가 과격한 것은 세대가 지날수록 도(道)가 낮아지는 조짐이다.

202 물여우 : 물속에 사는 독충(毒蟲)으로, 사람 몰래 그림자를 보고서 독기를 쏘아 병들게 한다는데, 보통 음모를 꾸며 남을 해치는 자를 비유한다. 단호(短狐)라고도 한다.

박수철에게 답하다

答朴守哲

지난 일은 번뇌 속에 여러 번 보냈지만 앞으로의 일은 편안하게 될는지 그 여부(興否)를 모르겠다. 어느 때가 되면 ‘정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생각하는 공부’²⁰³를 이룰까. 보내준 편지에서 사단과 칠정에 대해 논하였는데, 하서 선생이 퇴계와 고봉의 논쟁을 보고 그 오류를 바로잡았으니 사단과 칠정의 논변은 하서 선생의 견해가 분명한 결론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다른 데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

대개 사단을 들어 보면, 측은지심은 인(仁)의 단서이며 수오지심은 의(義)의 단서이며 사양지심은 예(禮)의 단서이며 시비지심은 지(智)의 단서이다. 인의예지는 성(性)이니, 성은 곧 이(理)이다. 이(理)의 실마리가 되므로 “이(理)가 발동하여 기가 따른다.”라고 한다. 희로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 일곱 가지는 심(心)이 촉발된 것이므로 “기가 발동하여 이(理)가 탄 것이다.”라고 한다. 심은 곧 기인데 이(理)가 타지 않으면 반드시 패역(悖逆)에 빠진다. 비록 그러나 사단은 정(情)이요, 칠정도 정이다. 함께 한 가지 근원에서 나와 서로 조금 나누어지지만, 본래 서로 다른 정(情)은 아니다.

203 정하고……공부 : 《대학》에 “그칠 줄을 안 뒤에 정함이 있고, 정한 뒤에 능히 고요하고, 고요한 이후에 능히 편안하고, 편안한 이후에 능히 생각하고, 생각한 이후에 능히 깨닫게 된다.〔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라고 하였다.

박수철에게 답하다

答朴守哲

곤궁한 초가에서 부들부들 떨고 지내는데 반수(磻水)²⁰⁴에 봄이 그대 편지와 함께 이르니 화기(和氣)가 절로 인다. 창려 한유(韓愈)의 시에 이른바 “성정이 점점 호탕해지니 희희낙락하며 이런저런 말을 하네.〔性情漸浩浩 諧笑方云云〕”²⁰⁵라는 말이 지금 나의 심정을 대변한다. 보내준 편지에서 임금은 하늘을 체득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 말은 세도(世道)에 깊은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개 천도(天道)는 멈추지 않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취하는데, 하늘에 있어서는 오행이 있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사(五事)²⁰⁶가 있다. 오사를 성취하면 아름다운 징조가 응하게 되고 오사를 잃으면 나쁜 징조가 응하게 되니, 임금이 하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움직일 때와 조용할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 드나들 때와 기거할 때에 무엇을 하더라도 공경해야 한다.

백성은 나의 동포이니 천하로써 한 집안을 삼아야 하며, 사물은 나의 벗이니 만물을 나와 한 몸이라 여겨야 하며,²⁰⁷ 하늘에 있는 하늘을

204 반수(磻水) : 현재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반수동을 흐르는 강을 가리킨다.

205 성정이……하네 : 한유의 <취증장비서(醉贈張秘書)>란 작품에 보이는 구절이다. 원시는 길어 생략한다.

206 오사(五事) : 통치자가 수신(修身)하는 다섯 가지 중요한 일로, 외모[貌], 말[言], 보는 것[視], 듣는 것[聽], 생각[思]을 말한다.

207 백성은……하며 :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서 “백성은 나의 동포이며 물건은 나의 친구이다.〔民吾同胞 物吾與也.〕”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장재의 이

나의 하늘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천위(天位)²⁰⁸에 거하여
천덕을 갖추니, 마음은 하늘과 통하고 도는 하늘과 합치하며 모든 생각
이 하늘과 부합하니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성취하지 않겠는가. 대체(大
體)가 이미 합치되었으니 그 나머지는 합치되지 않음이 없다. 만약
욕심을 좇아 절제하지 않으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의 강과 바다와
산악이 어떻게 변괴를 일으키지 않겠는가.……-이하 빠짐-

말을 확대한 것이다.

208 천위(天位) : 하늘이 준 지위, 즉 왕의 자리를 말한다.

박수철에게 답하다

答朴守哲

그대가 무극(無極)이 바로 태극(太極)이란 학설에 대해 논하였는데, 나는 곤궁하여 내 삶도 지탱하지 못하고 있으니 마음은 흔들리고 몸은 피곤하다. 만년에 생계를 꾸리는 일도 연이어 실패를 거듭하고 있으니, 책을 펼치더라도 정신이 먼저 혼란스러우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온전하게 상대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구나 태극의 지극한 이치를 논한단 말인가.

이전에 스승에게 들었던 것으로 대략 말해 보겠다.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태극은 한 개의 실제 이치이니,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 그렇다면 정자가 말한 ‘무극이 곧 태극’이란 말은 ‘이처럼 형상이 없는 데 이러한 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이 태극을 한 개 형상이 있는 사물로 볼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무극’이라 말한 것이니, 다만 이 이치를 말한 것이다.”²⁰⁹

“무극을 말하지 않는다면 태극은 어떤 사물과 같게 되어 만 가지 조화의 근원이 되기에 부족하며, 태극을 말하지 않는다면 무극은 텅 비어 버린 것에 빠져 만 가지 조화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²¹⁰

“태극(太極)은 따로 한 사물이 되지 않으니, 음양에 나아가서는 음양

209 태극은……것이다 : 《주자전서》 권52에 보이는 말로, 글자의 출입이 있다. 원문을 참조하여 번역하였다.

210 무극을……없다 : 《주자전서》 권52에 보이는 말이다.

안에 존재하고 오행에 나아가서는 오행 안에 존재하며 만물에 나아가서는 만물 안에 존재하는 다만 한 개의 이치일 따름이다.”²¹¹

“도(道)가 태극이라는 것은 유행(流行)으로 말한 것이요, 심(心)이 태극이라는 것은 회통(會統)으로 말한 것이다.”²¹²

나의 마음에 나아가 살펴보건대, 바야흐로 희로애락(喜怒哀樂)이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에는 혼연(渾然)한 하나의 이치이다.²¹³ 형상이 없는 가운데 만물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이른바 ‘무극이 곧 태극’이란 것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태극이라 여긴다면 이미 기(氣)가 있는 것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자(周子)는 무극이란 말을 앞에 쓴 것이다. 이른바 태극이란 것은 만물을 모두 거느린다는 명칭이니, 이(理)가 있으면 반드시 기(氣)가 있으며 그것을 나누면 음양이 되고 다섯으로 만들면 오행이 된다.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물상이 모두 이에서 근원하니, 사람과 사물이 태극을 얻으면 성(性)이 된다.

성(性)은 곧 태극이며 인의는 곧 음양이며, 예지신까지 합치면 바로 오행이다. 태극은 지극히 중도이고 지극히 바르며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순수하며 지극히 신비롭고 지극히 오묘하다. 바야흐로 고요하여 생각이 없을 때에는 온갖 선(善)이 발하지 않으니, 이것이 무극이다. 비록 미발(未發)이라 이르지만 마음이 환하고 영원(靈源)²¹⁴이 어

211 태극(太極)은……따름이다 : 《주자전서》 권52에 보이는 말로, 글자의 출입이 있다.

212 도(道)가……것이다 : 《사고전서》에서 검색이 되지 않지만 여러 성리서에서 비슷하게 언급한 것이 많다. 송암이 기억력에 의거하여 인용하였는데 송암이 선현의 글을 이해할 때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다시 기록하였기에 원문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13 나의……이치이다 : 이 구절부터 아래로는 송암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214 영원(靈源) : 마음을 이른다.

깊지 않으니 바로 태극이다. 태극은 발동하기 전에는 음(陰)이니, 음이 발동하는 가운데 절로 양(陽)의 근저(根底)가 있고 양이 발동하는 가운데 절로 음의 근저가 있다. 태극은 동정(動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동기(動機)를 타는 것은 정(靜)할 때이고, 정기(靜機)를 타는 것은 동(動)할 때이다.

태극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태극은 음양(陰陽)의 앞에 있고 음양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태극은 음양의 안에 있다. 대개 음양이 아직 생겨나기 전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른바 태극이란 것은 그 이치를 이미 갖추고 있고, 음양이 이미 생겨난 이후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른바 태극이란 것은 즉 음양의 안에 있다.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혼돈(混沌)²¹⁵스러운 것은 태극이 한 것이요, 만물이 생겨난 후로 이처럼 천지가 있고 만물이 있는 것도 태극이 한 것이다. 만물이 생겨난 이후에 인류가 다 사라지고 만물이 없어지며 천지가 다시 합쳐 혼돈스러운 상태로 되는 것도 태극이 하는 것이다. 태극은 항상 이와 같아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며 나누어지거나 합쳐져 고정된 것이 없으니, ‘아직 완전히 나누어지지 않았다.’거나 ‘이미 완전히 나누어졌다.’라는 것으로 태극에 대해 말하는 자는 도를 알지 못한다.

이기(理氣)의 원두(源頭)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다. 동정이 끝이 없고 음양이 시작이 없으니, 이기(理氣)는 다만 한 개 유행(流行)하는 것이다. 유행하는 가운데 나아가 일음(一陰)과 일양(一陽)이 처음 생길 때를 잘라 시작으로 삼는데, 이 음과 이 양이 아직 생기지 전에도

215 혼돈(混沌) :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 이(理)는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이기(理氣)의 원두(源頭)이다. 원두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기(理氣)는 선후가 없지만, 이(理)는 기의 근본이 된다. 유행(流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기(理氣)는 선후가 있으며 이(理)가 기의 기틀을 탄다. 주자는 말하기를 “음과 양을 만약 유행의 관점에서 논한다면 다만 한 개이다.”²¹⁶라고 하였으니, 이 말로 추론해 보면 이른바 원두라는 것은 다만 유행하는 가운데만 있으니, 이기(理氣)는 실로 선과 후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기(理氣)의 동정(動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다. 음양은 기(氣)이며, 태극은 기를 탄 바의 이(理)이다. 동정은 기틀이며, 움직이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은 이(理)이다. 그러므로 동정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기는 동정이 있지만 이(理)는 동정이 없다.’라고 말해도 괜찮다. 움직이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이(理)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理)는 동정이 있다 그러므로 기도 동정이 있다.’라고 말해도 괜찮다. 주자는 말하기를 “동정은 태극이 아니다.”²¹⁷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理)는 동정이 있다. 그러므로 기에도 동정이 있다.”²¹⁸라고 하였다. 이 말로 추론해 보면 이 이(理)는 비록 스스로 동정하지 못하지만 또한 그 동정을 주관한다.

이기(理氣)가 일원(一原)이란 학설에 대해 살펴보겠다. 기(氣) 가운데

216 음과……개이다 : 《주자어류》 권65에 보이는 말로, 글자의 출입이 있다.

217 동정은 태극이 아니다 : 《주자전서》 권49에 보인다.

218 이(理)는……있다 : 《주자전서》 권49에 보인다.

데 나아가 형기(形氣)를 범하지 않고 다만 이(理)를 가리키면 즉 순수한 전체(全體)는 치우친 바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높여 부르기를 태극이라 한다. 공자가 이른바 ‘역(易)에는 태극이 있으니,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을 도(道)라고 이른다.’²¹⁹라고 한 것과 주자(周子)가 이른바 ‘무극이 곧 태극이다.’²²⁰라고 한 것과 정자가 이른바 ‘아득하여 조짐이 없으나 만상이 또렷하게 갖추어져 있다.’²²¹라고 한 것과 장자(張子)가 이른바 ‘만물의 일원이다.’라고 한 것이 이를 가리킨다. -성(性)은 온전하지 않음이 없으니, 만물이 다 똑같다.-

이기(理氣)가 나뉘어 다르다[分殊]는 학설에 대해 살펴보겠다. 기(氣) 가운데 나아가 각각 기에 부속된 이(理)를 가리키면 즉 이(理)는 이미 한 덕에만 치우쳐서 전체(全體)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누어 지목하여 말하기를 ‘건순오상(健順五常)’²²²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기의 선악에 뒤섞이지 않는 것으로 말하였으니, 그러므로 본래 선한 체(體)는 변함이 없다. 공자가 이른바 ‘이뤄 주는 것은 성이다.’²²³라고 한 것과 ‘각각 그 성명(性命)을 바르게 한다.’²²⁴라고 한 것, 주자(周子)가 이른바 ‘오행은 각각 그 성을 하나로 한다.’²²⁵라는 것과

219 역(易)에는……이른다 : 《주역》〈계사전〉에 보인다.

220 무극이 곧 태극이다 : 〈태극도〉에 보이는 말이다.

221 아득하여……있다 : 《이정유서》 권15에 보인다.

222 건순오상(健順五常) : 음양과 인의예지신을 말한다.

223 이뤄……성이다 : 《주역》〈계사전〉에 보인다.

224 각각……한다 : 《주역》〈건괘·단전〉에 보인다.

225 오행은……한다 : 〈태극도〉에 보인다.

맹자가 이른바 ‘개의 성(性)과 소의 성과 사람의 성이 다르다.’²²⁶라고 한 것과 주자가 이른바 ‘치우친 이(理)와 온전한 이(理).’²²⁷라고 한 것이 이를 가리킨다.-사람에 있어서는 온전하지만 사물에 있어서는 치우쳤으니, 사람과 사물이 같지 않다.

분수(分殊)의 분수²²⁸에 대한 학설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기(理氣)를 겸하여 가리키니 기(氣)에 선악이 있으면 이(理)에도 선악이 있다. 그러므로 기를 근거로 하여 일컫기를 “선악의 성(性)”이라 한다. 공자가 이른바 ‘성이 서로 가깝다.’²²⁹라고 한 것과 주자(周子)가 이른바 ‘강(剛)과 유(柔)에도 선악이 있다.’²³⁰라고 한 것과 정자와 장자가 이른바 ‘기질지성’이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사람마다 같지 않고, 사물마다 같지 않다.-

일원(一原)과 분수(分殊)가 다만 하나의 이(理)란 학설에 대해 살펴

226 개의……다르다 : 《맹자》〈고자〉에 보인다.

227 치우친……이(理) : 《주자어류》 권4에 보이는 말이다. “또 묻기를 ‘사물마다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으니 이 이(理)는 완전하지 않음이 없습니까.’라고 하니, ‘완전하다고 해도 무방하고 치우쳤다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답하였다.〔又問物各具一太極，則是理無不全也。曰謂之全亦可，謂之偏亦可。〕”

228 분수(分殊)의 분수 : 이 학설은 남당 한원진에 의해 제기되었다. 기질을 섞어서 말하는 이(理)인 잡기질(雜氣質)로 사람과 사람, 물과 물이 서로 같지 않은 이(理)를 말하는데, 이는 수암 권상하가 말하는 “분수의 분수[分殊之分殊]”의 이(理)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남당은 기질지성을 하나로 보고 기질지성의 편전에 따르는 이(理)의 편전 즉 성의 편전을 주장하였다.

229 성이 서로 가깝다 : 《논어》〈양화〉에 보인다.

230 강(剛)과……있다 : 《통서(通書)》에 보인다.

보겠다. 하나만 가리킨다는 것과 각각 가리킨다는 것과 겹하여 가리킨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자면, 다만 이(理)와 기(氣)가 한곳에 있으면 이(理)가 기 안에 있어서 다만 한 체(體)만 존재하는데, 하나만 가리키면 모두 온전하고 각각 가리키면 치우침과 온전함이 있고 겹하여 가리키면 선악이 있다. 주자가 성을 논하면서 이른바 ‘같은 가운데 다른 것을 알아야 하며 다른 가운데 같은 것을 보아야 한다.’²³¹라고 한 것이 이를 가리킨다. 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 경계에 나아가 혹 형기(形氣)를 범하지 않고 다만 그 이(理)를 가리키거나 혹 각각 그 기에 부속된 이(理)를 가리키더라도, 또한 기의 선악에 뒤섞이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에 일원(一原)과 분수(分殊)의 같지 않음이 있다. 하나만 가리키는 곳은 건순오상의 이(理)가 아님이 없으며, 각각 가리키는 곳은 태극의 이(理)가 아님이 없으며, 겹하여 가리키는 곳은 건순오상과 태극의 이(理)가 아님이 없다. 그러나 하나만 가리키는 곳을 건순오상의 다름으로 치환할 수 없으며 각각 가리키는 곳을 태극의 전체(全體)로 치환할 수 없으며 겹하여 가리키는 곳을 오상 본연의 덕으로 치환할 수 없다. 비유하자면 산을 볼 때 옆에서 보면 고개가 되고 곧바로 보면 봉우리가 되는데, 산이 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옆으로 봐서 고개가 되는 곳을 봉우리로 치환할 수 없으며 곧바로 봐서 봉우리가 되는 곳을 고개로 치환할 수 없다. 이(理)는 하나이며, 산도 하나이다. 다만 사람이 보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231 같은……한다 : 《회암집》 권61 〈답엄시형(答嚴時亨)〉에 보인다.

만물을 회통(會統)한다는 학설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자는 말하기를 “순수한 기(氣)는 사람이 되고 번잡한 기는 사물이 된다.”²³²라고 하였다. 무극(無極)의 진(眞)과 음양오행의 정(精)이 오묘하게 합하여 엉겨서 변화하고 낳으니, 그 신묘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 능함을 알 수 없다.²³³ 천지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면 만물은 만물이 되며, 태극의 관점에서 천지를 보면 천지 또한 사물이다. 사람이 태극의 도를 다하면 천지를 포괄할 수 있으며 만물을 하나하나 성취시킬 수 있으니 조화의 능력이 나에게 있게 된다. 양(陽)이 음(陰)과 교합하여 발굽이나 뿔이 있는 동물을 낳고, 강(剛)이 유(柔)와 교합하여 뿌리가 있는 풀 종류를 낳는다. 음이 양과 교합하여 날개가 있는 짐승을 낳고, 유가 강과 교합하여 줄기와 가지가 있는 식물을 낳는다. 하늘이 땅과 교합하고 땅이 하늘과 교합하기 때문에 날개가 달려 나는 날짐승과 다리가 있어서 내달리는 들짐승이 있으며 풀에 나무가 있고 나무에 풀이 있다.

천지에는 지극히 아름다운 기가 있고 음양에는 지극한 정수의 기가 있다. 사물이 기를 얻을 때 혹은 순수한 것을 얻고 혹은 잡박한 것을 얻으며 혹은 맑은 것을 얻고 혹은 탁한 것을 얻는다. 그러므로 만물의 종류에 혹은 크고 혹은 작으며 혹은 순하고 혹은 사나운 것이 있다. 성색(聲色)과 형기(形氣)도 각각 종류에 대응하여 얻는다. 사람이 종류별로 나뉘는 것도 또한 사물이 종류별로 나뉘는 것과 같다.

하늘에서 근본한 동물과 식물은 기운 기틀인 호흡으로 점차 기를

232 순수한……된다 : 《이정수언(二程粹言)》 권하에 보인다.

233 무극(無極)의……없다 : 《홍범황극내편》에 보인다.

모으거나 흩어지게 되며, 땅에서 근본한 동물과 식물은 음양이 오르내림으로 점차 기를 모으거나 흩어지게 된다. 생물의 도를 보면, 천류(天類)는 양(陽)에 속하니 양은 동물이 된다. 지류(地類)는 음(陰)에 속하니 음은 식물이 된다. 양의 양은 날짐승이 되고 음의 음은 풀이 된다. 하늘에는 지극히 순수한 기(氣)가 있고 땅에는 지극한 정수의 기가 있으니 사람이 그것을 얻으면 명철(明喆)함이 되고 날짐승이 그것을 얻으면 난새와 봉황이 되고 들짐승이 그것을 얻으면 기린이 되며 물짐승이 그것을 얻으면 거북이나 용이 되며 초목이 그것을 얻으면 지초와 난초가 되고 소나무와 잣나무가 되니, 그 종류에 대응하여 얻지 않음이 없다. 하늘에 지극히 어긋난 기가 있고 땅에 지극히 어두운 기가 있으니 사람이 그것을 얻으면 사악한 이가 되고 날짐승이 그것을 얻으면 올빼미나 짐새가 되고 들짐승이 그것을 얻으면 호랑이나 이리가 되며 딱딱한 껍질이 있는 짐승이 얻으면 살무사나 도마뱀이 되고 초목이 그것을 얻으면 재목이 되지 못하거나 사나운 독초가 되니, 그 종류에 대응하여 얻지 않음이 없다.

천지의 기운이 얹히고설키며 만물이 화하여 엉기는데²³⁴ 만약 감응이 한결같지 않으면 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생물이 착하지 않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인은 스스로 명덕(明德)을 밝혀 만방(萬邦)을 두루 교화시키니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난리가 일어나지 않으며 해와 달, 별이 운행의 질서를 잃지 않고 비바람과 흐린 날과 맑은 날이 그 일정한 법을 잃지 않으며 산천의 귀신이 한결같이 편안하며 새와 짐승, 생선과 자라가 모두 순해지게 되었으니, 하늘과 사람의

234 천지의……엉기는데 : 《주역》〈계사전〉에 보이는 말이다.

관계를 어찌 소홀히 여기겠는가. 나로써 사물을 본다면 천지도 또한 만물이며 만물도 또한 천지이다. 어찌 천지만 따로 있으며 어찌 만물만 따로 있으랴. 나 또한 만물이니 어찌 나만 따로 있으랴. 어찌 사물이 내가 아니며 어찌 내가 사물이 아니라. 천지의 일이 이와 같으니 이곳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남은 비밀이 없을 것이다. 즉……-이하 빠짐-

박수철에게 보낸 편지

與朴守哲

그대의 족조(族祖) 박수의(朴守義)가 장성 부사(長城府使)로 나가 계실 적에 인사차 문안 편지를 보내셨기에, 내가 부득이 장성 관아로 들어가 사례하였네. 여러 날 동안 이야기 나누었는데,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선사(先師)께서 소인들에게 화를 당하였던 일²³⁵은 자세하고 통렬하여 들을수록 꽤연히 마음속에 뭔가 일깨우게 하는 것이 있었네. 선사의 원통함을 설욕하려 했던 일 또한 소인들의 날조를 받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또 그 얘기를 들으니 탄식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네.

그리고 또 그대가 여주(驪州) 선향(先鄉)으로 이사하여 돌아갔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 안 들은 것만 못하지만 듣고 말았으니, 또한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네. 그대의 선조의 무덤〔履衣之藏〕²³⁶이 여기에 있는 지 이미 3~4대에 이르렀으니 여기도 선향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봄이 어떠한가.

235 우암(尤庵)……일 : 기사환국(己巳換局)을 말한다. 1689년 1월 숙의 장씨가 아들(후일의 경종)을 낳았다. 원자(元子)의 호칭을 부여하는 문제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재집권한 사건이다. 이때 송시열은 세자 책봉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러다가 압송되어 오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236 무덤 : 유골이 없을 경우 옷이나 신발 등을 가지고 장례를 지내는 것을 의리장(衣履藏), 또는 의리장(衣履葬)이라고 한다.

박수철에게 보낸 편지

與朴守哲

사람이 학문을 하는 대상은 심(心)과 이(理)일 뿐이네. 마음이 비록 일신(一身)을 주재(主宰)하나 그 체(體)의 허령(虛靈)함은 천하의 이(理)를 관장하고, 이(理)가 비록 만물에 산재해 있으나 그 용(用)의 미묘함은 진실로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²³⁷ 처음부터 어느 것이 안이고 어느 것이 밖이며 어느 것이 정(精)하고 어느 것이 조(粗)함을 논할 것이 아니다.²³⁸ 이 때문에 성인께서 가르침을 베풀어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신령스러움을 묵묵히 알아서 단장정일(端莊精一) 단정하고 장엄하며 정일함)한 중도(中道)를 보존하여 이치를 궁구하는 근본을 삼게 하고, 사람들에게 중리(衆理)의 현묘함을 알아서 학문사변(學問思辨)²³⁹하는 가운데에 궁구하여 마음을 다하는 공부를 이룩하게 한 것이네. 이것은 크고 작음이 서로 포용하고, 내외를 함께 함양하여 정조의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이네. 천하의 일은 방법을 전할 수는 있으나 그 공교로움은 전하기 어렵거늘, 어찌 한때의 사사로운 견해로 천하의 온갖 변화를 다하려고 하는가.-원문 빠짐.-

237 마음이……않으니 : 《대학혹문(大學或問)》에 나오는 말이다.

238 마음이……아니다 : 이 부분은 주자의 학설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주자가 말한 원문에 ‘초(初)’자가 있어서 보충하여 해석한다.

239 학문사변(學問思辨) :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여 돈독히 실행하는 공부를 말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밝게 분별하며, 돈독히 실행하여야 한다.[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辯之, 篤行之.]”라고 하였다. 《中庸章句 第20章》

서序

조 도사²⁴⁰ 귀상 를 전송하는 글

送趙都事 龜祥 序

여주(驪州)의 강산은 우리나라에서 으뜸인데, 나의 벗 조석미(趙錫美)가 여기에 와서 살았다. 경오년(1690, 숙종16) 겨울 석미가 일 때 문에 오산(鰲山)²⁴¹에 왔는데, 오산 또한 산수가 아름다운 고장이다. 석미의 마음은 전적으로 산수에 있는 것 같은데, 오산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도 어찌하여 한번도 아름다운 산수에 발을 내딛지 않고 다만 두어 명의 친구와 노쇠하고 깡마른 나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날을 보내는가.

이별할 적에 내가 술잔을 올리며 청하였다.

“내가 보건대 그대가 여주에 온 것은 한갓 산수뿐만이 아닐 것이네. 성인에게 ‘세 번 내쫓긴다.’²⁴²라는 말이 있다네. 그대는 세 번 내쫓겼으

240 조 도사(趙都事) : 조귀상(趙龜祥, 1645~1712)으로, 자는 석미(錫美)이다.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고, 현주(玄洲) 조찬한(趙縝韓)의 손자이다.

241 오산(鰲山) : 전라남도 장성군의 별칭이다.

242 세 번 내쫓긴다 : ‘삼피(三避)’는 사령운의 〈환구원(還舊園)〉에 보이는 말로, 삼출(三黜)과 같은 의미이다. 삼출은 유하해가 조정에서 세 번 내쫓긴 고사를 말한다. 내용으로 보아 조귀상이 장성으로 내쫓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니, 감히 묻건대 마음이 편한한가. 그대는 나를 속이지 말게.”

이에 석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이것을 써서 송별하는 글로 삼는다.

기記

예미정기 절필

曳尾亭記 絶筆

한양(漢陽) 전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조석미(趙錫美)가 여강(驪江)에 온 이듬해에 일 때문에 나의 송암(松巖) 초가집²⁴³을 방문하였는데, 십수 일 뒤에 다시 만나 변미경(邊美卿)²⁴⁴의 집에 유숙하였다. 이별하기에 이르러 내가 여강 산수의 아름다움과 그곳에 와서 머물게 된 의도를 물으니, 석미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다만 “제가 여강에 정자를 짓고 ‘예미(曳尾)’라고 편액을 걸었는데, 제 이름이 마침 ‘귀상(龜祥)’입니다. 그대는 저를 위하여 기문을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미처 사양할 새도 없이 석미는 곧 작별하고 떠났다. 여강으로

243 송암(松巖) 초가집 : 기정익이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에 후학을 가르치고 학문 연구에 주력하기 위해 지은 송암재(松巖齋)를 말한다.

244 변미경(邊美卿) : 변휴(邊休, 1640~1699)로 미경은 그의 자이다. 본관은 황주(黃州), 호는 청류당(聽流堂)이고 전라남도 장성(長城) 출신이다.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명재(明齋) 윤증(尹拯)·구천(龜川) 이세필(李世弼) 등과 종유하였고,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추증(追贈)되었다. 저술로는 1798년(정조22)에 간행된 《오산명인록(鰲山名人錄)》이 있다.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어 편지를 보내 재촉하며 “왜 예미정의 기문을 지어 주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였다. 강산과 경물이 어떤 모습인지 대략이라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자의 이름을 짓게 된 큰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건대, 옛날의 명명(命名)이라는 것은 모두 의미를 담았다. 대개 석미가 처음 이름을 지을 때²⁴⁵ 그 뜻은 이러했을 것이다.

“상고 시대에는 낙수(洛水)에서 구주(九疇)를 등에 지고 나와,²⁴⁶ 천지와 더불어 참여한²⁴⁷ 가운데 십봉(十朋)²⁴⁸의 으뜸이 되어 천하의 의

245 처음……때 : 원문의 ‘조석(肇錫)’은 좋은 이름을 비로소 지어 준다는 말이다. 굴원(屈原)의 《초사(楚辭)》에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때를 헤아려 보시고 비로소 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주셨네.〔皇覽揆余于初度兮，肇錫予以嘉名。〕”라고 한 데서 나왔다.

246 낙수(洛水)에서……나와 : 우 임금이 치수(治水)에 성공했을 때 낙수에서 거북이 나왔는데, 그 등에 이상한 무늬가 배열되어 있었다. 이 무늬를 낙서(洛書)라고 하는데 우 임금이 이를 보고 차례로 진열해서 구류(九類)를 이루었으니, 《서경(書經)》 홍범구주(洪範九疇)가 이것이라 한다.

247 천지와 더불어 참여한 : 천지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사람이 하늘과 땅과 나란히 서서 같은 지위를 이루어 천(天), 지(地), 인(人) 삼재(三才)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2장에 “오직 천하에 지극히 성실한 성인만이 그 성을 극진히 할 수 있나니, 그 성을 극진히 할 수 있으면 남의 성도 극진히 해 줄 수 있고, 남의 성을 극진히 해 줄 수 있으면 물의 성도 극진히 해 줄 수 있고, 물의 성을 극진히 해 줄 수 있으면 천지의 변화 육성을 도울 수 있고, 천지의 변화 육성을 도울 수 있으면 그 공덕이 천지에 참여하여 천지와 같아질 수 있나니라.〔唯天下至誠爲能盡其性，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48 십봉(十朋) : 《주역(周易)》 손괘(損卦) 오효(五爻)와 익괘(益卦) 이효(二爻)에 각각 ‘십봉지귀(十朋之龜)’라는 말이 보인다. 십봉은 옛날의 화폐 단위로서 한 자 두 치의 큰 거북은 값이 십봉이나 나간다고 한다. 또 《본의》에서는 “두 마리의 거북을 봉(朋)이라고 하는데 십봉의 거북은 큰 보배이다.”라고 하였다.

혹을 결정하려고 시책(蓄策)보다 먼저 사용되었으며, 시대를 내려와서는 사령(四靈)²⁴⁹의 하나로 천하 문명의 상서로움이 되어, 곧 기린, 봉황과 짝이 되어 오르내리며 즐겁게 노닌다.”

이것이 그의 우의일 것이다.

이윽고 석미가 계속하여 과거에 뜻을 얻지 못하다가 이부(吏部)의 천거로 의금부 도사가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석미가 개연히 말했다.

“하늘이 장차 나를 곤궁하게 하려 하니, 내 장차 《장자(莊子)》〈추수(秋水)〉에서 말한 ‘예미(曳尾)’²⁵⁰가 되는 것이 괜찮겠구나!”

그날로 여강의 전장(田莊)으로 돌아가 살면서 정자를 짓고 예미로 편액을 하였으니, 거기에 담은 뜻은 또한 숭상할 만하다.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 의심하여 말하였다.

“석미가 이와 같이 행동한다면 이는 곤궁과 현달에 동요하여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환히 풀지 못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또 석미는 유자(儒者)로 성현의 글을 읽고 군자다운 행동을 하면서 어찌 만년에 기괴한²⁵¹

249 사령(四靈) : 기린, 봉황, 거북, 용의 네 가지 신령스러운 동물이다. 군자가 덕치(德治)를 이루면 사령이 나타난다고 한다. 《禮記 禮運》

250 예미(曳尾) : 출세나 명예에 구속됨이 없이 소요자재(逍遙自在)하는 것이다. 초(楚)나라에서 죽은 지 3천 년 되는 신령스러운 거북이의 뼈를 묘당(廟堂)에 모셔 놓았는데, 장자(莊子)가 이를 밧대어 “죽어서 뼈다귀로 남아 귀하게 되려 할지언정 차라리 살아서 흙탕물 속에 꼬리를 끄는 것이 낫구나.〔寧其死爲留骨而貴乎，寧其生而曳尾於塗中乎。〕”라고 하였다.

251 기괴한 : 원문의 ‘조괘(弔詭)’는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에 “공자도 그대와 함께 모두 꿈을 꾸고 있다. 또 그대에게 꿈을 꾸다고 말하는 나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나의 이런 말을 일러 ‘지극히 의문스러운 것(弔詭)’이라고 한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기이한 말이라는 뜻이다.

말을 좋아하여 스스로에게 붙일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또 유자(儒者)라는 이름을 거지고 묵자(墨子)의 도를 행하는²⁵² 사람에 가깝다는 말인가? 나는 이 점이 탐탁지 않다.”

내가 대답하였다.

“석미는 현명함이 남들보다 뛰어나니, ‘예미’라는 말을 취한 것이 대략은 장자(莊子)와 같을 수 있으나 혹 다르기도 하다. 《중용(中庸)》에서 ‘군자는 현재의 위치에 따라 행한다.’²⁵³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또 《중용》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석미가 어찌 애초부터 ‘예미’가 되려고 하였겠는가? 오직 처지가 그러했을 뿐이다. 하늘이 낙수의 거북과 십봉의 으뜸이 되게 하지도 못하고 또 지금의 태평성세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였으니 그 처지가 어떠하였겠는가? 모든 일마다 온 마음으로 생각하여 기미를 알아차리는 신묘(神妙)함을²⁵⁴ 흠모하며 벼슬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 곳을 깨달아 마

252 유자(儒者)라는……행하는 : 한유(韓愈)의 〈송부도문창사서(送浮屠文暢師序)〉에 “사람 중에는 본디 이름은 유자이지만 묵자의 도를 행하는 자가 있다. 이름을 물어 보면 유자이지만 행동을 따져 보면 유자가 아니다. 이런 자와는 어울려 노닐 수가 없다. 반대로 이름은 묵자이지만 유자의 도를 행하는 자가 있다. 이름을 물어보면 유자가 아니지만 행동을 따져 보면 유자이다. 이런 자와는 어울려 노닐 수가 있다. [人固有儒名而墨行者，問其名則是，校其行則非，可以與之遊乎。如有墨名而儒行者，問其名則非，校其行則是，可以與之遊乎.]”라는 데에서 나오는 말이다.

253 군자는……행한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4장의 “군자는 현재의 위치에 따라 행하고 그 밖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君子素其位而行，不顧乎其外.]”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254 기미를 알아차리는 신묘(神妙)함을 : 《주역(周易)》〈계사전 하(繫辭傳下)〉에 “(군자는) 기미를 알아차림이 신묘하다.……기미는 변동의 미미한 움직임으로 길흉이 미리 드러나는 것이니, 군자는 기미를 보고 일어나서 하루가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知幾其神乎!……幾者動之微，吉之先見者也。君子見幾而作，不俟終日.]”라고 하였다.

침내 여기에서 편안하게 노닐며 쉬니, 이 또한 처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음은 안에서 구애됨이 없고 몸은 밖에서 얽매이지 않으며, 남이 화려하게 꾸며 주는 것을 원치 않고 나의 천수(天壽)를 기다리며, 혼탁한 세상에서 묵묵히 빛을 감추었으니 이 또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닮지 않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예미’는 등껍질을 불태운 거북이라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흙탕물이라고 좋아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처한 상황에 자연스럽게 맡기니 어찌 곤궁과 현달에 마음을 환히 풀지 못한 자라고 하겠는가? 장자의 말을 잘 돌이켜 보면 군자의 지극한 도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석미가 이 글을 보게 되더라도 어찌 충분히 그의 마음을 헤아렸다고 여기겠는가마는 의심한 자의 의심이 풀렸으니 이 글로 기문을 삼는다. 정자는 숭정후 기사년(1689, 숙종15)에 세웠고, 기문은 경오년(1690) 선달 어느 날에 지었다. 훗날 이 정자에 오르는 자는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상량문 上樑文

장성 성전²⁵⁵ 이건 상량문

長城聖殿移建上樑文

모두 제사를 모셔 온 천하가 흠모하고 숭상하며	通祀遍天下欽崇
먼 고을에까지 두루 영향을 미쳤네	已洽於遐鄉
품계를 올려 문인들도 묘우에 배향하고자	加秩配門人廟宇
이곳에 터를 잡아 옮겼네	移卜於茲地
어찌 옛 제도를 그대로 쓸 필요가 있겠는가?	何必仍舊
이에 새롭게 계획하였네	是用圖新
삼가 생각하건대 공자는 우리가 흠잡을 데가 없어	恭惟夫子吾無間然
만대토록 크게 제사를 지냈네	萬世丕惟曰祀
상·서·학·교를 설립하니	設爲庠序學校
제도는 전무와 당재를 사용하였네	制用殿廡堂齋
자사(子思)·맹자(孟子)·안연(顏淵)·증자(曾子)를 배좌(配佐)하였고	佐以思孟顏曾
주·부·군·현에 자리하였네	位以州府郡縣

255 성전(聖殿) : 공자(孔子)를 모신 사당을 말한다.

본 고을이 현을 합할 때 ²⁵⁶	惟本邑合縣當日
성전의 터를 골랐지만 마땅치가 않았네	而聖殿擇地失宜
복묘와 중란 ²⁵⁷	複廟重欄
겨우 몇 칸으로 모양새를 갖췄으나	僅間架之成樣
삼간과 사표는	三間四表
의례에 맞는 규모가 부족하였네	欠規模之如儀
관리와 선비 ²⁵⁸	組帶靑襟
모두가 협소하고 누추하다며 한탄하였고	咸致恨於隘陋
인재 양성과 유교에도	人材儒效
또 허술함을 면치 못했네	又未免於濶疎
근래에 읍호가 한 단계 승격되었기에	頃緣邑號一陞
공문십철(孔門十哲)도 따라 올려 배향하려 하였네	將躋從享之十哲
위로는 조정에서 동묘(東廟) ²⁵⁹ 에서 모시듯	上祇朝憲蜀廟

256 본 고을이……때 : 진원현(珍原縣)이 임진왜란으로 폐폐해져 1600년(선조33) 장성에 합속되었다. 장성군의 동쪽이 되므로 내동면이라 하여 묘동·수촌 등 22개 리를 관할하였다.

257 복묘(複廟)와 중란(重欄) : 복묘는 지붕을 이중으로 설계한 사당이고, 중란은 겹겹으로 된 난간을 가리킨다.

258 선비 : 원문은 ‘청금(靑衿)’으로, 유생(儒生)의 별칭이다. 《시경》〈자금(子衿)〉에 “푸르고 푸른 그대의 옷깃이여, 길고 긴 나의 마음이다.〔靑靑子衿，悠悠我心。〕”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전(毛傳)에 “청금은 푸른 것이니, 학자가 입는 것이다.〔靑衿，靑領也，學子之所服。〕”라고 하였다.

259 동묘(東廟) :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무장 관우(關羽)를 모시기 위해 세운 묘로, ‘관제묘(關帝廟)’라고도 한다. 관우를 신(神)으로 신봉하면 전시(戰時)에 관우가 나타나 적을 멸해 준다는 전설에 따라 건립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598년(선조 31) 명나라 군사들이 성주(星州)와 안동(安東)에 처음 세웠고, 이어 서울에도 동관왕묘(東關王廟)와 남관왕묘(南關王廟)를 세웠다.

넉넉한 공간에서 마땅히 천양하려 하고	宜闡於寬間
아래로는 <원주학기(袁州學記)> ²⁶⁰ 처럼 함께 상의하나 下詢僉謀袁學	
옛터가 편치 않았네	難便於舊址
점괘가 길하며 ²⁶¹	卜云其吉
산수 아름답고 밝은 곳 어디인가?	何處水麗山明
땅을 살펴보니 마땅하여	相土之宜
참으로 천지가 아껴 둔 비경이었네	實是天慳地秘
더구나 건립한 곳은	矧茲營建之所
고을 관아 동쪽이라	乃在邑治之東
옥진의 금빛 물결이	玉津金波
한 줄기 사수 ²⁶² 처럼 빛나고	一練洙洙之色
학과 용이 서린 봉우리는	鶴岑龍岵
천길의 농산 ²⁶³ 처럼 높았네	千丈農山之高
마치 기다린 듯	如有待焉
결코 우연한 일 아니었네	非偶然耳

260 원주학기(袁州學記) : 《고문진보(古文眞寶)》에 수록된 송나라 이구(李觀, 1009~1059)가 지은 작품으로 여기에는 원주에 학교를 개축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261 점괘가 길하며 : 《시경》 <정지방중(定之方中)>은 신축한 건물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미한 시인데, 그 가운데에 “점괘에 이 터가 길하다고 하였는데, 끝내는 그 말대로 정말 좋다.〔卜云其吉 終焉允臧〕”라는 구절이 나온다.

262 사수(洙洙) : 사수(泗水)와 수수(洙水). 모두 노(魯)나라에 있는 강 이름인데, 공자(孔子)가 이 근처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으므로, 공자의 학(學) 곧 유교를 가리키는 말이다.

263 농산(農山) :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유람하다가 자로(子路)·자공(子貢)·안연(顏淵)에게 각자 품은 뜻을 묻고 답론을 나누었다는 곳이다. 《孔子家語 致思》

예의와 공경을 극진히 하여 완성하였으니	致禮敬而措辦
훌륭한 대부들이요	賢哉大夫
정성을 다하여 건립한 것은	用意而經營
많은 선비들이네	允矣多士
이른바 하루도 못 되어 완성된 격이니	是所謂不日成也
누군들 하늘이 도와준 것이라 말하지 않겠는가	孰不曰自天佑之
백성들이 수고롭지 않고 재물도 손상 없이	不勞民不傷財
인의를 아울러 극진히 하며	庶幾乎仁義兼盡
예전의 사치스러움 없고 훗날의 황폐함 없으리니	無侈前無廢後
여기에서 화려함과 검소의 중도(中道)를 얻었네	有是哉奢儉得中
건립되니 덕성이 비취 빛이 흐르고	施爲映德星而流光
문교(文教)가 밝아지니 밝은 태양이 환히 비추네	文明皎白日而開照
선비들이 ²⁶⁴	圓冠方領
주나라 선비처럼 〈벽옹장(辟雍章)〉을 읊고	周儒詠辟雍之章
《춘추(春秋)》와 《서경(書經)》을	麟經鳳書
〈노송(魯頌) 반수〉처럼 전하니	魯人傳泮水之頌
한때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非徒一時慶洽
만세토록 아름다운 상서가 되리라	抑爲萬世之休徵
두 대들보가 가로질러 날아가니	雙樑橫飛
여섯 번 어영차 소리 우레처럼 진동하네	六偉雷動

264 선비들이 : 원문의 '원관방령(圓冠方領)'은 둥근 갓에 모난 신이란 뜻으로, 옛날 선비들의 복장을 가리킨다.

떡을 던져라 들보 동쪽에	拋樑東
상서로운 아침 햇살이 비로소 붉게 비추네	朝日初生瑞旭紅
염량의 궤문을 어찌 판별할 필요 있겠는가	炎涼詭問何須辨
천년 동안 지금까지 동자들조차 비웃네	至今千載笑其童

떡을 던져라 들보 서쪽에	拋樑西
깎아지른 듯한 푸른 절벽이 하늘과 나란하네	截然蒼壁與天齊
성인 문하의 인지는 예와 지금이 같으니	聖門仁知今猶古
아름다운 산수처럼 영원히 미혹되지 않네	好山佳水遠不迷

떡을 던져라 들보 남쪽에	拋樑南
바위꽃은 이슬을 머금고 검푸름이 더부룩하네	巖花垂露碧氍毹
변함없는 꺾리는 봄에도 늙지 않아	依然闕里春不老
상서로운 구름이 온종일 새 감실을 감싸네	祥雲終日繞新龕

떡을 던져라 들보 북쪽에	拋樑北
단암수가 황룡곡에 이어졌네	丹巖水接黃龍曲
안희의 거문고와 증점의 비파로 엄연히 모신 듯한데	回琴點瑟儼如侍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아 지금도 그치지 않는구나	逝者如斯今不息

떡을 던져라 들보 위로	拋樑上
태산이 무너진 뒤로 사람들이 모두 우러르네	泰山頽後人咸仰
밤이 오면 별들이 촘촘하게 펼쳐 있으니	夜來星斗森相列
일리 ²⁶⁵ 와 선천 ²⁶⁶ 은 잠시도 거짓되지 않네	一理先天不暫妄

떡을 던져라 들보 아래로 拋樑下
 문하의 생도들이 날마다 물 뿌리고 청소하네 門下諸生日灑掃
 괴시²⁶⁷와 행단²⁶⁸을 이제 누가 회복할까 槐市杏埭今復誰
 횡사를 지키는 일 대대로 -원문 빠짐- 말지어다 敎勿代□護轡舍

삼가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로 伏願上樑之後
 새와 쥐는 날아 숨어 버리고 鳥竄倣去
 비바람은 재앙 없으리 風雨無災
 제사를 게을리 지내지 않아 祀事不怠
 문옹이 촉 땅을 교화시킨 일²⁶⁹을 조용히 바라보고 佇見文翁之化蜀

265 일리(一理) : 일리만수(一理萬殊)에서 나온 표현이다. 우주의 근원은 유일(唯一)의 이치인데, 그것이 천만 가지 현상으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물건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수많은 사물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그 생성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뜻이다.

266 선천(先天) : 우주의 본체와 만물의 본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복송의 소옹(邵雍)이 진단(陳搏)의 학문을 터득하여 《주역》을 설명하면서 복희(伏羲)의 역(易)을 선천, 문왕(文王)의 역을 후천(後天)이라 하였으며, 〈복희선천괘위도(伏羲先天卦位圖)〉를 만들었다. 그래서 소옹의 역학을 선천학(先天學)이라 한다.

267 괴시(槐市) : 주대(周代) 성동(城東) 7리에 괴목(槐木) 수백 줄을 심어 수도(隧道)를 만들고 제생(諸生)들이 초하루·보름에 모여 물산(物産)·경전(經傳)·악기(樂器)들을 팔고 사기도 하며 괴목 아래에서 글을 토론한 데에서 나온 말로 보통 학궁(學宮), 태학(太學), 성균관(成均館) 등의 뜻으로 쓰인다.

268 행단(杏埭) : 공자가 강학(講學)했던 곳으로, 학교를 가리킨다. 《장자(莊子)》〈어부(漁父)〉의 “공자가 치유의 숲속에서 노닐며, 행단 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니, 제자들은 글을 읽고 공자는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다. [孔子遊乎緇帷之林, 休坐乎杏壇之上, 弟子讀書, 孔子絃歌鼓琴.]”라는 말에서 나왔다.

269 문옹(文翁)이……일 : 문옹은 한(漢)나라 여강(廬江)의 서(舒) 땅 사람이다. 경제(景帝) 말에 촉군 태수(蜀郡太守)가 되어 성도(成都)에 학관(學官)을 설치하고, 입학한 자들에게 부역을 면제해 주었으며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군현의 관리로

문운이 크게 열려

文運大啓

많은 선비들이 주 땅에 난 것처럼 영원하리라

永言多士之生周

삼아 문풍(文風)을 크게 떨치고 교화가 행해지게 하였다. 《漢書 卷89 循吏傳 文翁》

필암서원 사우 상량문

筆巖書院祠宇上樑文

요순·우탕·문무·주공의 성인은	粵若自堯舜禹湯文武周孔之聖
위로는 임금 되고 아래로는 신하 되어	上爲君下爲臣
인의·도덕·효제·충신의 근원을 가르쳐	莫不教仁義道德孝悌忠信之源
나라에는 학을 두고 고을에는 서를 두었네	國有學鄉有序
이 때문에 도통이 실추되지 않아	是以道脈罔墜
당·우·삼대 시대에는 논의할 것이 없었으나	唐虞三代則不容議爲
학문 ²⁷⁰ 일어나	藏修以興
수천 년 지내는 동안 충분히 말할 만한 것이 있었네	上下數千年有足言者
이에 공은 도를 지키는 데에 있어	斯乃功有衛道
모두 사우(祠宇)를 건립하여 영령을 모시고	咸建祠而妥靈
선비들은 현인의 덕을 본받을 줄 ²⁷¹ 알아	士知象賢
앞다투어 흠모하고 학업을 익혔네	競寓慕而肄業

270 학문 : 원래 '장수유식(藏修游息)'으로, 장수는 항상 학문을 닦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유식은 정해진 과정에 의해 쉬는 시간에도 학문에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한다. 《예기》〈학기(學記)〉에 "군자는 학문할 적에 장하고 수하고 유하고 식한다.[君子之於學也 藏焉 修焉 息焉 遊焉]"라고 하였다.

271 현인의……줄 : 원문의 '상현(象賢)'은 선조들의 어진 덕을 잘 본받는 것을 말한다. 《서경》〈미치지명(微子之命)〉에 이르기를 "은왕의 원자야, 옛날을 상고하여 덕이 있는 이를 높이고, 어짐을 닦은 자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여 선왕을 계승하게 하라. [殷王元子，惟稽古，崇德，象賢 統承先王。]" 하였다.

이 때문에 사액(賜額)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려	是用投函乞額
회옹은 백록동(白鹿洞)의 규모를 천양하였고	晦翁闡白鹿之規模
이야기를 듣고 글까지 하사하니	聞風賜書
진종의 조서 ²⁷² 가 찬란하게 빛났네	眞宗煥紫泥之褒美
우리나라의 현인 중에	惟我海東賢者
하서 선생이란 분이 있네	有若河西子乎
삼가 생각건대 선생은	恭惟先生
타고난 자질이 매우 높아	以極高天質
대현인의 지위를 얻었네	得大賢地位
파를 쪼개듯 이치를 보고	劈葱觀理
하늘을 읊으며 오묘하게 빛났으니	詠天字妙
어린 시절에도 그러하였네	在髫髻而猶然
처음 벼슬할 때 정도(正道)를 얻어	發軔得正
도를 보며 더욱 밝아졌으니	見道益明
대개 유래한 근원이 있었네	蓋猶源之有自
성군과 현신이 서로 만나 ²⁷³ 하계에 감응하여	風雲感於夏啓
도가 장차 행해질 듯하였으나	道之將行
인종(仁宗)의 승하 ²⁷⁴ 로 원통함 품으니	弓劍怨於鼎湖

272 조서 : 원문의 ‘자니(紫泥)’는 무도(武都)의 붉은 진흙으로 봉했다고 하여 임금의 조서를 말한다.

273 성군(聖君)과……만나 : 원문의 ‘풍운(風雲)’은 풍운경회(風雲慶會)를 줄인 말로 성군과 현신(賢臣)의 만남을 의미한다. 《주역》〈건괘(乾卦) 문언(文言)〉의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雲從龍, 風從虎.]”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274 인종(仁宗)의 승하 : 원문의 ‘정호(鼎湖)’는 하남성(河南省) 형산(荊山) 아래에 있는 지명이다. 황제(黃帝)가 수산(首山)에서 동(銅)을 캐어 형산에서 솥(鼎)을

하늘은 어찌 그리 흑독하신지? 天胡降割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는 것이 때에 맞았고
 時乎仕則仕止則止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으며 떠났네 去矣見所見聞所聞
 거의 사라져 버린 춘추의리지만 泯泯幾春秋
 백주의 절조²⁷⁵처럼 죽기를 맹세하고 矢死柏舟之篇
 해마다 7월 1일이면 年年七月日
 난산(卵山)에서 절개를 빛내었네²⁷⁶ 節昭卵山之中
 현인에게서 돌아가시니 哲人其亡
 태산이 무너진 듯 어디에 의지할까²⁷⁷ 泰山頽而安放

만들었다. 술 만드는 일이 끝나자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황제를 맞이하였다. 이때 70여 명의 신하와 후궁이 황제를 따라 오르고, 남은 백성도 황제와 함께 하늘에 오르려고 용의 수염을 잡은 순간, 용의 수염이 뽑히면서 황제가 가지고 있던 궁검이 함께 떨어졌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史記 卷28 封禪書》

275 백주(柏舟)의 절조 : 〈백주〉는 《시경》 용풍(鄘風)의 편명(篇名)으로, 위(衛)나라 태자 공백(共伯)의 처(妻) 공강(共姜)이 남편 사후 재가하지 않고 절조를 지킨 내용을 읊은 시이다. 여기서는 김인후가 인종의 승하로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절조를 지킨다는 내용이다.

276 해마다……빛내었네 : 난산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에 있고, 그곳에 김인후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난산비(卵山碑)를 세웠는데 석재(碩齋) 윤행임(尹行恁)이 비문을 지었다. 김인후는 인종이 죽은 뒤 해마다 그의 기신일인 7월 1일이 되면 집의 남쪽에 있는 난산에 들어가 밤새 통곡하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河西全集 附錄 卷3 年譜》

277 태산이……의지할까 : 《예기(禮記)》〈단궁 상(檀弓上)〉에, 공자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대들보가 꺾이는구나. 철인이 시드는구나. [泰山其頽乎! 梁木其壞乎! 哲人其萎乎!]”라고 노래하였는데, 자공(子貢)이 이 노래를 듣고는 “태산이 무너지면 우리가 장차 어디를 우러러보며, 대들보가 꺾이고 철인이 시들면 우리가 장차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泰山其頽, 則吾將安仰, 梁木其壞, 哲人其萎, 則吾將安放.]”라고 한 말에서 인용하였다.

선생의 제사로	先生祭社
백이의 풍도처럼 완악한 자도 청렴하게 만들었네 ²⁷⁸	伯夷風之廉頑
유생들이 의지하기를	章甫依歸
200년간 매일같이 하였고	二百年如一日
아름다운 편액을 건의하여 주청하니	徽額建請
두어 고을 사람 모두 참여하였네	數三郡亦畢來
필암 사액 내린 지	揭筆巖而賜扁
이제 겨우 10년인데	今才十載
기산에 주춧돌을 놓은 뒤로	顧岐山之奠礎
벌써 세 번이나 옮겼네	曾已三遷
처음에는 전란의 재앙 때문이더니	初緣灰燼之作災
이제는 어찌 수해를 근심해야 하는가?	今何水圯之爲患
어찌 동로 ²⁷⁹ 의 토양에 옮겨 갈 땅이 없겠는가	
	豈以東魯之風土無地可移

278 백이(伯夷)의……만들었네 : 《맹자(孟子)》〈만장 하(萬章下)〉에 “백이의 풍도를 들은 자는, 완악한 지아비는 청렴해지고 나약한 지아비는 입지(立志)하게 된다. [聞伯夷之風者，頑夫廉，懦夫有立志.]”라고 한 말에서 인용하였다.

279 동로(東魯) : 동쪽의 노나라, 곧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어찌 다행히도 무이의 산천과 멀지 않고 가까운가

何幸武夷之山川不遠而邇

함께 와서 터를 둘러보고

聿來胥宇

또 길일을 점쳐 좋은 날 잡았네

且獲日吉辰良

오직 결단하여 이루었으니

惟斷乃成

어려운 시절에 사치스러운 일 벌인다²⁸⁰고 논하지 않네

無論舉羸時詘

새로운 제도의 규격에 맞게 도모하는 것이 당연하니 宜圖新制之合式

어찌 옛 제도 고치기를 꺼리겠는가?

寧嫌舊貫之改爲

새가 높이 올라 날개를 편 듯 웅장하고 화려하니²⁸¹ 鳥斯革翬斯飛

어찌 영령을 모신 곳이기만 생각하라

豈惟英靈之攸妥

여름에는 음악을 연주하고 가을에는 읊조리기 좋으니 夏宜絃秋宜誦

또한 사문이 크게 창도되었네

抑亦斯文丕昌

비취색 대나무와 푸른 산은

翠竹蒼山

벽처럼 우뚝 선 절개를 마주한 듯하고

如對壁立之節

맑은 시내와 밝은 달은

清溪朗月

280 어려운……벌인다 : 《통감(通鑑)》 주현(周顯) 35년조에 “이것은 소위 시대가 어려운데도 형통은 모두 여유가 있는 것이다.[此所謂時詘舉羸者也]”라고 하였고, 그 주(注)에 “시대가 쇠모한데도 도리어 사치하는 것이다.[時衰耗而作奢移]”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281 새가……화려하니 : 《시경》〈사간(斯干)〉에 “새가 놀라 낮빛을 변함과 같으며, 꿩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如鳥斯革 如翬斯飛]” 하였고, 주희(朱熹)의 《시경집전(詩經集傳)》에 “그 동우가 높게 일어남은 새가 놀라 낮빛을 변함과 같고, 처마가 화려하고 높으며 날아갈 듯함은 꿩이 날아 날개를 펴는 것과 같다. 대개 그 당의 아름다움이 이와 같다.[其棟宇峻起, 如鳥之驚而革也, 其簷阿華采而軒翺, 如翬之飛而矯其翼也. 蓋其堂之美如此.]”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황홀하게 거문고 소리가 들린 듯하니	悅聞瑤琴之音
소자가 어찌 돌아오지 않겠는가?	小子盍歸來乎
재주와 덕이 높은 분이 여기에 계시나니	大雅其在斯矣
삼가 서툰 글솜씨로	恭拈短筆
긴 들보 올리는 것을 도우리라	助舉脩樑

어영차 떡을 던져라 들보 동쪽에	兒郎偉拋樑東
동쪽 창문 붉은 태양에 잠을 깬네	睡覺東窓日已紅
당시의 뛰어나고 오묘한 조예 생각하나니	想得當年超詣妙
뚜렷한 만상이 뜨인 마음속에 있네	森然萬象豁然中

떡을 던져라 들보 서쪽에	拋樑西
저 서산을 바라보니 나란할 수 없네	瞻彼西山莫與齊
천고에 우뚝 솟아 사라지지 않으리니	千古屹然磨不得
선생의 맑은 절개와 어느 것이 높은가	先生清節孰高低

떡을 던져라 들보 남쪽에	拋樑南
앞산 푸른 숲에 아침 산 기운 걷히네	前山綠樹捲朝嵐
그 속의 영허한 곳 알고자 하니	欲知這裡盈虛處
구름 그림자 하늘빛이 못에 가득하네	雲影天光共滿潭

떡을 던져라 들보 북쪽에	拋樑北
문장계의 시냇물 무궁하게 흐르네	文章溪水流無極
시내는 사람 때문에 이름나고 사람은 문장 때문에	溪因人號人因文

문장이 시내에 실려 쉼 없이 흐르네 文在溪流今不息

떡을 던져라 들보 위로 拋樑上

새벽하늘에 별빛 달빛 휘황찬란하네 曉天星月光煌朗

하학상달²⁸²의 공 구하고자 下學須求上功

자강불식하니 망녕된 마음 없네 自強不息眞無妄

떡을 던져라 들보 아래로 拋樑下

신명의 집 삼문이 활짝 열렸네 三門豁若神明舍

성현의 기상을 그 누가 알까 聖賢氣像有誰知

당시 기수에서 함께 목욕한 증점이라네 浴沂當年與點也

삼가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 伏願上樑之後

향불을 더욱 경건하게 피우니 香火益虔

문교가 크게 펼쳐지리라 文教大闡

벗들과 강론하며²⁸³ 麗澤講習

학문으로 벗들을 모으고 會友以文

282 하학상달 : 사람의 일을 배우고 나아가 자연의 법칙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논어(論語)》〈헌문(憲問)〉의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 아래로는 인간의 일을 배우고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터득하려고 노력할 따름인데, 나를 알아주는 분은 아마도 하느님뿐일 것이다.[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 其天乎.]”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283 벗들과 강론하며 : 원문의 ‘이택(麗澤)’은 서로 붙어 있는 두 개의 연못이라는 뜻으로, 봉우 사이에 서로 도움을 주며 학문을 토론하고 덕을 닦아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주역》〈태괘(兌卦) 상(象)〉에 “붙어 있는 연못이 태이니, 군자가 이것을 보고서 봉우들과 강습한다.[麗澤兌, 君子以朋友講習.]” 하였다.

학문으로 넓히고 예절로 단속하며 마음을 바로잡아 보존하여

博約操存

체가 밝아지고 용이 알맞게 되었네

明體適用

나라에 훌륭한 선비가 있으니

國有思皇之美

문왕처럼 편안했을 것이요

以寧文王

나라에 사수(泗洙)의 풍모가 전하니

國傳洙泗之風

선정신(先正臣)을 저버리지 말지어다

無負先正

관서순영연막상량문

關西巡營蓮幕上樑文

서술하노니 검각(劍閣) 밖으로 파천할 때 ²⁸⁴	述夫劍外播越
엄자는 화양에 별관을 웅장하게 하였고 ²⁸⁵	嚴子雄別館於華陽
강좌는 매우 편안한데	江左偏安
장공은 고을 북쪽에 장교들의 군막을 지었네	張公創校幕於州北
군막에 참여하여 상의하는데	是知參謀帷幄
큰 집처럼 깊고도 넓었으며 ²⁸⁶	卽有廈屋渠渠
진종일 드나들며	出入寅申
자질구레한 일도 귀찮음 없이 왕래하니	不煩往來屑屑
이렇게 장중한 행동은	凡茲鄭重之舉
나라를 지키기 위한 진정이 아님이 없었네	莫非衛國之忱
더군다나 오늘 태사(太史 기자(箕子))의 옛 성이	矧今太師古城
비로소 우리나라에 열리고	肇啓小華
성대한 업적과 남긴 풍모와 훌륭한 정사가	盛業遺風善政
지금까지 오랫동안 남아 있구나	猶有存者尙矣
하늘의 뜻이라면 의논할 필요가 없지만	無以議爲天意

284 검각……때 : 당 현종이 검각을 넘어 서쪽으로 파천한 것을 이른다.

285 엄자(嚴子)는……하였고 : 뒤의 '중경(重輕)' 내용을 보면 당나라 엄무(嚴武)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86 큰 집처럼 깊고도 넓었으며 : 원문의 '하옥거거(夏屋渠渠)'는 《시경(詩經)》〈진풍(秦風) 권여(權輿)〉에 나온 말로 “나에게 큰 집이 깊고 넓더니, 지금은 밥 먹을 때마다 남음이 없도다.[於我乎, 夏屋渠渠. 今也, 每食無餘.]”라고 하였다.

사람 일이라면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人事有如是乎
아! 쉽게 말할 수가 없도다	嗚呼未易言也
조정에서 곤임 ²⁸⁷ 을 선발하는데	茲朝家擇其閫任
우리 장수에게 맡기어 성을 지키도록 하였네	繫我侯倚於干城
밝은 달과 맑은 바람 같은 기상은	朗月淸風
얼음이나 옥에서 마음을 청신하게 하였고	洒胸襟於冰玉
가을 서리와 강렬한 햇볕 같은 위엄은	秋霜烈日
따뜻한 햇살에서 관대함과 엄격함을 이루었네	濟寬猛於暉暄
사적인 정에 치우치는 것을 끊어 버렸으니	心絕偏私
배상국(裒相國 배도(裴度)) 같은 참된 마음이고	裴相之肝肺寸赤
정사를 간소하게 하였으니	政在簡約
양공(羊公 양호(羊祜))처럼 장교가 10명뿐이었네	羊公之將校十人
오직 형주 도독(荊州都督)처럼 부임하여 보니	顧惟荊督之來臨
이곳의 군막이 오랫동안 황폐하였구나	值此蓮幕之久廢
민가에 군막을 만들려 했지만	開碧油於氓舍
폐단이 날마다 일어났고	弊日斯生
분주함 속에서 허겁지겁 다니다 보니	多窘步於駿奔
군막의 규모에 미비점이 있었네	制有未備
이윽고 군막이 없으니	旣幙幰之無所
장협의 노래 ²⁸⁸ 가 있었는데	長鋏有歌

287 곤임(閫任) : 지방 파견 장수를 말한다.

288 장협(長鋏)의 노래 : 전국 시대 제나라 풍환(馮驩)이 맹상군(孟嘗君)의 문객(門客)이 되었을 때, 좌우로부터 천시를 받아 보잘것없는 음식을 제공받자 기둥에 기대어 손으로 검(劍)을 치면서 노래하기를 “장협아! 돌아가야겠다. 먹자 해도 고기가

다행히 함께 모여서 상의하였으니	幸詢謀之僉同
백성들도 매우 원하는 바였네	小民至願
양지 바른 곳 건조한 땅에	厥位陽厥土燥
이에 건립하니	于以營之
후세에 폐허되거나 전보다 사치하지 않으면	無廢後無侈前
이 또한 충분하네	此亦足也
착공한 지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工斲不日
완성할 기약이 있었다	興替有期
황폐함을 헤아려 일으키니	廢度以興
설산의 경중 ²⁸⁹ 을 알게 되었고	方覺雪山之重
새도 날개를 펼치니 ²⁹⁰	鳥舒其翼
봄날 <감당> ²⁹¹ 처럼 더욱 지켰네	益衛甘棠之春
군막에서 여러 영웅호걸들이 서로 경하하니	玉帳群英交賀
여기에서 편히 거처하고 여기에서 편히 지내며	爰居爰處

없구나.〔長鋏歸來乎 食無魚〕” 하니, 맹상군이 좌우에게 명하여 음식을 잘 제공하도록 했다. 뒤에 그가 또 검을 치면서 노래하기를 “장협아! 돌아가야겠다.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구나.〔長鋏歸來乎 無以爲家〕” 하니, 맹상군이 또 사람을 시켜 그의 노모를 봉양해 주도록 했다고 한다. 《史記 卷75 孟嘗君列傳》

289 설산(雪山)의 경중 : 훌륭한 인물이 지키고 있어서 적들이 감히 준동하지 못하는 것을 중(重)이라 하고, 얇잡아 보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경(輕)이라고 한다. 두보(杜甫)의 <증좌복야정국공엄공무(贈左僕射鄭國公嚴公武)> 시에 “공이 오니 설산이 무거워지고 공이 가니 설산이 가벼워졌네.〔公來雪山重 公去雪山輕〕”라는 구절이 있다.

290 새도 날개를 펼치니 : 건물의 지붕이 새가 날개를 펼치고 나는 것 같다는 말이다.

291 감당(甘棠) : 《시경》<감당>에 “무성한 저 감당나무 가지를, 자르지도 말고 베지도 말라. 우리 소백이 쉬시던 곳이니라.〔蔽芾甘棠，勿剪勿伐。召伯所芟。〕”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지방관의 선정(善政)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관복 입은 관아의 아전들도 걱정하지 않게 되었으니 緋衣府吏不愁
 까치가 지은 집에 비둘기가 사는 격이었네²⁹² 維鵲維鳩
 이 삼문²⁹³을 지은 의미를 체득하여 體此三門規模
 너희의 심력을 단결하기 바라네 庶幾一乃心力
 남쪽 누각에서 달을 감상하면 南樓翫月
 혹 영사 시인이 있는 듯하지만 或有詠史詩人
 북쪽의 추운 주변루(籌邊樓)에서 北寒籌邊
 누군들 순국하는 의사가 되지 않으리 孰非殉國義士
 감히 짧은 노래를 지어 敢爲短唱
 긴 들보를 들어 올리는 데 도우리라 助舉修樑

어영차 떡을 던져라 들보 동쪽에 兒郎偉拋樑東
 한 줄기 긴 강 끝없이 넓도다 長江一帶浩無窮
 이 속에 한가로운 의미를 알려 하니 欲知這裡寬閒意
 하늘 너머 부용막²⁹⁴을 가리키네 天外芙蓉指點中

292 까치가……격이었네 : 《시경(詩經)》〈작소(鵲巢)〉에 “까치가 지은 집에 비둘기가 들어 사네.[維鵲有巢維鳩居之]”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장막의 역할로 지었는데 오가는 관리들의 여관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93 삼문(三門) : 관아 앞에 있는 세 개의 문으로, 정문(正門), 동협문(東夾門), 서협문(西夾門)을 말한다.

294 부용막 : 원문의 ‘부용(芙蓉)’은 막부(幕府)를 뜻하는데, 연막(蓮幕)이라고도 한다. 남북조(南北朝) 때에 유경행(庾景行)이 왕검(王儉)의 부중(府中)에서 장사(長史)가 되었는데, 소면(蕭緬)이 왕검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성부의 원료는 그 자리에 선임되기 실로 어려운데, 유경행이 녹수에 떠 부용에 의지하였으니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盛府元僚，實難其選，庾景行泛淥水，依芙蓉，何其麗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南史 卷49 庾杲之列傳》

떡을 던져라 들보 서쪽에	拋樑西
새벽 구름 나지막한 곳에서 용과 학이 둘러보네	回看龍鶴曉雲低
순식간에 다 걷혀서 풍랑조차 없으니	須臾捲盡無浪風
품평할 수 없는 매우 기이한 경관이었네	多少奇觀未品題

떡을 던져라 들보 남쪽에	拋樑南
앞산 푸른 숲에 아침 안개가 걷히네	前山綠樹捲朝嵐
외성에서 기자 정전의 터를 바라보니	試望外城箕井地
기자가 남긴 교화 지금까지 남아 있네	父師遺化至今覃

떡을 던져라 들보 북쪽에	拋樑北
하늘과 이어진 모란봉이 푸르구나	牡丹峯色接天碧
원컨대 지금부터 힘써 은혜에 보답한다면	願今黽勉思酬恩
예로부터의 명성이 북극성과 나란하리라	從古聲名齊北極

떡을 던져라 들보 위로	拋樑上
새벽하늘에 별과 달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구나	曉天星月光煌朗
앞으로 군막에는 영웅호걸이 많으리니	從來幕府多豪客
상장군을 도울 신기한 책사 기다리네	佇待神機佐上將

떡을 던져라 들보 아래로	拋樑下
강산 천리에 다른 명성보다 빛나네	江山千里耀殊價
우리나라의 옛 풍속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箕封舊俗今猶傳
당시 8조목의 교화를 말하구나	說得當年八條化

삼가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로
백성들이 생업을 즐거워하고
조두²⁹⁵는 오랫동안 고요하리라
한나라 변방의 전쟁
경보가 영원히 끊기니
은나라의 해와 달이
다시 이 나라에 밝게 비추리라

願上樑之後
民生樂業
刁斗長閒
漢塞風塵
永絕邊警
殷家日月
再明斯邦

295 조두(刁斗) :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두드렸던 도구이다. 조두는 다리가 셋이고 작은 자루가 달린 구리 냄비로, 군중에서 낮에는 여기에 음식을 익히고 밤에는 이것을 두들겨 야경(夜警)의 신호로 삼았다. 일명 초두(鑣斗)라고도 한다.

행장 行狀

호암 변 선생²⁹⁶ 행장

壺巖卞先生行狀

선생의 휘는 성온(成溫)이고, 자는 여윤(汝潤)이다. 세가(世家)의 초계군(草溪君)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宗祿大夫) 문열공(文烈公) 휘 정실(庭實)의 후손이다.-예문제학 효문(孝文)의 6세손이다.- 아버지 휘 구(球)-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다섯 아들을 낳았는데, 선생-가정(嘉靖) 경인년(1530, 중종25)에 태어났다.-은 장남으로, 어려서부터 남다른 자질을 지녀 부모를 섬김에 효도를 잘하였고, 여러 아우들과 우애가 지극하였다.

장성해서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선생이 마침 도학으로 후학들을 창도한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찾아가 스승으로 모셨다. 하서가 처음에 《소학(小學)》 책을 주니, 선생은 《소학》 공부를 마치고 말하기

296 호암(壺巖) 변 선생(卞先生) : 변성온(卞成溫, 1540~1614)을 말한다.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여윤(汝潤), 호는 호암이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문인으로 뛰어난 문장과 더불어 성리학에 정심(精深)하였으며, 이학(理學)과 수학(數學)에 밝았다. 이황과 성혼(成渾) 그리고 박순(朴淳)이 변성온의 학문을 칭찬하였다. 저서로 《호암집(壺巖集)》이 있다.

를 “성인이 되는 모범이 모두 이 글귀에 있으니, 이 책을 깊이 완미하고 힘써 행하면 어찌 이루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로 부터 모든 언행과 행동거지마다 한결같이 《소학》을 준칙(準則)으로 삼았다.

당시 하서의 집은 장성(長城)에 있었고, 선생은 무장(茂長)²⁹⁷ 집에 거처하였다. 집안은 가난하지만 검소하여 성품 또한 간소하고 소박하여 항상 패랭이를 쓰고 도보로 왕래하며 가르침 청하기를²⁹⁸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항상 구용(九容)²⁹⁹을 익혀 잠시도 벗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길을 가다 소나기를 만났는데, 발걸음을 오히려 신중하여 평상시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변화에 대처할 줄 모른다며 조롱하고 비웃자 변 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방금 비가 내릴 때 인가(人家)까지 거리가 멀어 비록 새처럼 빠르게 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비를 미처 피하지 못했을 것이니 비를 피하지도 못하면서 발걸음만 흐트러뜨리는 것보다는 평상시 나의 태도를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소?”

297 무장(茂長) : 전라북도 고창 지역의 옛 지명으로 지금의 전라북도 고창군(高敞郡) 무장면(茂長面)에 해당한다. 1417년(태종17) 무송현(茂松縣)과 장사현(長沙縣)을 합하여 무장현이라 하였고, 1914년에 고창군에 편입되었다.

298 가르침 청하기를 : 원문의 ‘청익(請益)’은 《논어(論語)》〈자로(子路)〉에 “자로가 정사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술선했 것이며 부지런히 해야 한다.’ 더 가르침을 청하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다.〔子路問政, 子曰: ‘先之勞之.’ 請益, 曰: ‘無倦.’〕”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299 구용(九容) : 군자의 아홉 가지 모양으로, “발 모양은 무게 있게 하고, 손 모양은 공손하게 하고, 눈 모양은 단정하게 하고, 입 모양은 다물어야 하고, 소리 모양은 조용하게 하고, 머리 모양은 곧게 하고, 기상의 모양은 엄숙하게 하고, 서 있는 모양은 덕스럽게 하고, 안색의 모양은 장엄하게 하는 것〔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을 말한다. 《禮記 玉藻》

그러자 식견(識見) 있는 자들은 선생이 아무리 다급한 상황³⁰⁰에도 반드시 이렇게 견지(堅持)하는 모습에 참으로 감복하였다.

선생의 학문은 반드시 근본과 실질에 힘쓰는 것이어서, 동문수학하던 여러 제자(諸子)³⁰¹들 모두가 당시에 학문이 넓고 행동이 바르기로 이름난 사람들이었음에도 독실한 실천과 확고한 지조에 이르러서는 선생을 추존하여 미칠 수 없었다고 여겼다.

선생은 효도함에 한결같이 정성과 공경으로 하였고, 또 조상을 섬기는 하나의 일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새벽에 반드시 사당에 알현(謁見)하고, 초하루와 보름의 제사³⁰²에는 반드시 참례(參禮)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반드시 기일에 앞서 목욕재계하고, 손수 제기를 깨끗이 하고 제수를 장만하였으며, 제사 지내는 날 밤에는 심의(深衣)³⁰³로

300 아무리 다급한 상황 : 원문의 '顛沛(顛沛)'는 《논어(論語)》〈이인(里仁)〉에 공자(孔子)가 “군자가 인을 떠나면 어찌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군자는 밥 한 끼를 먹는 사이에도 인을 떠나서는 안 되니, 아무리 다급해도 반드시 이 인에 의거하고 아무리 위태해도 반드시 이 인에 의거해야 한다.[君子去仁，惡乎成名？君子無終食之間違仁，造次必於是，顛沛必於是.]”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301 동문수학하던 여러 제자(諸子) : 당시 동문으로 금강(錦江) 기효간(奇孝諫), 고암(鼓巖) 양자징(梁子徵), 월계(月溪) 조희문(趙希文), 영웅(永膺) 이지남(李至男), 양보(良輔) 윤기(尹祈), 고반(考槃) 남언기(南彦紀) 등 모두가 당대의 드러난 인물들로 변성운을 중심으로 교류했고, 특히 기효간이 더욱 그를 공경하고 소중히 여겼다.

302 초하루와 보름의 제사 : 《가례(家禮)》 권1 〈통례(通禮) 사당(祠堂)〉에 “설, 동지, 초하루, 보름에는 참례한다.[正至朔望則參]”라고 한 구절이 보인다.

303 심의(深衣) : 유학자들이 평상시 입던 옷이다. 두루마기같이 생겼으며, 흰 비단으로 소매를 넓게 하여 옷깃, 소매끝, 옷단에 검정색 선을 둘렀다.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오색의 띠를 늘어뜨렸다. 《예기(禮記)》〈옥조(玉藻)〉에 “저녁에 심의를 입는다.” 하였다. 이 옷은 중국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중국 송나라로부터 주자학과 더불어 전해졌다. 《예기》 권39 〈심의〉에 그 제도가 나와 있다.

제계하고 앉아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았고, 술을 따를 때는 조상이 살아 계시는 듯이 섬기는 정성이 더욱 지극하고 간절하였다. 그러므로 집안사람들과 노비들도 제사 받는 어른이 보이는 것처럼³⁰⁴ 수저를 들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상황을 평소에 하던 것과 똑같이 하니, 지금까지도 이웃 마을과 같은 마을의 후생들이 서로 전하여 본보기로 삼는다.

아우들과 함께 한집에 살며 희희낙락하고 화목하게 날을 보냈는데, 그 막내아우 성진³⁰⁵도 타고난 자질이 남달라 선생이 바른길로 인도하며 몹시 정성스럽게 돌봐 주었고, 15세³⁰⁶에 하서 김인후 선생에게 함께 수학하였다. 선생은 그 뒤에 퇴계 이황 선생과 왕래하였는데 퇴계 선생이 그 학문을 시험해 보고 크게 인정하여 일찍이 8수의 시를 주었으니, 그 시³⁰⁷는 다음과 같다.

304 제사 받는……것처럼 : 《예기》〈제의〉에 “안으로 마음을 삼가고, 밖으로 거동을 조심한다. 재계하는 기간에는 부모가 거처하시었던 곳을 생각하고, 웃고 말씀하시었던 것을 생각하고, 뜻을 두고 의도하시었던 바를 생각하고, 좋아하시었던 음악을 생각하고, 즐기시었던 음식을 생각한다. 그렇게 3일을 재계하면, 곧 재계하며 생각하였던 대상을 본다.[致齊於內, 散齊於外, 齊之日, 思其居處, 思其笑語, 思其志意, 思其所樂, 思其所嗜. 齊三日, 乃見其所爲齊者.]”라고 한 데서 유래된 말이다.

305 성진 : 변성진(卞成振, 1549~1623)을 말한다.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여옥(汝玉), 호는 인천(仁川)이다. 형 변성온을 따라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와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학행이 높아 참봉을 제수했으나 나가지 않았고, 형과 함께 아산면 반암리 호암(壺巖) 마을 밑에서 은거하였다. 강의 강개(剛毅慷慨)한 성품으로 인해 집에 있으면서 항상 나라를 근심하고 가끔 시폐(時弊)를 개진하기도 하였다. 역학과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 사후 고창(高敞)의 월계사(月溪祠)에 제향(祭享)되었다.

306 15세 : 원문의 ‘지학(志學)’은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라는 뜻으로 15세를 가리킨다. 《논어》〈위정(爲政)〉에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吾十有五而志于學]”라고 한 공자의 말에서 유래하였다.

307 그 시 : 아래의 시는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권3 〈호남 수재 변성온이 찾아와서 며칠을 머물고 떠나는데 작별하며 주다.[湖南卞成溫秀才來訪留數日而去]

아름다운 산수를 하루 종일 배회하나 佳山佳水日徘徊
 인지³⁰⁸는 내 재주로 다하지 못하네 仁智吾猶未竭才
 감히 문노니 사문³⁰⁹은 무슨 비결 있는지 敢叩師門有何訣
 못다 한 이야기 천연대³¹⁰에서 펼쳐 보세 將試餘緒賁江臺

십 년 전 눈보라 헤치고 스승을 찾아왔거늘 風雪尋師十載前
 어찌 일관향³¹¹을 전수받지 못했다 하던가 云何一瓣嘆靡傳
 그대에게 권하노니 답습으로 그르치지 말고 勸君莫被因循誤
 물을 거슬러 나아가는 배처럼 노력하게나 努力須撐上水船

贈別〕에 보인다.

308 인지(仁智) : 공자의 말에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한 자는 산을 좋아하며, 지혜로운 자는 동하고, 인한 자는 고요하며, 지혜로운 자는 즐겁고, 인한 자는 장수한다.[智者樂水, 仁者樂山; 智者動, 仁者靜; 智者樂, 仁者壽.]”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좋은 산수(山水)를 이르는 말이다. 이후 산수의 감상을 통해 인지의 성을 추구하는 도학자의 자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용되었다. 《論語 雍也》

309 사문(師門) : 여기서는 스승인 하서 김인후를 지칭한다.

310 천연대 : 도산서원(陶山書院) 동쪽의 탁영담(濯纓潭) 가의 높은 바위 위에 대(臺)를 쌓고 붙인 이름이다. 바위에 새겨져 있는 ‘천연대’라는 글씨는 퇴계 이황이 죽은 지 30년 뒤인 1600년(선조33)에 월천(月川) 조목(趙穆) 등이 청하여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가 쓴 것이다. 천연(天淵)은 《시경(詩經)》에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쾜다.[鳶飛戾天, 魚躍于淵.]”라는 구절에서 온 말인데, 《중용장구(中庸章句)》에서는 그것을 “위아래에서 활발히 유행(流行)하는 천지의 조화(造化)를 살필 수 있다.”라고 하였다.

311 일관향(一瓣香) : ‘일주향(一炷香)’과 같은 말이다. 불교의 선종에서 당(堂)을 열어 불법을 강할 때 한 가닥 관향을 공경히 받들어 도법(道法)을 전수한다고 말한 데서 비롯된 말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사승하거나 흠양한다는 뜻으로 주로 쓰인다. 진사도(陳師道)의 〈연국 문충공 집에서 육일당의 도서를 보고[觀兗國文忠公家六一堂圖書]〉라는 시에 “지난날 한 가닥 관향을 올리었거니, 공경히 증답품을 위한 것이네.[向來一瓣香, 敬爲曾南豐.]”라는 구절이 보인다.

선생은 그 뒤로 학문이 더욱 정밀해지고 행실이 더욱 수양되었으며, 형제가 책상을 나란히 하고 탐구하니 이락(伊洛)³¹²의 지극한 즐거움을 흠모함이 있었다.

선생은 만년(晩年)에 어지러운 세상을 더욱 싫어하여 호암(壺巖) 아래 암석에 집을 지었는데 암석을 특별히 사랑하여 스스로 호암거사(壺巖居士)라 불렀으니, 확연하게 삼공의 자리로도 그 절개를 바꿀 수 없는 마음³¹³을 지녔다. 그러므로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은 일찍이 답서(答書)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현형(賢兄)처럼 몸이 건강하고 기력이 왕성하며 학문에 뜻을 두신 분이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세상을 멀리하시니, 원대한 일과 독실한 공부를 형이 아니면 누구에게 바라겠습니까. 요즈음 세상이 변하는 추이가 마치 뜬구름 같으니 군자(君子)가 그 사이에서 올곧은 도를 잡고 발 디딜 곳이 없어 오직 산림을 안식처로 삼을 뿐인데, 형님은 이미 그것을 얻었으니 명철(明哲)하다고 하기에 충분합니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12 이락(伊洛) : 중국 하남(河南) 지역을 흐르는 이수(伊水)와 낙수(洛水)이다. 송나라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가 그 일대에서 학문을 강론했는데, 이수는 명도(明道) 정호(程顥), 낙수는 이천(伊川) 정이(程頤)가 강학하였고, 주자가 또한 그 학통을 계승했던 까닭으로, 후대에 정주학(程朱學)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313 삼공의……마음 : 유하혜는 춘추 시대 노(魯)나라 사대부 전금(展禽)이다. 유하혜가 법관이 되어 세 번이나 쫓겨나자 어떤 사람이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유하혜는 “곧은 도로 사람을 섬긴다면 어디를 간들 세 번 쫓겨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르지 못한 도로 사람을 섬길 것이라면 어찌 굳이 부모의 나라를 떠나겠는가. [直道而事人，焉往而不三黜？枉道而事人，何必去父母之邦。]”라고 대답하였다. 《論語 微子》 이에 대해서 맹자가 “유하혜는 삼공의 직책을 위해서 그 절개를 바꾸지 않았다. [柳下惠不以三公易其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孟子 盡心上》

“삼가 생각건대 초연히 홀로 우뚝 서서 그림자를 돌아보아도 시기할 사람이 없고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더욱 확고히 하시니, 사람으로 하여금 그 풍모를 우러르고 흠모하는 마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사암(思菴) 박순(朴淳) 선생 또한 일찍이 편지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쇠퇴한 세상사 어지러이 뒤엉켜 실로 형용하기가 어려우니, 우리들은 다만 세속을 떠나 은거하며³¹⁴ 스스로 경계하고 강론과 토론을 널리 힘쓰며 세속의 분위기에 동요되지 않을 뿐입니다. 늘 생각건대 고명(高明)께서 품부받은 기운이 적지 않고 재능이 매우 뛰어나니, 우리 도(道)의 앞날이 그대에게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사암이 시를 주었는데,³¹⁵ 다음과 같다.

풍진 세상에 호남아 많지만	紛紛多少好男兒
노심초사 물욕에 좇지 않는 이 누구인가	誰免勞心逐物移
아득한 길을 홀로 산수를 찾아갔지만	杳杳獨尋山水去
뻘뻘한 소나무 아래 초가집 하나 있네	萬株松檜一茅茨

아! 두 선생은 구차하게 사람을 인정하지 않거늘 이처럼 선생을 장려

314 세속을 떠나 은거하며 : 원문의 ‘고도(高蹈)’는 세속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은거함, 또는 세속을 초탈함을 뜻한다. 한유(韓愈)의 <천사(薦士)>라는 시에 “국조에는 문장이 성대했는데, 진자앙이 으뜸으로 높이 일어났네. [國朝盛文章, 子昂始高蹈.]”라고 하였다.

315 사암이 시를 주었는데 : 이 시는 《사암집(思菴集)》에는 보이지 않고 《송사집(松沙集)》 권27 <호암선생변공묘갈명병서(壺巖先生卞公墓碣銘并序)>에 보인다.

하고 인정한 까닭은 선생의 품행과 출처의 대강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생은 세상을 떠날 때 후사가 없었다. -계 선생³¹⁶의 아들 경천(敬天)을 후사로 삼았다.- 또 전란을 겪으면서 심오한 학문과 진실한 공력이 기록되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직 계 선생에게는 아들과 손자가 있어 당시의 사실을 대략 기록하여 행장(行狀)을 지었으나, 선생은 지금까지 행장과 묘지명(墓誌銘)도 없으니 애석한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듣기로 선생 형제는 학행을 함께 하였는데, 선생의 나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계 선생의 학행은 모두 선생의 가르침에 근본을 둔 것이다. 이른바 '사당에서 곡할 적에 호랑이를 감동시켜 나타나지 않았다.'와 '정여립(鄭汝立)과 나무로 선기옥형(璇璣玉衡)³¹⁷을 만들었다.' 등의 말은 모두 선생의 일이지만, 계 선생이 함께 하였기에 지금 계 선생의 행장에 실려 있다. 이것은 이천(伊川)이 이른바 '나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이 글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한 것과 비슷한 경우라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형제의 기질은 차이가 있어 같지 않다. 선생은 온후하고 성실하여 명예와 영달을 추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계 선생은 강직하고 강개(慷慨)하였으므로 집에 거처하면서도 언제나 나라 걱정을 마지않았다. 상소하여 시폐(時弊)를 논한 것은 모두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계 선생이 홀로 한 일이다.

316 계 선생 : 막내아우인 변성진(卞成振)을 가리킨다.

317 선기옥형(璇璣玉衡) : 원문의 '기형(璣衡)'은 선기옥형의 준말로 고대의 천문 관측 기구이다. 혼천의(渾天儀)라고도 한다. 수학과 역학에 관심이 많았던 변성은 형제는 나무로 선기옥형을 만들어 천체를 관찰했다고 한다.

선생은 하서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로 늘 반축(反築)³¹⁸의 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찍이 하서의 절의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자 선생은 더욱 비분강개(悲憤慷慨)하였다. 마침내 나의 고왕부(高王父) 금강공(錦江公)³¹⁹ 때까지 도보로 왕래하며, 함께 편지를 써서 변이중(邊以中)³²⁰에게 사우(祠宇)를 창건하게 하고 양자징(梁子徵)에게 행장을 부탁하였다. 하서 선생이 불후의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선생의 힘이다.

선생은 우리 선조 금강공과 동문(同門)으로 출처(出處 벼슬길에 나옴과 물러남)와 기미(氣味 기상과 취미)가 서로 비슷하였다. 나는 일찍이 선생

318 반축(反築) : 돌아와서 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공자가 별세했을 때 문인(門人)들이 심상 삼년(心喪三年)을 치른 다음 모두 집을 찢겨 떠났으나, 자공(子貢)만은 다시 돌아와서 공자의 묘의 마당에 집을 짓고 홀로 3년을 더 거처하여 모두 6년을 지낸 데서 온 말이다. 여기서는 스승 김인후(金麟厚)에 대한 추모심을 드러낸 것이다.

319 금강공(錦江公) : 기효간(奇孝諫, 1530~1593)을 말한다.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해주(幸州), 자는 백고(伯顧), 호는 금강(錦江)·인재(忍齋)이다. 김인후·이항(李恒)의 문인이며, 기대승(奇大升)의 문하에도 출입하였다. 일생 동안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으며 후진 양성에 주력하여 호남의 은덕군자(隱德君子)로 불리었다. 동문인 김천일(金千鎰)·정철(鄭澈)·변이중(邊以中) 등과 교유하였으며, 그의 문하에서 오희길(吳希吉) 등의 학자가 배출되었다. 스승 김인후가 죽은 뒤에 서태수(徐台壽)·변이중·변성온(卞成溫)·변성진(卞成振) 등과 수산(水山)에 사우(祠宇)를 짓는 일에 앞장서서 참여하였다. 죽은 뒤 호조 참의에 추증되었고, 장성의 추산서원(秋山書院)에 제향되었다.

320 변이중(邊以中) : 1546~1611. 본관 황주, 자 언시(彦時), 호 망암(望菴)이며 장성(長城) 출생이다. 1568년(선조1)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573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문신이자 학자로서 군사 전략에도 뛰어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큰 공을 세웠다. 이이와 성혼의 학통을 이어받아 성리학과 경학에 밝았다. 아들은 자하(紫霞) 변경윤(邊慶胤, 1574~1623)이다. 문집에 《망암집》이 있다. 변성온은 1560년(명종15) 김인후가 사망하자 축단을 쌓았으며, 동문 기효간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변이중에게 김인후의 사당을 짓게 하였다. 또한 양자징에게 김인후의 행장을 짓게 하였다.

께서 의리를 행하신 일을 들었고 그의 죽음에 거듭 느낀 바 있으나,
근 백 년 동안 선생의 행장을 짓는 사람이 없기에 삼가 한두 가지 들은
일을 가지고 선생의 사실기(事實記)를 짓노라. 덕양(德陽) 후인 기정
익이 삼가 쓰다.

화암 송공 행장³²¹

花庵宋公行狀

공의 휘는 타(柁)이고, 자는 시정(時正)으로, 홍주(洪州) 사람이다. 융경(隆慶) 원년 정묘년(1567, 명종22) 6월 14일에 광주(光州) 황계(黃溪 지금의 운암동) 마을 집에서 태어났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탁월하고 기질과 도량이 한아(閑雅)하며, 예절로 몸가짐을 단속하고 정성으로 남을 대하였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몹시 애훼(哀毀)³²²하자 이를 보고 들은 원근의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여 하늘이 내린 효자라 칭송하였으니, 대개 그 본래의 성품이 인자하고 선량하였다. 계모(繼母)를 섬김에 있어서도 그 효성을 극진히 하였으며, 아우와 누이를 상대할 때는 우애가 지극하였다. 문장 또한 뛰어났으나 과거 공부를 달가워하지 않아 부친 해광공(海狂公)³²³은 그의 국량이

321 화암(花庵) 송공(宋公) 행장(行狀) : 조선 중기 의병 송타(宋柁, 1567~1597)에 대한 행장으로 기정익(奇挺翼)이 1687년(숙종13)에 쓴 것이다. 송타의 자는 시정(時正), 호는 화암, 본관은 홍주(洪州)이다. 조부는 송정황(宋庭篁)이고, 부친은 해광(海狂) 송제민(宋齊民, 1549~1601)이다. 처부는 성주 김씨(星州金氏) 김의백(金義伯)이다.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정유재란 때 한산도(閑山島)에서 왜적에게 붙잡혔을 때, 왜검(倭劍)을 탈취하여 그 배의 적을 거의 죽였으나, 다른 배의 왜적들에게 포위당하자 투신하여 자진하였다. 이 사실을 함께 붙잡혔던 전라도 담양(潭陽) 창평(昌平)의 진사(進士) 이신(李紳)이 수은(睡隱) 강항(姜沆, 1567~1618)에게 전하여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그의 옷만으로 화암(花巖) 아래서 장사를 지냈다. 아들 송수(宋燧)가 있다. 1706년에 광주(光州)에 건립된 운암서원(雲巖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322 애훼(哀毀) : 애훼골립(哀毀骨立)의 준말로, 부모의 죽음을 심히 슬퍼한 나머지 몸이 쇠약해진 모양을 말한다.

매우 중대하다고 여기어 대소사(大小事)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불러서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일찍이 중봉(重峯) 조헌(趙憲)이 언사(言事)로 북쪽 변방으로 귀양갈 적에³²⁴ 해광공이 장차 봉장(封章)³²⁵을 올려 당시 무뢰배들이 현자(賢者)를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죄상을 극력 논하려고 했는데, 언사(言辭)에 저촉되는 내용이 많았다. 공이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밤에 상소문 초고와 행장(行裝)을 가져다가 태인(泰仁)의 객관(客館)에서 불태워 버린 뒤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실상을 말하자 해광공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323 해광공(海狂公) : 송제민(宋齊民 1549~1602)의 호이다. 송타의 부친으로, 본관은 홍주(洪州), 자는 사역(士役), 초자 이인(以仁)이다. 이지함(李之菡)에게 사사(師事)하였고, 20세에 성현의 글을 모두 독파하였으며 속박되기를 싫어하는 호방한 성격 때문에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산룡(梁山龍)·양산숙(梁山瑋) 등과 의병을 일으켜 김천일(金千鎰)의 막하에서 전라도 의병 조사관으로 활약하다가 이듬해 다시 김덕령(金德齡)의 의병군에 가담하였다. 김덕령이 옥사하자 종일토록 통곡하고 《와신기사(臥薪記事)》를 저술하였다. 또, <척왜만언소(斥倭萬言疏)>를 올려 왜적을 물리칠 여러 방안을 피력하였으나 이것이 감사의 미움을 사게 되어 이후 무등산에 은거하면서 세상을 잊고 후진 양성에 힘썼다. 문집에 《해광집(海狂集)》이 있다.

324 중봉(重峯)……적에 : 언사는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것이다. 조헌은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나라를 바르게 하는 계책을 진언하였는데, 특히 <지부상소(持斧上疏)>로 시정의 폐단을 극론한 일이나 왜적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유명하다. 1589년(선조22) 4월에 조헌(趙憲)이 동서(東西)의 분당(分黨)에 대해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시폐(時弊)를 극론하다 선조의 분노를 사서 길주(吉州) 영동역(嶺東驛)에 유배되었으나, 이해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동인이 실각하자 풀려났다.

325 봉장(封章) : 내용이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주머니에 넣어 봉해서 바치는 글을 말한다. 고대에 관료들이 임금에게 기밀의 사안을 건의할 때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검정 주머니에 담아 밀봉하여 올렸기 때문에 봉장 또는 봉사라고 한다.

“부자(父子)는 천륜(天倫)이니 지금 이처럼 지극한 정을 보았는데, 사우(師友) 때문에 제 목숨을 버린다면 부자간에 은의(恩義)를 온전히 하는 도리가 아니다.” 그러고는 개연히 멈췄다.

정유재란(1597, 선조30) 때 해도(海島 진도를 말함)에서 왜적을 피할 계획으로 그 매제인 석주(石州) 권필(權驥)과 함께 먼저 무안(務安)으로 가서 배 한 척과 양식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왜적이 갑자기 그 지역을 침입하자 밤에 이동하다가 길을 잃고 왜적의 포로가 되어 한산도(閑山島) 바다에 도착하니 다시는 고국으로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예의의 나라에 태어났으니 의리상 오랑캐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살아서 추악한 포로로 사로잡히느니 차라리 죽어 고기의 배 속에서 장사 지내는 것이 낫다.”

그러고는 왜적의 칼을 빼앗아 번개같이 공격하더니 한 척의 배에 있는 왜적을 모조리 베어 버렸다. 부상을 당한 왜적 한 놈이 바다로 몸을 던져 헤엄쳐 벗어나서 다른 왜적에게 알리자, 적선(賊船)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창검들이 전광석화처럼 지나갔다. 공이 마침내 배에 올라 큰 소리로 호령하였다.

“나는 광주(光州) 송(宋)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이다. 불행하게도 도적의 함정에 빠졌고, 지금 또 불행히 죽게 되었다. 배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자네들은 조만간에 돌아갈 것이니, 나의 부모님께 말을 전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바다에 몸을 던져 죽으니 당시의 나이가 31세였다. 이는 창평(昌平)의 진사(進士) 이신(李紳)이 왜적의 배에 있던 날 직접 보고 수은(睡隱) 강항(姜沆)에게 전해 준 말이다.

공이 사로잡힌 뒤에 공의 아우 장(樺)도 장성 진원현(珍原縣)에서 붙잡혔는데,³²⁶ 해광공이 항상 염려하고 잊지 않으니 부인이 말하였다.

“두 아들이 똑같이 포로 신세가 되었는데, 유독 한 아들만 생각하시니 어찌 그리 차별하십니까.”

해광공이 대답하였다.

“만아이는 천성이 보통 사람과 달라서 반드시 원수의 나라에서 구차히 살지 않을 터이니, 결단코 이승에서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이요. 말하고 생각할 때마다 어찌 비통하지 않겠소?”

그리고 강항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들이 지금 죽을 곳에서 죽었으니 어찌 내가 무엇을 또 한탄하겠는가!”

공은 실천함이 독실하여 부친이 이처럼 소중히 여겼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찬술한 〈해광공묘표(海狂公墓表)〉³²⁷에서 공의 효성스럽고 우애 있는 행실과 왜적을 죽이고 물에 투신한 일을 칭송하였고, 석주 권필이 지은 〈송생명행기(宋生名行記)〉 또한 공의 효성과 우애, 인의와 용맹, 명명백백 장렬히 죽은 사적을 칭송하였다.

공은 일찍이 무안(務安) 사포(沙浦)에 기거(寄居)하면서 집은 화암

326 아우……붙잡혔는데 : 송장(宋樺)은 어린 나이 15세에 장성 진원현(珍原縣)에서 납치되어 일본에서 10여 년의 긴 세월을 머무르는 동안 왜구들의 회유를 물리치고 승려로 지내다 귀국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권필이 지은 〈송생명행기(宋生名行記)〉가 《석주집(石州集)》에 실려 있다.

327 해광공묘표(海狂公墓表) : 《해광집(海狂集)》 하권과 《송자대전(宋子大全)》 권 193에는 〈해광처사송공묘표(海狂處士宋公墓表)〉라고 실려 있다. 그 외에도 해광공과 관련된 전기 자료로 박세채(朴世采)가 지은 〈처사해광송공전(處士海狂宋公傳)〉이 《남계집(南溪集)》에 실려 있다.

(花庵)이라 편액하였으며, 백일홍정(百日紅亭)³²⁸의 유지(遺址)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한다. 공이 돌아가실 적에 아들 수(燾)의 나이는 겨우 10세였고 공의 아우는 일본으로 붙잡혀 들어간 지 10년 만에 돌아왔으며, 또 참혹한 전란을 겪었기에 공의 평생 사적과 몇 마디 말과 글이 모두 사라져 후세에 전하지 않으므로 모두 기록할 수 없었다.

328 백일홍정(百日紅亭) : 왜적이 호남을 도륙(屠戮)하자 송타가 전남 무안으로 피난해 사포(沙浦)에 살면서 집 곁에 지은 정자이다.

영주 양공³²⁹ 행장

瀛州梁公行狀

공의 휘는 천운(千運)이고, 자는 사형(史亨)이며, 자호는 영주(瀛州)이고, 본관은 탐라(耽羅)이다. 탐라 양씨(耽羅梁氏)는 한라군 순(漢羅君洵)의 후예로 신라·고려 때에 저명한 성씨(姓氏)였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문행(文行)으로 매우 칭송받았으나 벼슬은 모두 현달하지 못하였다. 휘 사원(泗源)은 중종조(中宗朝)에 현량(賢良)으로 천거되어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가 되었으니 호는 창암(蒼巖)이다. 휘 산보(山甫)³³⁰는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문하생으로 기묘사화(己卯士禍) 후에 덕을 숨기고 벼슬하지 않았으니 호는 소쇄(瀟灑)이다. 이들은 공의 증조부와 조부이다. 아버지 휘 자징(子徵)³³¹은 일

329 영주(瀛州) 양공(梁公) : 양천운(梁千運, 1568~1637)을 가리킨다.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사형(士亨), 호는 영주(瀛洲), 창평 출신이다. 아버지는 현감 양자징(梁子徵)이고, 성훈(成渾)의 문인이다.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큰 뜻이 없어 대과를 치르지 않았다. 벼슬은 동몽교관(童蒙敎官)·감찰(監察) 등을 거쳐 사섬시주부(司贍寺主簿)에 그친 뒤, 벼슬에 뜻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버지의 명으로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의 휘하에 들어갔으나, 고경명은 그가 외아들임을 알고 부모 봉양을 이유로 돌려보냈다. 이이첨(李爾瞻)과 친분이 있었으나 광해군 때 폐모론을 제기하자 절교하고 학문에 몰두하였다. 김상헌(金尙憲)과 교분이 두터웠으며, 1614년(광해군6) 임진왜란 때 불탄 소쇄원을 재건하였다.

330 산보(山甫) : 1503~1557. 자는 언진(彦鎭), 호는 소쇄옹(瀟灑翁), 본관은 제주이다. 15세에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조광조가 실각하고 죽임을 당하자 전라남도 담양(潭陽)으로 내려와 소쇄원을 짓고 은둔하였는데, 여러 번 관직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청송(淸松) 성수침(成守琛)과 교유하며 은둔하였다.

찍부터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를 스승으로 섬겼는데, 하서가 어질게 여겨 사위로 삼았다. 세간에서는 고암(鼓巖) 선생이라 불리었고, 덕행으로 천거되어 석성 현감(石城縣監)이 되었다. 공의 3대가 모두 행의(行誼)로 이름난 선비였는데, 고암이 더욱 저명하였다. 김씨가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나자³³² 다시 생원 김송명(金松命)의 딸과 혼인하여 세 아들³³³을 낳으니, 공이 그 막내아들이다.

공의 기상과 풍모가 남달랐고 품성 또한 효성스럽고 우애로웠으며, 어려서부터 농담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웃는 일 또한 드물었으니 중봉(重峯) 조헌(趙憲)이 한번 보고는 옥수(玉樹)³³⁴라고 칭찬하였다. 만력(萬曆) 경인년(1590, 선조23)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정여립(鄭汝立)의 역변(逆變) 때에 두 형 천경(千頃)과 천회(千會)가 유사(儒士)로 언사(言事)가 너무 지나쳐 모두 제명에 죽지 못하게 되니,³³⁵ 고암 선생은 그 재덕(才德)을 감추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게

331 자징(子激) : 1523~1594. 자는 중명(仲明)이며, 고암(鼓巖)은 그의 도호(道號)이다. 소쇄처사(瀟灑處士) 양산보(梁山甫)의 아들이고,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사위이자 문인으로 유학에 깊은 성취를 보였으며, 도의로써 송강(松江) 정철(鄭澈)·중봉(重峯) 조헌(趙憲)·우계(牛溪) 성혼(成渾) 등과 교유하였다. 양산보에 이어 소쇄원의 2대 주인이다.

332 김씨가……떠나자 : 양자징은 하서 김인후의 둘째 딸과 결혼했는데, 부인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333 세 아들 : 양자징의 후처가 낳은 3남 중 첫째는 양천경(梁千頃), 둘째는 양천회(梁千會), 막내가 양천운(梁千運)이다.

334 옥수(玉樹) : 뛰어나고 고결한 풍채를 지닌 사람을 뜻하는 말로, 흔히 뛰어난 아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진(晉)나라 때 사안(謝安)이 일찍이 여러 자질(子姪)들에게 어떤 자제(子弟)가 되고 싶냐고 묻자, 그의 조카인 사현(謝玄)이 대답하기를 “비유하건대, 지란옥수(芝蘭玉樹)가 뜰에 나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했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훌륭한 자제에 비유한다. 《晉書 卷79 謝玄列傳》

됨에 몹시도 상심하여 공에게 근신하며 자신을 잘 지키도록 권면하였다.

임진년(1592, 선조25)에 왜구가 도성을 침략하였을 적에 고암공이 변란 소식을 듣고 달려가 임금께 문안하려고³³⁶ 하자, 공은 부친이 노쇠하고 병들어 자력으로 갈 수 없음을 올면서 간언하니 고암 선생도 갈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러던 차에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과 건재(健齋) 김천일(金千鎰) 두 공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 공에게 가서 돕도록 명하고, 부자가 같은 마음으로 저승이든 이승이든 힘써 돕자는 말로 헤어졌다. 고경명은 그가 다른 형제 없이 연로한 부모를 모시는 것이 안타까워 돌아가서 부모를 봉양하라고 권면하였다. 그때 공의 제부(娣夫) 안영(安瑛)³³⁷도 고경명의 휘하에 뒤따라 들어왔는데,

335 정여립(鄭汝立)의……되니 : 조희문이 찬한 양자징의 묘갈명에 “1589년(선조22)에 전(前) 수찬(修撰) 정여립이 반역을 꾀하면서 진신(縉紳, 관직에 있는 사대부)들이 연루되었으며 양친경 등이 임금에게 소(疏)를 올려 역적을 성토하는데, 글의 내용이 분격하고 엄정하였다.”라고 하였다. 또한 1591년 9월 27일 기축옥사 2년 뒤에 일어난 신묘옥사에 연루되어 양자징의 아들 천경과 천희가 장형을 받고 장독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문장으로 이름 높았던 두 형제는 정철의 사주를 받아 최영경을 무고한 죄로 잡혀가서 국문을 받았다. 양자징의 셋째 사위도 옥사에 휘말려 죽었다는 등의 사실이 《선조실록(宣祖實錄)》 권25에도 보인다.

336 달려가 임금께 문안하려고 : 원문의 ‘분문(奔問)’은 난리를 당한 임금에게 달려가서 문후(問候)하는 것을 말한다. 주(周)나라 양왕(襄王)이 난리를 피해 정(鄭)나라 시골 마을인 범(汜)에 머물면서 노(魯)나라에 그 사실을 알리자, 장문중(臧文仲)이 “천자께서 도성 밖의 땅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계시니, 어찌 감히 달려가서 관수에게 문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天子蒙塵于外，敢不奔問官守。〕”라고 대답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春秋左氏傳 僖公24年》

337 안영(安瑛) : ?~1592.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원서(元瑞)이며 교리(校理) 안처순(安處順)의 증손으로 남원 출생이다. 안영은 양자징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공부하였고 차녀와 혼인하였다. 임진왜란 때 서울이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고경명의 휘하에 들어갔다가 금산의 싸움에서 고경명과 함께 순국하였다. 광주의 포충사(褒忠祠)와 금산의 증용사(從容祠), 남원의 정충사(旌忠祠)에 배향되었다.

공이 그를 격려하며 헤어진 후에 안영은 결단코 물러서지 않았으니, 이는 대개 공의 부자가 술선하여 창도한 힘일 것이다.

얼마 안 있어 고암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상제(祥祭)가 거의 끝날 무렵에 김씨 부인마저 세상을 떠났다. 공은 오랫동안 여막살이를 하는데도 슬픈 사모의 정이 늘 처음과 같았으며, 비통한 마음을 술회하며 육아(蓼莪)의 뜻³³⁸을 담았다.

정유년(1597, 선조30)에 왜구가 다시 쳐들어오자 신주를 짊어지고 칼날을 피했는데,³³⁹ 비록 위급하여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도 반드시 틈을 내어 제수(祭需)를 마련하여 슬픔을 다하니 함께 피난 간 자들이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계해년(1623, 인조1) 인조(仁祖) 초에 태학(太學)에서 공이 경술(經術)에 밝고, 품행이 독실하다고 여겨 천거하니 당시 대사성(大司成) 이경함(李慶涵)³⁴⁰이 인재를 얻었다고 기뻐하였다. 처음에는 동몽

338 육아(蓼莪)의 뜻 : 효자가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봉양하지 못한 심정의 애달픔을 나타낸 것이다. 《시경》〈소아(小雅) 육아〉에 “길고 긴 아름다운 쭉이라 여겼더니, 아름다운 쭉이 아니라 저 나쁜 쭉이로다. 슬프고 슬프다 부모여, 나를 낳으시느라 수고하셨도다.……아버지는 나를 낳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네. 나를 어루만지고 나를 길러 주시며,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길러 주셨다. 나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고, 출입할 때 나를 가슴에 두셨네. 그 은혜를 갚고자 하니, 하늘처럼 끝이 없도다.〔蓼蓼者莪，匪莪伊蒿。哀哀父母，生我劬勞。……父兮生我，母兮鞠我。拊我畜我，長我育我。顧我復我，出入腹我。欲報之德，昊天罔極。〕”라고 하였다.

339 정유년에……피했는데 : 정유재란으로 인해 소쇄원의 건물과 서책들이 불에 타는 비운을 겪었다. 창암촌과 소쇄원 일대가 불바다가 되자 양천운은 조상의 신주만을 받들고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왜적의 분탕질로 소쇄원 주변의 누정과 사찰도 큰 피해를 입었다. 환벽당, 식영정, 죽림재, 관수정도 병화를 입었다. 1614년(광해군6) 양천운은 정유재란 때에 불에 탔던 소쇄원 건물 가운데 광풍각을 먼저 중수했다.

교관(童蒙敎官)에 제수되었고,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하였으며, 전임하여 사섬시 주부(司贍寺主簿)에 이르렀다. 갑술년(1634, 인조12)에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병자호란 때 공이 이미 늙고 병들어 근왕(勤王)³⁴¹할 수 없게 되자 밖에 있는 집으로 나가 살며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더욱 절개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이 개연히 말하였다.

“나와 함께 합격한 사람 중에 인재가 있다고 이를 만하구나.”

이로부터 세상에 나갈 뜻이 없더니, 갑자기 병에 걸려 생을 마쳤다. 그해 겨울 11월에 고암 선생의 무덤 아래 동남쪽 언덕에 장사 지냈으니, 이는 그의 유지에 따른 것이다.

당초에 정여립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 공은 약관의 나이였지만 명성이 이미 자자하였기에 정여립이 찾아왔는데,³⁴² 공이 읍만 하고 절하지 않으며 끝내 너그럽게 대하지 않자 정여립이 정색하고 떠났다.

340 이경함(李慶涵) : 1553~1627.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양원(養源), 호는 만사(晩沙)이다. 1585년(선조18)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인조의 잠저(潛邸) 시절 스승이었다. 1603년 성주 목사를 비롯하여 광주 목사(光州牧使), 호조 참판, 경상도 관찰사, 병조 참판에 이르렀으나 폐모론에 반대하다가 탄핵을 받고 사직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한성부 우윤으로 총관(摠管)을 겸하다가 나이가 많아 사직하였다.

341 근왕(勤王) : 임금이나 왕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는 말이다. 《춘추(春秋)》에, 호언(狐偃)이 진후(晉侯)에게 말하기를 “제후(諸侯)를 구하려면 근왕하는 것밖에 없다.” 하였으므로, 후세에 의병을 일으켜 왕실을 구원하는 것을 근왕이라 하였다.

342 당초에……찾아왔는데 : 양천운은 신묘옥사로 죽은 두 형의 정치적 동지인 김극관, 김극인 형제의 누이와 결혼했다. 양천운의 처남 김극관은 금구(金溝)의 유생으로 정여립의 처족이었는데 이런 인연으로 정여립이 양천운을 찾아온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인해 양천운도 기축옥사에 연루될 뻔하기도 했다.

경인년(1590, 선조23) 무렵 만형은 여러 차례 초시에 합격하였는데, 공은 학업이 아직 정밀하거나 숙련되지는 않았으나 함께 회시(會試)에 응시하였다. 만형이 먼저 글을 짓고 나서 공의 이름으로 먼저 써내려 하자 공이 달가워하지 않고 말하였다. “빨리 합격하든 늦게 합격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공은 그 결과 합격하고, 만형은 낙방하였다.

그 뒤로 파계(坡溪 지금의 파주)에서 우계(牛溪) 성혼(成渾)을 곱하고, 그대로 반궁(泮宮)에 머무르고자 하였으나 친구 임환(林權)³⁴³이 저지하니, 과연 당시 의론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공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탄식하기를 “자중(子中)이 아니었다면 내가 위태로웠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처음에는 이이첨(李爾瞻)과 친분이 있었으나, 이이첨이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하자 곧장 그와 절교하였다. 어느 날 길에서 마주쳤는데 공이 곧바로 꺼리어 피하자, 이이첨이 억지로 말을 걸어 공은 다만 안부 인사만 나누고 곧바로 헤어졌다. 공이 교유한 사람은 청음 김상헌 선생과 같이 당시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으나, 벼슬을 하는 여러 해 동안 권문귀족의 대문에는 한 번도 얼씬하지 않았다.

처음 고암공이 병세가 위급하였을 적에 옛날 사람처럼 대변을 맞보고 하늘에 기도하였다.³⁴⁴ 기일이 마침 선달인데, 눈보라가 몰아치는

343 임환(林權) : 1561~1608.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자중(子中), 호는 습정(習靜)이다. 1590년(선조23)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천일(金千鎰) 밑에서 종사관으로서 군무(軍務)를 맡았다. 또한, 전란으로 인하여 많은 유민이 생기자 이를 진휼하는 데 힘쓰기도 하였다. 정유재란 때 자기 집의 곡식 수백 석을 지출하였으며, 전라도에서 의병을 모아 대장이 되어 8도에 격서(檄書)를 보내 백성의 쫓겨난 것을 호소하였다. 뒤에 무주 현감·문화 현령을 거쳤으나 조정의 권신들의 미움을 사서 끝내는 벼슬을 그만두고 향리에 돌아와 후진 양성에 여생을 바쳤다.

추위에도 목욕재계하기를 꺼리지도 않고 종신(終身)의 상(喪)³⁴⁵을 삼가 잘 치르니, 모든 사람들이 미치기 어려운 일이었다.

서숙부(庶叔父) 자호(子湖 양산보의 측실이 낳은 아들)는 일찍 부모를 여의어 고암이 사랑으로 길렀는데, 공은 그에게 제부(諸父) 섬기는 도리를 끝내 다하였고, 초상(初喪)과 장사를 지낼 때도 애통한 마음을 다하였다.

세 누이는 모두 사인(士人)에게 출가했다. 장녀는 오급(吳岵)의 아내로 왜적을 만나 굴복하지 않고 죽었으니, 공이 항상 의롭게 여기면서 몹시 애통해하였다. 차녀는 안영의 아내로 남편이 죽어 돌아갈 곳이 없게 되자 공이 맞이하여 한집에 살면서 더욱 공손히 섬겼다. 서씨에게 시집간 누이는 시집이 재앙을 당하였고 남편이 귀양지에서 죽었으니, 누이와 자녀들이 돌아갈 곳이 없게 되자 공이 또 데리고 돌아와서 사랑으로 보살피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밖의 자질(子姪)들 중에 가난하여

344 옛날……기도하였다. : 원문의 ‘상시(嘗矢)’는 부모의 위중한 병세(病勢)를 살피기 위하여 그 대변을 맛봄을 이르는 말로, 지극한 효행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남제(南齊) 때 유검루(庾黔婁)의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유검루가 극진하게 병간호하면서 부친의 병을 자신이 대신 앓게 해 달라고 매일 밤 북두성(北斗星)에 빌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그대 부친의 수명이 이미 다하여 더 이상 연장해 줄 수 없으나, 그대의 정성스러운 기도가 가혹하므로 이달 말까지만 연장해 주겠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믐날에 부친이 별세했다는 고사가 있다. 《南史 卷50 庾黔婁列傳》

345 종신(終身)의 상(喪) : 평생토록 기일을 만나면 효자는 일체의 일을 접어 두고 오직 어버이만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상중에 있을 때처럼 처신하기 때문에 기일을 이렇게 말한다. 《예기》〈제의(祭義)〉에 “군자에게는 종신의 상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일을 말한 것이다. 기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상서롭지 않아서가 아니다. 기일에는 내 마음이 한곳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다른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기울일 수가 없어서이다. [君子有終身之喪, 忌日之謂也. 忌日不用, 非不祥也. 言夫日 志有所至, 而不敢盡其私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의지할 곳 없는 자들도 모두 서둘러 거두어들였다. 공의 집안은 선대로부터 재산 분할 문서³⁴⁶가 없었으니, 공이 이에 자질들에게 경계하여 말하였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학문을 서로 전승하여 본래부터 토지문서가 없었으니, 선군자(先君子)의 구점(口占)³⁴⁷을 준칙으로 삼아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항상 《소학(小學)》과 《삼강록(三綱錄)》으로 자녀들을 가르쳐 외우고 익히게 하였다. 공은 경서와 제자백가에 관통하지 않음이 없었고 문장 또한 막힘이 없었으며, 와서 배우는 자들이 있으면 자상하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때때로 농사꾼이나 시골 노인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서로 어울렸으며, 자주 궁핍함을 겪었으나 편안하게 여겼다.

공은 용경 무진년(1568, 선조1) 8월 26일에 출생하여 승정 정축년(1637, 인조15) 9월 21일에 생을 마쳤으니 향년 70세였다. 첫째 부인은 안동 김씨 현감 춘(春)의 손녀로, 아들 한 명을 두었으니 진사 몽우(夢禹)이다. 둘째 부인은 창원 정씨 진사 창운(昌運)의 딸로, 세 아들을 두었으니 몽희(夢羲)·몽염(夢炎)·몽요(夢堯)이다. 몽우·몽희·몽염은 모두 공보다 앞서서 세상을 떠났다. 세 딸도 정씨가 낳았는데 김남기(金南紀)·최종해(崔宗海)·이상하(李相夏)가 그 사위이다.

측실이 낳은 아들 몽리(夢鯉)는 후손이 없고, 딸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유명남(柳永男)에게 출가하였다. 몽우의 두 아들은 진망

346 문서 : 원문의 ‘계권(契券)’은 집이나 토지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문서로 문권(文券), 문기(文記), 증서(證書)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재산을 자신이나 가족에게 나누어 상속하기 위하여 부모가 만들어 놓은 문안(文案)을 말한다.

347 구점(口占) : 초고(草稿)도 없이 즉석에서 입으로 부르는 것을 말한다.

(晉望)·진혁(晉奕)이고, 세 딸은 양문거(楊文舉)·이귀현(李貴顯)·김형지(金亨祉)에게 출가했다. 몽희의 아들은 진기(晉紀)이고, 몽요의 세 아들은 진수(晉秀)·진소(晉泰)·진첨(晉瞻)이다. 최중해의 세 아들은 경(景)·정(景)·성(景)이고, 두 딸은 유종신(柳宗臣)·김수오(金壽五)에게 출가했다. 이상하의 세 아들은 춘보(春報)·춘휘(春輝)·춘방(春芳)이고, 세 딸은 문과 급제한 이극형(李克亨)·양처중(梁處中)·염세주(廉世柱)에게 출가했다.

내외 증손자들은 지금 수십 명에 달하여 일일이 기록할 수 없지만, 면지(勉之)·익지(翼之)·임지(任之)·순지(順之)·정지(挺之)·기지(器之)·택지(擇之)·득지(得之)·경지(敬之)·응지(應之)·윤지(胤之)·휘지(徽之)·채지(采之)는 모두 증손자이다. 진억(陳億)·장론(張倫)·민휘(閔徽)·김수인(金壽仁)·박장증(朴章曾)·김진(金璉)·김수하(金壽河)·이시열(李時說)·이성필(李星弼)·이한준(李漢僑)은 모두 증손 사위이다. 양정기(楊鼎基)·석기(錫基)·태기(泰基)와 김기하(金紀夏)·대하(大夏)는 외증손이다.

대개 공의 품행과 지조는 가학으로 전수받았는데,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본성도 진실로 연유한 근원이 있다. 일찍이 소쇄공의 〈효부(孝賦)〉³⁴⁸를 살펴보니 무려 수백 운인데, 시어와 의미가 절절하고 간곡하였으니 효와 덕을 터득한 자가 아니면 이처럼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

348 효부(孝賦) : 효성이 지극했던 양산보가 49세 되던 1552년(명종7)에 총 214구(句)로 지은 〈효부〉라는 작품이 《소쇄사실(瀟灑事實)》에 실려 있다. 이 작품에는 효에 대한 근본정신과 사상을 담고 있다. 박세채가 찬한 양산보의 묘갈명을 보면 내종형 송순이 이 글을 읽고 감동하여 “이 이치를 깊이 알고 몸소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하서 김인후가 이에 차운한 시가 《하서집(河西集)》 권1에 전한다.

다. 그러므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선생이 차운시를 지었으니, 두 분이 시를 주고받음에 화락함이 넘쳐흘렀다. 대개 효와 덕의 한 맥이 소쇄공으로부터 고암공으로, 고암공으로부터 공으로 이어지니 3대가 품부(稟賦)받은 바가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공이 평생 몸가짐을 법도로 다스림이 모두 효와 덕으로부터 미루어 나간 것이니, 참으로 이른바 “효와 덕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며, 인을 하는 근본이다.”라는 말에 부합하다.

아! 공경할 만하다. 공이 세상을 뜬 지 지금까지 5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 행장이 없기에 공의 손자 진태(晉泰)가 오래될수록 더욱 사라질까 두려워 나를 찾아와 매우 간곡히 부탁하였다. 나는 책임자가 아니며 사양하였으나, 돌아보건대 우리 선조 금강공(錦江公 기효간)과 고암 선생이 진실로 동문인지라 공의 세덕(世德)에 대하여 대략 들은 것이 있고, 진태와 두터운 교분이 있으므로,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어 마침내 그 가장(家狀)을 간추려 삼가 위와 같이 찬술하였다.

승정 기원후 경오년(1690, 숙종16) 2월 하순에 덕양(德陽) 기정익(奇挺翼)이 삼가 쓰다.

묘갈명 墓碣銘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 유공³⁴⁹ 묘갈명 병서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柳公墓碣銘 并序

모양(牟陽 함평(咸平))의 남쪽 15리쯤 두치(斗峙) 마을에 한 훌륭한 선비가 있었으니, 유공의 휘는 여걸(柳汝杰)이고, 자는 사준(士俊)이다. 송정 기원후 갑자년(1684, 숙종10) 9월 22일 집에서 생을 마쳤고, 그해 10월 27일 집 뒤의 태좌 진향(兌坐震向)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병인년(1686) 여름 그 막내아들 시원(時遠)이 행장을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선군의 효행은 전해지기에 마땅하지만, 선군은 평소에 마음을 비워 소유한 것이 없는 듯이 하고 남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초한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 한두 가지 사적이라도 기록하지 못한 까닭에 다른 분에게 글을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장차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우려 하는데 비석에 차마 한마디 말을 새기지

349 절충장군……유공 : 유여걸(柳汝杰, 1601~1684)을 말한다. 자는 사준(士俊), 본관은 고흥이다.

않을 수 없기에 감히 찾아와 묘갈명을 청합니다.”

나는 재차 사양하며 말하였다.

“세상에서 선조를 위하여 불후함을 도모할 때는 반드시 덕망이 있고 문사에 능통하며 세상에서 추앙받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글을 짓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 어찌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원이 바로 눈물을 흘리고 절하며 말하였다.

“선군께서 살아 계실 때 자랑하여 뽐내는 것을 일삼지 않으셨으니, 돌아가셨다 하여 어찌 차마 그 뜻을 어겨 묘비명을 짓느라 바쁜 사람의 손을 빌려 과장된 글을 쓰게 하겠습니까? 어르신께서는 사양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공은 품행이 높아 항상 겸허함으로 그 자식을 가르쳤으니 지금 시원이 그것을 체득하여 화려하게 꾸미려 하지 않고 사실만을 기록하여 속이려 하지 않는 것이 훌륭하였다. 이에 끝내 사양할 수 없어 삼가 그 가장(家狀)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의 관향(貫鄉)은 고흥(高興)이다. 고흥 유씨는 고려 때에 저명하였으니, 도침의 정승(都僉議政承) 고흥 부원군(高興府院君) 영밀공(英密公) 청신(淸臣)이 바로 그 11대조이다. 그 후로는 내자시 정(內資寺正) 면(沔)이 지금의 고창현(高敞縣)에 와서 거주하였으니, 바로 공에게 5대조이다. 선무랑(宣務郎) 심(諡), 사직(司直) 춘영(春英), 청암도찰방(靑巖道察訪) 운(漚)은 바로 고조·증조·조부이다. 아버지의 휘는 동인(東仁)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만호(萬戶)를 지냈다. 광산 김씨와 혼인하여 공을 낳았으니 바로 신축년(1601, 선조34) 9월 7일이다.

공의 성품은 본래 효우하고 기질 또한 굳건하고 올곧았다. 겨우 10여세가 되었을 때 만호공이 무(武)를 업으로 삼아 먼 곳에 있었으므로

공이 집안일을 주관하였는데³⁵⁰ 아무리 사나운 성질의 노비일지라도 복종시키니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그 뒤 더욱 정성스런 마음으로 부모를 섬겼는데, 신사년(1641, 인조19)에 부친상을 당하여 애휼(哀恤)함이 심하였다. 장지가 10리 밖에 있는데 상여의 뒤를 따라가 반우(反虞)³⁵¹할 때까지 모두 걸어가며 곡하니, 따르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로 여겼다.

그 뒤로 모친을 섬기면서 오래도록 멀리 나가 본 적이 없고 자식의 직분을 비워 둔 적이 없었다. 정유년(1657, 효종8) 공의 나이 57세에 병에 걸려 의원을 찾아갔다가 어느 날 문득 모친에 대한 그리움을 견딜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이 병들자 마침내 정성을 다하여 탕약으로 모셨다.

이듬해 봄에 모친이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으니, 전후의 모든 상을 그렇게 치렀다. 모친이 생전에 천둥을 무서워하였기에 공은 천둥이 칠 때마다 폭우가 내리는 중이라도 반드시 모친의 무덤을 끌어안고 통곡하였으니 옛날 효자들의 행동과 똑같았다.³⁵² 삼년상을

350 주관하였는데 : 원문의 ‘간고(幹蠱)’는 간부지고(幹父之蠱)의 준말로, ‘간(幹)’은 ‘선(善)’을, ‘고(蠱)’는 ‘사(事)’를 뜻하며,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여 아버지가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사업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고괘(蠱卦) 초육(初六)〉에 “초육은 아버지의 일을 주관함이니, 자식이 있으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허물이 없게 되리라.[六, 幹父之蠱, 有子, 考无咎.]”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51 반우(反虞) : 반곡(反哭)이라고도 한다. 묘지에서 장례가 끝나면 혼백을 모시고 본가로 반혼(反魂)하는 절차이다.

352 모친이 생전에……똑같았다 : 《이십사효고사전(二十四孝高士傳)》〈왕부읍묘(王褒泣墓)〉고사를 말한다. ‘위나라 왕부는 그의 아버지의 진 문제에게 죽임 당하자 평생 서쪽을 향해 앉지 않음으로써 진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의 모친은 천둥을 무서워했는데, 천둥소리가 날 때면 무덤으로 가 울면서 ‘제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 마세요!’라고 말했다. 무덤 앞 측백나무를 어루만지며 통곡했는데,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서는 반드시 사당 문 앞에 서서 문후하고 또 새벽에 알현하고 삭망(朔望)에 참배하며 제기를 갖추고 3일간 재계하며, 제수 음식의 남은 찌꺼기라도 함부로 하거나 밟지 않는 것 등의 일을 모두 옛 법도대로 따랐다. 여든의 나이에도 겨울에 목욕재계하니 사람들이 더욱 어려운 일로 여겼다.

자식들을 잘 가르쳤고, 한 명의 동생과 우애가 깊었다. 성품이 엄정하고 강직하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번번이 사절하고 만나지 않았다. 고을 수령이 소문을 듣고서 훌륭히 여겨 물건을 보내며 문안하자, 공은 “실상이 없이 그냥 받는 것은 나의 수치이다.”라고 말하고 끝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의롭게 여겨 여러 번 조정에 천거하였으나 모두 시행되지 않다가 연격(年格)과 순자(循資)³⁵³로 부호군(副護軍)에 제수되었다. 집에서 별세하니, 향년 84세였다.

해주 오씨(海州吳氏)와 혼인하여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았고, 다시 진주 정씨(晉州鄭氏)와 혼인하여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 아들은 시재(時裁)·시승(時昇)·시성(時成)·시원(時遠)인데, 시성은 공보다 먼저 요절하였다. 남두응(南斗應)·김덕겸(金德謙)·박상명(朴尙明) 등이 사위이다.

아! 공의 아름다운 자질을 어찌 쉽게 얻을 수 있으랴. 공은 외진

눈물이 나무에 떨어지자 나무가 메말랐다.[魏王哀，父儀爲晉文帝所殺，哀終身未向西坐，示不臣晉。母畏雷，每聞雷，卽奔墓前，拜泣告曰：‘哀在此，母勿懼。’嘗攀墓前柏樹號泣，淚着樹，樹爲之枯。]

353 순자(循資) : 관리 승진(昇進)의 한 표준이다. 관리를 승진시킬 때 반드시 그가 그 직책에 얼마나 있었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데 따라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고을에서 태어나 학문과 사우의 도움이 없었지만, 떳떳한 본성은 하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행실은 옛사람과 가까웠다. 경전을 읽고 학문에 종사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근본과 실상이 없는 자들과 비교해 보면 그 고하(高下)가 어떠하겠는가? 아! 공과 같은 사람이 어찌 공자께서 말한 선인(善人)이 아니겠는가? 이에 마땅히 명(銘)을 지으니 명은 다음과 같다.

온갖 행실이 있어도	行有百
근원은 하나인데	源則一
그 하나에 능하지 못하면	一不能
온갖 것을 잃어버리네	百皆失
사람들은 살피지 않았지만	人莫察
공은 거의 터득하였으니	公庶得
만약 믿지 못하겠거든	如不信
여기에 새긴 명을 보라	視此刻

훗날 봉산(蜂山) 오좌(午坐)의 언덕으로 이장하였다.

증 효충장의 선무공신 자헌대부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개백군에 추증된 행 통정대부 남해현령 기공³⁵⁴ 묘갈명
贈效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皆伯君行通政大
夫南海縣令奇公墓碣銘

정묘년(1687, 숙종13) 봄에 족속 진영(震英) 씨가 그 종제 진벽(震壁)을 시켜 선증조고 개백군(先曾祖考皆伯君)의 묘갈명 초고를 소매에서 꺼내어 내게 보여 주며 말하였다.

“묘갈명의 초고는 고 헌납(獻納) 이기발(李起淳) 공이 지은 것³⁵⁵이다. 그가 서술한 선조의 사적에 대한 전말은 비록 상세하나, 위대한 자품과 훌륭한 포부가 끝내 세상에 묻혀 버렸고, 세상에 억눌려 펼치지 못한 사적도 또 막혀서 밝혀지지 못하였다. 자네가 우리 집안 대대로 지키며 입으로 구전된 것과 가전(家傳) 중에 듣고 기억한 것을 대략 수정하거나 윤색(潤色)을 해 보아라.”

354 증 효충장의……기공 : 기효근(奇孝謹, 1542~1597)을 가리킨다.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숙흠(叔欽)이다. 1579년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1590년 남해 현령(南海縣令)으로 부임하여 전선(戰船)과 병기를 수리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원균(元均)의 휘하에서 여러 차례 해전(海戰)에 참가하였다. 그때마다 선봉에 나서서 전공을 세웠으므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현령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군과 대치하게 되자 어머니와 함께 바다에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3등에 추록되고, 개백군(皆伯君)에 추봉되었으며, 병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355 묘갈명의……것 : 《서귀유고(西歸遺藁)》 권7에 〈선무공신증개백군행현령기공묘갈명(宣武功臣贈皆伯君行縣令奇公墓碣銘)〉이 실려 전한다.

내가 삼가 생각하건대, 개백군은 우리 고조 금강공(錦江公)의 아우로, 내가 집에서 들었던 것 중에 이기발 공이 서술한 글에 마침 다 실려 있지 않았기에 족속의 명을 사양할 수가 없었다.

삼가 살펴보건대 공의 휘는 효근(孝謹), 자는 숙흠(叔欽)이고, 성은 기씨(奇氏)이다. 기씨는 고려 초부터 저명하였다.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휘 수전(守全)은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어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었으니, 바로 공의 먼 조상이다. 이로부터 기씨는 더욱 창대하여 대대로 현달한 벼슬을 하였다. 조선조에 이르러 휘 건(虔)은 효행과 청렴함으로 알려졌으며, 대성(臺省)³⁵⁶에 전임되어 지조로 세상에 유명하였다. 외직으로는 방백(方伯)이 되었고 조정에 들어와서는 전조(銓曹)에 자리하여 온 세상의 인정을 받았고, 마침내 청백리(清白吏)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세조의 잠저(潛邸) 시절에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였으나 병을 핑계 대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³⁵⁷ 시호는 정무(貞武)³⁵⁸이다.

휘 찬(欖)은 문장으로 가문의 명성을 이었으나, 벼슬은 응교(應敎)에 그쳤으니, 공에게 증조부가 된다. 할아버지는 휘 원(遠)으로 돈용

356 대성(臺省) : 대간(臺諫)과 같은 말로,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벼슬을 통틀어 이른다. 이들 관직은 모두 청요직(淸要職)으로 일컬어진다.

357 세조의……않았다 :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자 기건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끝까지 절개를 지켰고, 후에 조정에서 출사할 것을 몇 차례 청하였으나 청맹(靑盲)을 빙자하고 끝까지 고사하였다.

358 시호는 정무(貞武) : 시법(諡法)에 '정(貞)'은 청렴결백하고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며, '무(武)'는 굳세고 강력하여 올곧게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조실록(世祖實錄)》에 “경진년(1460) 겨울 12월 계묘삭(癸卯朔) 신축(辛丑)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기모(奇某) 죽음. 시호는 정무이다. 청백수절(淸白守節)은 정(貞)이요, 형민극복(刑民克服)은 무(武)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교위(敦勇校尉)를 지냈으며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아버지는 휘 대유(大有)로 호조 판서(戶曹判書) 고흥군(高興君)에 추증되었고 어머니는 함양 오씨(咸陽吳氏)로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었는데, 이는 모두 공이 책훈(策勳)되었기 때문이다. 가정(嘉靖) 임인년(1542, 중종37) 4월 7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호방하여 얹매이지 않았고, 재주가 타고난 기량 밖으로 넘쳐흘렀다. 성장하여서는 독서하거나 문장을 지을 때 수고롭지 않아도 잘하였고, 필법 또한 오묘하였다. 금강공은 원대한 뜻으로 권면하여 공부 과정을 매우 엄격히 하였는데 공이 감히 어기지 않았다. 장성한 나이에 이르도록 재주를 시험하지 못하였으나 대부인께서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여 영화롭게 봉양하는 일에 조금해지다 보니 무예까지 겸비하여 익혔다. 마침내 기묘년(1579, 선조12) 무과에 급제하여 곧바로 선전관(宣傳官)을 제수받고, 비변사 낭관(備邊司郎官)을 겸하였다.

숙위(宿衛)를 하고 있을 때 임금의 총애가 매우 지극하였고, 비변사에서 봉직(奉職)할 때에도 근면하고 영민함이 동료들보다 빼어났기 때문에 당시의 명망이 문사(文士)들 사이에도 자자하였다.

당시에 나라의 태평이 오래되어 군사 대비에 소홀하였는데, 주군(州郡)은 더욱 심하였다. 선조(宣祖)께서 어사(御史)를 보내 살펴보려고 했으나 마땅한 사람을 물색하기가 어려워 집정(執政)에게 ‘기풍과 담력이 있고 아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정밀히 선발하되 문신과 무신에 구애받지 말라.’라고 명하였다. 집정이 공을 아뢰자 임금께서 곧바로 윤허하였다. 무신으로 어사에 임명된 경우는 예전에도 없었던 일이라 사람들이 모두 영화롭게 여겼다.

공이 명을 받고 많은 권세가들을 탄핵하는데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니 내외가 숙연해졌으나, 이 때문에 공을 시기하는 자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져서 만호(萬戶)로 좌천되었다. 다시 광주 판관(光州判官)이 되었는데 공은 더욱 꺼리는 바가 없었다. 공은 오직 공사(公事)를 위하여 힘썼으나 술에 빠졌다고 공을 논박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임금께서 윤허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라고 하였다. 또 특별히 평안 우후(平安虞侯)에 제수하자 지나친 진급이라 논박하여 아뢰는 자가 있었으나 임금이 또 윤허하지 않았다. 공은 인정받은 것에 더욱 감격하여 은혜에 보답하고 변방을 견고히 하려 했으나 끝내 병으로 인해 나아가지 못하였다.

공은 애초부터 권문귀족에 아부하지 않았고, 또 강직한 마음으로 악행을 싫어하니,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고슴도치 털처럼 일어나 공의 힘을 가로막고 의망(擬望)을 저지하려고까지 하였다. 공이 이에 개연히 벼슬에서 물러나 여러 해를 지냈다.

경인년(1590, 선조23) 가을 남해 현령으로 제수되었는데 부임한 지 오래지 않아 치적이 크게 드러났다. 임진년(1592)에 왜구들이 쳐들어오자 공은 왜적이 마음대로 날뛰게 된 것은 본도(本道)에서 시작되었는데, 만약 지금 방어하지 못한다면 진실로 본도부터 임금을 적들 사이에 버려두는 것이라 여겨 마침내 전함(戰艦)을 정비하고 군대를 정돈하여 치밀하게 계책을 세웠다. 본현(本縣 남해)은 수군대장(水軍大將) 원균(元均)에 예속되어 있었으니, 원균이 공을 선봉으로 삼자 공은 기세를 떨치며 사천(泗川)³⁵⁹에서 힘써 싸워 참살하거나 사로잡은 왜적

359 사천(泗川) : 현재 삼천포 앞바다로, 1592년(선조25)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이 매우 많았다.

적들이 꺾여 물러간 다음 막부(幕府)³⁶⁰에서 공로를 보고하여 공을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로 포상하고 승진시켰다. 그 후로 임기가 다 되었을 적에 본현은 곧 연해의 요충지이므로 공의 위무(威武)에 의지해야 한다는 중론이 있어, 마침내 함께 조정에 아뢰어 유임시켰다. 공은 부지런히 힘써 방어책을 세웠고, 생선과 소금을 유통하여 마련한 군량을 비축해 두어 수요에 대비하였다. 여러 진영의 수군이 모두 공에게 지급을 받았으니, 당시에 차달(車達)³⁶¹과 같은 공이 있다고 하였다.

공이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 아직 공신호(功臣號)를 받기 전에 갑자기 질병에 걸려 정유년(1597, 선조30) 9월 21일 집에서 돌아가셨다. 그 후 8년이 지난 갑진년(1604)에 조정에서 비로소 왜적을 토벌한 공을 녹훈(錄勳)하였다. 공(功)을 다투는 자들이 공을 억누르고 그 실상을 묻어 버렸으나 공의 큰아들이 그 원통함을 하소연하자 추가로 녹훈되어 효충장의 선무공신 자헌대부 병조판서 개백군(效忠仗義宣武功臣 資憲大夫兵曹判書皆伯君)에 추증되었다.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냈으

이순신이 이끄는 전라 좌수영의 정예 함선 23척과 원균(元均)이 이끄는 경상 우수영의 함대 3척 등 총 26척이 왜군 함선 13척을 격침시키고, 왜군 2,600여 명을 사살한 해전이 있었던 곳이다.

360 막부(幕府) : 장군의 본영(本營), 또는 장군의 칭호로도 사용된다. 막부는 곧 군막(軍幕)의 뜻으로, 군행(軍行)은 수시로 막(幕)을 치고 부(府)로 삼기 때문에 막부라 한다.

361 차달(車達) : 유차달(柳車達)을 말한다. 고려 태조 때의 개국 2등 공신 12인 중의 한 사람으로, 문화 유씨(文化柳氏)의 시조이다. 차달은 태조 때 난에 임하여 양곡이 모자라자, 개인의 양곡을 수레에 운반하여 군량으로 보급하였다. 이러한 군량수송에 공을 세워서 난이 평정된 후에 차달이라는 이름이 내려지고 대승(大丞)에 제수되었으며, 삼한공신(三韓功臣)의 호를 받았다. 《高麗史 卷99 列傳12》

니, 바로 만력 을사년(1605, 선조38) 2월이다. 아! 이것이 바로 공의 벼슬살이 이력의 대강 사실이다.

공의 기상은 매우 밝고 수려하여 애초부터 무인의 거친 습성이라고는 없었으므로 영특하고 걸출함은 속된 무리들을 복종시켰고, 군세고 강직한 성품으로 절대 아첨을 하지 않았다. 그의 시 격조 또한 더할 수 없이 청절하였으니 일찍이 회포를 읊은 시[詠懷]는 다음과 같다.

하늘은 높디높고 땅은 깊은데	天上高高地下深
그 사이 어느 곳에 내 마음을 펼치랴	中間何處展吾心
청산녹수에 무한한 생각	綠水青山無限意
청풍명월처럼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네	清風明月古猶今

여기에서 상쾌하고 시원스런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사(御史)가 되어 순시할 때 이르는 곳마다 읊었던 시를 다 기록하지는 못하였으니, 그 중 한 작품을 읊어 본다.

멀고 먼 평평한 들녘에 저녁노을 저무는데	遠遠平郊暮靄收
쓸쓸한 나루터에 작은 배 타고 가네	官津寥落小行舟
갈매기와 백로는 나랏일 급한 줄도 모르고	鷗鷺不知王事急
해 질 무렵 마음 가는 대로 물가에 내려앉네	夕陽隨意下汀洲

배척당하여 등용되지 못하던 시절에 어떤 사람에게 준 절구(絕句)는 다음과 같다.

바위가 소나무는 푸르고 푸르며	青青巖畔松
서리 속에서도 국화는 찬란하네	郁郁霜中菊
천년에 지음이 드문데	千載少知音
창 앞 초승달만 환히 비추네	窓前新月白

온종일 찾아오는 사람 없으니	盡日無人到
늙고 못난 이 몸 ³⁶² 쓸쓸하기만 하네	龍鍾任索居
다정해라 매화와 대나무	多情梅與竹
함께 열흘 남짓 머물렀네	伴宿一句餘

전란에 임하여 또 한 수를 읊었는데, 다음과 같다.

나라가 위기일발에 놓였으니	家國危如髮
임금은 어디에 의지할까	君親何所依
외로운 신하 하염없이 눈물로 가슴 적시며	孤臣淚橫臆
아련히 초승달만 바라보네	新月望依依

처음에 공은 필법이 당세에 독보한다고 자부하였는데, 때마침 이름난 관료인 이홍로(李弘老)³⁶³를 방문하니 이홍로가 부재중이었다. 책

362 늙고 못난 이 몸 : 원문의 ‘용종(龍鍾)’은 원래 사람이 늙어서 대나무 가지와 잎이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형용한 말로, 노쇠하고 못난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 성당(盛唐)의 시인 고적(高適)이 지은 〈인일에 두이습유에 게 부치다[人日寄杜二拾遺]〉의 시에 “늙고 못난 이 몸이 도리어 이전 석의 품계에 오르니, 동서남북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대에게 부끄럽도다.[龍鍾還忝二千石, 愧爾東西南北人.]”라는 내용이 보인다.

상에는 새로 인쇄한 《강목(綱目)》 책자가 제목이 쓰여 있지 않은 채로 있었는데, 이는 이홍로가 명필을 맞이하여 쓰고자 한 것이었다. 공은 곧바로 붓을 적서 한 질의 제목을 모두 써 놓고 떠났다. 이홍로가 돌아와서 그 필법을 보고는 세상에 드문 필체라 하여 여러 손님들에게 두루 자랑하였지만 누가 쓴 것인 줄 모르다가 오랜 후에야 알고 깊이 원한을 품었다. 그 뒤로 공을 가로막는 일들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당시는 이홍로의 무리가 막 국정을 장악하여 당시의 정국이 크게 변하였는데 저명한 대신과 현명한 재상들 중 공을 아는 이들이 모두 내쫓겼다.

사암(思庵) 상공(相公) 박순(朴淳)이 공을 더욱 잘 알고 있어 또한 모함을 당하였는데, 공이 만호로 좌천된 것을 애석하게 여겨 시 3수³⁶⁴를 지어 보냈으니 첫째 수는 다음과 같다.

변방의 피리 소리에 부모 그리며 눈물 흘리지만

思親淚下關山笛

363 이홍로(李弘老) : 1560~1608.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보(裕甫), 호는 판교(板橋)이다. 1583년(선조16)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조 좌랑으로서 왕을 호종하다가 도망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탄핵을 받았고 후에 함경도 종사관, 충주 목사 등을 지냈으나 재차 탄핵되어 강계와 제주도 등으로 귀양 갔다. 제주도 유배지에서는 거주의 제한을 가하는 유배 형벌을 받았으며, 풀려나와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북파 이이첨(李爾瞻)의 탄핵을 받고 유영경(柳永慶) 등 소북의 일파로 몰려 다시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당하였다. 1612년(광해군4)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다.

364 시 3수 : 박순이 기효근에게 보내준 칠언절구(七言絕句)의 시 〈진영으로 가는 만호 기효근을 전송하며[送奇萬戶孝謹赴鎮]〉 3수는 《사암선생문집(思菴先生文集)》 권 1에 실려 있다.

임금께 보답하러 전쟁터 누비며 몸을 돌보지 않네

報主身輕矢石場

충과 효 둘 다 온전히 해야 할 곳을 아니

忠孝兩全知有處

평호³⁶⁵로 꼭 금의환향하리라

平湖錦衣好還鄉

둘째 수는 다음과 같다.

구 척의 몸에 백우전과 조궁³⁶⁶을 메고

白羽雕弓身九尺

변방의 구름과 눈발을 뚫고 달려온 삼천 리

朔雲邊雪路三千

대오 사이에서 어찌 오랜 시간 비장³⁶⁷으로 머무르랴

行間豈久留飛將

올해는 호랑이 굴에서 공을 세우리라

虎穴收功在此年

셋째 수는 다음과 같다.

365 평호(平湖) : 평안도 안주목(安州牧)에 있는 호수 이름으로 이곳에서 기효근이 평안 우후를 지냈다.

366 백우전(白羽箭)과 조궁(雕弓) : 원문의 '백우(白羽)'는 백조의 깃털이 부착된 화살의 일종인 백우전을 말한다. 조궁은 무너를 아로새긴 좋은 활로 훌륭한 무장(武將)을 상징한다.

367 비장(飛將) : 흉노가 '한나라의 비장군[漢之飛將軍]'이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했던 명장 이광(李廣)을 말한다. 그는 한 무제 때에 흉노와의 전투에서 누차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의 부하 장수들 모두가 제후로 봉해졌는데도 정작 그만은 끝내 높은 관작에 봉해지지 못했으므로, 운명의 탓으로 돌리며 탄식을 금하지 못했다는 '이광미봉(李廣未封)'의 고사가 전한다. 여기서는 모함과 시기로 좌천당한 기효근의 신세를 이광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변방의 사막에는 낮에도 서리가 서려 있고	胡霜晝結黃沙磧
한월 ³⁶⁸ 은 밤새도록 청해관을 비추네	漢月宵臨青海關
반역의 기운이 여러 해 북방에 불어오니	逆氣數年吹北塞
누가 산채로 귀장 ³⁶⁹ 을 결박하여 돌아올까	誰能生縛鬼章還

그 뒤에 식자들이 사암 박순 옹의 선견지명에 더욱 탄복하였으니, 공의 만년 절개가 마치 부절을 맞춘 듯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공이 남해에 있을 적에 항복한 왜적 수십 명이 본도(本道)에 있었다. 조정에서는 주군(州郡)에게 번갈아 식량을 보내게 하고 남해에 남겨 두었는데, 고을이 쇠잔하고 재정이 부족하여 의식 지급이 넉넉하지 못하였다. 하루는 추악한 왜적들이 한곳에 모여 진을 치고 뜰아래로 돌진하여 난을 일으켜 공을 해치려 하였다. 공이 이에 위엄을 떨쳐 칼을 잡고 관노 한 명에게 모두 베어 버리게 하자 왜구들이 감히 꿈쩍도 못하고 모조리 죽임을 당하였으니, 대개 공의 위무(威武)가 두려워 뉘이 나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훗날 참수한 일을 보고하니, 감사가 또한 달가워하지 않았으나 공리(公理)가 올바르기 때문에 마침내 무사하였다. 공은 일찍이 문장을 조금도 시험할 수 없었고, 무예 또한 쌓아 온 포부를 크게 펼칠 수 없는 것을 한스러워했으나 그것은 운명이었다.

368 한월(漢月) : 한나라 달이란 뜻으로, 조국의 산하를 비추는 달을 말한다. 두보(杜甫)의 〈전출새(前出塞)〉시에 “이미 한월을 멀리 떠나왔는데 어느 때에나 성을 쌓고 돌아갈까. [已去漢月遠 何時築城還.]”라는 구절이 보인다. 《杜少陵詩集》

369 귀장(鬼章) : 오랑캐의 두목을 지칭한 말이다. 송(宋)나라 소식(蘇軾)이 지은 〈사마온공신도비문(司馬溫公神道碑文)〉에 “적의 큰 두목 귀장 청의를 사로잡아 와서 대궐 아래에 결박시켰다. [生致大首領鬼章靑宜結闕下.]”라는 내용이 보인다.

공의 첫째 부인은 장성 서씨(長城徐氏) 생원 태수(台壽)의 딸로 정 부인에 추증되었고, 아들과 딸 하나씩을 두었다. 아들 종헌(宗獻)은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수사(水使)에 이르렀고, 행원군(幸原君)에 습 봉(襲封)³⁷⁰되었다. 딸은 이문룡(李文龍)에게 출가하였으나 정유재란 때 바다에서 적선을 만나자 얼굴을 가리고 물에 몸을 던졌는데, 왜적이 억지로 사로잡으려 하자 손으로 밀치며 배에 오르기를 거부하니 적이 마침내 찢려 죽었다. 시인이 거슬러 흘러서 이문룡의 배에까지 이르렀 으니, 고향으로 돌아와 장례를 치른 뒤 정려하였다. 둘째 부인은 당악 김씨(堂岳金氏) 중직대부(中直大夫) 현보(賢輔)의 딸이고, 셋째 부인 은 하동 김씨(河東金氏)이다. 둘 다 자식이 없었으며 모두 정부인으로 추증되었다.

행원군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다. 장남 울(慄)은 생원(生員)이 고, 차남 척(楊)은 교위(校尉)이며, 딸은 임한(林瀚)에게 출가했다. 심(枕)·순(恂)·염(恬)은 모두 후처의 자식이다. 울의 아들은 진영(震英)·진웅(震雄)·진형(震亨)이며, 딸은 송필문(宋必聞)에게 출가하였 다. 척의 아들은 진필(震弼)이고, 한(瀚)의 아들은 번손(蕃蓀)·산만 (蓰蔓)이다. 심의 아들은 진석(震碩)·진벽(震璧)·진행(震行)이며, 순 의 아들은 진창(震昌)·진걸(震傑)이며, 염의 아들은 진용(震龍)·진귀 (震龜)이다. 정일(挺一)·정삼(挺三)·정오(挺五)·정렴(挺濂)·정락(挺洛)·정수(挺洙)·정사(挺泗)·정우(挺宇)·정주(挺宙)는 모두 현손이다. 내외 증현손(曾玄孫)은 일일이 기록할 수 없다.

370 습봉(襲封) : 국가에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은 공신(功臣)이라 하여 군(君)을 봉 하게 되는데, 그 공신의 장손으로 벼슬이 종2품(從二品) 이상에 승관되면 그 조상 의 군(君)을 습봉하는 법이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문인의 자질로 무인의 길에 나아가니	文之質而武之出
사람들이 처음에는 굴복했으나	人始屈
성품이 강직한데 속세가 편벽하여	性之直而俗之僻
도리어 억눌렀네	乃反抑
원수를 죽이고 맡긴 일에 보답하여	殲所讎而報所事
낳아 준 부모를 빛내었네	光所生
살아선 굴복 당하였으나 죽어서라도 펼치니	生也屈而死也伸
진실로 영광이네	展也榮
그 실상을 살펴보고 사라지게 할 수 없어	考其實則不可泯
이에 명을 짓노라	是爲銘

제문 祭文

만취당 공공³⁷¹에게 드리는 제문

祭晩翠堂孔公

오! 슬프고도 애통하구나	嗚呼哀哉
호남의 한 사람	南服一人
나의 벗 화지	吾友化之
한 고을에 훌륭한 선비	一鄉善士
나의 벗 화지	吾友化之
나의 벗이여 나의 벗이여	吾友吾友
볼 수가 없다니 지금 어디에 있나	不見今何
나의 마음 슬프기 그지없어	我心孔悲
눈물이 실처럼 줄줄 흐르네	有淚如線
하늘은 그대에게 무엇을 부여했나	天何賦子
순수하고 한결같은 마음이니네	既純且一
얼음처럼 맑은 기상과	氷清其氣

371 만취당(晩翠堂) 공공(孔公) : 공희성(孔希聖, 1617~1682)으로 본관은 곡부(曲阜), 자는 화지(化之), 호는 만취당이다.

옥처럼 깨끗한 자질로	玉潔其質
외롭게 홀로 우뚝 서서	孤鳴獨躍
더러운 진흙탕에서 벗어났네	擺脫污泥
키는 7척이 채 못 되나	身眇七尺
마음만은 만 명의 장부보다 웅장하고	心雄萬夫
말은 서툴고 어눌한 듯하지만	言若拙訥
행실은 무리에서 빼어났네	行出等夷
양자로 출계하여	出爲人後
연달아 부모상 당하여	連失怙恃
지극한 효성으로 상을 치르니	執喪克孝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잘하였네	能人不堪
집안 재산을 나눌 때	將析家財
스스로를 더럽힐까 ³⁷² 하는 마음으로	若浼爲心
모두 형제들에게 미루고	咸推伯季
또 황폐한 땅조차 사양하였네	且辭荒頓
고죽과 같은 맑은 풍도 ³⁷³ 와	孤竹風清
설생 ³⁷⁴ 과 같은 도타운 행실로	薛生行敦

372 스스로를 더럽힐까 : 원문의 ‘약매(若浼)’는 어떤 사람의 불선(不善)한 행위가 나를 더럽힐 것처럼 여겨 그를 멀리하는 것을 말한다.

373 고죽(孤竹)과……풍도 : 고죽은 원래 일종의 대 이름인데, 여기서는 바로 은(殷)나라 말기 고죽국(孤竹國) 사람인 백이(伯夷)의 맑은 풍도(風度)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백이는 성인 중의 맑은 분이다.〔伯夷 聖之清者也〕”라고 하였다. 《孟子 萬章下》

374 설생(薛生) : 당나라 분음(汾陰) 사람으로 자는 중신(重臣), 시호는 공(恭)이다. 창주 자사(滄州刺史)가 되었을 때 수리(水利) 사업에 전력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고, 뒤에 행형주 대독장사(行荊州大督長史)에 이르렀다. 《唐書 卷197》

돈독한 은혜로 집안을 다스리고	恩篤處家
높은 의리로 사람을 대하였네	義高接人
널리 은혜를 고르게 베풀 때는	均施廣惠
인정을 다하고	咸盡其情
정성스럽게 두루 접대할 때는	款引遍酬
정성을 지극히 하였네	曲致其誠
어떤 가난한 선비가	有一寒士
처음에는 글을 알려 주는 스승이었으나	初師句讀
옷과 음식을 주고 장례를 치러 주며	衣食斂葬
그 처자식까지 구휼하였네	且恤其孥
또 어떤 존귀한 노인이	又一尊老
배경을 끼고서 ³⁷⁵ 요청하면	有挾要請
사정을 소상하게 아뢰고	委曲陳達
마침내 그 명을 사양하였네	竟謝其命
밖으로 경계를 두지 않고	外蔑畛域
안으로 흑백 ³⁷⁶ 을 성찰하여	內照黑白
한마디 말도 다 믿을 수 있으니	一言可信
삼군도 빼앗을 수 없었네 ³⁷⁷	三軍莫奪

375 배경을 끼고서 : 《맹자》〈만장 하〉에 “나이가 많음을 끼지 않고, 귀함을 끼지 않고, 형제를 끼지 않고 벗한다. 벗한다는 것은 그 덕을 벗하는 것이니, 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不挾長, 不挾貴, 不挾兄弟而友. 友也者, 友其德也, 不可以有挾也.]”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376 흑백(黑白) : 여기서는 시비(是非)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77 삼군(三軍)도……없었네 : 《논어(論語)》〈자한(子罕)〉에 “삼군을 지휘하는 대장은 빼앗을 수 있어도,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三軍可奪帥也, 匹夫不可奪]

이것을 내가 흠모하여	是吾所欽
외람되이 교분을 맺었네	猥托知己
세상의 사귄은	世之爲交
오직 권세만을 보네	惟勢是視
나는 본래부터 한미한 사람이라	我本寒微
사람들이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	人皆掉臂
과연 무슨 권세가 있다고	果有何勢
그대는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子不我棄
세상의 사귄은	世之爲交
오직 이익만을 귀하게 여기네	惟利是貴
내가 지게미와 쌀겨만 먹고 곤궁하여	我困糟糠
사람들은 모두 비웃고 추하게 여기는데	人皆笑醜
과연 무슨 이익이 있다고	果有何利
그대는 홀로 나를 택하였는가	子獨我取
세상의 사귄은	世之爲交
오직 명성만을 쫓아가네	惟名是趨
나는 지금까지 명성도 없어	我今無聞
사람들이 모두 나를 노둔하다 여기는데	人皆我駑
과연 무슨 명성이 있다고	果有何名
그대는 끝까지 마음 변치 않았는가	子終不渝
고금의 우주에서	宇宙今古
속마음을 서로 비쳤으니	一斂肝膽

志也.』”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죽든 살든 멀리 떨어져 있든 ³⁷⁸	死生契闊
백년 후에도 서로 감응하리라	百年相感
지난해 한양 집에서	去歲洛邸
말이 매우 비장하더니	言甚悲切
누군들 생각하라 오늘 아침에	孰意今朝
갑자기 영결을 고할 줄을	倏爾告訣
한 집에 세 번의 상이 있더니	一室三喪
하늘은 어찌 그리 매정한가	天何不報
나는 막 아이를 잃고 곡하다가	我方哭兒
또 그대의 부음을 듣게 되었으니	又聞子訃
세상에 이러한 날	人間此日
내 심정을 누구에게 하소연하라	我懷誰訴
재앙과 복은 이치대로 순응해야 함을	禍福理遣
나는 진실로 배웠으나	吾固有受
그대와 나에게만 유독 혹독하니	偏酷子我
또 누구를 원망하리오	吾又誰咎
여사로 익힌 문장이야	餘事文章
말할 것도 없거니와	有不可言
훌륭한 재능 품고 빛을 감췄으니	蘊奇韜光
어느 누구인들 알겠는가	人誰知焉
조금도 펼치지 못하였으니	未少有展

378 죽든……있든 : 《시경(詩經)》〈패풍(邶風)〉 ‘격고(擊鼓)’에 “죽든 살든 멀리 떨어져 있든 그대와의 약속 이루고자 하였노라.[死生契闊，與子成說.]”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그 이치를 알 수 없네

理不可謚

속세의 세상 문을 나서서

風塵出門

누구와 함께 노래하고 읊조리겠는가

誰與謳吟

앞산에 흰 눈이 흩날리는데

白雪前山

지음과 영원히 이별하니

永隔知音

아 슬프고도 애통하구나

嗚呼哀哉

통문 通文

양산 군수 조영규 부자³⁷⁹를 모암서원에 추가하여 배향한다는 통문

趙梁山父子追配慕巖書院通文

다음과 같이 통문합니다. 우리 고을은 비록 외지고 누추하나 오히려
옛날보다 현인군자가 줄을 이어 배출되어 국가의 포창(褒彰)과 사림
들의 존숭(尊崇)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양산 군수 조영
규 부자의 순수한 충의와 지극한 효성은 예나 지금이나 드문 일인데
도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오히려 높이 받드는 전례(典禮)를 빠뜨렸
으니, 어찌 우리 고을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

379 양산 군수 조영규 부자 : 조영규(趙英圭, 1535~1592)와 아들 조정로(趙廷老)를 말한다. 조영규는 장성 출신으로 본관은 직산(稷山), 자는 옥침(玉瞻)이다. 양산 군수로 있던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래 부사 송상현(宋象賢)과 함께 동래성을 수비하다가 전사하였다. 아들 조정로는 조영규의 시신을 찾으러 동래를 갔지만 찾지 못하고 초혼(招魂)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허장(虛葬)하였다. 조정로는 적과 함께 하늘을 같이할 수가 없어 한 개의 토실(土室)을 지어 문을 닫고 나오지 않고 20년을 애모(哀慕)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1667년(현종8)에 이르러 장성 사람들이 조영규 부자를 모암서원(慕巖書院)에 모시고, 2년 후 송준길(宋浚吉)이 왕에게 조영규 부자의 충효를 아뢰므로써 정려(旌閭)를 명하고 충효 양문(兩門)을 세우게 하였다.

희 유생들이 비로소 성대한 일을 논의하여 우리러 흠모하는 정성을 담으려 하는데, 세대가 까마득히 멀고 풍모도 너무 오래되어 혹시 도내의 여러 군자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그러므로 두 분 선생의 행적을 대강이나마 간략하게 진술하니, 삼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생각건대, 고 양산 군수 조 선생은 휘가 영규(英圭)이고 장성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타고난 품성이 총명하여, 영특한 자태와 순수한 자질은 무리들보다 빼어났습니다. 비록 무예로 몸을 일으켰으나 지조와 품행은 옛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집안에서는 부모님을 효도로 잘 섬겼고, 관직에 있을 때는 청렴결백으로 몸을 단속하여 도량과 드러난 절개가 한 시대를 크게 감복시켰으니 이러한 것으로도 공의 평생을 개괄할 수 있습니다.

임진년(1592, 선조25)에 이르러 왜적들의 칼날이 가득 몰려오는 날에 선생은 마침 양산 군수였는데 개연히 목숨을 바쳐 지킬 계책을 세웠으나 스스로 탄알 만한 작은 고을에 의지할 수 없음을 알고 곧바로 동래(東萊)로 달려가 부사(府使) 송상현(宋象賢)³⁸⁰을 뵈고 말하기를 “나라 일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께서는 장차 어찌하시렵니까?”라고 하자 송상현이 말하기를 “마땅히 이 성을 굳게 지킬 뿐입니

380 부사(府使) 송상현(宋象賢) : 1551~1592. 자는 덕구(德求), 호는 천곡(泉谷), 시호 충렬(忠烈)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정발 장군이 지키던 부산진성이 함락되고 왜적이 동래성으로 쳐들어왔다. 왜적들이 ‘싸울 테면 싸우고 싸우지 못하겠으면 길을 비켜 달라[戰則戰矣, 不戰則假道.]’라고 쓴 팻말을 동래성 문 앞에 세우자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키기는 어렵다[戰死易假道難]’라는 글을 내걸었다. 군관민이 합심하여 항전했으나 동래성이 함락되자 조복(朝服)을 갈아입고 단정히 앉은 채 적병에게 살해되었다.

다.”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제가 공과 함께 이 성을 지키는 것이 괜찮겠습니까?”라고 하자 송상현이 두 손을 부여잡고 몹시 기뻐하며 말하기를 “좋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생은 이어 송상현에게 요청하여 연로한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하직 인사를 하였으며, 그 아들 정로(廷老)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노모를 끝까지 봉양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곧바로 말을 달려 동래에 도착하니 왜적이 이미 본부를 세 겹으로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이 마침내 칼을 뽑아 들고 큰소리로 호통치며 말을 몰아 돌진하니, 송상현이 곧바로 문을 열어 맞이하였습니다. 송상현과 함께 성을 지킬 방책을 강구하였는데 원대한 계책과 빼어난 지략은 대부분 공이 계획한 데서 나왔고, 송상현은 거의 공을 따랐습니다. 급기야 병력이 적고 힘이 다하여 성이 마침내 함락되어 버리자 선생은 송상현과 함께 북쪽을 바라보며 절을 올리고 조용히 죽음에 나아갔으니, 참으로 절개 굳은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순수한 충성과 큰 절개가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 당시 송상현과 한 성에서 함께 죽은 자들이 또한 많았으나 공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도 훗날 송상현과 함께 포상을 받은 자가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만, 공만 유독 끼지 못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아! 옛날 장순(張巡)과 허원(許遠)³⁸¹은 한 성에서 함께 전사하여 그

381 장순(張巡)과 허원(許遠) : 천보(天寶) 연간에 안녹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장순이 진원 영(眞源令)으로 백성들을 인솔하고 당나라의 시조인 현원황제(玄元皇帝)의 묘(廟)에 나아가 통곡한 다음 기병(起兵)하여 반란군을 막았다. 그 뒤 강희(江淮)의 보장(保障)인 수양성을 몇 달 동안 사수하고 있었는데, 구원병이 오지 않아 양식은 다 떨어지고 힘은 다 소진되어 성이 함락되었다. 그러자 태수(太守)로 있던 허원과 함께 사절(死節)하였는데 이때에 장순은 바로 죽고 허원은 포로로 잡혔다가 굴복하지 않았으나 마침내 죽었다.

절개로는 실로 우열을 따질 수 없었으나 당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허원은 장순에게 미치지 못한다며 배척하여 표창하는 은전에 끼우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미덕(美德)을 이루어 주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대체로 이와 같으니, 어찌 조공의 충성이 당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에 의해 가려져 송상현과 같은 포상이나 녹훈(錄勳)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아! 허원의 재능이 비록 장순만 못하다고 하나 그 절개만은 똑같았고, 조공의 재능이 비록 송상현만 못하다고 하나 그 절개만은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헤아려 보아도 똑같거늘, 조공은 끝내 송상현의 포상만큼 포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공의 아들 휘 정로(廷老)는 충성스런 가문의 효자입니다.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성품 또한 매우 효성스러워 평소 부모님을 섬길 때 예법대로 행동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조금이라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관아에 있을 때는 자식된 직분에 더욱 힘썼으니 반문(半門)을 굳게 잠그고 징납(徵納)을 통렬히 거절한 것은, 대개 수령의 다스리지 못함이 관아의 식구들이 조심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염려하여 통렬하게 스스로를 단속하고 아버지의 훌륭한 정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으로도 공의 평생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양산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분부를 공경히 받들 적에 적병이 이미 호남과 영남에 가득하였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 고향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편안하게 봉양한 뒤 곧바로 왜적에게 포위된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을 알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동래에는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어 끝내 시신을 거두지 못하고 다만 초혼제(招魂祭)만 지내고 고향의 선산으로 돌아와 장례 지냈습니다.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정성과 예를 모두 극진히 다하였고, 삼년상을 마친 뒤에도 여전히 미음만 먹고 채식을 하였는데 조금도 억지로 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지 못하고 아버지 시신도 거두지 못하였으니, 나는 보통 사람들 사이에 함께 낄 수 없으며 다시는 태양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여 항상 자책하면서 돌아갈 데가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토실을 짓고 그 속으로 들어가 거처하더니, 삿갓 하나를 만들어 머리와 눈을 가리고 소나무 가지로 만들어 측간 가는 길조차 덮어 버렸습니다. 이는 모두 태양을 볼 수 없고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으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노복을 부리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지 못하였는데 어찌 차마 아버지의 노복을 수고롭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며, 서울에 있는 집터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며 말하기를 “나는 사람의 도리를 닦지 못하였는데 어찌 차마 선친이 남긴 집터를 팔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토실에서 나오지 않은 채 생을 마쳤으니, 진실로 순수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으로서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초월한 자가 아니고서야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 효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효행은 쉽고 변고를 당할 때의 효행은 어려우며, 변고를 당하여 몸과 마음이 곤궁한데 그 효행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하거늘 종신토록 그리워하며 하늘을 보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으며, 털끝만큼의 거짓이나 간사함도 없고 털끝만큼의 억지로 힘쓰는 일도 없이 그 효행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오직 공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옛날

왕부(王褒)가 서쪽을 향하여 앉지 않은 것과 차마 《시경》〈육아(蓼莪)〉 편을 읽지 않았던 일³⁸²이 공과 가까우나, 지극한 정성으로 몹시 애쓰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면서도 마음에 부족한 듯 여기며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이 공이 또한 훨씬 뛰어납니다.

아! 선생 부자의 충과 효는 천지간에 드높고 해와 달처럼 빛납니다. 그러나 당시 포상의 은전에 누락되었고, 훗날 국사(國史)에도 빠졌으니 어찌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을의 선배와 노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서 개연히 떨쳐 일어나 여러 번 관청에 알리고 조정에 아뢰며 정려의 은전을 입기를 바랐으나 매번 조정에서는 일이 매우 많다고 그 실정 살피기를 꺼리고, 겨를이 없다며 우물쭈물하다가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차 천지처럼 드높은 충성과 일월처럼 빛나는 효행이 사라져 전해지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조정의 잘못된 전례가 아니고, 우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분개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가 생각건대, 조정에서 겨를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의 입장에서 어찌할 수 없겠으나 사람이 우러러 흠모하는 일이라면 어찌 높이

382 왕부(王褒)가……일 : 왕부는 진(晉)나라의 은자로, 효자로 이름났으며 자는 위원(偉元)이다. 왕부는 그의 아버지 왕의(王儀)가 사마소(司馬昭)에게 억울하게 죽자, 평생 서쪽으로 향해 앉지 않고 진(晉)에 신하 노릇 하지 않음을 표시했다. 이를 애통해한 나머지 조정에서 벼슬을 주겠다고 여러 번 불려도 응하지 않았다. 언제나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하고 무덤가의 잣나무를 부여잡고 울었는데, 그 눈물로 인해 나무가 말라 죽었다 한다. 또한 왕부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슬퍼하여 《시경》을 가르치다가 〈소아(小雅) 육아(蓼莪)〉 편의 “슬프고 슬프다 우리 부모여, 나를 낳아 기르느라 얼마나 애쓰셨나.[哀哀父母, 生我劬勞.]”라는 구절에 이르면 언제나 슬피 울었기에 제자들이 《시경》을 배울 때 〈육아〉는 아예 빼고 배우지 않았다고 한다. 《小學 善行》

만들어 모실 땅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충과 효는 본래 두 가지 일이 아니니 높이 받드는 것도 원래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고을의 절효 서 선생(節孝徐先生)³⁸³은 지극한 효성과 순수한 행실 때문에 우리 고을에서 배향하였으니, 그 유풍(遺風)과 여운이 지금까지도 생동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지금 두 선생을 서 선생의 학행에 견주어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비록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충효 한 가지 일로써 말하자면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하여도 또한 지나친 논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선후와 주객에 이미 차별이 있고 전체와 일절(一節)에도 차이가 없지 않으니, 비록 함께 배향하는 전례를 감히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당에 올려서 배향(配享)하는 것이 진실로 의(義)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당에 세 분의 현인이 충효로 함께 돌아간다면, 어찌 사문(斯文)의 일대 성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생들이 정성을 다하여 흠모하는 마음이 답답하게 막혀 있던 것도 이것으로 인하여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고루함을 잊고 감히 이 일에 앞장서서 장차 4월 중정일(中丁

383 절효 서 선생(節孝徐先生) : 서릉(徐稜)은 본관이 이천(利川)이고, 전라도 장성현(長城縣) 사람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벼슬을 하지 않았다. 고려 고종(高宗) 33년(1246) 12월 겨울에 어머니의 목에 악성 종기가 나서 의원을 불러와 진료하게 하였는데, 의원이 살아 있는 개구리를 구하지 못하면 낫기 어렵다고 하였다. 당시 추위가 한창이었으므로 살아 있는 개구리를 구할 수 없어서 어머니의 병을 고치지 못하겠다고 목 놓아 울었다. 다른 약이라도 만들자며 나무 아래에서 약을 만드는데, 살아 있는 개구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약 만드는 그릇으로 들어갔다. 약을 만들어 어머니의 종기에 바르니 종기가 나았다고 한다. 이러한 효행 설화를 탄생시킨 서릉은 고려 무신 집권기의 대표적 효자였다. 고려 고종이 절효(節孝)라는 시호를 내렸다. 《고려사(高麗史)》 121권 〈서릉전(徐稜傳)〉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조선 시대 선조 11년(1578)에 효자 서릉의 효행을 표창하기 위하여 정려비를 세웠다.

日)³⁸⁴에 일제히 모여 영령을 모시고자 감히 이 통문을 발송하여 도내에 알리니, 삼가 바라건대 여러분들께서는 이날 모암서원에 일제히 모여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이는 고을의 통문에 의거하여 말을 바꾼 것이고, 행적에 이르러서는 글을 수정하고 윤색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본래 전하는 의미에 감히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말을 첨가하지 않았다. 매번 행적 아래에 대략 나의 뜻을 논설한 것은 두 선생의 사적이 국사에 기록되지 않았고, 또 사라져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읍에서 만약 변론하여 널리 알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혹 가장 현저한 충효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 감히 번다한 말로 찬미하는 뜻을 더하였다. 이는 저명한 선현들의 통문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간략하지 못하고 지루하게 서술하였는데 비록 서술한 것이 덕행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여러 고을의 통문과 비교하여 조금 상세하니, 부디 이 글을 간직하여 훗날의 재주 있는 자를 기다리기를 바란다.-

384 중정일(中丁日) : 음력으로 그달의 중순에 드는 정일(丁日)을 이르는 말로, 묘제(墓祭)·연제(練祭)·담제(禪祭)·서원 향례(書院享禮) 따위의 제사를 대개 이날에 지낸다.

전문 箋文

임금 탄신일³⁸⁵의 전문(箋文) 방백을 대신하여 짓다

○정미년(1667) 정월 4일

大殿誕日箋文 代方伯作○丁未正月初四日

번개가 북두성을 휘감으니³⁸⁶ 모두 체원(體元)³⁸⁷의 덕을 우러르고,
하늘이 돌고 돌아 봄이 오니³⁸⁸ 비로소 상서로운 탄신일을 맞이하였

385 임금 탄신일 : 조선의 제18대 임금 현종의 탄신일을 말한다. 이 전문이 쓰여진 정미년(1667)은 현종 재위 8년이다.

386 번개가 북두성을 휘감으니 : 원문의 '전요(電繞)'는 임금의 생일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다. 《죽서기년(竹書紀年)》권상(卷上) 〈황제현원씨(黃帝軒轅氏)〉에 “황제 현원씨는 어머니가 부보(附寶)인데, 커다란 번개가 북두칠성의 첫째 별을 휘감아 치며 빛이 교야에 비추는 것을 보고 감응하여 잉태한 뒤 25개월 만에 수구에서 황제를 낳았다.[母曰附寶，見大電繞北斗樞星，光照郊野，感而孕，二十五月而生帝於壽丘.]”라고 하였다. 후에 이를 '전요추광(電繞樞光)'이라 하여 황태자나 성인의 탄생을 뜻하는 전거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온 말이다.

387 체원(體元) : 체원거정(體元居正)의 준말로, 천지(天地)의 원기(元氣)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제왕을 가리킨다. 즉 원(元)은 선(善)의 뜻인데 선덕(善德)을 본받아서 근본을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임금이 천지의 원기를 근본으로 삼아 항상正道(正道)에 입각해서 정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388 봄이 오니 : 원문의 '옥률(玉律)'은 봄이 돌아왔다는 말이다. 옥으로 만든 음(音)을 측정하는 기구로, 황제(黃帝) 시대 때 영륜(伶倫)이 대나무를 잘라 통을 만든 다음 통의 길고 짧음을 가지고 음의 청탁고하(淸濁高下)를 측정하였다고 한다. 이 음에

습니다. 경사가 왕실에 이어지고 빛이 성수(聖壽)에 넘칩니다.

삼가 생각건대, 일찍부터 총명함을 떨치시니 성스러움과 공경함이 나날이 높아졌습니다.³⁸⁹ 위대하도다 건원(乾元)이여, 지극하도다 곤원(乾元)이여. 만물이 생성하는 도를 이미 실행하시어 그 중도(中道)를 잡고 그 표준을 세워 순수한 정기가 더욱 입증되었으니, 탄신의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여 많은 복을 크게 누리실 것입니다.

삼가 지방 관리의 직분에 얹매어 조정의 반열³⁹⁰에 서지 못했으나, 포정(布政 감사(監司))으로 순행하는 것이 비록 소공(召公)에게 부끄럽지만 삼가 화봉인(華封人)을 본받아 장수하고 부유하고 아들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는 양륙(陽六)인 육률(六律)과 음륙(陰六)인 육려(六呂)가 있어 이를 12율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것으로 열두 달을 배치하였다.

389 성스러움과……높아졌습니다 : 《시경(詩經)》〈상송(商頌)〉‘장발(長發)’에 “상제의 명이 어그러지지 아니하사, 탕 임금에 이르러 부합되시니, 탕 임금의 탄강(誕生)이 늦지 않으시며, 성스러움과 공경함이 날로 올라가사, 하늘에 밝게 이름을 오래하고 오래하사, 상제를 이에 공경하시니, 상제께서 명하셔서 구위(九圍)에 모범이 되게 하시니라.[帝命不違, 至于湯齊, 湯降不遲, 聖敬日躋, 昭假遲遲, 上帝是祗, 帝命式于九圍.]”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90 조정의 반열 : 원문의 ‘노반(鸞班)’은 백로가 서 있는 것처럼 질서 정연한 조정 관리의 반열을 가리키는 말로, 까치가 둥지를 튼 것과 같은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마치 조정의 반열에 서 있는 것처럼 여기리라는 뜻이다. 《시경(詩經)》〈소남(召南)〉‘작소(鵲巢)’에 “까치가 둥지 튼 집, 비둘기 찾아와 살고 있네.[維鵲有巢, 維鳩居之.]”라는 말에서 나왔다.

송
암
집

제
6
권

擬의 策策 箴箴 論論

날개를 떨쳐 나니 큰 새가 된다는 말에 대한 논

拏飛維鳥

천하의 사물은 다 커 버린 때에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아직 크기 전에 자란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난리는 난리가 일어난 날에 시작하지 않고 아직 일어나기 전에 시작한다. 이 때문에 송아지는 천하 사람들이 제어하기 쉬운 것을 알지만 큰 소를 길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약한 불은 천하 사람들이 끌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거세지면 불길 사이로 지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싹이 튼 나무는 잠깐 사이에 소를 가릴 만큼 자라며, 씨앗의 껍질이 터져 줄기를 뺏으면 끝내는 베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니, 천하에서 두려워할 만한 것은 바야흐로 막 자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아서 소홀하게 여기는 때에 있으며 천하에 경계로 삼을 만한 것은 이미 지나가서 끝난

1 날개를……된다 : 《시경(詩經)》〈주송(周頌)〉 ‘민여소자지십(閔予小子之什)’에서 “나는 조심스레 삼가노니, 후환을 경계하노라. 내 벌을 부리다가, 독한 침에 쏘이지 마라. 처음에는 저 작은 뱀새가, 날개 떨쳐 나니 큰 새가 되었도다.[予其懲, 而懲後患. 莫牙筭蜂, 自求辛螫. 肇允彼桃蟲, 拏飛維鳥.]”라고 하였다. 이 시는 주나라 성왕(成王)이 지은 것이라 하는데, 작은 일에 조심하면 큰 재앙이 이르지 않음을 노래하였다.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약한 시초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성왕(成王)이 어찌하여 ‘날개를 떨쳐 나니 큰 새가 된다.’라는 경계의 뜻을 시로 지었겠는가.

청컨대 시험 삼아 논해 보겠다. 도고새는 새 중의 작은 종류이며, 수리는 새 중의 큰 종류이다. 도고새는 작지만 변화하여 수리가 되니, 다 큰 수리를 본 사람 가운데 도고새에서 자라서 크게 된 것을 그 누가 알겠는가. 다만 작은 것만 알고 그 작은 것이 마침내 크게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도고새가 느릅나무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는 ‘저 새는 높이 날지 못할 것이다.’라고 여기며, 낱알 두어 개를 먹는 것을 보고는 ‘저 새는 움켜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여겨 깔보며 무서워하지 않고 업신여기며 경계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알에서 나와 길러지고, 길러져 자라며, 자라서 대단히 크게 되면 어느새 수리가 된다. 이보다 더 큰 새가 없고 막힘없이 날아다니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새를 잡아먹고 새의 등지를 부셔도 막지를 못한다. 그렇다면 예전 매우 작았던 것이 현재에 이르러 대단히 클 것을 누가 알았는가. 예전의 느릅나무에서 살아가던 것이 현재에 이르러 하늘에서 활개 칠 줄 누가 알았는가. 처음에는 비록 매우 작았지만 마침내 대단히 크게 되었고, 처음에는 비록 느릅나무에서 살았지만 마침내 하늘을 날게 되었으니, 예전에 깔보고 업신여기던 것을 이제 제압할 수 없게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성왕이 비유를 통해 시를 지은 의도이니, 시의 내용이 두 숙부의 일과 비슷하다.² 무슨 말인지 살펴보자.

2 시의……비슷하다 : 주나라 무왕(武王)이 죽은 뒤에 무왕의 아우인 주공(周公)이 어린 성왕(成王)을 도와 섭정하고 있었는데, 무왕의 아우인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주왕(紂王)의 아들 무경(武庚)을 끼고 반란을 일으키자,

천하가 주나라를 섬겨 왕실이 이미 안정되었으니, 주나라가 관숙과 채숙 보기를 마치 사람들이 도고를 보듯이 하였다. 백 리의 영토를 봉한 것은 도고의 느릅나무와 같으며, 채읍(采邑)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은 도고가 낱알 몇 개를 먹는 것과 같다. 처음에 관숙과 채숙이 딴 짓을 할 수 없음을 안 것은 도고가 어리기에 발톱으로 움켜잡을 수 없음을 믿는 것과 같다. 급기야 유언비어를 퍼트리자 주공(周公)이 위태롭게 되었고, 난리를 일으키자 왕실이 위태롭게 되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나무뿌리가 뽑혔으니, 이윽고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도고를 경계하지 않다가 끝내 날개를 떨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논해 보겠다. 새가 크게 된 것은 다 큰 때에 큰 것이 아니라 아직 크기 전에 큰 것이니, 관숙과 채숙의 반란은 난리가 일어날 때 난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직 난리가 일어나기 전에 난리를 일으킨 것이다. 그렇다면 새가 아직 크지 않은 것을 작다고 여겨 그 처음을 소홀하게 여길 수 없으며, 반란이 아직 드러나기 전에 미미한 일이라고 여겨 그 처음을 깔볼 수 없다. 작은 것이 장차 자랄 것을 알아서 아직 크기 전에 제어한다면 날개를 떨치는 근심이 없게 되며, 난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아 아직 난리가 일어나기 전에 방비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발생하는 근심이 없게 된다.

성왕이 즉위한 초기에 이미 두 숙부의 난리를 겪게 되었으니 반드시 이것으로 경계를 삼는 것은 지극한 생각이라 하겠다. 오호라, 큰 새는

주공이 성왕의 명을 받들고 정벌을 행하여 무경과 관숙을 죽이고 채숙을 유배 보낸 고사가 있다.

도고에서 나왔지만 날개를 떨쳐 하늘을 날기에 이르러서는, 제어할 수 있는 도고가 아니다. 두 숙부와 가까움은 같은 왕실에서 기인하였지만 그들이 반란을 일으킴에 이르러서는 막을 수 있는 가까운 왕실 친척이 아니다. 이것이 또한 성왕이 이 일에서 비유를 취한 까닭이며, 이것이 또한 성왕이 훗날에 백성을 잘 다스린 까닭이다.

잠 箴

도로써 뜻을 두면 편안하다는 잠

志以道寧箴

도는 곧 마음이요

道則心

마음은 곧 의지이니

心則志

대개 한 가지 이치라

蓋一理

안에서 형성되어

形諸內

밖으로 드러나니

發諸外

서로 다른 것이 아니네

非二致

참으로 도가 아니면

苟非道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니

心不在

하물며 그 뜻이라

矧伊志

놓아 버리면 달아나고

放則逸

방탕하면 위태로워

蕩則危

더할 나위 없이 잡아 두기 어렵네

莫難持

뜻한 바를 조심하고

愼所之

그 생각을 안정되게 하면

安厥迪

장차 어찌 책망하랴

將何責

다른 곳에 있지 않으니	不在他
어찌 돌이켜 구하지 않는가	盍反求
도가 바로 이것이라네	道則是
경(敬)도 또한 도요	敬亦道
성(誠)도 또한 도니	誠亦道
무엇이 도가 아닌가	孰非道
이 경으로	以是敬
이 성으로	以是誠
뜻을 두면 편안하리라	志可寧
생각을 하고	有思慮
일을 도모할 때	有謀猷
오직 도를 구하라	惟道求
거스르거나 따르면	有逆順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있으니	有吉凶
오직 도를 따르라	惟道從
누대는 화려하고 싶고	臺欲瑤
집은 사치하고 싶으나	宮欲瓊
도로써 바르게 하라	道以正
짐승을 사냥하고 싶고	獸欲從
유람을 즐기고 싶으나	遊欲盤
도로써 안정시켜라	道以安
참소와 아첨을 좋아하고	喜譏諛
바르고 곧음을 미워하니	惡正直
도로써 이를 극복하라	道可克

심원한 것을 싫어하고
 임시방편을 편안하게 여기면
 도로 바로잡으라
 도를 종주로 삼으면
 요순도 될 수 있고
 탕무도 될 수 있네
 도를 만약 버린다면
 결주가 되어 버리고
 유려가 되어 버린다네
 악하면 위태롭게 되고
 선하면 편안하게 되니
 도가 이에 존망하게 되네
 밝은 교훈을 찾아서
 잠을 만드노니
 마땅히 공경하여 받들라

厭長遠
 安姑息
 道可格
 道苟主
 之堯舜
 之湯武
 道苟去
 之桀紂
 之幽厲
 惡是殆
 善是寧
 道存亡
 撫昭訓
 作爲箴
 宜是欽

책 策

심이 성과 정을 거느린다는 질문에 대한 책문

問心統性情

다음처럼 대답합니다.

근래에 마음을 어지럽히고 성(性)을 잡아먹으며 정(情)을 흐트러뜨리는 자를 보았는데,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이는 참으로 교화가 밝지 못하여 학문을 강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천(伊川)이 마음에 대한 잠(箴)³을 지은 까닭이며, 여숙(與叔)이 성정(性情)을 읊은 까닭입니다.⁴ 지금 선생께서 한 가지 질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곁하시니, 오호라 집사의 물음은 훌륭하십니다. 교화를 밝히고 옛날 학문을 계승하고자 한 까닭이 이 질문에 담겨 있으니 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저같이 본성과 마음이 어리석어서 비록 그 질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또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에 아래와 같이 말을 올립니다.

“심(心)이 고요한 상태가 성(性)이 되고 발동한 것이 정(情)이 된다.

3 이천(伊川)이…잠(箴) : 이천이 지은 〈사물잠(四勿箴)〉을 가리킨다.

4 여숙(與叔)이……까닭입니다 : 여숙은 북송 시기에 활약했던 여대림(呂大臨)의 자이다. 여대림은 〈극기명(克己銘)〉을 지었다.

심(心)과 성(性)과 정(情)은 근원이 하나이다. 대저 이(理)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성이라 이르며, 이(理)와 기를 합치면 이에 심의 명칭이 성립하게 되며, 이(理)에 근본하여 기에서 감응하면 정이 발하게 된다. 심과 성과 정의 이(理)는 참으로 다르게 볼 수 없으니, 심과 성과 정의 덕은 체와 용이 없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성과 정을 거느려 심의 덕이 갖추진다. 기발(既發)과 미발(未發)에 성과 정이 나누어지는데, 심은 참으로 성과 정의 주인이 되며 성과 정은 그 체용이 된다. 심과 성과 정의 이(理)는 이와 같다.

비록 그렇지만 성(性)을 품부 받지 않음이 없기에 심(心)이 되는 것인데 미약한 도심(道心)과 위태로운 인심(人心)의 구별이 있으며,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情)이 되는데 정에는 선과 악의 차이가 있다. 이는 무슨 의미인가. 오호라, 성은 이(理)에서 근본하고 형(形)은 기(氣)에서 태어나는데, 이(理)에는 선악이 없으나 기에는 청탁(淸濁)이 있다. 그러므로 성은 본연의 상태로 있는데 기품(氣稟)은 구애(拘碍)를 받게 되니 즉 심과 정이 이에 완전하지 못하게 된다. 만일 이와 같은데도 공부를 할 줄 모른다면 공변된 천리가 끝내 사사로운 형기(形氣)를 이길 수 없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의 존양(存養) 공부를 해야 한다.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심조심해야[敬] 한다. 함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실할[誠] 따름이다.

청컨대 이러한 의미를 좀 더 추론하여 넓혀 보겠다. 상지(上智)와 하우(下愚)는 똑같은 마음을 지녔으며 똑같은 성(性)과 정(情)을 지녔는데, 서로 다르게 된 까닭은 다만 기품의 구애를 받게 되어서이다. 오성(五性)과 칠정(七情)이 한마음에 구비되어 혹은 발동하고 혹은 고요한데, 마음이 주체가 된다면 오성과 칠정도 모두 마음이니 어찌

5니 7이니 숫자를 말하는가. 심성(心性)은 안을 주재하지만 물욕이 물려와 가리니 혹은 함양하고 혹은 바르게 하는 공부를 빠트릴 수 없는 데, 정(情)은 곧바로 나와 버리니 어찌 바로잡을 순간이 있겠는가.

이치와 욕심이 마음속에 뒤섞여 있다가 감발할 즈음에 외물(外物)에 가리는데 다만 하늘이 부여한 성(性)은 본연의 체(體)를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하니, 성선(性善)의 학설은 대체적으로 이와 같다. ‘정(精)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서 중도를 잡아야 한다.[允執厥中]’라는 것은 심(心)을 이룬 것이며, ‘다만 상제가 충(衷)은 내려 주었다.’라는 것은 성(性)을 이룬 것이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발동’이 어찌 정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겠는가. 성인 공자의 말은 빠트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데, 심성정(心性情)에 대한 논의도 그의 말 안에 있다. 맹자의 논의는 본말을 검비하였으니, 비록 정(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였지만 반드시 심성(心性)에 근본을 두었다. 안자와 증자, 염백우와 민자건은 본원(本原)을 이미 분명하게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심성정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말하였다면 아마도 정확한 논의를 하였을 것이다. 고자와 순자, 한비자와 양웅은 논의한 것이 비록 많지만 대본(大本)이 이미 어긋났으니 다시 무슨 도(道)에 대해 논하겠는가. 이후로는 도를 아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니, 진(晉)·송(宋)·양(梁)·수(隋)나라 시기의 불교, 육조(六朝)⁵와 오대(五代)⁶ 시대의 호교(胡敎)⁷가 유행하였는데, 심성정에 대한 그들의 논의는 호(胡)와 불(佛)

5 육조(六朝) : 오(吳)·동진(東晉)·유송(劉宋)·남제(南齊)·양(梁)·진(陳)을 이른다.

6 오대(五代) :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를 이른다.

7 호교(胡敎) : 흔히 불교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도교를 가리키는 듯하다.

을 뒤섞어 말하고 있다. 호와 불을 뒤섞어 말하였으니, 어찌 의논이 서로 다르지 않겠는가.

아! 하늘이 사문(斯文)을 끝내려 하지 않았기에 송나라에 천명을 내렸다. 이에 학문의 연원이 네 분의 현인⁸에게서 나왔으니, 이들은 지난 성현의 자취를 잇고 후학에게 문을 열어 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으며, 또한 학문을 어지럽히는 것을 제거하고 올바른 곳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대해 언급한 공이 크다. 그러므로 나는 네 선현이 말한 것에 대해 참으로 왈가왈부할 것이 없지만, 대략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성(性)에 근본을 두었다가 심정(心情)까지 언급한 것은 주자(周子)와 정자가 본원(本原)을 궁구한 것이다. 심(心)을 말하였다가 성정(性情)을 거론한 것은 장자와 주자가 체용을 밝힌 것이다. 전자와 후자가 서로 드러내 밝힌 것이 대단히 자세하니, 어찌 그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겠는가.

오호라! 하늘이 음양을 변화하여 만물을 낳아 기(氣)로써 형체를 이루고 이(理) 또한 부여하니, 짐승과 초목도 똑같은 이기(理氣)를 지니지만 어리석음과 명석함, 통함과 막힘은 완전히 서로 다르다. 어째서 그런가. 아! 같은 것은 이(理)요, 같지 않은 것은 기다. 사람이 명석하고 통한 까닭은 기가 맑고 순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사물이 어리석고 막힌 것은 기가 뒤섞이고 탁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수달과 까마귀의 효성은 짐승의 인(仁)이요, 시초와 참죽나무의 신령함은 초목의 지(智)다. 어리석고 막힌 가운데에도 간혹 조금 밝은 것을 지니고 있으니, 위와 비슷한 것으로 추론해 보면 알 수 있다.

8 네 분의 현인 : 주돈이, 정호, 정이, 주희를 가리킨다.

오호라!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은 오직 한 가지 이(理)이다.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하고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것이 어찌 ‘한번 양이 되고 한번 음이 되는 도(道)’이며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선(善)이고 그것을 이룬 것이 성(性)⁹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심(心)이 되는 까닭은 성을 갖추어서이고, 정(情)이 되는 까닭은 마음이 발해서이다. 그 체(體)에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 있고 그 용(用)에는 측은(惻隱), 수오(羞惡), 공경(恭敬), 시비(是非)가 있으니, 사람이 존재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구하려면 이것을 제쳐 놓고 어디에서 찾는단 말인가. 마땅히 이에서 성찰하고 이에서 존양하여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 법칙을 구하고 사람이 되는 이치를 잃지 않아야 하거늘, 어찌하여 사람이 배울 줄 모르고 배워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하여 거칠고 보잘것없으며¹⁰ 의기가 나약하여 정신을 놓아 버린 것은 대부분 말단의 폐단이다.

아! 그 근본을 구한다면 현재의 알지 못하는 것을 어찌 걱정하겠는가. 마는 어리석은 저 사람은 생각을 앎고 끝내 공부를 하지 않으며, 가까이 자신의 몸에서 살펴본다면 도가 사람에게 멀지 않다는 것을 알 터인데 어리석은 저 사람은 밝지 못하니 어찌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리오. 비록 뭔가를 해 보려고 하여도 지식이 미치지 못한 것은 대부분 기질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이며, 마음을 쓰는 곳이 없으면서 다만 한가롭게 지내는 것은 모호한 습관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니, 심성정(心性情)을 지닌 사람이 어찌 이와 같이 행동하는가. 오호라! 사람이 짐

9 한번……성(性) :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에 보이는 말이다.

10 거칠고 보잘것없으며 : 원문의 ‘노무(魯莽)’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요, ‘멸렬(滅裂)’은 공부를 경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栗谷全書》

승, 초목과 다른 까닭은 하늘이 부여한 이(理)를 지녔기 때문이다.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람이 되는 까닭은 이처럼 이(理)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늘이 비록 사람에게 이(理)를 부여하였지만 내가 하늘에서 받은 도(道)를 잃어버린다면 곧 짐승이 되며, 초목이 된다. 어디에서 짐승과 초목이 아닌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집사(執事)는 사람이 짐승과 초목이 된 상황을 보고 걱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을 밝혀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 오호라! 집사는 참으로 어집입니다. 비록 그러나 집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려는 마음을 과연 누군가에게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방법에 얽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어떤 일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방법인 줄은 알지 못하지만 또한 학자가 공부할 때 반드시 입두처(入頭處)가 있어야 하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내면에 있는 금수와 초목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사람다우려는 자가 어찌하여 그 근본을 구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른바 근본을 구한다는 것은 정심(正心)을 우선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성(養性)을 우선시하는 것입니까.

아! 심(心)과 성(性)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먼저 바르게 하며 무엇을 뒤에 함양하겠습니까. 다만 함께 공력을 기울여 선후의 구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호라! 《대학》은 교화를 밝힌 책이며, 《중용》은 이치를 밝힌 책입니다. 교화를 밝히면서 앞서 심(心)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덕에 들어갈 것을 알지 못하며, 이치를 밝히면서 앞서 성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도를 체득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心)을 말하는 자는 성(性)에 근본하지 않음이 없으며, 성을 말하는

자는 심을 체(體)로 삼지 않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학문을 할 때 이것을 모두 취해야 하니 버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비록 그러나 성을 함양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이 한갓 양성(養性)과 정심(正心)만을 알고 양성과 정심의 공부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노를 버리고 배를 운행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중용》과 《대학》에서 성(誠)과 경(敬)을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까닭입니다.

만약 학자가 양성과 정심에 노력을 기울일 때 반드시 거짓되지 않은 공부¹¹와 한 가지만 집중하는 방법¹²을 사용하여 덕성을 보존하면서 혹시라도 함양하지 않음이 없게 하며 방심(放心)을 거두면서 혹시라도 바르지 않음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으며 맑고 잔잔한 상태에 찌꺼기가 없게 된다면 안에 있는 순수한 이(理)가 감응에 따라 발현하여 어디서든지 항상 그 화(和)¹³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다면 사람들이 모두 요와 순, 안자와 증자가 될 것이니, 학자들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게 되며 국가의 교화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집사가 어찌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호라! 제가 집사의 물음에 이미 아는 것을 다 아뢰었거늘, 작품의 끝에 정성을 기울여 저의 의견을 다 아뢰려는 것은 어째서 그럴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성왕께서 하늘의 커다란 명을 받아 장차 큰일을 할

11 거짓되지 않은 공부 : 《중용(中庸)》에서 “오직 성인의 덕은 성을 지극히 하여 거짓됨이 없다.〔唯聖人之德，極誠無妄。〕”라고 하였다. 이는 성(誠)을 이른다.

12 한 가지만 집중하는 방법 : ‘주일무적(主一無適)’ 즉 경(敬)을 이른다.

13 화(和) : 《중용》 제1장의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서 모두 절도에 맞게 되는 것을 화라고 한다.〔發而皆中節謂之和。〕”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것이니, 제가 심성정(心性情)의 말에 대해 집사에게 부질없이 아뢰기만 하고 효과를 보려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는 원컨대 성상께서 먼저 자신의 본성을 함양하신 뒤에 남의 인성을 함양시키며, 또한 원컨대 성상께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한 뒤에 남의 마음을 바르게 해주며, 또한 성상께서 먼저 자신의 정(情)을 조화롭게 한 뒤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화롭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바르게 하여 만방(萬邦)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중화(中和)를 지극히 하여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잘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사는 제가 아뢴 말을 밝고도 밝으신 우리 전하에게 아뢰어 주십시오. 삼가 대답합니다.

거문고를 묻은 것에 대한 책문

問琴

다음처럼 대답합니다.

선생이 제생(諸生)에게 거문고에 대해 말하기를 “거문고 연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소리는 우아함에서 올바르게 질탕함에서 흘러버리며 곡조는 조화로움에서 맑고 음탕함에서 탁하니, 그대들은 드넓고 탁 트인 소리와 치세의 혼후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는가. 또한 매미의 축급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는가. 그대들은 그중에서 선택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윽고 선생의 가르침을 마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선생께서는 거문고를 즐기는 것에 대해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선생께서 거문고를 대단히 좋아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제대로 될 것입니다. 옛날 선왕이 음악을 만들어 율적함을 풀었는데, 거문고는 악기의 일종으로 사람의 사특한 마음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대개 그 모양은 네모지고 둥글어 천지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문현(文絃)과 무현(武絃)¹⁴은 강함과 부드러움의 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양 굴신의 의미¹⁵를 담아 거문고를 연주하니, 사람의 방탕한 생각을 절제시키고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감발시켜 마음속의 더러움을 녹여 버리고 찌꺼기를 깨끗이 쓸어버려 끝내는 귀신과 사람을

14 문현(文絃)과 무현(武絃) : 거문고에서 제1현인 문현과 제6현인 무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15 음양 굴신의 의미 : 패가 여섯 효로 이뤄진 것처럼 거문고 줄이 여섯임을 말한다.

감동시키고 위와 아래를 조화롭게 만드니, 거문고의 효용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문고가 비록 사람의 사특함을 막아내지만 그 효용의 주체는 사물이고, 사람이 비록 거문고의 효용을 취하였지만 그 근본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사물은 밖에 있는 것이요, 마음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지 않고 다만 밖에 있는 사물을 구한다면, 성률은 본성을 해치고 곡보는 감정을 방탕하게 하니 녹기(綠綺)¹⁶와 체중(遞鍾)¹⁷은 다만 사벽(邪辟)을 부르는 도구가 되고 <별학조(別鶴調)>¹⁸와 <유란조(幽蘭調)>¹⁹는 다만 음란함을 돕는 곡조가 됩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의 사특함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호라! 공자는 쥐를 잡는 것을 보고 거문고 소리가 침울해졌고,²⁰ 백아(伯牙)

16 녹기(綠綺) : 녹기금(綠綺琴)의 준말로, 보통 거문고의 대칭으로 쓰인다. 전설에 의하면, 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옥여의부(玉如意賦)>를 짓자, 양왕(梁王)이 기뻐하며 녹기금을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17 체중(遞鍾) : 백아(伯牙)가 타던 거문고의 이름이다.

18 별학조(別鶴調) : <악부(樂府)> 금곡(琴曲)의 이름이다. 상릉(商陵)의 목자(牧子)가 장가든 지 5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그의 부형(父兄)이 그를 다시 장가들이려 하였다. 이에 그의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밤중에 일어나 문에 기대어 휘파람을 슬피 불므로, 목자가 그 소리를 슬피 여겨 거문고를 가져다가 노래하였다. 이를 후인이 취하여 악장(樂章)으로 만든 것이라 한다.

19 유란조(幽蘭調) : <의란조(猗蘭操)>라고도 한다. 공자(孔子)가 천하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제후들을 차례로 방문하였으나 제후들에게 등용되지 못하였다. 공자가 노(魯)나라로 돌아오던 도중에 깊은 골짜기의 난초가 꽃을 피워 그 향기가 골짜기를 진동시키는 것을 보고, 좋은 세상을 만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가탁하여 만든 곡조라고 한다. 이 곡조는 《악부시집(樂府詩集)》에 실려 있다.

20 공자는……침울해졌고 : 《공충자》<기의(記義)> 편에 보이는 내용이다. “평소 공자가 거문고를 연주할 때는 맑고 온화한 소리가 났었는데, 어느 날은 탐욕스럽게 들렸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 공자는 방금 전에 고양이와 늙은 쥐를 잡는 것을

는 바닷물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어둡게 되었으니, 하물며 올바름을 잃어 감정이 방탕함으로 흐르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다만 함양하라.’라는 것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청컨대 한 번 노래하면 듣는 이가 세 번 감탄한다²¹는 것에 대해 논해 보겠습니다. 여휘(麗徽)²²는 우원(牛元)²³이 만들었고 청각(淸角)²⁴은 현원이 이름을 지었으니 거문고의 체용(體用)이 이에서 시작하였으며, 마른 오동은 서주에서 진상되고 고치실은 연주에서 바쳐지니 즉 거문고의 재용(財用)은 이보다 더 갖춰짐이 없습니다. 오현금으로 <남훈가(南薰歌)>를 연주하니 백성의 화는 풀어졌고,²⁵ <소소(簫

본 뒤에 그 소리가 그렇게 변하였다고 대답하였다.”

- 21 한 번……감탄한다 : 원문의 ‘일창삼탄(一倡三歎)’은 《예기》〈악기(樂記)〉에 “청묘(淸廟)의 슬(瑟)은 붉은 현(朱絃)으로 되어 있고 소리가 느릿하여서 한 사람이 선창하면 세 사람이 화답하여 여음(餘音)이 있다.” 한 데서 온 말이다.
- 22 여휘(麗徽) : 원래 거문고 현을 고르는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 거문고 앞쪽에 원형으로 박은 크고 작은 13개의 자개 조각을 이른다.
- 23 우원(牛元) : 《사문유취》를 보면 신농씨가 오동나무를 잘라 거문고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데, 조선 후기 도해 홍석모의 가전 <각관자전(角冠子傳)>을 보면 소의 성은 원(元)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농사를 인류에게 가르쳤다고 알려진 신농씨를 아마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여겨진다. 뒤에 현원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현원보다 앞 시대 인물로 그에 버금가는 비중을 지닌 인물로 여겨진다.
- 24 청각(淸角) : 《패편(裨編)》 권86에 보면, 황제가 타던 거문고의 이름이 청각이라고 한다.
- 25 오현금으로……풀어졌고 : 순(舜) 임금이 일찍이 오현금(五絃琴)을 손수 만들어 타면서 <남풍시(南風詩)>를 지어 노래하였다. 그 노래를 들어 보면, “남풍의 훈훈함 이어, 우리 백성의 노임을 풀 만하다. 남풍이 제때에 불어옴이어, 우리 백성의 재물을 풍부하게 하리로다.[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라고 하였다.

韶)>>가 아홉 번 연주되자 봉황이 와서 춤을 추니²⁶ 덕으로 서로 양보한 결과입니다. 아! 태평성대의 시절은 하늘도 또한 어기지 않으니 더구나 백성들이겠습니까. 태화의 원기에 백성들이 이미 무젓었으니 하물며 짐승들이겠습니까. 위의 음악은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다워 어떻다고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 부사(父師)가 곡조를 만들면서 비애(悲哀)를 위주로 하였으니, 유리(姜里)의 감옥에 있을 때 노래 불러²⁷ 환난을 근심하였습니다. 마음 아프게도 거짓으로 미친 척하니 옛 궁터가 보리밭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으며,²⁸ 유리의 감옥에 갇혔다가 끝내는 기양(岐陽)에 봉황이 날아왔으니 성인의 곤궁과 현달함은 또한 기이합니다. 악보를 배우기 위해 바다로 들어간 양(襄)²⁹은 포위를 풀 때 원화(元和)의 기운을 담아내었으며,³⁰ 벼들과 함께 공자와

26 소소(簫韶)가……추니 : 순(舜) 임금의 음악이 <소소>이다. 《서경》<익직(益稷)>에 이르기를 “<소소>가 구성(九成)이 됨에 봉황이 와서 춤을 추어 축하하였다.” 하였다.

27 유리(姜里)의……불러 : 《시경》<주남> ‘채채권이(采采卷耳)’는 문왕이 유리의 감옥에 구속되어 유폐되었을 때에 지은 작품이다.

28 거짓으로……있으며 : 기자(箕子)가 부른 <맥수가(麥秀歌)>를 가리킨다. 기자가 주(周)나라로 조회하러 가는 길에 은나라 도성 터를 지나다가 궁궐은 폐허가 되고 그 자리에 벼와 기장이 무성히 자란 것을 보고 슬퍼하여 지어 부른 노래이다. 그 가사에 “보리 이삭은 이미 자랐고, 벼와 기장도 무성하구나. 저 교활한 아이놈은, 어찌 나의 충고 듣지 않았던고. [麥秀漸漸兮，禾黍油油。彼狡童兮，不與我好兮。]”라고 하였다. 은나라 유민(遺民)은 이 노래를 듣고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史記 卷38 宋微子世家》

29 악보를……양(襄) : 노(魯)나라가 쇠미해져 예악(禮樂)이 무너지자, 예관(禮官)과 악관(樂官)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는데, 그중에 “소사 양과 격경 양은 바닷속 섬으로 들어갔다. [少師陽擊磬襄入於海.]”라는 말이 《논어》<미자(微子)>에 나온다. 격경(擊磬)은 경쇠를 치는 악인(樂人)이며, 양은 그 사람의 이름이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문고를 놓은 증점(曾點)은 선생을 모신 자리에서 천기를 드러내었습니다.³¹

아! 하늘이 내어 큰 덕을 지닌 공자는 아송(雅頌)의 근원을 바르게 하고, 안자는 봄의 온기로 누추한 시골에 살며 거문고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즐거움을 누렸는데, 공자와 안자의 즐거움이 어찌 오로지 거문고에만 있겠습니까. 사람을 음악으로 가르치니 백리의 땅이 태고처럼 순박하였으며,³² 대상(大祥)을 마치고 거문고를 잡았어도 삼 년 동안 연주가 무디지 않았으니,³³ 자유(子游)와 자하(子夏)의 음악이

30 포위를……답아내었으며 : 정확한 고사를 찾지 못하였다. 《사기》〈공자세가〉에서, “공자가 광(匡) 땅에서 포위당하였을 때 자로가 칼을 뽑고 노래를 부르니 공자가 그에 화답하였다. 이에 광 땅 사람들이 포위를 풀었다.”라는 기록은 보이는데, 이것이 양(襄)과 관련이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이 책에서 양은 거문고에도 능하다는 기록이 있다. 기정익의 이 글 뒷부분에 광 땅에서 공자가 풀려난 이야기를 다시 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그 고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1 벗들과……드러내었습니다 : 공자의 제자인 자로(子路)와 염유(冉有)와 공서화(公西華)가 먼저 자신의 포부에 대해 답변을 올리자 공자가 마지막으로 증점의 생각을 물었는데, 이에 증점이 조용히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다가 크게 한바탕 튕기고서 내려놓은 뒤에 일어나서는〔鼓瑟希，鏗爾，舍瑟而作，〕 자신의 뜻을 말하여 공자의 인정을 받은 고사가 전한다. 《論語 先進》

32 사람과……순박하였으며 :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는 무성(武城)의 수령으로 있을 때 음악과 예로 백성들을 다스렸다. 공자가 그 고을에 가서 현가(弦歌) 소리를 듣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오.〔割雞，焉用牛刀。〕”라고 농담을 한 고사가 있다. 《論語 陽貨》

33 대상(大祥)을……않았으니 : 옛날에 자하(子夏)가 삼년상을 마치고 공자를 뵙고는 거문고를 당겨 타는데, 간간(衍衍)히 즐거워하고는 일어나 말하기를 “선왕(先王)이 만든 예(禮)이기 때문에 감히 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자, 공자는 “군자이다.” 하였으며, 민자간(閔子騫)이 삼년상을 마치고 공자를 뵙고는 거문고를 당겨 타는데, 절절(切切)히 슬퍼하고는 일어나 말하기를 “선왕이 만든 예이기 때문에 감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하자, 공자는 “군자이다.” 하였다. 이에 자로가 “감히 묻겠습니다. 어째서입니까?” 하자, 공자는 “자하는 슬픔이 이미 다했으니 능히 연장하여

일반 사람들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맑은 바람 부는 북창에서 평소 줄 없는 거문고를 연주하고,³⁴ 밝은 달 뜨는 앞 시내에서 옥 거문고를 높이 연주하니,³⁵ 두 사람의 음악은 그 흥취를 취한 것입니다. 높은 산과 흐르는 물을 연주하니 백아의 마음을 안 자는 종자기가 아니겠습니까.³⁶ 곧은 말로 아프게 말하니 웅문의 곡조에 눈물을 흘린 자는 맹상군(孟嘗君)이 아니겠습니까.³⁷

오호라! 거문고는 음률에 있어 가장 귀한 물건이며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지극히 신비로운 효용을 지닙니다. 거문고로 사람의 마음을 기른다면 이에 사특한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이때 비로소 거문고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중시하지 않고 이 거문고만 즐기는 자는

예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라 한 것이요, 민자건은 슬픔이 다하지 않았으니 능히 예로써 절단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毛詩故訓傳》

34 맑은……연주하고 : 이백의 〈회증정물양(戲贈鄭溧陽)〉이란 시에서, “소금은 본래 줄이 없고, 술 거를 땀 갈건을 사용한다오. 맑은 바람 불어오는 북창 아래 누워, 스스로 복희 시대 사람이라 말하누나.〔素琴本無絃, 灑酒用葛巾. 清風北窓下, 自謂羲皇人.〕”라고 하였다.

35 맑은……연주하니 : 미상이다.

36 높은……아니겠습니까 : 춘추 시대 거문고의 명인 백아(伯牙)가 높은 산에 뜻을 두고 연주하면, 친구인 종자기(鍾子期)가 “멋지다, 마치 태산처럼 높기도 하구나.〔善哉, 峩峩兮若泰山.〕”라고 평하였고, 흐르는 물에 뜻을 두고 연주하면 “멋지구나, 마치 강하처럼 넘실대는구나.〔善哉, 洋洋兮若江河.〕”라고 평했다는 고사가 있다. 《列子湯問》

37 곧은……아니겠습니까 : 웅문주(雍門周)가 거문고를 잘 탔는데 슬픈 곡조를 타서 사람을 울렸다. 맹상군이 그를 불러 거문고를 타게 하면서, “네가 나도 울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웅문주가 거문고를 들고, “맹상군의 천추만세후(千秋萬歲後)에 나무하고 소 먹이는 아이들이 맹상군의 무덤에 올라가서, ‘맹상군의 호귀(豪貴)도 이제 이 무덤이로구나.’ 할 것입니다.” 하는 슬픈 곡조를 타니, 맹상군이 눈물을 줄줄 흘렸다. 《說苑 善說》

도리어 음란함을 부추기니 제가 말하는 거문고가 아닙니다. 옛사람에게서 살펴보면 이에 대한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사람의 거문고는 옛날 사람의 거문고와 다릅니다. 금빛 기러기발 옥 기둥에 손놀림이 정교하더라도 옥 거문고의 지극한 음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릎 위의 초미금(焦尾琴)³⁸도 오성의 근원을 어지럽히고, 손가락 아래 <유천곡(流泉曲)>³⁹은 칠정의 발동을 음탕하게 만듭니다. 애매모호한 소리는 다만 길고 짧은 가락만 드러내고 비리(鄙俚)한 곡조는 웅울과 자울⁴⁰을 구분하지 못하니, 음의 청탁과 고하는 다만 사람의 귀를 어지럽힐 뿐이요, 건조하고 습한 소리와 느리고 급박한 소리는 누가 악보에 들어맞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겠습니까. 지금의 양식인 용의 턱과 봉황의 꼬리는 옛날의 양식과 같은데 급박하고 음란한 지금의 음은 옛날의 음이 아닙니다. 현재 연주하는 <백설곡(白雪曲)>과 <양춘곡(陽春曲)>⁴¹은 옛날에 연주하던 것이지만 음탕하고 사

38 초미금(焦尾琴) : 중국 동한 시대 오나라에 어떤 사람이 오동나무로 불을 피워서 밥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채옹이 그 불타는 소리를 듣고 그 나무를 달라고 하여 거문고를 만들었는데 과연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 채옹은 이 거문고를 '초미금'이라 불렀는데, 오동나무 끝에 불탄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39 유천곡(流泉曲) : 원래 이름은 <벽간유천(碧澗流泉)>이다. 고대의 유명한 금곡(琴曲)의 일종으로, 영남금파(嶺南琴派)에 속한다.

40 웅울과 자울 : 《회남자》에 보이는 내용으로, 12울을 자울과 웅울로 나눈다. 이 12음계는 저음으로부터 황종(黃鐘)·대려(大呂)·태주(太簇)·협종(夾鐘)·고선(姑洗)·중려(仲呂)·유빈(蕤賓)·임종(林鐘)·이척(夷則)·남려(南呂)·무역(無射)·응종(應鐘)의 순으로 되어 있다. 각 울은 황종을 기본음으로 하여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으로써 음정을 구한다. 십이울은 음양(陰陽)의 원리에 따라 양을 상징하는 황종·태주·고선·유빈·이척·무역 등 홀수의 여섯을 육률(六律)이라 하고 이를 양성(陽聲)·양률(陽律)·육시(六始)·육간(六間)이라고도 한다. 또 음을 상징하는 대려·협종·중려·임종·남려·응종 등 짝수의 여섯을 육려(六呂)라 하고, 음성(陰聲)·음려(陰呂)·육동이라고도 한다.

특한 지금의 소리는 옛날의 소리가 아닙니다. 옛날 가락도 오히려 연주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대음(大音)⁴²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오호라! 거문고를 만든 것이 어찌 결단코 이와 같겠습니까. 본래 천지의 조화로움을 이루려 하였으나,⁴³ 이와 같으면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본래 귀신과 사람의 감동을 이르려고 하였으나 이와 같으면 감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 음악은 국가를 다스리는데 그 효용이 지극히 크지만 오늘날의 음악은 이 지경으로 무너졌으니, 저는 그 잘못된 것을 멈추게 하더라도 끝내 줄을 바꿔 다시 고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으니 음악을 듣고 조용히 박자를 맞추는 자는 음을 감상하는 귀를 가졌으며, 질병에 걸린 이를 보고 약을 찾는 이는 의사의 마음을 지녔다고 합니다. 제가 비록 음을 감상하는 귀를 지니지 못하였지만 의원의 마음을 본받으려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 집사께서 거문고를 좋아하시니

41 백설곡(白雪曲)과 양춘곡(陽春曲) : 따라 부르기 어렵기로 유명한 옛날 초나라의 고아(高雅)한 가곡 이름이다. 춘추 시대에 초나라에서 어떤 나그네가 <하리(下里)>와 <파인(巴人)>의 노래를 부르니 수천 명이 따라 불렀고, <양아(陽阿)>와 <해로(薤露)>의 노래를 부르니 몇백 명이 따라 불렀는데, <양춘(陽春)>과 <백설(白雪)>의 노래를 부르니 몇십 명밖에는 따라 부르지 못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문선(文選)》〈송옥대초왕문(宋玉對楚王問)>에 보인다.

42 대음(大音) : 큰 음악으로, 아름답고 묘한 음악을 말한다. 《노자(老子)》에 “큰 사각 형은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며, 큰 음악은 소리가 없다.[大方無隅, 大器晚成, 大音無聲.]”라고 하였다. 또한 이백(李白)의 <증임명현령호제(贈臨洺縣令皓弟)> 시에, “도연명은 팽택(彭澤)을 버리고 떠나서, 아득히 태고와 같은 마음을 간직해, 큰 소리가 절로 곡조를 이루기에, 줄 없는 거문고만 연주할 뿐이었네.[陶令去彭澤, 茫然太古心, 大音自成曲, 但奏無絃琴.]”라고 하였다.

43 본래……하였으나 : 《예기》〈악기〉편에 “음악은 천지의 조화이다.[樂者, 天地之和.]”라고 하였다.

청컨대 거문고로 말해 보겠습니다. <남훈가>의 거문고나 행단의 거문고⁴⁴가 있다 하더라도 순 임금과 공자의 본성을 지닌 자가 아니라면 백성의 노여움을 풀거나 광 땅에서의 포위를 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위(鄭衛)의 거문고⁴⁵와 상간(桑間)의 거문고⁴⁶가 있다 하더라도 기(夔)와 안희의 본성을 지닌 자가 아니라면 봉황이 와서 춤을 추거나 천기(天機)를 고동(鼓動)시키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지금 사람들이 먼저 성정의 올바른을 양성하여 중화(中和)의 지극함에 이르게 한 뒤에 손으로 거문고를 잡아 마음으로 깨우쳐 연주하면서 정신을 집중하여 답답함을 풀어낸다면, 튕겨진 그 음(音)이 조화롭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연주된 곡조가 바르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화(和)에서 발하여 돌이켜 그 본성을 화하게 만들며, 바름에서 근본하여 돌이켜 그 마음을 바르게 만드니, 사람의 사특함을 금지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께서 ‘성현과 같은 가락이며 음률이니 나라의 운명을 드넓고 탁 트인 소리와 치세의 훈후한 소리에 올려놓은 것’이라 한 말은 이와 같으면 충분합니다.”

오호라! 집사께서 저에게 <양춘곡>을 권하시니, 이른바 ‘<유수곡(流水曲)>을 연주한들 어찌 부끄러우랴.’⁴⁷라는 말에 해당합니다. 제가

44 행단의 거문고 : 《장자》〈어부(漁父)〉에 “공자가 치유(緇帷)의 숲에 노닐고 행단의 위에 앉아 쉬면서, 제자들은 글을 읽고 공자는 노래하며 거문고를 땀다.” 하였다.

45 정위(鄭衛)의 거문고 : 원래 《시경》〈국풍(國風)〉 중에서 음탕하다고 칭해진 정풍(鄭風)과 위풍(衛風)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거문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올바르지 못한 거문고의 곡조를 가리킨다.

46 상간(桑間)의 거문고 : 망국(亡國)의 음악이 생긴 곳이다. 복수(濮水)의 위에 상간이라는 땅이 있는데, 음탕한 망국의 민요가 유행하였다고 한다.

청컨대 논지를 바꿔서 말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오래된 거문고가 하나 있는데 그 양식은 옛날 것이며 그 자질은 질박합니다. 재목은 역양의 오동나무⁴⁸가 아니며 줄은 상두(桑土)의 실이 아니어서, 위로 <남훈가>와 봉황이 내려와 춤추던 곡조를 연주할 수 없으며 아래로는 행단과 가난한 시골에서 연주하던 조화로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종자기가 이미 멀리 사라졌으니 그 누가 제 연주의 음을 알겠습니까. 차라리 북창에서 연주하던 줄 없는 거문고나 밝은 달 비추는 앞 시내에서 배회하며 연주하던 거문고를 배울지언정, 처음에 지녔던 뜻을 영원히 어기는 것은 또한 제가 즐기는 바가 아닙니다. 주렴계의 풍월로 옥 거문고의 옛 악보에 화답하며, 무이(주자)의 춘풍으로 전해 내려온 대음(大音)의 소리를 연주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집사께서는 만약 저의 연주가 들을 만하다고 여기신다면 제가 한번 연주하리니 들어 보십시오. 집사께서는 기꺼이 귀를 기울여 들어 보시겠습니까. 삼가 대답합니다.”

47 유수곡(流水曲)을……부끄러우라 : 왕발(王勃)의 <등왕각서(騰王閣序)>에 보이는 말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으니 백아와 종자기처럼 <유수곡>을 연주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집사가 나를 알아준다는 말로 쓰였다.

48 역양의 오동나무 : 산둥성(山東省)의 역산(嶧山)에 오동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이 오동나무로 거문고를 만들면 아주 좋은 소리가 난다고 한다. 《서경》<우공(禹貢)>에 “역산 남쪽에 우뚝 자란 오동나무를 조공한다.[嶧陽孤桐]” 하였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을 질문한 것에 대한 책문

問知人

다음처럼 대답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니, 우리나라는 이제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정치는 사람을 얻는 것에 달렸다.”⁴⁹라고 하였습니다. 정치를 할 때 참으로 사람을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됨을 알지 못하고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호라! 사람됨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얻으며, 사람을 얻지 못하고서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선생의 직책은 정책을 만드는 것과 선비들 중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니, 선생께서 사람을 깊이 안다면 우리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청컨대 집사를 위해 말해 보겠습니다.

“큰 집을 만들려는 자는 반드시 대목수를 구하며 거친 옥을 지닌 자는 반드시 옥인(玉人)을 구하는데, 국가를 다스리려는 자가 사람됨을 알지 못하면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어진 이를 가까이하고 간사한 이를 멀리함은 국가를 다스리는 급선무인데, 사람은 모두 어질지 않으며 또한 모두 어리석지 않습니다. 어진 이를 알아 기용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이와 반대로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며, 어리석은 이를 알아 물리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이와 반대로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어진 이와 어리석은 이를 기용하고 물리침은 오직 내가 그들을 잘 아느냐 잘 알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나라의 치란(治亂)

49 정치는……달렸다 : 《중용》 제20장에 보이는 말이다.

도 이에 연계되니, 사람을 알아 임무를 맡기는 도리는 매우 막중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러나 어둠과 어리석음은 타인에게 있고 아는 것과 알지 못함은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있는 앎과 알지 못함을 다하지 못하면서 타인에게 있는 어둠과 어리석음을 살피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어진 이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여기고 어리석은 이를 어진 사람이라 여겨서 어진 이를 대하는 방법으로 어리석은 이를 대하며 어리석은 이를 대하는 방법으로 어진 이를 대하지 않는다고 어찌 확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즉 ‘공명(公明)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홀아버로 민간에 살던 순(舜)을 등용하여 재주를 시험하였으며, 노예로서 들판에 성을 쌓는 부열(傅說)을 화상(畫像)으로 찾아 재상으로 삼았습니다.⁵⁰ 아! 왕을 선위하는 막중함은 어진 이를 등용하는 것과는 다르니, 무정(武丁)이 사람을 알아본 것이 어찌 요 임금이 알아본 것보다 훌륭하겠습니까. 신야로 폐백을 보내니 농사를 그만두고 마음을 고쳐먹었으며⁵¹ 위수 가에서 낚시질하다가 낚싯대를 거두고 문왕의 뒷수레를 탄 일이 있습니다.⁵² 아! 어진 이를 찾을 때에는 장소의 구애를

50 노예로서……삼았습니다 : 은나라 고종(高宗, 무정)이 자신을 도와줄 어진 신하의 모습을 꿈속에서 보고는, 초상화를 그려서 널리 찾은 결과[以形旁求], 부암(傅巖)의 들판에서 노예로 성을 쌓고 있던 부열(傅說)을 얻어 재상으로 삼은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書經 說命上》

51 신야로……고쳐먹었으며 : 이윤(伊尹)이 유신(有莘)의 들판에서 농사지으며 살다가 탕왕(湯王)이 폐백을 보내자 벼슬길에 나온 것을 이른다.

52 위수……있습니다 : 주 문왕(周文王)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가면서 점을 쳐 보니, 점사(占辭)에 “용도 아니요, 이무기도 아니요, 곰도 아니요, 말곰도 아니요, 범도 아니요, 비휴도 아니요, 얻을 것은 패왕의 보좌이다.[非龍非鯢非熊非羆非虎非貔,

만지 않았기에 훌륭한 성인을 얻었는데, 바람이 호랑이를 따르듯 자연 스레 친하게 되니 어찌 점을 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를 먹이며 슬프게 노래 부르던 이를 등용하여 재상을 삼았다는 내용은 충의전에 실려 있으며,⁵³ 당하에서 한마디 말한 이의 손을 잡고 당 위로 올라간 것은 《좌전》에 실려 있습니다.⁵⁴ 또한 회음후 한신(韓信)을 국사로 알아본 것은 재상 소하(蕭何)였으며,⁵⁵ 용중의 와룡 제갈량은 서서(徐庶)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진 적인걸(狄仁傑)도 얼굴에 맺은 침을 닦지 않던 누사덕(婁師德)의 덕을 비방하였으며,⁵⁶ 지혜

所獲霸王之輔.]”라고 했는데, 과연 위수(渭水) 가에서 강태공(姜太公)을 만나 그를 후거(後車)에 싣고 돌아왔다.

53 소를……있으며 : 춘추 시대 위(衛)나라 영척(甯戚)이 제(齊)나라에 가서 빈궁하게 지내며 소에게 꼴을 먹이다가 제 환공(齊桓公)을 만나 쇠뿔을 치며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슬픈 노래를 부르자, 환공이 그를 비범하게 여겨 수레에 태우고 와서 객경(客卿)에 임명한 고사가 있다. 그 노래를 일명 〈반우가(飯牛歌)〉라고 한다. 《古詩苑 飯牛歌》 ‘충전(充傳)’은 무슨 책을 가리키는지 미상이다.

54 당하에서……있습니다 : 《춘추좌씨전》 소공(昭公) 28년에 “숙향(叔向)이 정(鄭)나라에 갔을 때 얼굴이 못생긴 종명(穉明)이 숙향을 보려고 그릇을 수거하는 사람을 따라가 당하(堂下)에 서 있다가 한마디 좋은 말을 하였다. 숙향이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필시 종명일 것이다.’ 하고는 당하로 내려가서 종명의 손을 잡고 당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였다.

55 회음후……소하(蕭何)였으며 : 다른 장수들이 술하게 도주해도 가만히 있던 소하가, 한신(韓信)이 중용(重用)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도망치자, 급히 뒤쫓아가 다시 데리고 와서는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에게 예의를 극진히 하여 대장(大將)에 임명토록 했다는 고사가 있다.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56 어진……비방하였으며 : 누사덕(婁師德)은 당(唐)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 때의 명재상이다. 누사덕의 아우 후덕(厚德)이 말하기를 “남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으면 닦을 뿐이다.” 하니, 사덕이 근심스러운 빛을 지으면서 말하였다. “이것이 나를 근심스럽게 하는 것이다. 남이 너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너에게 성낸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닦으면 그 사람의 뜻을 거스려서 그 성냄을 더하게 할 것이다. 닦지 않고 저절로 마르게 하면서 받아야 한다.” 누사덕은 성품이 침착하고 후덕하였는데,

로운 장문중(臧文仲)은 너무 강직하여 세 번 쫓겨난 유하혜(柳下惠)를 천거하지 않았습니다.⁵⁷ 아! 재상 소하가 할 수 있는 것을 문중자(장문중)는 하지 못하였고, 서서도 오히려 아는 것을 적인걸은 알지 못하였으니, 사람을 알기가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 어찌 빈말이겠습니까. 왕안석(王安石)은 낚싯밥을 먹은 교활함⁵⁸으로 군실(君實) 사마광(司馬光)을 그르치게 만들었으며,⁵⁹ 눈 속의 압정으로 지목되던 정위(丁謂)는 내공(萊公) 구준(寇準)을 함정으로 빠트렸고,⁶⁰ 남의 허물을 용

명재상인 적인걸(狄仁傑)이 재상이 된 것은 실로 그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으나 적인걸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경시하여 여러 번 비판하였다. 측천무후가 이것을 알고 적인걸에게 “누사덕이 인재를 알아보는가?” 하고 묻자, 적인걸은 “신이 일찍이 그와 동료가 되었으나 그가 인재를 알아본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측천무후가 “짐이 경(卿)을 안 것은 바로 누사덕의 천거에 의한 것이었으니, 그 또한 인재를 알아본다고 이를 만하다.” 하자, 적인걸이 밖으로 나와 한탄하기를 “누공(婁公)의 거룩한 덕을 나는 측량할 수 없다.” 하였다. 《史略 卷5 唐中宗》

57 지혜로운……않았습니다 : ‘유계(柳季)’는 유하혜(柳下惠)를 가리킨다. 계(季)는 그의 자(字)이기 때문에 그런 별칭이 있게 되었다 한다. 《논어》〈미자(微子)〉에 “유하혜가 사사(士師)의 직책을 수행하다가 세 번이나 쫓겨나자〔三黜〕 왜 다른 나라로 떠나가지 않느냐고 어떤 이가 물었는데, 이에 대답하기를 ‘울곧게 도를 행하면서 섬긴다면 어디를 간들 세 번 쫓겨나지 않겠는가.〔直道而事人，焉往而不三黜.〕’ 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논어》〈위령공〉에 “장문중(臧文仲)은 지위를 도둑질한 자일 것이다. 유하혜가 현명함을 알면서도 그를 등용하여 함께 조정에 서지 않았다.〔臧文仲，其竊位者與。知柳下惠之賢而不與立也.〕” 하였다.

58 낚싯밥을 먹은 교활함 : 왕안석이 어느 날 꽃을 감상하고 고기를 낚는 연회에 참석하였다. 내시(內侍)가 금접(金樸)에다 낚싯밥을 담아 각자의 탁자 앞에다 놓았는데, 왕안석이 그것을 전부 다 먹어 버렸다. 그 다음 날 인종이 보정대신(輔政大臣)에게 말하기를 “왕안석은 교활한 사람이다. 그가 잘못 알고 낚싯밥을 먹었을 경우에는 한 덩어리만 먹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전부 다 먹었으니, 이는 인정에 가깝지 않다.”라고 하고, 매우 미워하였다. 《治平要覽 第111卷》

59 낚싯밥을……만들었으며 : 왕안석과 사마광은 신법당과 구법당으로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초기에는 사이가 매우 좋았다. 아마도 바로 앞의 고사에서 사마광은 왕안석의 무심함과 집중력을 높이 여겨 그와 가까이 지낸 것으로 기정익은 판단한 듯하다.

납하지 않았던 문언박(文彦博)은 조정에서 쫓겨났으며,⁶¹ 공을 다투다 허물이 생겨 한세충(韓世忠)은 강가에서 늪어 갔습니다.⁶² 아! 사마광

60 눈 속의……빠트렸고 : 북송 진종(眞宗) 연간에 정위(丁謂)라는 간악한 재상이 있었다. 간교한 무리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는데, 내국공(萊國公) 구준(寇準)이 자꾸 가로막았다. 그래서 계락을 짜 황제에게 구준을 모함하여 마침내 구준을 도성 밖으로 쫓아낸다.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노래로 부르게 되는데, “세상이 편해지려면 눈에 압정을 뽑아내야 하고, 세상이 좋아지려면 구노(寇老)를 불러오는 것 만한 것도 없지.〔欲得天下寧，須拔眼中丁，欲得天下好，莫如召寇老.〕”라고 하였다. 가사 중의 ‘정(丁)’은 정위(丁謂)를 가리키는 말이다.

61 남의……쫓겨났으며 : 문언박(文彦博)은 서하 대책에 공을 세웠고, 패주 왕측의 난을 평정했다. 부필 등과 영종 융립에 진력하였으며, 철종 즉위 후 정계의 원로로서 중신이 되었다. 당개(唐介)가 어사(御史)가 되어 문언박이 전권을 독점하고 봉당을 세우고 궁궐과 결탁하였으며, 익주(益州)의 지사(知事)가 되었을 때는 등룡금(燈籠錦)으로 귀비(貴妃)의 총애를 입어 재상의 지위에 올랐으며, 지금 또 선취사(宣徽使)로서 장요좌(張堯佐)와 결탁하였다고 하면서 그를 축출하기를 청하였다. 귀비는 장요좌의 질녀이므로 인종(仁宗)이 노하여 이부(二府, 중서성과 추밀원)의 관리를 불러 상소문을 보여 주니, 당개가 면전에서 문언박을 질책하면서 “언박은 스스로 반성하시오. 그런 점이 있다면 숨기려 하지 마시오.”라고 하자, 문언박은 절하며 사죄해 마지않았다. 당개를 어사대(御史臺)에 보내 심문하라는 조서가 내리자, 문언박은 홀로 만류하면서 재배하고 말하기를 “어사는 직언을 올리는 직책이니, 더 죄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당개는 영주 별가(英州別駕)로 좌천되었고, 이튿날 문언박은 재상에서 파직되었다. 나중에 문언박이 다시 재상이 되었을 때 어사 오중복(吳中復)이 당개를 다시 부르기를 황제에게 청하자, 문언박이 말하기를 “당개가 한 말이 또한 신의 병폐에 적중하였는데 너무 심한 견책을 받았으니, 오중복의 말처럼 다시 부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宋史 卷313 文彦博列傳》

62 공을……갔습니다 : 한세충은 북송 시기 인물로, 자는 양신(良臣)이고, 호는 청량거사(淸涼居士)이다. 초주에 있는 1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위제(僞齊)와 금나라 병사를 격퇴해 금나라 사람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후에 악비(岳飛), 장준(張俊)과 함께 부름을 받고 입조하여 추밀사(樞密使)가 되면서 병권을 박탈당했다. 화의(和議)에 반대하면서 진회(秦檜)가 나라를 그르친다고 상소했다. 나중에 파직되어 예천관사(醴泉觀使)로 쫓겨났다. 이때부터 두문불출하면서 병사(兵事)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았다. 때로 나귀를 타고 술병을 찬 채 서호(西湖)를 돌아다녔다.

은 미치지 못하였는데 왕안석은 지나쳤으며, 내공은 속임을 당하였는데 위공⁶³은 덕을 잃었으니, 사람은 참으로 알기 어렵다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호라! 진 목공(穆公) 이전에 임금이 된 자는 사람을 알아보고 임무를 맡겼는데 진 목공 이후로 신하 된 이는 간혹 사람을 알아보기도 하고 혹은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모두 훌륭한 옛사람이어서 우리가 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의 성스런 조정에 대해 말을 계속해 볼까 합니다. 오호라! 하늘이 동방에 관심을 기울여 성후(聖后)가 나라를 잘 다스리니⁶⁴ 정로문(鼎路門)⁶⁵에 빛이 나고 어진 재상이 자리를 잡으니 해와 달처럼 밝아 사방을 두루 비춥니다. 높이 걸린 거울 같은 맑은 식감(識鑑)은 먼지가 내리지 않아 뚜렷하니 올바르게 인물을 천거하고 기용하라는 공자의 가르침⁶⁶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정려(旌閭)와 분리(分離)를 어그러트리지 않았으니 주왕의 경계⁶⁷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초나라 연회에 단술이 없는 것처럼⁶⁸ 어진 이가 날로 멀어지고, 한나라 조정의 냄새나는 동전처럼⁶⁹

63 위공 : 위국공 풍중(馮拯)을 가리킨다. 정위가 구준을 참소할 때 정위의 의도대로 따른 인물이다.

64 나라를 잘 다스리니 : ‘수의(垂衣)’는 ‘수의공수(垂衣拱手)’의 준말로, 의상(衣裳)만 드리우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는 뜻이다. 《서경》〈무성(武成)〉에 “하는 일이 없어도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垂拱而天下治]”라고 하였다.

65 정로문(鼎路門) : 한(漢)나라 장안성(長安城)의 남문 이름이다. 여기서는 조정을 의미한다.

66 올바르게……가르침 : 《논어》〈안연〉 편에 “곧은 이를 들어 쓰고 굽은 이를 버리면 굽은 자로 하여금 곧게 할 수 있다.[舉直錯諸枉能使枉者直]”라고 하였다.

67 정려(旌閭)와……경계 : 《서경》〈필명(畢命)〉에 “선한 이를 표창하고 악한 이를 따로 분리하며 사는 마을을 표시한다.[旌別淑慝, 表厥宅里.]”라는 말이 있다.

비천한 사내가 날로 조정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에 성상께서는 자리를 비워 어진 이를 기다리는 정성⁷⁰을 비록 간절하게 가지고 있지만 능력을 발휘하는 신하가 아래에서 들리지 않으니, 어진 이를 구하는 성상(聖上)의 밝은 지감(知鑑)만 부질없이 쉬지 못합니다. 천거하고 발탁하는 마음은 조금도 풀어지지 않았지만 녹봉을 구하려는 무리들이 찾지도 않는데 스스로 다가오니, 사람을 천거하는 어진 재상은 자신의 식감(識鑑)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임금이 몸소 어진 이들을 시험하

68 초나라……것처럼 : 한나라 초 원왕 유교(劉交)는 한 고조 유방(劉邦)의 막내동생이다. 유교는 재사 목생(穆生)을 아껴 예로써 대했다. 그런데 목생이 술을 마시지 못하므로 그가 연회를 베풀 때는 목생을 위해 따로 술 대신 단술 즉 감주(醴酒)를 준비해 접대했다. 그런데 후에 유교가 죽고 왕위를 물려받은 그의 아들 유무(劉戊)가 처음에는 그에 대해 신경을 써서 단술을 준비하여 접대했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단술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연회가 있어도 목생을 위해 따로 단술을 차리지 않았다. 목생은 자리에서 물러나며 말하였다. “이제 나도 떠날 때가 왔다. 단술을 내놓지 않으니 임금이 나를 잊었음이 아닌가.” 목생이 유무 막하에서 물러가고 얼마 후에 유무는 신하를 죽이고 악행을 일삼다 전쟁에서 패해 자결했다. 《漢書 卷36 楚元王劉交傳》

69 한나라……동전처럼 : 후한의 최열(崔烈)이라는 사람이 유모를 통해 5백만 전을 내고 사도(司徒)라는 관직을 샀다. 최열은 아들 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나는 삼공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논의하는 자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조가 말했다. “아버지는 젊어서는 영민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신(大臣)과 태수(太守)를 역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삼공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버지께서 그 지위에 오르자 천하 사람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최열이 물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조가 말했다. “논의하는 사람들은 동전 냄새(銅臭)를 싫어합니다.” 《後漢書 卷52 崔駰列傳 崔寔》

70 자리를……정성 : ‘측석(側席)’은 공손히 현인을 기다리는 것을 가리킨다. 《후한서》 권3 <장제기(章帝紀)>에 “집이 정직한 선비를 생각하며 기다리느라 옆으로 앉아 특별한 소식을 듣는다. [朕思遲直士 側席異聞]”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 이현(李賢)이 주(注)를 달기를 “측석은 똑바르게 앉지 못한 것이니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側席, 謂不正坐, 所以待賢良也.]”라고 하였다.

지만 문장을 짓는 무리들은 실제 일에 보탬이 되지 않으며 음관을 가려 뽑지만 용렬한 무리들은 도리어 일을 망쳐 버리니, 과거시험과 천거하는 법을 통해서도 한 사람도 취할 인재가 없습니다. 사사로이 명목을 세워 서로 밀쳐 함정에 빠트리니 누가 한나라 조정에서 도척(盜跖)과 백이(伯夷)를 구별하겠습니까. 앞다뒀 서로를 칭송하면서 각자의 당파를 보호하니, 까마귀의 암수를 구별하지 못한 위나라 조정과 같습니다.⁷¹

아! 이와 같이 어진 인재는 사라지고 이와 같이 용렬한 자가 현달하니, 장차 나라가 나라꼴이 아닐 것이며 난망(亂亡)이 곧 이를 것입니다. 아! 위에 성스럽고 밝은 임금이 있으니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아래에 어질고 지혜로운 재상이 있으니 임무를 마땅한 이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으니 우리 임금과 재상이 날마다 강론하여도 인재를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꽃을 베거나 나무를 쥘 때 모습에 미친 사람 같은 견해를 지닌 저는 쭈대처럼 이리저리 떠돌며⁷² 장님처럼 어리석은 계책을 세우니, 태평성대의 내쳐 버린 물건이 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 폐단을

71 까마귀의……같습니다 : 《시경》〈소아(小雅)〉에서 “모두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지만,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알 수 있을까.[具曰予聖, 誰知烏之雌雄.]”라는 말이 있다. 《통감》에 자사(子思)가 위나라 왕에게 위나라의 정치에 대해 한 말 중에 이 시가 인용되었다.

72 쭈대처럼 이리저리 떠돌며 : ‘봉루(蓬累)’는 쭈대처럼 다닌다는 의미로 여기저기 떠돈다는 뜻이다. 《사기(史記)》권63 〈노자열전(老子列傳)〉에 “군자가 때를 얻으면 수레를 타고, 때를 얻지 못하면 쭈대처럼 다닌다.[君子得其時則駕, 不得其時則蓬累而行.]”라고 하였다.

구하려는 계획에 대해 성스런 임금과 어진 재상도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는데 감히 제가 그 방법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러나 장기를 보면 정신이 팔리고 음악을 듣고 조용히 박자를 맞추는 자는 간혹 음을 깨우치고 도를 안다고 하는데,⁷³ 이런 말과는 동떨어져서 비록 매우 어리석지만⁷⁴ 저도 혹시 이런 무리들과 나란할 수 있겠습니까.⁷⁵

제가 듣기에, 사랑하고 증오하는 사사로움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공변됨을 잃고, 외물과 자아의 비교에서 오는 욕심이 유혹하면 시비를 분별하는 견해는 어둡게 된다고 합니다. 어진 사람이 제대로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마음이 공변되기 때문이며, 지혜로운 자가 시비를 분별하는 것은 이치를 밝게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임금께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비록 매우 지극하지만 사람을 취하거나 버릴 때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공변됨을 다하십니까. 우리 임금께서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비록 매우 지극하지만 인재를 선발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식견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의 은혜라도 함부로 베푸는 것은 공변됨이 아니며, 작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기용하지 않는 것은 밝음이 아닙니다. 마음에 이런

73 장기를……하는데 : 위(魏)나라 조식(曹植)의 〈구자시표(求自試表)〉에 보이는 구절이다.

74 매우 어리석지만 : ‘주우(朱愚)’는 지혜가 부족해서 우매한 것을 말한다. 《장자》〈경상초(庚桑楚)〉에,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말할 것이고, 지혜가 많으면 도리어 나 자신을 괴롭힐 것이다. [不知乎人謂我朱愚, 知乎反愁我軀.]”라고 하였다.

75 저도……있겠습니까 : 한유의 〈대장적여이절동서(代張籍與李浙東書)〉에 보이는 구절이다. 이 부분은 다른 책에서 각각 구절을 따와 일종의 패러디 형식으로 문장을 이끌어 갔다.

것들이 겨우 싹트기 시작하면 곧바로 밖의 일 처리에 해를 끼치며, 바로 조금 전에 이런 폐단이 있으면 곧바로 뒤에 실수를 저지르니, 조금이라도 미진하면 큰 덕에 허물이 됩니다. 덕에 이미 허물이 있는데 사람을 아는 도리를 다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여 먼저 사랑하고 증오하는 사사로움을 제거하여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공변되게 만들며, 먼저 물욕의 유혹을 제거하여 시비의 분별을 밝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안에 폐행(嬖幸)⁷⁶이 있으면 나의 마음이 공변되지 않은 것이요, 재야에 숨은 어진 이가 있다면 나의 지감(知鑑)이 밝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천하를 공변되게 여기는 마음이 균형을 잡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만리를 밝게 보는 안목이 거울처럼 밝아 평가에 사사로움이 없으면, 조정에는 임금을 보좌하는 어진 재상⁷⁷이 있고 많은 현명한 이들이 힘써 옆에서 도울 것이며 관청에는 시끄럽게 소송하는 무리들이 없게 되고 덕을 지닌 사람들이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군자들이 마치 띠풀을 뽑듯이 말고삐를 잡고 나란히 나아가며⁷⁸ 소인들은 마치 못을 뽑아내듯이 사라질 것이니,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당우(唐虞)와 삼대(三代)의 다스림을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습니다. 집사께서는

76 폐행(嬖幸) : 비천한 출신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을 이른다.

77 임금을……재상 : 원문의 ‘양채지갱(亮采之羹)’은 정사를 보좌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서경》〈순전〉에서 “총채〔百揆〕 자리에 앉혀서 모든 일을 밝히고 온 백성을 사랑하도록 하라.〔使宅百揆，亮采惠疇。〕” 하였으며, 《서경》〈고요모〉에서 “날마다 엄숙하게 여섯 가지 덕을 경건하게 실천하여 밝게 다스리면 나라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日嚴祗敬六德，亮采有邦。〕”라고 하였다.

78 군자들이……나아가며 : 군자가 동류들과 함께 조정에 진출함을 뜻한다. 《주역》〈태괘(泰卦)〉 초구(初九)에서 “띠풀의 엉킨 뿌리를 뽑는 격이라 동류들과 함께 감이니 길하다.〔拔茅茹，以其彙征，吉。〕”라고 하였다.

무슨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집사의 질문에 제가 공변됨과 밝음[公明]으로 답하였으니, 어찌 이렇게 답한 의도가 없겠습니까. 현재 공변됨과 밝음을 다하지 못한 것은 또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집사께서는 아직 그것을 살펴보지 못하였는지요. 현재 봉당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그 병통을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봉당으로 인해 사람과 국가에 재앙을 끼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의 본질까지 잃어버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군자가 한 봉당을 이루고 소인이 한 봉당을 이루면 한쪽이 나아갈 때 다른 한쪽은 물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봉당을 이룬 자들은 그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쪽이라도 모두 군자가 아니며 저쪽이라도 모두 소인이 아닙니다. 비록 대단히 뛰어난 학문과 세상에 우뚝한 재주를 지니고도 같은 편의 당론을 주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배척하며,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자질을 지닌 대단히 비루한 사람이라도 팔을 휘두르며 당론을 외쳐 대면 반드시 그를 호걸이라고 추켜세웁니다.

군자라고 불리는 자들은 반드시 참된 군자를 끌어들이지 않으며 소인이라고 지목된 이들은 반드시 진짜 소인을 붙따르지 않으며, 오직 우리 편과 상대편만을 구별하여 끌어들이거나 물리칩니다. 다만 이와 같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배냇머리가 마르자마자 가장 먼저 어느 당에 속한지 묻습니다. 부형(父兄)이 그렇게 가르치고 벼들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어 항상 당파의 지론을 주장하며 벼슬을 얻는 지름길로 여깁니다. 만약 같은 당파일 경우에는 비록 원수라도 부자간처럼 여기며, 같은 당파가 아닐 경우에는 비록 친척이라도 독초처럼 여깁니

다. 이와 같으면서 마음 씀씀이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공변되고 밝은〔公明〕 도리는 모두 붕당에 의해 무너졌으니, 하북(河北)의 도적을 누가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⁷⁹ 오호라! 안타깝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집사께서는 전하에게 아뢰어 다스리는 방법을 도모하십시오. 삼가 대답합니다.”

79 하북(河北)의……있겠습니까 : 《자치통감》〈당기〉에서 “문종이 근심하면서 항상 탄식하기를, ‘하북의 도적(토번)을 물리치기는 쉬우나 조정의 붕당을 없애기는 어렵다.〔文宗患之, 每嘆曰: 去河北賊易 去朝廷朋黨難.〕’ 하였다.”라고 하였다. 즉 힘을 합쳐 하북의 도적을 물리쳐야 하는데 당과 싸움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 하북의 도적을 물리치지 못함을 말한다.

기량을 묻은 것에 대한 책문

問器量

다음처럼 대답합니다.

선생께서는 기량의 어떠한 점에 대해 물으신 것입니까. 즉 크고 작은 것으로 묻은 것입니까. 아니면 깊고 얕음으로 묻은 것입니까. 대저 기량에 대해서는 그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기량 자체로 본다면 작은 것은 참으로 큰 것만 못하고 얕은 것은 참으로 깊은 것만 못합니다.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작은 것도 또한 크게 되며 얕은 것도 또한 깊게 되니, 결과적으로 대소와 천심(淺深)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선생께서 기량에 대해 묻은 것은 아마도 부정적인 면을 바로잡아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말을 듣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제가 청컨대 제 생각을 전부 아뢰어 보겠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건대, 사람의 기량은 기를 품부받을 때에 달렸습니다. 대개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은 기(氣)인데 이 기(氣)를 받고 태어나면 형기(形氣)를 지니지 않을 수 없으니, 기량의 크고 작음과 얕고 깊음은 기를 품부받을 때 온전히 받느냐 치우쳐 받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때문에 기(氣)의 치우침과 온전함에 따라 기(器)의 크고 작음이 정해지고, 기(器)의 크고 작음에 따라 양(量)의 얕고 깊음이 정해집니다. 기(氣)를 온전하고 드넓게 받으면 성인이 되거나 현인이 되며 기(氣)를 치우치거나 급박하게 받으면 어리석은 이가 되거나 악한 이가 되니, 어느 쪽이든 품부 받은 기(氣)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비록 그러나 치우치거나 온전한 것은 기(氣)이며, 순수하게 선한

것은 성(性)입니다. 너그럽고 드넓거나 치우치고 급한 차이는 비록 형기(形氣)에 의해 국한되지만, 부정적인 면을 바로잡아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공력은 어찌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 안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호라! 얼굴은 아름답고 추한 구분이 있는데 추함은 아름답게 변하지 못합니다. 형체는 크고 작은 구분이 있는데 작은 형체가 크게 변하지 못합니다. 다만 기량은 치우치고 촉박한 것이 변하여 너그럽게 되니 한번 정하면 변함이 없는 아름답고 추함과 같지 않으며, 급박한 것이 변하여 드넓은 것이 되니 한번 정하면 변함이 없는 짧고 긴 것과 같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어찌 성(性)이 근본이 되어 존양(存養) 공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존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학문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에 대해 아뢰어 보겠습니다. 기량이 대단히 크면 천지 강하(江河)와 같은 기량을 지닌 자가 있으며, 기량이 대단히 작으면 술이나 대그릇만 한 기량을 지닌 자가 있는데, 품부받은 것이 그렇기 때문이지 어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승상이 부서(府署)에서 다스리면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는데 아전(衙前)을 부리면서 아무 까닭 없이 엽신여기면 대체(大體)를 아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문지기가 예의를 잃으면 마땅히 매질을 당해야 하는데 화가 나서 책상을 던지며 끝내 스스로 태워 버렸으니, 본성의 급격함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너그러움과 치우침을 모름지기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기량을 시험하려고 국으로 조복을 더럽혔으나 유관(劉寬)은 손을 데지 않았는지 물었으니 그의 너그러움과 온화함이 이와 같았습니다.⁸⁰ 계란이 젓가락에서 달아나자 땅바닥에 내던진 것도

심하거늘 걸상에서 내려와 신발로 밟았으니 이는 무슨 추태란 말입니까.⁸¹ 기량의 크고 작음은 논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장사(長史)가 매질을 당하는데 10대 이하로 쳐서 황제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니 저 더러운 이름을 남긴 자사(刺史)는 기량이 지위에 어울리지 않으며,⁸² 낭관(朗官)이 매질을 당하여 책상 아래로 기어들어가 다급하게 호소하니 이처럼 가혹한 천자는 그 기량이 작기만 합니다.⁸³ 강건한 구준(寇準)은

80 아내가……깎았습니다 : 후한(後漢) 장제(章帝) 때 유관(劉寬)은 성질이 매우 너그러워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았다. 그 부인이 그가 얼마나 너그러운가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가 조회에 들어가려고 관복(官服)을 차려입을 적에 종을 시켜 관복에 국을 엮걸렀으나, 유관은 “네 손이 데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뿐 다른 말은 없었다 한다. 《後漢書 卷25 劉寬列傳》

81 계란이……말입니까 : 왕술은 진(晉)나라 사람으로 벼슬은 산기상시(散騎常侍)였다. 초년에는 성질이 대단히 급하였다. 한번은 계란을 먹는데, 젓가락으로 잡으려 하자 미끄러워 집어지지 않았다. 왕술은 노하여 땅에 던졌는데 그래도 깨지지 않고 빙글 돌았다. 왕술은 의자에서 내려와 나막신으로 밟았지만 역시 집어지지 않게 되자, 크게 노하여 입안에 넣고 깨뜨린 다음 뱉어 버렸다. 뒤에는 성질을 고쳐 매우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晉書 王述列傳》

82 장사(長史)가……않으며 : 수(隋)나라 시대의 저명한 흑리인 연영(燕榮)의 고사이다. 연영이 유주 자사로 있을 때 원홍사(元弘嗣)가 유주의 장사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연영에게 치욕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굳게 사양하였다. 임금이 그러한 까닭을 알고 연영에게 칙령을 내려 “원홍사에게 곤장 열 대 이상의 죄를 내릴 때는 상소를 올려 아뢰어라.”라고 하였다. 연영은 화가 나서 “어린놈이 어찌 감히 나를 농락하는가.”라고 하고 원홍사를 창고의 곡식을 감독하는 자리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낱알이 하나라도 날아가면 곧바로 벌을 내렸는데, 매질할 때 열 대를 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하였다.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황제가 연영을 서울로 불러들인 뒤에 처형하였다. 《隋書 酷吏列傳》

83 낭관(朗官)이……합니다 : 한(韓)나라 명제(明帝)가 어떤 일로 노하여 낭관 약송(藥崧)을 지팡이로 때렸는데, 약송이 도망하여 상(床) 아래로 들어갔다. 이에 더욱 노하여 “낭관은 나오너라.” 하니, 약송이 말하기를 “천자(天子)는 사려가 깊고 멀리 내다보아야 하는데,……인군이 스스로 일어나서 낭관을 때렸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자, 이를 용서해 주었다는 고사(故事)를 가리킨다.

전쟁터에 있으면서 술을 마시고 노름을 일삼았으니 요컨대 넓은 도량으로 사태를 진정시킨 것이며,⁸⁴ 사람과 바둑을 두며 사활을 다투다가 바둑판을 집어 던진 것은 불같이 거친 성격이 드러난 것이니 어찌 거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⁸⁵ 성격이 너무 맑아서 타인이 쉽게 알아채는 것은 깊고 넓어 헤아리기 어려운 것만 못하며, 차분하고 우아한 도량은 겁쟁이인 회목(回穆)⁸⁶보다 훨씬 나으니, 네 사람⁸⁷ 기량의 크고 작음과 얇고 깊음은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가득한 것을 경계하여 타인이 뺨은 침을 닦지 않았으니 누사덕(婁師德) 공의 어썩은 자신을 보호하였고,⁸⁸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뒤에 불

84 강건한……것이며 : 송 진종(宋眞宗) 경덕(景德) 원년(1004) 9월에 거란이 송나라를 침입하니 진종이 이를 맞아 전주(澶州)에서 싸웠다. 황제가 행궁(行宮)으로 돌아오면서 구준(寇準)을 북성(北城)에 남아 있게 하였다. 얼마 후 임금이 사람을 시켜 구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폈더니, 구준이 바야흐로 지제고(知制誥) 양억(楊億)과 술 마시고 노름을 하며 노래하고 농담하며 즐거이 떠들고 있었다. 임금이 듣고 기뻐하며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라.” 하였다. 《宋史 寇準列傳》

85 사람과……있겠습니까 : 중국 남조 송나라 때 사홍미(謝弘微)의 고사를 말한다. 그는 사람됨이 중후하고 도량이 넓어 당대에 손꼽히는 거물이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늙어 만년에 바둑으로 유유자적하였는데, 어느 날 마음에 맞는 친구와 더불어 바둑을 두었다. 상대의 대마가 풍전등화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은 눈치를 채지 못하였다.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훈수를 두자 상대방이 깨닫고 대마를 살렸다. 순간 사홍미의 안색이 변하더니 대노하여 바둑판을 뒤집어 엎어 버렸다. 《南史 謝弘微列傳》

86 회목(回穆) : 미상이다. 이 구절은 위 구절과 대구가 되는데, 위 구절의 ‘왕왕(汪汪)’이 형용사인 것으로 보아 ‘회목’도 형용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오자로 보인다.

87 네 사람 : 연영, 명제, 구준, 사홍미를 가리킨다.

88 가득한……보호하였고 : 누사덕(婁師德)은 당(唐)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 때의 명제상이다. 누사덕(婁師德)의 아우 후덕(厚德)이 말하기를 “남이 자기 얼굴에 침을 뺨으면 닦을 뿐이다.”라고 하니, 사덕이 근심스러운 빛을 지으면서 “이것이 나를 근심스럽게 하는 것이다. 남이 너의 얼굴에 침을 뺨는 것은 너에게 성낸 것이다.

만스런 생각을 지녔으니 왕씨의 기량은 작지 않습니다.⁸⁹ 자리에 가득한 자질이 훌륭한 인재들을 쇄기(碎器)⁹⁰로 만들려고 한 것은 범문정공(范文正公)인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며,⁹¹ 어린 아들이 글자를 잘못 기록하자 화를 내며 팔뚝을 깨물어 버린 자는 황보식(皇甫湜)이 아니겠습니까.⁹² 환한 촛불에 수염을 태웠으나 죄는 마땅히 용서할 만하기에 곧바로 태형을 면케 하니 한기의 인자함을 볼 수 있으며,⁹³ 쇠파리가 붓 끝에 달라붙는 것은 책망할 일도 아닌데 화를 내어 붓을 집어던졌으니 또한 한번 화를 참지 못한 것입니다.⁹⁴ 이에 기량의 고하(高下)가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닮으면 그 사람의 뜻을 거스려서 그 성품을 더하게 할 것이다. 닮지 않고 저절로 마르게 하면서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89 사람에게……않습니까 : 미상이다.

90 쇄기(碎器) : 송대에 만들어진 꽃무늬 도자기이다. 여기서는 훌륭한 인재를 비유한 말로 쓰였다.

91 자리에……있으며 : 문정공은 범중엄(范仲淹)을 가리키는데, 그는 송대의 사대부 풍을 형성시킨 사람이다. 범중엄이 어머니 상 때문에 남경의 응천부에 거처할 때, 당시 지방관이었던 안수(晏殊)가 그의 사람됨을 알고 응천서원의 교수를 맡겼다. 이에 그는 술선수범하여 엄하게 자신을 단속하여 학풍을 일신시켰다.

92 어린……아니겠습니까 : 당나라 때의 문인인 황보식(皇甫湜)의 고사를 이른다. 그는 아들에게 글자를 쓰게 한 뒤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아들의 팔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고 한다.

93 환한……있으며 : 북송의 명재상 한기(韓琦)의 고사이다. 한기가 군대를 거느릴 때, 정무(政武)를 맡아 밤중에 공문(公文)을 쓰면서 한 시병(侍兵)에게 곁에서 촛불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시병이 딴 데 한눈을 팔다가 촛불로 공의 수염을 태웠으나 공은 문득 웃소매로 문지르고서 여전히 공문을 계속해서 썼다. 얼마 후에 돌아보니 그 시병이 이미 바뀌어져 있었다. 공은 주리(主吏)가 그 시병을 매질할 것을 걱정하여 속히 불러오도록 하고, “그를 바꾸지 말라. 이제는 촛불을 잡을 줄 알 것이다.” 하였다. 이에 온 군대가 감복하였다고 한다.

94 쇠파리가……것입니다 : 삼국 시대 위(魏)나라 왕사(王思)가 성질이 급했는데, 붓을 잡고 글을 쓸 때에 파리가 붓 끝에 내려앉으면서 아무리 쫓아도 자꾸만 성가시게 굴자, 자리에서 일어나 붓대를 휘두르며 뒤쫓다가 끝내 잡지 못하자 붓대를 그만

절로 구분되니 어찌 또 번거롭게 말하겠습니까. 청정하고 고요한 것은 실로 용과 비슷하고,⁹⁵ 경박하고 비천함은 목욕한 뒤 관을 쓴 원숭이에 비유하였으니,⁹⁶ 비유를 취한 의미가 정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의 기량은 이처럼 서로 같지 않습니다. 크게는 천지 강하(江河)와 같고 작게는 술이나 대그릇만 하니, 또한 기량을 키우고자 함에 대략 이와 같은 몇 가지 등급이 있는 것이요, 기량의 크고 작음과 얇고 깊음이 이 몇 가지 등급에 한정되는 것을 이른 것이 아닙니다. 시험 삼아 질문 가운데 언급한 것을 밝혀 논해 보겠습니다. 병길(丙吉)과 유관(劉寬)은 너그러움을 지녔고, 내공 구준과 숙도 황헌(黃憲)은 드넓은 국량을 지녔으며, 누사덕과 여희철과 한기는 온화함을 지녔는데, 게다가 저 노자의 무위자연으로 도를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위의 여러 공은 비록 크고 작음과 높고 낮음의 구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땅에 내던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三國志 卷15 魏書 梁習傳》

95 청정하고……비슷하고 : 와룡 제갈량을 이른다. 그의 〈계자서(戒子書)〉에서, “군자의 행실은 고요함으로 몸을 닦고 검박함으로 덕을 기른다. 담박함이 아니면 뜻을 밝힐 수 없고, 고요함이 아니면 멀리 이를 수 없다. 대저 학문은 모름지기 고요해야 하며 재주는 모름지기 배워야 한다. 학문이 아니면 재주를 넓힐 수 없고 뜻을 두지 않으면 학문을 이룰 수 없다.〔夫君子之行，靜以修身，儉以養德。非淡泊无以明志，非寧靜無以致遠。夫學須靜也，才須學也，非學無以廣才，非志無以成學。〕”라고 하였다.

96 경박하고……비유하였으니 : 《사기》에서 “한생(韓生)이 항우에게 유세하기를, ‘관중(關中)은 산이 막혀 있고 하수(河水)가 떠처럼 둘러 있어 사방이 요새이자 땅이 비옥하니, 도읍지로 삼아 패업(霸業, 제후의 맹주)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항우는 진나라 궁실이 이미 불타 파괴된 것을 보고 동쪽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말하기를 ‘부귀하고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衣繡夜行〕 것과 같으니,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는가?’라고 하였다. 한생은 물러나와 말하기를 ‘사람들의 말에 ‘초나라 사람은 목욕한 원숭이에다 관을 씌운 것과 같이 무식하다.’라고 하더니, 과연 그 말대로구나.’라고 하였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한생을 삶아 죽였다.”라고 하였다.

그릇[器]이 크고 국량[量]은 깊습니다. 그 밖에 주자(紉子)와 왕술(王述) 등 여러 사람들은 혹은 성격이 조급하고 포악하며 혹은 치우치고 급하니, 기량이 작고 웅졸하며 다급한 병통은 이와 같이 비슷합니다.

오호라! 둥근 얼굴과 네모진 발을 지닌 것은 사람이 아님이 없는데, 지각하고 운동할 때 그 신령함을 다 같이 지니고 있으니, 그릇[器]은 크고자 하고 국량[量]은 깊고자 합니다. 기량이 툭 뜨이고 출중하면 천길 높은 곳에서 옷깃을 떨치는 기상⁹⁷이 있고, 마음이 드넓고 두터우면 육합(六合)의 밖에서 마음을 노니는⁹⁸ 국량이 있으니, 누가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육 척의 몸은 신체의 껍질에 구속되고 마음의 신령함은 사욕에 얽매어서 외물의 유혹에 감응하여 끝도 없이 마음이 흔들리니, 그 안이 요동쳐서 국량[量]을 담아 기를 수 없으며 밖으로 발동할 때 그릇[器]이 따라 요동치게 됩니다. 진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자는 그 가벼움을 제어하지 못하고 천박한 자는 그 천박함을 누르지 못하니, 국량이 좁은 이는 좁은 상태로 있고 얇은 자는 얇은 상태로 있어서 항상 좁고 성급한 병통을 지니고 있으니, 참으로 집사께서 탄식한 것과 같습니다.

오호라! 모두 똑같은 사람인데, 저처럼 너그럽고 드넓기도 하고 이처럼 좁고 성급하며 천박하기도 한 것은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아!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누구라도 음양의 두 기를 받지 않음이 없는데, 기(氣)에는 치우침과 온전함이 있으니 품부받을 때 각각 서로 다르게

97 천길……기상 : 좌사(左思)의 〈영사(詠史)〉에 “천길의 뱃부리에서 옷을 떨치고 만리의 강물에 발을 씻네.〔振衣千仞岡，濯足萬里流。〕”라는 말이 있다.

98 육합(六合)의……노니는 : 《장자》〈잡편〉에서 “육합의 밖에서 노닌다.〔遊於六合之外〕”라고 하였다.

됩니다. 그러므로 기량의 크고 작음과 얇고 깊음은 실로 기의 치우치고 온전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에 너그럽고 크며 좁고 다급함은 사람마다 대단히 다르게 되니, 집사께서 ‘태어난 초기에 자질이 결정된다.’라고 한 말씀은 참으로 바꿀 수 없는 정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각각 중(中)을 받고 태어나 본연의 성(性)을 모두 함께 얻게 되는데, 집사께서는 그 정론을 바탕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니, 저는 이런 이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런지 말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기량은 형기(形氣)에 의해 국한되는데, 형기가 사람마다 같지 않은 것은 음양의 두 기(氣)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순수한 천리가 사람에게 부여되면 성(性)이 되니, 요순이 받은 성도 원래의 성에 비교하면 남음이 없고 겉주가 받은 성도 부족하지 않은데, 다만 기량이 편협한 것은 지극히 공변된 이(理)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에만 가지 선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만 가지 선을 기반으로 한 개 치우친 기를 변화시킬 것을 구한다면 어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덤 앞에서 곡하느라 뛰며 흙을 쌓던 맹자도 아성(亞聖)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저물녘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냥하는 광경을 보고 기뻐하던 정자⁹⁹도 대현(大賢)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며, 가산(家産)을

99 저물녘……정자 : 정명도(程明道) 즉 정호(程顥)의 모귀희獵(暮歸喜獵)의 고사를 말한다. 《심경부주》 본장(本章)에 “나는 나이 16, 17세 때에 사냥을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자신 있게 말하기를 ‘이제는 이 버릇이 없어졌다.’라고 하였다니, 주무숙(周茂叔)이 이르기를 ‘어찌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가. 단지 그 마음이 밑에 숨어서 발하지 않을 뿐이니, 어느 날 싹터서 일어나면 다시 처음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뒤에 저녁에 돌아오다가 전야 사이에서 사냥하는 자를 보고는 나도 모르게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니, 과연 아직도 그렇

깨부순 여백공은 끝내 하우(下愚)로 남았을 것입니다.¹⁰⁰ 이 세 현인은 처음에는 기상이 참으로 어떠하였습니까. 끝내 성현이 된 것은 또한 어떻게 노력하였기 때문입니까. 참으로 존양의 공부를 학문할 때 힘쓰며 날마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게으르지 않고 노력한다면 집사께서 이른바 ‘자연스럽게 크게 되어 편협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과 같게 되는 것이니,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말과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자가 이른바 ‘성(性)은 서로 가까운데 억힘이 서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과, 《중용》에서 이른바 ‘비록 나약하더라도 반드시 강하게 되며 어리석더라도 반드시 명석하게 된다.’라는 것과, 맹자가 이른바 ‘사람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것을 가리킨 말입니다.”

제가 다 아뢰지 못한 법을 다시 글의 말미에 덧붙입니다. 즉 “집사께서 기량에 대해 물으셨으니 어찌 아무런 의도가 없겠습니까. 사람의 병통의 뿌리는 기량의 협소함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만약 협소하면 안으로 마음을 해치고 밖으로 일을 해쳐 끝내는 천하와 국가에 재

지 않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子年十六七時，好田獵。既而自謂已無此好。周茂叔曰：何言之易也。但此心潛隱未發，一日萌動，復如初矣。後十二年暮歸，在田野間，見田獵者，不覺有喜心，方知果未也。]”라는 정호의 말이 소개되어 있다. 무숙(茂叔)은 주돈이(周敦頤)의 자이다.

- 100 가산(家産)을……것입니다 : 백공(伯恭)은 여조겸(呂祖謙)의 호이다. 주희가 말하기를 “지난번 여백공을 만났을 적에 그가 말하기를 ‘젊었을 때에 성질이 거칠고 사나워서 음식이 뜻에 맞지 않으면 집기를 깨뜨려 부수곤 하였다. 뒷날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논어》 한 책만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익숙하게 보다가 ‘몸소 자책함은 후하게 하고 남을 책함은 적게 한다.’라는 구절에 이르러 갑자기 생각이 일시에 화평해짐을 깨달아 마침내 종신토록 갑작스러운 분노가 없게 되었다.’ 하였으니, 이는 기질을 변화시키는 법으로 삼을 만하다.” 하였다. 《心經附註 卷1》

앙을 끼치게 되니, 자신을 증명하려는 필부도 오히려 기량이 좁으면 일을 성공하지 못하거늘 더구나 묘당(廟堂)의 윗자리에 자리 잡아 국가를 경륜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조정에서의 약속을 기꺼이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요, 국사(國事)의 변경을 즐겨 일삼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임금 마음의 그른 점을 바로잡아 임금을 이끌어 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 대신의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임금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일이요 임금을 이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임금이 포용하여 수용하지 않고 마음을 비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중요하게 만들지 못한 책임이 더욱 더 집사에게 귀결될까 두렵습니다. 만약 임금이 기량을 키우는 말을 요청하였는데 면류관을 쓰신 임금에게 아뢰지 못한다면 저는 집사께서 중요하게 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삼가 아뢰니다.”

의擬

당나라 시어사 마주¹⁰¹가 정관 초기에 장구할 계책을
세우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의
唐侍御史馬周請如貞觀之初以爲長久之計

오직 임금만이 극을 세우니 ¹⁰²	惟皇作極
바야흐로 만대의 큰 기반을 갖추었네	方恢萬代之丕基
황제가 등극한 초기에	若帝之初
어찌 장구한 좋은 계책을 마련하지 않으랴	盍圖永年之長策
하려고 하면 되나니	欲之則是

101 마주(馬周) : 601~648. 자는 빈왕(賓王)이다. 어릴 때 고아가 되고 가난했지만 배우기를 좋아했고, 《시경(詩經)》과 《춘추(春秋)》에 밝았다. 고조(高祖) 무덕(武德) 연간에 주조교(州助教)를 지냈다. 나중에 장안(長安)으로 와 중랑장(中郎將)으로 있던 상하(常何)의 객(家客)으로 있었다. 태종 정관(貞觀) 3년(629) 상하를 대신해 20여 가지 일에 대해 쓴 상서(上書)가 당시의 절실한 일들이었다. 상하가 무인(武人)이라 학문을 익히지 않았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겨 물어보니 상하가 “객 마주가 쓴 것이다.”라고 대답하니, 태종이 불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몹시 기뻐하며 문하성(門下省)에서 일하도록 했다. 나중에 감찰어사(監察御史)와 급사중(給事中), 중서시랑(中書侍郎), 중서령(中書令) 등을 지냈다. 명쾌하고 주도면밀한 변설로 간언(諫言)하여 태종의 총애를 받았다.

102 오직……세우니 : 《서경》〈홍범〉에 보이는 말이다.

다른 것에서 구해선 안 되네	不可它求
삼가 즉위한 이래로	欽卽位以來
인의를 시행해야 하네	仁義而已
주와 진의 길고 짧음을 따져서	論周秦之脩短
스스로에게 돌이켜 구해야 하네	幾自反求
위나라를 봉한 시비를 가려서 ¹⁰³	辨魏封之是非
교화를 앞세워야 하네	先以教化
하늘에 나라의 운명이 영원하도록 비니	所以祈天永命
해가 막 떠오르는 것을 모두 바라보네	咸仰如日方昇
그러나 오늘 들은 바로는	第以今日所聞
처음의 뜻이 점점 풀어지는 것 같아 두렵네	竊恐初志漸懈
처음에는 아픈 백성 돌보는 정치하여	始也若保之政
비난할 것이 없었네	無以議爲
지금은 거꾸로 매달린 듯한 백성을	今焉倒懸之民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네	有不忍見
건물 공사를 일삼으니	營繕是事
어찌 궁실을 높게 짓는가	奚爲宮室崇歟
나라의 근본(백성)이 날로 무너지니	邦本日頽
이는 참으로 국가 존망의 시기로다	此誠存亡秋也
망한 진나라를 이을 따름이니 ¹⁰⁴	亡秦續耳

103 위나라를……가려서 : 《통감》 첫머리에 주나라 임금이 진(晉)나라의 세 대부인 위사, 조적, 한건을 봉하여 제후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 사마광은 예(禮), 명(名), 분(分)으로 나뉘어 그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였는데, 예, 명, 분 세 가지는 나라를 다스리는 교화(教化)의 기본이 된다고 하였다.

수나라에 무슨 면목이 서라	於隋何顏
《시경》에 ‘끝을 잘 마침이 드물다’ ¹⁰⁵ 고 하였는데	詩云鮮克終
어찌 폐하에게 이것이 있을 줄 생각하였으랴	豈意陛下有是
《주역》에 ‘멀리 가지 않고 회복함’ ¹⁰⁶ 을 중시하니	易貴不遠復
마땅히 지금 이후로 이런 실수 없도록 해야 하네	宜圖今後免夫
대저 어찌 타인에게 구하랴	夫豈求人
도끼자루 잡고 자루 구하면서 못 찾는데 ¹⁰⁷	執柯伐柯猶遠
이는 참으로 나에게 달렸으니	是誠在我
항상 이것만 생각하여 ¹⁰⁸ 처음처럼 해야 하네	念茲釋茲如初
지극히 정성스런 정치를 빨리 도모하여	亟圖至誠之治
눈앞에 기울어지려는 국운을 구해야 하네	以救方蹶之運

-
- 104 망한……따름이니 : 항우와 유방이 홍문(鴻門)에서 만났을 때, 유방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다. 이때 번쾌가 장막 안으로 들어와 항우의 이러한 행위는 망한 진나라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항우에게 따진 말에서 나왔다.
- 105 시경에……드물다 : 《시경》〈대아〉에 보이는 말로 “시작이 없는 경우는 없지만,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경우는 드물다.[靡不有初, 鮮克有終.]”라고 하였다.
- 106 주역에……회복함 : 원문의 ‘불원복(不遠復)’은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잘못을 깨닫고서 금세 바른길로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 《주역》〈복괘(復卦) 초구(初九)〉에 “멀지 않아서 되돌아오니,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요, 크게 좋을 것이다.[不遠復, 無祇悔, 元吉.]”라는 말이 나온다.
- 107 도끼자루……찾는데 : 도끼로 도끼자루로 쓸 나무를 벨 때 자루의 표준이 가까이 손에 쥔 도끼자루에 있는데도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멀리 있다고 여겨 바라본다는 뜻이다. 《中庸章句 第13章》
- 108 항상 이것만 생각하여 : 《서경(書經)》〈우서(虞書)〉‘대우모(大禹謨)’에 “생각하여 잊지 않는 것도 고요이며, 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 해도 고요밖에 없으며, 입으로 이름을 부르고 말하는 것도 고요이며,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도 고요이니, 황제께서는 그의 공덕을 생각하십시오.[念茲在茲, 釋茲在茲, 名言茲在茲, 允出茲在茲, 惟帝念功.]”라는 말이 있다.

요역과 부세를 가볍게 함은	輕徭薄賦
어찌 다만 흉년에만 행한단 말인가	何獨行於當年
정치를 행할 때 인을 베푸는 것은	發政施仁
오늘에 다시 행하기 어렵지 않네	不難再於此日
어찌 죄수를 풀어 주는 명령을 생각하지 않는가	盍念縱囚之令
사랑할 대상이 백성이 아닌가	可愛非民
게다가 진상을 물리칠 진심 지녀서	更存却獻之誠
기이한 물건을 보물로 여기지 않아야 하네	不寶異物
절제하고 조심하며 부지런한 덕을	節檢恭勤之德
지금 어찌 지키지 않으리오	今何不然
말을 내달려 사냥하며 즐기니	馳聘戈獵之娛
마땅히 이런 태도를 고쳐야 하네	宜改此度
참으로 옛날 법도를 모두 회복한다면	苟能悉復其舊
자손에게 전해 줄 것이니	傳之子孫
어찌 하늘이 아름다운 명을 거듭 내려 ¹⁰⁹	豈不申命用休
억만년을 기약하지 않으리	期以萬億
이는 참으로 역수(曆數)를 이어 가는 방법이니	此誠綿曆之道
마땅히 더욱 자신에게 돌이켜 보아야 하네	宜加反身之功
성스러움을 생각하고 무법을 생각지 말아야 하니	克念聖罔念狂
어찌 그 근본이 없으랴	豈無其本
한 대에 망하고 만세토록 유지함은	一世亡萬世久

109 하늘이……내려 : 《서경》〈우서〉‘익직’에 “상제의 뜻을 분명히 하여 받으면, 하늘이 아름다운 명으로 거듭 당신에게 명할 것이다.[以昭受上帝, 天其申命用休.]”라는 말이 있다.

결단코 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리	端不外茲
바라건대 신하의 충심을 살피고	望察臣之忠
신하의 정성을 받아들여야 하네	納臣之懇
그 끝을 도모하려면 그 시작을 잘해야 하니	圖厥終惟其始
옛날 법을 따라야 하네	率由舊章
나 자신을 닦고 하늘의 마음에 답하여	脩吾已答天心
새로운 천명을 도모한다면	以圖新命
즉 오늘은 태평하게 되고	則太平今日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永垂無強
나로부터 이르지 않음이 없으니	無不自己致之
길이 국체를 보존하리라	可以永保體矣
마땅히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하니	當百年圖報
한마음 변하지 않으리	一心不渝
저자에서 매질당하는 충심을 지닌	懷若撻之忠
이윤(伊尹)에게 비록 부끄럽지만 ¹¹⁰	雖愧伊傳
오래도록 다스리는 계책을 세운	建久安之策
가의(賈誼)를 따르고자 하네 ¹¹¹	庶勉賈生

110 저자에서……부끄럽지만 : 이윤(伊尹)은 은(殷)나라 탕왕(湯王)의 재상이다. 그는 자기가 모시는 임금이 요순(堯舜)에 미치지 못하거나 백성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을 마치 저자에서 매를 맞는 것처럼 부끄러워하였다고 한다.

111 오래도록……하네 : 후한 문제 때 <치안책(治安策)>을 올린 가의(賈誼)를 말한다.

송나라 좌복야 이강¹¹²이 장방창¹¹³ 몰래 반역한 죄를 다스려 도성 안팎의 민심을 엄숙하게 만들라고 요청한 의

宋左僕射李綱請治張邦昌潛逆之罪以勵中外

난신적자가 어느 시대들 없으리오마는	亂臣賊子何代無
이 사람보다 심한 자는 없네	未有甚於此者
역적의 우두머리는 용서할 수 없으니	元惡大憝不可赦
마땅히 즉시 죽여야 하네	宜及時而殛之
왕은 청컨대 의심하지 마소서	王請勿疑
모두 죽이라고 하는 말을	皆曰可殺
정강의 재앙 ¹¹⁴ 을 살펴보라	欽靖康之禍

112 이강(李綱) : 1083~1140. 송(宋)나라 휘종(徽宗) 때의 명신으로 자는 백기(伯起)이다. 휘종 연간에 금(金)이 쳐들어오자 병부시랑(兵部侍郎)으로 화의(和議)를 배척하고 맞서 싸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귀양 갔으나, 고종(高宗)이 즉위하자 재상이 되어 금나라와의 전쟁을 지휘하였다.

113 장방창(張邦昌) : 1081~1127. 흙종(欽宗)이 즉위하자 소재(少宰)에 임명되었다. 문하시랑(門下侍郎) 등을 지내다 강왕(康王)과 함께 금나라에 인질로 끌려갔고, 영토를 떼어 주어 화의할 것을 주장했다. 하북로할지사(河北路割地使)가 되었다가 적과 내통했다는 공격을 받아 중태일궁사(中太一宮使)로 쫓겨나고, 영토를 떼어 주자는 논의도 중지되었다. 정강(靖康) 원년(1126) 금나라 군대가 변경(汴京)을 함락시켰을 때 체포되고 다음 해 금나라 사람들에 의해 황제로 책립되어 대초(大楚)라는 이름을 썼다. 조구(趙構)가 고종에 즉위하자 제호(帝號)를 버렸다. 책임을 물어 소화군절도부사(昭化軍節度副使)가 되고, 담주(潭州)에 안치되었다. 결국 궁중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사사(賜死)되었다.

114 정강(靖康)의 재앙 : 정강은 송나라 흙종의 연호이다. 정강의 난은 정강 2년(1127)에 금나라 군사가 쳐들어와 휘종과 흙종을 비롯하여 종실을 대거 붙잡아 가서 북송(北宋)이 멸망한 일을 말한다.

난리를 제압한 뒤 국운이 일어났네	撥亂而興
형세가 오랑캐를 사로잡을 뻔하였는데	勢成擒胡
재앙이 변해 오랑캐를 멸망시키니	禍轉亡胡
다투어 우리 임금을 기다리네	爭俟我后
하늘이 한나라 ¹¹⁵ 에 복을 내리니	天欲祚漢
백성이 오직 한나라를 생각하여	民惟思漢
모두들 ‘우리 임금’이라 하였네	咸曰吾君
두 번 세 번 사양하다가 황제 자리에 오르니	再讓三讓便即眞
백성의 죄가 있고 없고는 모두 나의 허물이라 하네	有罪無罪唯我在
장방창의 이러한 역적 행위는	顧玆邦昌逆節
참으로 옛날에도 드문 일이네	實是振古罕聞
온 집안이 포로로 잡혀갈 때	當舉族就虜之時
달가운 마음으로 노비처럼 행동하고	甘心奴顏婢膝
적국이 나라의 주인을 바꿀 때	暨敵人易姓之日
감히 남의 힘을 빌려 위세를 드러내었네	敢逞狐假虎威
이것을 차마 행하여	是可忍乎
스스로 대초황제라 칭하였네	自稱大楚皇帝
최악까지 가 버렸으니	維其極矣
조씨 송나라의 천하를 훔쳐 버렸네	竊據趙宋乾坤
생명을 지닌 자는 마음 아파하지 앓음이 없으며	有血氣莫不痛心
신하와 백성이 된 자야 어찌 차마 말하랴	爲臣子何可忍說

115 한(漢)나라 :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를 대칭(代稱)한다. 여기서는 송나라를 가리킨다.

이백 년 강상이 땅을 쓴 듯 사라졌으니	二百年綱常掃地
사람마다 죽여야 할 의리 통쾌하지 못하네	未快人人之得誅
하늘에 계신 6~7 임금의 영령은	六七君英靈在天
위로받지 못해 하늘에서 울고 있네	莫慰冥冥之飲泣
다행스럽게도 오늘 옛날을 회복하였는데	幸今日光復舊物
대역 죄인에게 아직도 형벌을 아끼고 있네	而大逆尙靳邦刑
어찌 황제의 법이 끝내 사형을 거행하지 않아	

豈惟王法帝章終有失於顯戮

사나운 장수와 굳센 병사들이 용맹을 다투어 사지를 찢으려 하고
 猛將勁兵爭解體於奮勇

또한 인심과 천의가 바른 명분에 만족하지 않으니

抑亦人心天意實未愜於正名

충신과 의사가 함께 팔뚝을 휘두르며 이를 가네
 忠臣義士共切齒於扼腕

하루라도 혼을 놀게 할 수 없으니	不可使一日遊魂
마땅히 빨리 오형 가운데 극률로 처형하라	宜亟加五刑極律
헛된 목숨을 구차히 용납하여	苟容假息
우물쭈물하며 오랜 시일을 지체하니	尙久稽於嬾姁
난리의 수령 간당의 핵심에게	亂領妖腰
어찌 잠시라도 금목의 형구 ¹¹⁶ 를 늦추랴	寧暫緩於金木
더구나 왕업은 오늘 목전의 안일만 꾀하니	矧王業偷安此日

116 금목(金木)의 형구(刑具) : ‘금목’은 형구를 가리키는 말로, 금(金)은 도거(刀鋸)와 부월(斧鉞)이며, 목(木)은 매질하는 나무〔籬楚〕와 질곡(桎梏)을 가리킨다. 《莊子 列禦寇》

바로 국가 존망이 나뉘는 때이라	伊國家存亡之秋
반역자들을 스스로 안심하게 하였으니	令反側自安
어찌 광무제를 의심하리오 ¹¹⁷	奚足疑於光武
저 수괴를 섬멸하면 진실로 성공하니	殲渠魁允濟
중강에게서 법을 취할 만하네 ¹¹⁸	可取法於仲康
조정의 무너진 기강을 떨쳐 일으킨	振朝著已頹之綱
연후에 이를 수 있으니	然後可致
따르지 않는 신민들의 마음을 엄숙하게 만드는 것이	勵臣民不入之志
어찌 다른 것에 있으리오	夫豈在他
이것이 이른바 형법이 마땅함을 얻었다는 것이니	是所謂刑法得宜
이 어찌 회복해야 할 급선무가 아닌가	茲豈非恢復急務
바라건대 적을 성토하는 신들의 의리를 살피고	望察臣討賊之義

117 반역자들을……의심하리오 : 《후한서(後漢書)》〈광무제 본기〉에 “5월 갑진에 그 성을 쳐서 왕랑(王郎)을 주살한 뒤 그와 내통한 휘하 관리가 적힌 문서 수천 장을 발견했으나 광무제는 읽어 보지도 않고 불태웠으니, ‘반측자(反側子)들이 스스로 안심하게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五月甲辰 拔其城 誅王郎 收文書 得吏人與郎交關謗毀者數千章 光武不省 會諸將軍燒之, 曰: ‘令反側子自安.』”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로 인해 왕랑과 문서를 주고받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심을 받을까 봐 가슴을 졸이다가 이 같은 조치로 안심하게 되었다. 이는 광무제가 인심을 수습하는 방법에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 구절은 장방창에게 붙었던 무리들의 죄를 따지지 말고 화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118 저 수괴를……만하네 : 《서경》〈하서〉‘윤정(胤征)’에서 “그 우두머리는 섬멸하고, 위협 때문에 따르게 된 자는 처벌하지 말라. 옛 더러운 풍속에 물든 자는 모두 함께 새롭게 하라. 아! 위엄이 그 사랑을 이기면 진실로 성공할 수 있다.〔殲厥渠魁, 脅從罔治. 舊染汙俗 咸與惟新. 嗚呼! 威克厥愛 允濟.〕”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하나라의 왕인 중강(仲康)이 회씨와 화씨를 토벌할 당시에 한 말이다.

국가를 보호하려는 정성을 헤아리기를	諒此衛國之忱
무도한 이를 죽이고 도 있는 이를 등용하여	殺無道就有道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야 하네	咸與惟新
한 사람을 징벌하여 백 사람을 엄숙하게 만들어	徵一人勵百人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야 하네	使之知懼
그리하면 간흉이 자취를 감추고	則奸凶屏跡
억조의 백성이 귀순하리라	億兆歸心
중흥의 공을 앉아서 세울 수 있고	中興之功可坐而策
태평의 다스림은 이제 곧 이를 것이라	太平之治自此庶幾
마땅히 난리를 당하여 자신을 잊고	當臨亂忘身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쳐야 하네	見危授命
온 힘을 다해 노력하다 죽은 뒤에야 그치니	鞠躬盡瘁死而後已
공명의 충성을 더욱 본받으리	益勵孔明之效忠
이와 같은 강물에서 노를 잡고 강에 맹세하니	擊楫誓江有如此水
한을 곱씹은 조적을 배우지 않으랴 ¹¹⁹	不學祖逖之飲恨

119 이와……않으랴 : 《진서(晉書)》〈조적전(祖逖傳)〉에서 말하였다. “강을 건너가는데 중류(中流)에서 뱃전을 치면서 맹세하기를 ‘조적(祖逖)이 중원을 밝히지 않고서는 이 강을 건너지 않겠다.’ 하였다.” 여기서는 장강 이북의 옛 송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뜻한다.

송나라 무주 처사 여조태¹²⁰가 한탁주¹²¹를 빨리 처형하고 주필대¹²²로 대신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의

宋婺州處士呂祖泰請亟斬韓侂冑代以周必大

참으로 총명한 이가 원후가 되니	亶聰明作元后
밝게 임함에 위엄과 명성 떨쳤네	擅威名於赫臨
어진 신하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니	親賢臣遠小人
마땅히 결단하여 내쫓고 올려야 하네	宜黜陟於乾斷
어진 이를 보면 등용하고	見賢能舉
사악한 이 주저없이 물리쳐야 하네	去邪勿疑
삼가 공을 이룰 때를 만났으니	欽值有爲時
가슴에 끝없는 걱정을 지녔네	膺無疆恤
음양 줄어 들고 자라며 오고 가는 운수를 밝힌 것은 明消長往來之數	

120 여조태(呂祖泰) : 자는 태연(泰然)으로 인종 때 재상을 지낸 여이간(呂夷簡)의 6대손이다. 평생 포의로 지냈지만 성격이 강직하였다. 한탁주를 처형하라는 상소를 올린 뒤에 귀양을 떠났다.

121 한탁주(韓侂冑) : 1152~1207. 개희(開禧) 2년(1206) 변방을 공고히 하고 중원(中原)을 회복하며, 개인적인 권세 확장을 위해 금(金)나라 토벌군을 일으켰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시도가 실패하자 금나라와 화의를 맺게 되었는데, 금나라에서 전쟁을 앞장서 주장한 사람을 잡아 보내라는 요구를 했다. 예부시랑(禮部侍郎) 사미원(史彌遠)이 양황후(楊皇后)와 모의하여 그를 살해하고 머리를 베어 금나라 조정에 보낸 뒤 화의를 구걸했다.

122 주필대(周必大) : 1126~1206. 자는 자충(子充) 또는 홍도(弘道)이고, 호는 성재거사(省齋居士)로, 자칭 평원노수(平園老叟)라 불렸다. 고종(高宗) 소흥(紹興) 21년(1151) 진사(進士)가 되고, 순희(淳熙) 14년(1187) 우승상(右丞相)에 오른 뒤 좌승상(左丞相)으로 옮겼다. 광종(光宗) 때 익국공(益國公)에 봉해졌다.

군주가 해야 할 일로

其君也哉

선한 이를 올려주고 악한 이를 벌주는 공변됨을 다하여

盡陟罰臧否之公

자신의 온당한 기준에 따라 사람을 기용하였네

用人惟已

위에 성스런 천자가 있고 어진 재상이 있으니

上有聖天子賢宰相

백성들은 태평하여 온 세상 봄날 같네

民樂太平 象四海春

그러나 음험한 한탁주를 제거하지 않고

第未去侂冑之陰奸

오히려 충성스런 주필대를 내치는구나

尙播棄必大之忠慤

아득한 요 임금의 덕이여

蕩乎帝堯之德

홍악한 백곤¹²³도 쓸 만한지 시험하였네

試可伯鯀之凶

안타깝도다! 한 문제의 명석함이여

惜哉漢文之明

가의의 <치안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네

不納賈宜之策

손으로 황제의 기강을 잡고

手握皇綱

입으로 천작¹²⁴을 물었으니

口銜天爵

저는 어떤 사람인가

彼何人斯

빈 배를 타고 들판 나루를 지나가며¹²⁵

舟橫野渡

천리마가 소금 수레를 끄니

驥服塩車

123 백곤(伯鯀) : 우 임금의 아버지로서 9년의 홍수를 맡아 다스리다가 실패하여 귀양살이를 당한 사람이다.

124 천작(天爵) : 원래 덕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높은 벼슬을 가리킨다. 한탁주에 대한 말이다.

125 빈 배를……지나가며 : 송대 시인 요세미(廖世美)의 <제안륙부운루(題安陸浮雲樓)>에 보이는 내용이다. 즉 “저물녘 물결 잔잔한데 비 오는 소리 들리고, 사람 없어 애달픈데 배는 들판 나루를 지나네.〔晚靈波 聲帶雨, 悄無人 舟橫野渡.〕”라고 하였으니, 고달프게 외직 생활을 한 주필대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有如是者
천하의 도학이 이로 금고를 당하고 ¹²⁶	天下之道學坐錮
보름 만에 군자가 흉함을 당하였네	月望而君子征凶
눈의 못을 그 당시에 뽑아내지 못하니	眼釘莫拔於當年
신민들이 모두 원흉에 분격하였네	臣民共憤元惡
하늘의 변고는 나에게 경고하니	天變警余
모든 사람들이 죽여야 한다고 하였네	不惟皆曰可殺
심의로 낙양에서 부질없이 늙어 가는데	深衣空老於洛邑
도시나 시골이나 모두들 우리 공을 바라보았네	都鄙咸望吾公
신령이 위로하니	神所勞矣
어찌 다만 당세에만 이름이 났으랴	豈特當世知名
이는 참으로 정려할 때이거늘	此正旌閭之秋
어찌 법의 상을 시행하지 않는가	盍施刑之典賞
조용히 살펴보니 고금의 지극한 다스림은	竊觀古今之致治
분명히 진퇴의 마땅함과 관계하네	端係進退之得宜
사흉 ¹²⁷ 을 죄주고	纔罪四凶
우나라 순은 곧바로 팔원 팔개 ¹²⁸ 를 등용하였네	虞舜旋舉元凱

126 천하의……당하고 : 주희 만년에 당대의 실권자였던 한탁주에 의해 위학(僞學)으로 지목되어 탄압을 받게 된 것을 이른다. 이를 경원당금(慶元黨禁)이라 한다.

127 사흉(四凶) : 《서경》〈순전〉에 “공공(共工)을 유주(幽州)에 유배하고, 환두(驩兜)를 숭산에 안치하고, 삼묘(三苗)를 삼위(三危)로 몰아내고, 곤(鯀)을 우산(羽山)에 가두어 네 사람을 죄주니,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라고 하였다.

128 팔원 팔개 : 팔원은 고신씨(高辛氏)의 재자(才子) 8인을 말하고, 팔개는 고양씨(高陽氏)의 재자 8인을 말하는데, 순(舜)이 정사를 맡았을 적에 이들을 요(堯) 임금에게 천거하여, 팔원에게는 교화를 맡기고 팔개에게는 토지를 주관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사기(史記)》 권1 〈오제본기(五帝本紀)〉에 나온다. 이들의 이름은

이윅고 두 숙부를 처벌하고	既誅二叔
성왕은 반드시 소공 주공을 임명하였네	成王必任召周
난리의 수령 간당의 핵심에게	亂領妖腰
어찌 잠시라도 금목의 형구를 늦추랴	寧暫緩於金木
맑은 꽃대와 순수한 덕은	淸標粹德
마땅히 빨리 성조에 올라야 하네	宜亟升於聖朝
마치 머느리발톱 뽑듯이 물리쳐야 하고 ¹²⁹	如脫斯距
띠풀을 뽑듯이 등용해야 하니 ¹³⁰	如拔斯茅
장차 모두 구름을 제치고 해를 볼 것이네	將皆披霧見日
누가 이런 마음이 없으며	孰無是心
누가 이것을 바라지 않으랴	孰不是望
기강을 떨쳐 진작시킬 것을 바라네	庶幾振紀肅綱
그러나 왕업은 이때 목전의 안일만 꾀하여	矧王業偷安此時
신하와 백성은 흩어진 지 이미 오래인데	而臣庶渙散已久
국가와 사직의 존망이 달려 있으니	國家社稷存亡之係
이 이치 참으로 어긋나지 않으니 두렵지 않으랴	斯理固無忒可不懼歟
천의와 민심이 이에서 결정되니	天意人心去就之在
이를 알면서 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라	此知而不爲是無勇也
형벌을 엄숙하게 하여 사악한 이를 죽이니	肅刑書而誅邪

《춘추좌씨전》 문공(文公) 18년에 보인다.

129 머느리발톱……하고 : ‘탈거(脫距)’는 닭의 머느리발톱을 뽑는다는 뜻으로, 적의 요해(要害)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데에 비유하는 말이다.

130 띠풀을……하니 : 군자가 동류들과 함께 조정에 진출함을 뜻한다. 《주역》〈태괘(泰卦)〉 초구(初九)에서 “띠풀의 영킨 뿌리를 뽑는 격이라 동류들과 함께 감이니 길하다.[拔茅茹 以其彙征 吉.]” 하였다.

노나라가 중흥하였고 ¹³¹	魯國中興
공손하게 침묵하며 어진 이를 꿈꾸니	思恭默而夢良
은나라 역수(曆數)가 오래 이어졌네 ¹³²	殷祚綿曆
옛날에 행한 자가 있으니	古有行者
지금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今何不然
악을 막고 선을 드날리려는 ¹³³ 신들의 정성을 헤아리고	望諒臣遏揚之忱
심혈을 토로한 신들의 진심을 받아 주소서	納臣剗瀝之懇
밝은 조서를 내려	赫然下明詔
먼저 공공(共工)과 환두(驩兜) ¹³⁴ 를 죽이시고	首誅共兜

131 노나라가 중흥하였고 : 《관자(管子)》에서 “옛날 공자가 사구가 되어 열흘 만에 소 정묘를 죽이자 노나라가 조용해졌으며 속이는 교묘함이 절로 사라졌다.〔昔孔丘爲司寇 十日而誅少正卯 魯國肅然 欺巧自息.〕” 하였다.

132 공손하게……이어졌네 : 임금이 공묵(恭默)의 자세를 지니면 국정을 훌륭히 보필할 유능한 재상(宰相)도 자연히 출현하여 나라가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말이다. 공묵은 공묵사도(恭默思道)의 준말로, 공경히 삼가며 묵묵히 치도(治道)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은 고종(殷高宗)이 신하들에게 “부왕께서 나에게 왕위를 전하여 사방을 바로잡는 책임을 맡기셨으나, 나는 나의 덕이 선왕과 같지 못할까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고 공경히 삼가며 묵묵히 치도를 생각하였는데, 꿈에 상제가 나에게 훌륭히 보필할 재상을 내려 주셨다. 만약 이 사람을 찾아내면 그가 나를 대신해서 말을 해 주리라.〔以台 正于四方 台恐德弗類 茲故弗言 恭默思道 夢帝賚予良弼 其代予言.〕”라고 교시한 말이 《서경》〈열명 상(說命上)〉에 나온다.

133 악을……드날리려는 : 《주역》〈대유(大有)〉에 “불이 하늘에 있는 것이 대유니 군자가 이로써 악한 것을 막고 선한 것을 드날려서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따른다.〔象曰 火在天上 大有 君子以遏惡揚善 順天休命.〕”라는 내용이 나온다.

134 공공(共工)과 환두(驩兜) : 이들은 삼묘(三苗), 곤(鯀)과 함께 사흉(四凶)이 된다. 《서경》〈순전(舜典)〉에 “공공을 유주(幽洲)로 유배하고, 환두를 숭산(崇山)에 연금하고, 삼묘를 삼위(三危)로 내쫓아 금고하고, 곤을 우산(羽山)에 가두어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환두는 요 임금의 신하 이름이고, 공공은 관명인데

외로운 충신을 힘써 돌아봐 주시어	黽勉眷孤忠
방현령과 두여회 ¹³⁵ 를 임용하소서	任用房杜
그렇다면 간악한 이들이 자취를 감추고	則奸回屏跡
뛰어난 이들이 관직에 있으리라	俊乂在官
정실에 용마루가 드높아	鄭室棟方隆
큰 집을 지탱하고	足支大廈
주천에 노가 재빠르니 ¹³⁶	周川楫行剡
나루를 헤매지 않네	庶不迷津
마땅히 성인의 백성이 되어	當爲聖人氓
태평성대의 은택을 입으리	沐休世澤
처사의 기탄없는 의논은	處士橫議
비록 도마를 넘어가는 혐의 ¹³⁷ 를 면치 못하지만	雖未免越俎之嫌
칠실의 처녀가 근심하며 ¹³⁸	漆室有憂

모두 대대로 베풀한 집안이다.

135 방현령과 두여회 : 당나라 태종 시기 명재상들이다.

136 정실에……재빠르니 : 한유의 〈배두시어유상서(陪杜侍御游湘西)〉에서 “큰 집의 용마루가 대단히 높고, 큰 강의 배가 빠르게 지나가네.[大廈棟方隆, 巨川楫行剡.]”라고 하였다.

137 도마를 넘어가는 혐의 : 자기 직분이나 권한을 넘어서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뜻으로,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의 “요리하는 사람이 주방에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시동이나 축관이 제기를 뛰어넘어 와서 그 일을 대신할 수는 없는 일이다.[庖人雖不治庖 尸祝不越樽俎而代之矣.]”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138 칠실의 처녀가 근심하며 :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칠실이란 읍(邑)에 과년한 처녀가 있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시집가지 못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임금은 늙고 태자가 어린 것을 걱정하여 기둥에 기대어 울었다. 이에 이웃집 부인이 비웃으며 “이는 노나라 대부가 할 근심이니 그대가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였다. 《列女傳

임금을 성군으로 만드는 방법을 올리네

庶將進致君之術

卷3 漆室女》이는 분수에 지나친 근심을 뜻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국사를 걱정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겹사로 쓰인다.

송나라 병부시랑 주희가 천리와 인욕의 분기점을 살펴 마음
 씹씹이와 선비처럼 거처하는 공변됨으로 삼으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의

宋兵部侍郎朱熹請察天理人欲之分以爲用心處士之公

능히 덕을 밝히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면	克明德作新民
바야흐로 경화의 도를 회복할 수 있네	方恢更化之道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해야 하니	遏人欲存天理
어찌 근본을 바로잡는 요점을 앞세우지 않으랴	盍先端本之要
공부에 애를 쓰고	刻苦工夫
심지를 진실되게 만들어야 하네	眞實心地
충명한 임금은	欽聰明作后
인효가 하늘에서 나왔네	仁孝出天
천하에 업적을 세울 때를 만나	當天下有爲之時
법도를 따르며 지키지 않으랴	不欲循途守轍
선대 임금들의 한없는 걱정을 생각하며	念祖宗無疆之恤
항상 마음을 집중하여 정치를 행해야 하네	每擬存心出治
한 사람의 황태자를 앞다뒀 하례하니	爭賀一人元良
바야흐로 사해가 모두 우리름을 볼 것이라	方看四海咸戴
그러나 사물을 대응할 때	第於接應之際
오히려 신독하지 않는 혐의가 있으니 ¹³⁹	尙有屋漏之嫌

139 신독하지……있으니 : 집에서 가장 어두운 서북쪽 방구석을 가리키는데, 아무도

열 사람이 보고 지적하듯 엄하게 여겨야 하네	十手十目其嚴
비록 일에 임해 조심하고 두려워하지만	雖能敬畏於臨事
다만 홀로만 아는 은미함이 많으면	獨多獨知之隱
참과 거짓이 뒤섞여 행할까 두렵네	抑恐眞妄之錯行
호오 사정 시비 득실의 기틀과	好惡邪正是非得失之機
동정 어묵 음식 기거의 행위가	動靜語默飲食起居之節
간혹 도가 아닌 데서 나오면	或出非道
몸을 닦는 데 뜻이 성실하지 않으면	意未誠於修身
완전히 마땅함에 들어맞지 않으면	豈盡合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잘못이 많네	政多失於爲國
조용히 생각건대 공과 사의 구별은	竊念公與私之別
다만 리와 욕의 사이에 있네	只在理與欲之間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희미하여	人心惟危道心惟微
두 가지가 마음속에 섞여 있네	雜二者於方寸
생각하지 않으면 광포하게 되고 생각하면 성인이 되니 ¹⁴⁰	罔念作狂克念作聖
그 경계는 한 티끌이라도 용납하라	容一髮於界分
오직 정밀하고 한결같아야 살필 수 있으니	惟精一可以察之
요순 ¹⁴¹ 의 심법이 이에 있네	華勛之心法在此

모르는 자기의 마음속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서경》〈억(抑)〉에 “혼자 방 안에 있는 그대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도, 으스스한 방구석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할지어다.[相在爾室，尚不愧于屋漏.]”라는 말이 나온다.

- 140 생각하지……되니 : 《서경》〈주서(周書)〉‘다방(多方)’에 “오직 성인도 생각이 없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도 능히 생각하면 성인이 된다.[惟聖罔念作狂，惟狂克念作聖.]”라고 하였다.

경과 예가 아니면 지킬 수 없으니	非敬禮不能守矣
공자와 맹자의 학술은 다른 것이 아니네	丘軻之學術無他
청컨대 이에 생각할지니	請念于茲
도는 가까운 곳에 있네	道在於邇
한 티끌의 먼지도 없게 하며	無一點之查滓
마음을 마땅히 연못처럼 넓혀야 하네	心地宜廣於方塘
온갖 선을 전부 온전히 하여	有萬善之渾全
본성을 움직이는 물처럼 되돌려야 하네	性天可回於活水
욕심을 막음은 맹렬히 반성함에 있으니	窒欲要在乎猛省
선을 밝힐 때 어찌 조곤 공부를 도외시하라	明善豈外夫操存
태어나면서 알고 배워서 알고 고생 끝에 알지만	生而知之學而知之困而知之
궁극에 이르러선 모두 똑같네	及其至則一也
인의 단서와 의의 단서와 예의 단서를	仁之端也義之端也禮之端也
넓혀 확충할 수 있네	擴而充之可乎
그런 뒤에 어진 이와 사특한 이를 나아가고 물러가게 함이 거울에 물건	然後進退賢邪如鑑照物
을 비추듯 하니	
이를 통해 정무를 총괄함이 마치 바둑판에 돌을 펼친 듯 정연하네	以之揔覽幾務若碁布盤
어찌 억지로 힘써 행한다고 하는가	豈曰勉強而行

141 요순 : 《서경》〈요전(堯典)〉에 “옛날 제(帝)였던 요(堯)를 상고하건대 ‘지극한 공훈을 세운 분이다.[放勳]’”라고 하였고, 〈순전(舜典)〉에 “옛날 제였던 순(舜)을 상고하건대, ‘거듭 빛남이 제요에게 합치되었다.[重華協于帝]’”라고 하였는데, 훗날 이 두 말을 합쳐서 화훈(華勳)을 요순의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반드시 조용히 도를 따르네	其必從容中道
허황되며 고원한 데 내달리지 말지니	不可驚於虛遠
요컨대 정신을 깨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네	要自始於喚醒
삼가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며 살펴 물으며 돈독하게 행하며 자세하게 말하여야 하니	愼思明辨審問篤行詳說之
청컨대 이것을 따르기를	請事斯語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으며 집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것은	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
결단코 이에서 벗어나지 않네	端不外茲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어른과 어린이 벗 사이의 윤리가	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之倫
이에 힘입어 어둡지 않네	賴而不晦
요순과 우탕 문왕 무왕 주공과 공자의 도가	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之道
이를 따라 밝아졌네	從此以明
실로 국가 만대의 복이니	實國家萬世之休
청컨대 오늘부터 변하여 도로 옮겨 가길	請今日一變至道
신의 말이 노망하지 않았으니	匪臣言髦
오직 성인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	惟聖之謨
바라건대 보필하려는 신의 정성을 살피시고	望察臣承弼之忱
성스러움을 도우려는 신의 학술을 받아 주소서	納臣益聖之術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니	克己復禮
매일 부지런히 힘써야 하네	惟日孜孜
사특함을 막고 참된 마음을 지니며	閉邪存誠

공경하는 마음을 엄숙하게 한다면	儼其穆穆
곧 하늘을 이어 태극을 세우리니	則繼天立極
앞뒤의 성인과 같은 법이라	前後之聖一揆
가만히 앉아 천하를 경영하니	垂衣篤恭
향기로운 덕치로 다스릴 수 있네 ¹⁴²	馨香之治可治
마땅히 더욱 힘써 임금에게 충고하여	當益勵啓沃
논의를 게을리하지 않네	不怠論思
왕을 공경하기로 나만 한 이 없으니 ¹⁴³	莫如我敬王
원하는 바는 맹자의 마음시오	所願則孟軻之心
그 임금으로 순과 같이 만들려 하니	俾厥后猶舜
이윤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리 ¹⁴⁴	庶不負伊尹之志

142 향기로운……있네 : 《서경》〈군진(君陳)〉에 “지극한 정치를 하면 향기로우니 신명에게도 감응이 되는 법이니, 서직과 같은 곡식의 제물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밝은 덕의 제물이 향기로운 것이다.[至治馨香 感于神明 黍稷非馨 明德惟馨.]”라는 말이 있다.

143 나만……없으니 : 《맹자》〈공손추 하〉에 보이는 말이다.

144 그 임금으로……않으리 : 자세한 내용은 268쪽 주110 참조.

한나라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협서율을 제거한 것을 하례한 것에 대한 의

漢朝群臣賀除挾書律

황제가 지극한 표준을 세우니	皇建其有極
사해가 바야흐로 태평을 즐기네	四海方樂於太平
하늘이 사문(斯文)을 없애려 하지 않으니	天未欲喪斯
하나의 법률이 머지않아 제거되었네	一律奄除於不日
도가 이미 서한(西漢)으로 가니 ¹⁴⁵	道已西矣
사문이 여기에 있구나	文在茲乎
조용히 생각하건대 책의 소지를 금한 법은	竊念挾書之禁
진시황 ¹⁴⁶ 으로부터 시작하였네	肇自呂政而始
황분 오전 시서 백가의 책에 기록된 말들이	皇墳五典詩書百家之語
모두 불길로 들어가고	盡入酷炎
당우와 삼대의 예악과 문물의 모범이	唐虞三代禮樂文物之宗
함께 큰 재앙에 빠졌네	並歸淫禍
사람을 파묻고 멸족시켜 참혹하니	坑之族之而慘
금문과 고문을 어찌 논하리오	今文古文誰論

145 도가……가니 : 후한(後漢) 때 정현(鄭玄)이 마융(馬融)의 문하를 떠나자 마융이 “나의 도가 동으로 갔구나.[吾道東矣]”라고 탄식하였다. 여기서는 이 고사를 원용하여 서한으로 도가 전해진 것을 말하고 있다.

146 진시황(秦始皇) : ‘여정(呂政)’은 진시황 영정(嬴政)을 부르는 말로, 그가 실제로 여불위(呂不韋)의 소생이기 때문에 경멸하는 뜻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천년 이어 온 의관이	千載衣冠
이미 악독한 천하로 들어가고	已入毒痛之天地
삼미 ¹⁴⁷ 의 제도는	三微制度
변하여 오랑캐의 풍속이 되었네 ¹⁴⁸	變作左衽之侏離
이런 재앙이 일어난 이후로	連此禍之流來
긴 밤처럼 어리석어도 깨어나지 못하였네	貿長夜而莫悟
고조(高祖)가 전쟁을 멈춘 때에도	逮先帝偃武之日
법을 제거할 겨를이 없었는데	既云未遑
다행히 성상(혜제)이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¹⁴⁹	幸聖上肯構之心
문득 우선 이 일을 살폈네	奄先及此
예원의 학사를 재촉하니	催藝苑之學士
황제의 목소리 정성스러웠네	玉音丁寧

147 삼미(三微) : 《후한서(後漢書)》〈진충전(陳寵傳)〉에 “11월을 하늘의 정(正)으로 삼으므로 주(周)나라가 봄으로 삼았고, 12월을 땅의 정(正)으로 삼으므로 은(殷)나라가 봄으로 삼았고, 13월, 즉 정월을 정(正)으로 삼으므로 하(夏)나라가 봄으로 삼았다. 그래서 삼미가 나타나게 되어 삼통(三統)을 관통하였다.”라고 하였다. 《홍재전서》에서 “삼미”라는 것은 시(時)의 시작, 월(月)의 시작, 연(年)의 시작으로, 주해(註解)하는 자들이 미(微) 자의 뜻을 시(始)라고 한 것은 만물이 모두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148 오랑캐의 풍속이 되었네 : 좌임(左衽)은 오랑캐의 의복제도를 가리키며, ‘주리(侏離)’는 오랑캐의 언어를 가리킨다. 두 말이 합쳐져 오랑캐를 의미한다.

149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 궁구궁당(肯構肯堂)의 준말로, 《서경》〈대고(大誥)〉에 “만약 아버지가 집을 지으려 작정하여 이미 그 규모를 정했는데도 그 아들이 기꺼이 당기(堂基)를 마련하지 않는데 하물며 기꺼이 집을 지으랴.〔若考作室 既底法 厥子乃弗肯堂 矧肯構.〕”라고 한 대목에서 온 말로, 자손이 선대의 유업을 잘 계승하는 것을 뜻한다.

자색 인주의 온화한 조서를 내리니	降紫泥之溫綸
검은 글씨 환하게 드러났네	鴉墨昭著
백년 동안의 비루한 습속을 깨끗이 쓸어버리니	蕩除百年之陋習
한 시대의 문명이 환하게 빛나도다	煥燦一代之文明
인경과 봉서의	麟經鳳書
붉게 만든 두루마리가 바야흐로 새롭네	方新赤製之軸
붉은 책과 귀중한 책의	丹篇寶傳
푸른 옥의 찌를 거듭 다듬네	重理綠玉之籤
붉은 낙서의 신령한 거북은	紫洛靈龜
거듭 구주의 수를 바치고	再呈九疇之數
상서로운 황하의 용마는	瑞河龍馬
또다시 팔괘의 도서를 이고 나오네	更負八卦之圖
만백성 성인이 만든 아름다움을 보며	萬物觀聖作之休
수많은 선비가 구름이 일어난 때에 호응했네 ¹⁵⁰	多士應雲起之會
행단의 봄바람에 울려 퍼지는 거문고 연주와 시를 읊조리는 소리 시들 지 않으니	杏壇之春風不老洋洋絃誦之聲
둥근 갓에 네모진 옷깃의 선비 자하의 당에 다시 모였네	圓冠方領再聚子夏之堂

150 수많은……호응했네 : 《사기》〈진시황본기〉에 진섭(陳涉)이 반란을 일으키는 데 목에 “천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호응하고 식량을 써서 그림자처럼 따랐다.〔天下雲集響應，贏糧而景從。〕”라는 말이 있다.

추연 골짜¹⁵¹의 영기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인의의 말을 오히려 이해하니

鄒谷之英氣猶解孜孜仁義之說

푸른 옷에 끈과 띠를 두른 유생이 모두 중유의 방에 들어가네

組帶青襟皆入仲由之室

문장은 태양처럼 밝아 빛을 발산하고

文章皎白日而開照

강업은 덕성처럼 환하여 빛을 드리우네

講業暎德星而流光

봉우리 아름다운 학산

峰秀學山

노나라 궁궐에 반수의 노래 갖춰졌고

魯宮備泮水之頌

맑은 물결 바다로 흘러가는데¹⁵²

瀾清道海

주나라 사람 벽옹의 시를 읊조리네

周人詠璧雍之章

다만 한 시대의 아름다운 징조만이 아니니

非徒一時之休徵

또한 만대까지 넉넉히 이어지리라

抑爲萬世之蔓洽

인문과 천리가 이로부터 펼쳐지며

人文天理從此以伸

삼강과 오륜이 이에 힘입어 무너지지 않네

三綱五常賴而不墜

삼가 성왕의 도량은 하늘이 내었으니

欽聖圖天縱

큰 덕이 날로 생겨나네

大德日生

151 추연(鄒衍) 골짜 : '추곡'은 중국 전국 시대 제(齊)나라의 추연이 머물렀던 연(燕)나라의 곡구(谷口)를 말한다. 이 땅이 비록 비옥했지만 기후가 쌀렁하여 농사가 안 되었던 까닭에, 추연이 양률(陽律)을 붙여넣어 곡식을 자라게 하였다는 전설이 《태평어람(太平御覽)》에 전한다.

152 봉우리……흘러가는데 : 낙빈왕의 <상사형태상백계(上司刑太常伯啓)>에서 “봉우리 아름다운 학산에 삼분을 벌여놓으니 우러러보고, 맑은 물결 바다로 흘러가니 사방의 물이 일렁이며 바다로 향하네.〔峰秀學山 列三墳而仰止 瀾清筆海 委四瀆以朝宗.〕”라는 말이 있다.

광포한 진나라가 포악한 정치할 때를 당하니	當狂秦肆暴之時
문왕의 탄식을 쏟아내고	幾發文王之歎
상안산의 사호가 태자를 도운 이후로 ¹⁵³	暨商顏羽翼之後
다시 성탕의 혁신을 본받았네	更效成湯之革新
도가 주나라에 으뜸이니	道既冠於姬周
장차 큰 공적을 세운 것을 보리라	將見大有爲也
공은 우의 아래에 있지 않으니	功不在於禹下
어찌 세교에 보탬이 적다 하리오	豈曰小補之哉
벽옥진의 파도에	玉津同波
덕의 물결은 천년의 빛을 반짝이고	德水應千年之色
금제의 무성한 연못에 ¹⁵⁴	金堤茂澤
높은 산은 만대의 소리를 울리네	崇山動萬歲之聲
황제의 일이 모두 빛나며	帝載咸熙
우리 도는 영원히 번창하리	吾道永辭
생각건대 글을 지어 아뢰는 데 뜻이 있지만	念文墨有志
땀 흘리는 말처럼 공은 없네 ¹⁵⁵	汗馬無功

153 상안산의……이후로 : 한 고조는 충애하는 척부인의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고황후가 장량의 피를 인용하여 상안사호를 조정으로 불러들인다. 이에 고조는 평소 자신이 부르던 오지 않던 사호가 오자 그 까닭을 물으니, 그들은 현 태자(혜제)의 어짊을 듣고 왔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고조는 태자를 바꾸지 못하였고 혜제가 제위에 올랐다.

154 벽옥진(璧玉津)의……연못에 : 좌사의 <촉도부(蜀都賦)>에 “서쪽으로 금제를 넘고 동쪽으로 벽옥진을 넘는다.[西逾金堤 東越玉津.]”라는 말이 나온다.

155 땀 흘리는……없네 : 《사기》<소상국세가(蕭相國世家)>에 “소하에게 어찌 힘들여 싸운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는 단지 붓을 잡고 의논만 하였을 뿐입니다.[今蕭何未嘗有汗馬之勞. 徒持文墨議論.]”라는 말이 있다.

천자의 빛나는 위의를 가까이 모시면서	近天子之光儀
성인의 뛰어난 계책을 바라보게 되었네	獲瞻聖人之顯謨
우러러 바라건대 때를 놓치지 말고 학문에 힘써서	仰典學之時敏
우나라 순 임금의 화답하여 부르는 노래 ¹⁵⁶ 를 본받으시라	願效虞殿之賡歌

156 우(禹)나라……노래 : 순(舜) 임금 조정의 창화가(唱和歌)라는 뜻으로, 《서경(書經)》〈익직(益稷)〉에 “대신들이 즐거우면 임금이 흥성하고 백관도 화락하리라. [股肱喜哉 元首起哉 百工熙哉.]”라는 순 임금의 노래와 이에 고요(皐陶)가 화답한 “임금님이 밝으시면 신하들도 훌륭하여 만사가 안정되리이다. [元首明哉 股肱良哉 庶事康哉.]”라는 노래와 또 이어서 부른 “임금님이 잔탈게 굴면 신하들도 해이해져서 만사가 실패하리이다. [元首叢脞哉 股肱惰哉 萬事墮哉.]”라는 노래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태평 시대를 맞아 왕과 신하가 서로 수창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한나라 대장군 곽광¹⁵⁷이 <주공이 성왕을 업고 있는 그림>을
하사받았으나¹⁵⁸ 사양한 것에 대한 의

漢大將軍霍光謝賜周公負成王圖

다행히도 마침내 태자를 보호하였지만	幸卒護太子
바야흐로 스승으로서 무능함이 부끄럽네	方愧輔導之無能
주공의 그림 그리라 하니	求其爲周公
흙사한 그림이 완성되었네	特落丹青之惟肖
그림을 보고 주공과 같을 것을 생각하니	見思齊矣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노라 ¹⁵⁹	吾從周乎
생각건대 성인의 무리가 아니며	念非聖人徒
한갓 참으로 용렬한 재주로다	固庸材爾
내려설 때 항상 그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니 ¹⁶⁰	立不失尺寸地

157 곽광(霍光) : ?~기원전68. 자는 자맹(子孟)으로, 한 무제 때의 명장 곽거병의
이복동생이다. 무제 때 봉거도위(奉車徒尉)가 되어 신임이 두터웠고, 후원(後元)
2년(기원전87)에 대사마대장군(大司馬大將軍)이 되었다. 김일제, 상홍양과 함께
무제의 유언을 받들어 어린 소제(昭帝)를 잘 보필했으나, 그 뒤 상관걸, 상홍양과
권력을 다투다 틈이 벌어졌고, 나중에 연왕(燕王) 유단(劉旦, 소제의 형)과 결탁
해 모반의 죄명을 씌워 상관걸 등을 살해한 뒤 조정을 장악했다.

158 주공이……하사받았으나 : 한 무제가 구익부인(鉤弋夫人)의 아들인 유불릉(劉弗
陵)을 세자로 삼은 뒤에 곽광에게 보좌하라고 명하였다. 궁중의 화가에게 주공이
성왕을 업고 제후들의 조회를 받고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곽광에게 그것을
하사하였다.

159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노라 : 《논어》〈팔일〉에 보이는 말로, 여기서는 주공처럼
성왕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160 내려설……않으니 : 곽광은 사람이 대단히 조심스러워 궁궐에 드나든 지 20년이

비록 임금 섬김에 조심할 줄을 알았지만	雖知謹厚於事君
조정이 삼왕의 정치를 시행하길 앉아서 기다렸는데	坐待朝兼三王
재상의 넓은 도는 조금도 드러내지 못하였네 ¹⁶¹	蔑效輔相之弘道
감히 주공 같은 업적을 바라리오	敢望有爲亦若
다만 무능한 사람이라도	直是無所能人
지난번 작은 바다에 파도가 거세었으나	頃緣小海之驚波
이어서 전성(황태자)이 책봉되었네	繼有前星之定位
열네 달 만에 태어나니	十四月而載誕
요모문에 경사가 넘치네 ¹⁶²	慶洽堯母之門
일천 년 만에 황하가 맑아지니	一千年而河清
우 임금 아버지 ¹⁶³ 의 덕을 공경히 받드네	敬承禹父之德
천하 사람과 함께 목을 빼고	同天下之引領
다만 짧은 시간에 죽지 않기만 바라네	只願不死於須臾
해와 달이 연이어 밝은 것 바라보니	瞻日月之繼明
매번 반딧불이 빛만큼도 도움이 없음을 탄식하네	每歎無補於螢爝
생각지도 못했으니 노둔한 자질로 형편없는데	不圖驚質之衰朽
갑자기 외람되게 무거운 은총을 받게 되었네	遽叨蛟負於重恩

되었지만, 대궐 문에서 수레를 내릴 때 항상 내리는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小學 善行》

161 재상의……못하였네 : 광광의 입장에서 겸손하게 말한 것이다.

162 열네……넘치네 : 무제의 아들인 소제(昭帝)는 열네 달 만에 태어났다. 이에 무제는 요 임금도 열네 달 만에 태어난 사실을 상기하면서 자신의 아들도 훌륭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소제가 태어난 궁문을 요모문(堯母門)이라 하였다.

163 우 임금 아버지 : 우 임금의 부친인 악인 곤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강물을 다스린 우 임금 자체를 이른다. 여기서는 한나라를 잘 다스린 무제를 지칭한다.

자신이 어찌 김일제¹⁶⁴에게 사양함을 알지 못하랴만 그렇게 하지 못하
 는데 人豈不自知讓日磾而不得
 황제가 말하기를 “그렇다 네가 맡아라” 하지만 우나라 기가 일을 맡은
 것¹⁶⁵에 부끄럽네 帝曰惟汝往愧虞夔之惟諧
 바야흐로 소인들이 재앙을 부를까¹⁶⁶ 두렵거늘 方患小人之負乘
 또 어찌 큰 성인으로 나에게 책임지우는가 又何大聖以責我
 두어 폭의 비단 그림 들고 나오는데 擊出數幅之縑素
 오래전 모습에 놀라네 驚却百年上儀形
 등에는 어린아이 업고 있는데 背有六尺之孤
 부탁하는 말 아직도 귀에 울리네 誦尚猶耳
 팔백 나라 제후들의 조회를 받는데 面朝八百之國
 주공이 여기에 있구나 公在茲乎
 먹다가 뱉어내고 목욕하다 머리를 움켜쥐었으니¹⁶⁷ 吐哺焉握髮焉

164 김일제(金日磾) : 기원전134~기원전86. 처음에 말을 기르는 천한 일을 하다가 무제의 눈에 들어 마감이란 자리를 받았다. 이후 시중(侍中), 부마도위(附馬都衛), 광록대부(光祿大夫)에 올랐고, 망하라(莽何羅)라는 자가 무제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막은 공로로 거기장군(車騎將軍)에 임명되었다. 무제는 죽기에 앞서 어린 태자 유불룡(소제)을 보호할 후견인으로 김일제와 광광, 상관걸 등을 지목하여 태자가 무사히 황제 자리를 이어받도록 했다.

165 우나라……것 : 기(夔)는 순 임금 때 전악(典樂)이 되어 주자(胄子), 즉 왕실과 경대부(卿大夫)의 적자(嫡子)의 교육을 맡았던 신하이다. 《書經 舜典》

166 소인들이 재앙을 부를까 : 원문의 ‘부승(負乘)’은 분수에 맞지 않는 지위에 있음으로써 우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주역》〈해괘(解卦) 육삼(六三)〉에 “짐을 지고 다녀야 할 처지인데 수레를 탄 격이라 도적을 불러오니, 정하더라도 부끄러우리라.〔負且乘 致寇至，貞吝。〕”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67 먹다가……움켜쥐었으니 : 주공(周公)이 천하의 현사(賢士)들을 만나기에 급급하여 머리를 한 번 감는 동안에 세 번이나 젖은 머리를 움켜쥐고 나가고, 밥 한 끼를 먹는 동안에 입안의 음식을 세 번이나 뱉어냈다.〔一沐三握髮 一飯三吐哺。〕”

성인이 다시 태어났네	聖人復起
예를 정하고 음악을 만드니	制禮也作樂也
주나라 도는 볼만하구나	周道可觀
마주하면 위에 있고 물으면 옆에 있으니	臨在上質在傍
소왕을 꿈에서 볼 필요 없네 ¹⁶⁸	不必素王之夢見
마음에 그리워하고 눈으로 보니	心有思目有見
실로 자주 적석이 곁에 있네 ¹⁶⁹	實數赤鳥之留傍
보면 알게 되며	見而知之
바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네	希之則是
아름다움을 독차지하게 말지니	罔俾專美
효과를 내려면 무제(武帝)의 뜻을 헤아려야 하네	責效可想於宸衷
곧 나의 스승이 있으니	卽有我師
협력하라는 유언을 감히 느슨히 하라	戮力敢緩於維則
옛날의 거칠고 지리멸렬한 것들이	昔之鹵莽滅裂
오직 한나라 관리의 위의를 지키네	只守漢官威儀
지금 보고 느껴 흥기하는 자들은	今也觀感作興
다시 태평성대의 문물을 보네	更觀聖世文物

라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168 소왕을……없네 : 소왕은 공자를 가리킨다. 공자가 주공을 그리워하여 항상 꿈에서 보았다고 하였는데, 태자의 입장에서 선생 광광이 앞에 있으니 꿈에서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169 적석(赤鳥)이 곁에 있네 : 《시경(詩經)》〈빈풍(邠風)〉‘낭발(狼跋)’에 “공(公)은 겸손하고 크고 아름다우니, 적석의 걸음이 진중하다.[公孫碩膚, 赤鳥几几.]”라고 하였고, 시의 서(序)에 “주공을 아름답게 여겨 지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태자의 입장에서 광광이 주공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이다.

잘한다고 여기지 않고 배우기를 원하니	非曰能而願學
다만 길이 도모하여 게으르지 않으리	惟永圖而無怠
저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彼何人予何人哉
신이 비록 감히 견주지 못하지만	臣雖未敢
항상 주공만을 생각할 것이니	念在茲釋在茲矣
그와 비슷하게 되리라	其殆庶幾
나는 이러저러하겠다 말하노니 ¹⁷⁰	遇予欲云云
다스려서 그것을 성취하리라	治以進進
후왕들에게 편히 살도록 계책을 남기려 하노니	思貽謀於燕翼
여태자의 원한 ¹⁷¹ 을 너무나도 후회하네	痛悔戾子之含冤
진나라 망함에 항상 마음을 두어	戒恒存於秦亡
조고가 호해의 스승이 된 것을 깊이 경계하노라	深創趙高之傳亥
이에 어린 군주의 큰 업적을 보필하게 하여	肆將輔幼主之弘業
겸하여 미천한 신하에게 원성의 일을 부탁하네	兼寄元聖事於微臣
성인으로 스스로 기약하여	不以聖自期
날마다 노력하지 않으랴	惟日企及
형용하기 어려운 정치를 이뤄 새들도 노래하리니	做無象而聞鳥
비록 신명도 감동할 지극한 정치 ¹⁷² 에 이르지 못하지만	雖未及於馨香

170 나는 이러저러하겠다 말하노니 : 한 무제가 한 말이다. 이 말은 아래의 조고가 호해의 스승이 된 것을 경계한다는 부분까지 이어진다. ‘우(遇)’는 발어사이다.

171 여태자의 원한 : 무제가 병들었을 때 강충(江充)이 여태자가 저주(咀呪)한 때문이라고 하면서 무고 사건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 이에 격분한 여태자는 그를 죽이고 자살했는데, 뒤에 무제는 여태자의 억울함을 깨닫고는 강충의 삼족을 멸하였다. 《漢書 卷45 江充傳》

172 신명도……정치 : 자세한 내용은 285쪽 주142 참조.

성왕이 허물이 있으면 백금을 매질하니¹⁷³

王有過而撻禽

보도(輔導)를 무너뜨리는 허물이 없었네

庶無衍於荒墜

173 성왕(成王)이……매질하니 : 주나라 주공(周公)이 성왕을 가르칠 때에 성왕이 잘 못하면 자신의 아들 백금(伯禽)을 매질했다고 한다. 《史記 卷33 魯周公世家》

한나라 공장¹⁷⁴이 태상이 되어 기업을 맡아 지키려고 요청한 것에 대한 의

漢孔臧乞爲太常典守家業

살아서 요순 시대를 만나니	生逢堯舜
임금의 행위 이미 간쟁할 것이 없네 ¹⁷⁵	君姿既乏於諫諍
이에 공씨를 회복하니 ¹⁷⁶	以復孔氏
오래된 마음 조용히 예관을 원하네	舊心竊願於禮官
어찌 벼슬하고 싶으랴만	寧欲仕乎
내 어쩔 수 없이 받았네	吾有受也
생각건대 공자의 먼 후손으로	念大聖苗裔
어려서 왕겨처럼 못났었네	少竊粃糠
물러나 예를 배우고 시를 배우니	退學禮退學詩
비록 백어(伯魚)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¹⁷⁷	雖未及於趨過

174 공장(孔臧) : 공자(孔子)의 후손이다. 공안국(孔安國)의 종형이고, 아버지는 공취(孔聚)인데, 고조(高祖) 때의 공신으로 요후(寥侯)에 봉해졌다. 문제 때 아버지의 작위를 이어받았고, 무제 원삭(元朔) 2년(기원전127) 태상(太常)이 되었다. 처음에 박사(博士) 등과 함께 학문을 권하고 현인을 등용하는 법을 논의하여 공명(功名)을 드러낼 것을 청하니, 이때부터 공경과 사대부들 가운데 문학에 유능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

175 임금의……없네 : 두보의 <북정(北征)>에 “내 비록 간언드릴 능력 부족하지만[雖乏諫諍姿]”이란 구절이 있다.

176 공씨를 회복하니 : 한 고조 때 요후에 봉해진 것을 이른다.

177 물러나……못하지만 : 원문의 ‘추과(趨過)’는 공자의 아들 백어(伯魚)가 뜰을 가로질러 갈 때[過庭], 공자가 그를 불러 세우고 시(詩)와 예(禮)를 공부하라고

조상의 뜻을 잘 잇고 가업을 잘 전승하면	善繼志善述事
앞으로 허물이 없을 것이라	庶罔愆於方來
재주가 있든 없든 모두 공자의 자손이니	才不才兮各言
그 도를 도로 삼아 사숙하였네	道其道而私淑
네가 태어난 것을 더럽히지 마라	毋忝爾所生矣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恒切戰戰兢兢
그대 또한 다른 가르침을 들었는가	子亦有異聞耶
다만 그 가르침 받들어 이을 뿐이네	只欲承承繼繼
지난번 성조에 인재가 없었기에	頃緣聖朝之乏士
부지런히 근무하는 어진 이들 대열에 외람되이 끼었네	猥側夙夜之群賢
간쟁하는 직함의 벼슬을 하니	官以諫爲名
군자는 숨김이 없어야 함에 본디 어둡네	素昧君子之無隱
그 녹봉이 대대로 끊기지 않으니	世不絕其祿
또한 성스런 조상이 자손 둔 것 배려하네	亦念聖祖之有孫
어질다고 여긴 것인가	以爲賢乎
그 직책에 걸맞지 못할까 두렵네	恐不稱於其職
내가 바란 바가 아니니	非余望者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네	乃所願則不然
그러나 다만 세업이 아직도 온전한데	顧惟世業之猶全
참으로 이것은 부친이 하던 것이네	固是先子之所制
아들과 손자의 세대에	於若子若孫之世

가르침을 내렸던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論語 季氏》

이것으로 서로 전해 주려 하네	莫不以是相傳
비록 불효하고 불초한 사람이지만	雖不孝不肖之人
실로 내 몸에 몸소 해보려고 하네	實若於身親見
나는 마땅히 가업을 이어야 하거늘	余宜肯構
이어받아야 할 세업을 저버렸구나	違世業之可懷
너를 질종(예관)에 임명하니 ¹⁷⁸	汝作秩宗
원컨대 나를 좋은 벼슬로 얹어매기를 ¹⁷⁹	願我縻以好爵
저 키와 갓옷 만드는 이가 가업을 지켜 ¹⁸⁰	彼箕裘之守業
오히려 키와 갓옷을 만드는데	尙能爲箕爲裘
더구나 예의를 전하는 집안에	況禮義之傳家
어찌 예의가 없다고 말하는가	豈曰無禮無義
이것을 마땅히 지켜 잃지 말아야 하니	是宜守而勿失
관직이 사사로운 가업만 못하다고 혐의하지 마라	莫嫌官不及私
신은 보면 알거나 이롭게 여겨서 행하지 못하니	臣非見而知利而行
이에 대대로 지킬 따름이네	乃世守也
다만 원하건대 그 지위에 나아가 그 예를 행하려니	但願踐其位行其禮
감히 주저넘지 않으려네	非敢僭焉

178 너를 질종에 임명하니 : 한 무제가 공장에게 해 준 말로 보아야 한다.

179 원컨대……얹어매기를 : 공장이 한 말이다.

180 키와……지켜 : 원문의 ‘기구(箕裘)’는 가업(家業)을 비유하는 말이다. 《예기》〈학기(學記)〉의 “훌륭한 대장장이의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본받아 응용해서 가죽옷 만드는 것을 익히게 마련이고, 활을 잘 만드는 궁장(弓匠)의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본받아 응용해서 키 만드는 것을 익히게 마련이다.[良冶之子 必學爲裘 良弓之子 必學爲箕.]”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후세에도 기맥은 아직도 남아 있는데	後世之氣脉猶存
참으로 제자의 반열과는 다르네	固異弟子之列
이전 왕조부터 전해진 면절 ¹⁸¹ 을 익힐 수 있으니	先朝之綿絕可習
어찌 숙손통에게 준 관직을 아끼는가	何惜叔孫之官
이름을 드날리려는 바람이 없으니	非有望於顯名
또한 도를 지키려는 것을 볼 수 있네	亦可見夫衛道
백대의 수사 ¹⁸² 에 물결이 찬데	波寒百歲之洙泗
거문고 연주하며 노래 부른 때가 언제이던가	絃誦何年
세대가 삼대에서 내려갈수록 어지러우니	世降三代而澆漓
오늘날 퇴락했구나	蘧蕪今日
법문으로 신을 얹어맬 수 없으니	無拘臣以文法
그 전통을 지키리라	得守緒餘
비록 이 때문에 죽더라도	雖由此而死亡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리	萬無悔恨
내가 죽은 뒤로	曰余有後
장차 신의 몸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將見陟降臣身
게으르지 않고 노력할지니	勉爾無怠
어찌하면 황제 은덕에 보답하리오	那堪拜荷帝德

181 면절(綿絕) : 야외에서 예의(禮儀)를 익히는 것이다. 대나무를 죽 이어서 세우고 거기에 띠로 끈 새끼를 둘러서 존비(尊卑)의 위치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한 고조(漢高祖) 때 박사(博士) 숙손통(叔孫通)이 제자 1백여 인과 함께 야외에서 면절을 베풀고 예를 익혔다. 《史記 卷99 叔孫通傳》

182 수사(洙泗) : 중국 산둥성(山東省) 곡부(曲阜)를 지나는 두 개의 강물 이름으로, 이곳이 공자의 고향에 가깝고 또 그 강물 사이의 지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보통 유가(儒家)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한나라의 예악을 정할 것이니	可以定漢氏之禮樂
비록 가의의 말을 보잘것없이 여기더라도 ¹⁸³	雖短諠言
누가 흥기한 문왕에게 귀의하지 않으리오	孰不歸文王之作興
청컨대 나부터 시작하리라 ¹⁸⁴	請從隈始
다행스럽게도 태평성대에 은혜를 받드니	幸承恩於聖代
이것을 미천한 신하에게 바라시네	是所望於微臣
바라건대 선조를 받들려는 정성을 살펴 주시고	望特察承先之忱
후대에 전하려는 간절함을 굽어살펴 보시오	俯採傳後之懇
노 땅 지날 때 태뢰로 제사 지낸 의리 따르니 ¹⁸⁵	遵過魯牢祀之義
더욱 선사를 높이리라	益尊先師
홍도문에 경서를 새긴 의전을 회복하리니 ¹⁸⁶	恢刊經鴻都之儀
하여금 구업을 지키게 하리라	俾守舊業
그렇다면 집안의 경사요	則室家相慶

183 가의의……여기더라도 : 가의는 문제에게 <치안책>을 올려 유교식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덕에 의한 정치를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여기서는 비록 문제는 가의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공장 자신은 예악을 바탕으로 한 유교식 체제를 정비할 것이라는 말이다.

184 청컨대 나부터 시작하리라 : 연나라 소왕이 부국강병하기 위해 인재를 초빙하려 하였다. 이때 괩외(郭隗)가 천리마의 뼈를 사 온 이야기로 비유하면서 자신부터 존중하면 천하의 인재가 연나라로 올 것이라 하였다. 이 부분은 그 말을 따온 것이다.

185 노(魯) 땅……따르니 :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은 12년(기원전195)에 노 지방을 지나다가 태뢰로 공자(孔子)에게 제사하였다.

186 홍도문에……회복하리니 : 한 영제(漢靈帝) 희평(熹平) 4년에 홍도문학(鴻都門學)을 설치, 모든 선비들에게 조서를 내려 오경문자(五經文字)를 정리하게 한 다음, 의랑(議郎) 채옹(蔡邕)에게 명하여 고문(古文)·전자(篆字)·예서(隸書) 등 세 서체로 쓰게 해서 그것을 돌에 새겨 태학문(太學門) 밖에 세웠다. 이 사실은 공장이 살아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닌데, 기정익은 유학을 진작시킨 공장으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본 듯하다.

신민들이 우러러보리라	臣民聳觀
끊어진 실마리를 남겨진 경전에서 찾으니	尋墜緒於遺經
후대에 이어 가리라	後世有述
지난 옛날의 남은 향기를 얻으니	得餘馥於往古
담장을 마주할 근심은 없어라	面牆無憂
삼가 마땅히 부지런하고 황폐함이 없어야 하며	謹當孜孜無荒
쉬지 않고 노력하여 더욱 힘써야 하네	勉勉益勵
정사에 시행하면	施于有政
비록 나라를 운영하지는 못하지만	雖未足以爲邦
무궁한 후대에 전하리니	傳之無窮
하여금 후대에 쇠퇴하지 않도록 해야 하네	俾不衰於來世

송
암
집

부
록

附
錄
부
록

송암 기공 묘표

松巖奇公墓表

김종수(金鍾秀)¹ 몽촌(夢村)²

호남의 선비 기일상(奇逸相)이 그의 할아버지 유고《송암유고(松巖遺稿)》4권을 들고 와서 나에게 보여 주며 공(公)의 묘표를 써 달라고 부탁하였다. 내가 그 부탁을 받고 유고를 읽어 보니 공의 학문은 마음으로 자득하는 것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아! 호남은 예로부터 문헌의 고장으로 유명하나, 공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끊어지게 되었다. 공은 바로 끊어진 학문의 끝자락에서 일어나 혼자 힘으로 학문을 하였다. 늘그막에 비로소 문정공(文正公)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의 문하에서 학업을 청하였고, 의리(義理)와 성명(性命)과 상수(象數)³와 명례(名禮 명분과 예의)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오랫동안 공부해 온 것을 가지고 나아가 이를 바로잡은 것이 정밀하고 심오하며 은미하고 신묘한 것이 많았다. 비록 스승의 학설과는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을지라도 피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1 김종수(金鍾秀) : 1728~1799.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정부(定夫), 호는 진술(眞率) 또는 몽오(夢梧)로, 서울 출신이다. 벼슬은 승지(承旨)·경기도 관찰사(觀察使)·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1781년(정조5) 대제학에 올랐고, 그 뒤 이조 판서(吏曹判書)·병조 판서(兵曹判書)를 거쳐 1789년 우의정(右議政)에 올랐다. 저서에 《몽오집(夢梧集)》이 있다.

2 몽촌(夢村) : 저본의 '몽촌'에서 '촌(村)'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거하면, '오(梧)'의 오자(誤字)이다.

3 상수(象數) : 《주역(周易)》에서 '상(象)'은 괘상(卦象)과 효상(爻象)을 가리키며, '수(數)'는 음양수(陰陽數)와 효수(爻數)를 가리킨다.

아! 옛날의 학자는 오로지 마음을 안으로 쓴 까닭에 격물하고 궁리하여 익히고 힘쓴 바가 전대(前代)의 사람을 답습하지 않았다. 식견이 저절로 드러나기가 이와 같았으니, 아! 공과 같은 분이야말로 옛날의 이른바 ‘호걸지사(豪傑之士)’이다.

손재(遜齋) 박광일(朴光一)이 지은 공의 행장에 의하면, 공의 이름은 정익(挺翼)이고 자는 자량(子亮)이며 행주 기씨(幸州奇氏)이다. 정무공(貞武公) 건(虔)은 학문과 절의로 단종(端宗)과 세조(世祖) 연간에 명성이 있었으니, 공의 9대조이다. 고조(高祖) 효간(孝諫)은 호가 금강(錦江)이다. 문정공(文正公)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문인으로 역시 도학으로 명성이 있었으니, 복재(服齋)⁴의 종손(從孫)이요, 고봉(高峯)의 종질(從姪)이다. 아버지 진탁(震鐸)은 진사(進士)로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벼슬을 지내고, 예조 참의(禮曹參議)에 추증된 금성 나씨(錦城羅氏) 무춘(茂春)의 딸과 혼인하여 천계(天啓) 7년 정묘년(1627, 인조5) 7월 11일 정유(丁酉)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효성과 우애가 남달랐다. 젊은 시절 과거 공부를 하여 여러 차례 수석을 차지하였으나, 부모를 여의고서는 다시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 뜻을 두었으며 만년에는 《주역(周易)》을 좋아하였다. 일찍이 “《역(易)》의 도리는 이(理)와 수(數)와 상(象)의 셋인데, 유독 상(象)의 《역》이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상(象)의 전문(傳文)을 해석하여 그 의의를 밝혔으나 끝맺지 못하였다. 또 천문과 지리와 복서와 의약에도 두루 통달하여

4 복재(服齋) : 기준(奇遵, 1492~1521)의 호이다. 자는 자경(子敬), 호는 복재·덕양(德陽)이며, 시호는 문민(文愍)이다. 조광조(趙光祖)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514년(중종9) 별시 문과에 응시하여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막힘이 없었다.

신유년(1681, 숙종7)에 문정공 송시열의 추천으로 제릉(齊陵) 참봉(參奉)에 제수되고, 그 뒤에 또 효릉(孝陵)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장성(長城)에 살다가 중간에 영광(靈光)으로 이사하였으며, 끝내는 장성 송암리(松巖里)로 돌아와 뒷산에 집을 짓고 살았다. 경오년(1690) 12월 25일에 질병으로 집에서 생을 마치니, 향년 64세였다. 장성 추산(秋山)에 있는 정무공(貞武公)의 서원에 배향되었다.

공은 광산 김씨(光山金氏) 참판(參判) 여옥(汝鉦)⁵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호(灝)를 낳았다. 다시 창평 오씨(昌平吳氏) 집(輯)의 딸과 혼인하여 두 아들 복(復)과 득(得)을 낳았다. 공은 풍채가 늙름하고 빼어났으며 성격이 침착하고 중후하여 평소에는 신실하고 온화하며 돈후(敦厚)하였으나, 일을 당하여서는 의리로 결단하는 것이 확고하였다.

공이 지은 <정전향의(井田鄉議)> 1편이 있는데, 아마도 그 뜻이 천하에 시행되었을지라도⁶ 당시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토(童土) 윤순거(尹舜舉)⁷를 비롯한 여러 선배들은 공을 한번 보고 모두

5 광산 김씨(光山金氏) 참판(參判) 여옥(汝鉦) : 김여옥(金汝鉦, 1596~1662)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군수(君粹), 호는 미산(薇山)이다. 1624년(인조2) 문과에 병과로 급제, 학유(學諭)·검열(檢閱)을 역임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 도사로 강화까지 왕을 호종했으며, 환도 후 봉교(奉敎)·전적(典籍)·예조 좌랑(禮曹佐郎)·병조 좌랑(兵曹佐郎)·지평(持平) 등을 역임하였다. 이어 장령(掌令)·정언(正言)·사간(司諫)·집의(執義)·필선(弼善) 등을 역임하고, 여산 군수(礪山郡守)로 나가 기민(飢民)을 구휼하는 데 힘썼다.

6 천하에 시행되었을지라도 : 원문의 ‘거이조지(舉而措之)’는 《주역(周易)》〈계사전상(繫辭傳上)〉에 “천하의 백성에게 시행하여 따르게 하는 것을 일러 사업이라고 한다.[舉而措之, 天下之民, 謂之事業.]”라고 하였다.

‘호남 땅 제일의 인물’이라고 여기며 추대하고 복종하였다. 바야흐로 역도(逆徒) 윤휴(尹鑄)는 세상에 성대한 명성이 있었다. 공은 “윤휴가 반드시 패가(敗家)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끝내 윤휴는 형벌을 받아 죽었다. 또 공이 죽음에 임박하여 “아마도 죽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말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이와 같은 일이 《역》의 도리를 미루어 안 것이 아니었겠는가!

7 윤순거(尹舜舉) : 1596~1668. 자는 노직(魯直), 호는 동토(童土)이다. 1633년에 소과(小科)에 합격하였으며, 병자호란 후 아버지가 척화의 죄로 유배되자 고향에서 종약(宗約)과 동약(洞約)을 개정하고 문교(文教) 진흥에 힘썼다. 이후 여러 벼슬을 지내면서 단종의 능 곁의 승사(僧舍)를 중수하였다. 문장에 뛰어났고, 글씨는 청송(廳松)과 종왕(鐘王)의 필법을 따랐다. 저서로는 《동토집(童土集)》·《노릉지(魯陵志)》가 있다. 칠원에 <심원사취운당대사비(深源寺翠雲堂大師碑)>의 글씨가 전한다.

기 참봉을 애도하다

輓奇參奉

이임한(李任漢)

덕이 그토록 두텁거늘 운명은 왜 그리 기구했나	人何德厚命何奇
묵묵히 평생을 헤아려 보니 눈물만 흐르네	默數平生但涕洟
기개와 도량 웅대하여 나라의 그릇 되고	氣宇雄沈爲國器
가슴은 시원하여 초탈한 풍취 있네	胸襟灑落脫塵姿
뛰어난 시재 문원에 빼어나고	詞章俊逸超文苑
도학의 연원은 무이 ⁸ 를 이었네	道學淵源接武夷
일찍이 과거시험 공부 버리고	早捨科場章句業
만년에 성현의 은미한 말 탐구했네	晚探聖賢奧微辭
덕이 온몸에 드러난 ⁹ -원문 빠짐-	粹盡面背看成□
공손하고 검소하며 온화하고 선량한 자질을 보였네	恭儉溫良見品資
산악의 기운으로 태어나매 응당 뜻이 있었을 텐데	山嶽降生應有意
궁달과 영욕은 누구의 소관인가	窮通與奪更誰尸

8 무이(武夷) : 중국 건녕부(建寧府) 송안현(崇安縣)에 있는 무이산(武夷山)으로, 주희(朱熹)가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지어 강학한 곳이다. 여기에서는 주희의 학문을 말한다.

9 덕이 온몸에 드러난 : 원문의 '수면양배(粹面盎背)'는 《맹자(孟子)》〈진심 상(盡心上)〉 제21장에 "군자의 본성은 인의예지가 마음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는 환하게 얼굴에 드러나고 등에 넘쳐흐르며 온몸에 퍼져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온몸이 저절로 그 뜻을 알고 움직인다.[君子所性，仁義禮智根於心，其生色也，粹然見於面，盎於背，施於四體，四體不言而喻。]"라고 하였다.

안회처럼 가난을 즐겼거늘 ¹⁰	顏回自是貧猶樂
어찌하여 자하와 같은 재앙을 당했는가 ¹¹	子夏如何禍酷罹
장성한 세 아들 모두 세상을 뜨니	三子長成淪逝盡
홀로 표박하는 몸 의지할 데 없네 ¹²	一身漂迫影形危
홀아비 외로움 너끈히 떨쳐냄은 참기 어려운 일 아니오	寬排鰥獨非難忍
경서의 공부 늙어도 그침 없네	講討經書老不衰
하늘의 재앙이 끝내 이에 이르렀거늘	天使厄窮終至此
정력이 없고서야 누가 이러하라	人無定力孰如斯
다시 아내 맞아들여 새로운 삶 즐기며	俄看繼室新居樂
옛 고을 언덕에 초가집을 세웠네	更起茅齋古縣陴
까마귀 같은 여덟 자식 무엇이 부럽겠나	八子似鴉何必羨

10 안회(顏回)처럼 가난을 즐겼거늘 :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생활을 즐기면서 오로지 학문 연구에 몰두했다는 말이다. 《논어(論語)》〈옹야(雍也)〉에 “어질다, 안회여, 한 그릇 밥과 한 표주박 물을 마시며 누향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근심하며 견뎌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낙을 바꾸지 않으니, 어질도다, 안회여.〔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也〕”라고 하였다.

11 자하(子夏)와……당했는가 : 기정익(奇挺翼)의 운명이 박박하여 세 아들이 죽는 고통을 겪게 된 것을 미리 암시한 말이다. 원문의 ‘화혹리(禍酷罹)’는 공자(孔子)의 제자 자하가 서하(西河)에 살 때, 아들이 먼저 죽자 너무 슬피 곡한 나머지 눈이 멀었던 일을 비유한 말이다. 《史記 卷67 仲尼弟子列傳》

12 의지할 데 없네 : 원문의 ‘영형위(影形危)’는 ‘형영상조(形影相弔)’의 의미이다. 아무도 없고 자신의 몸과 그림자만이 서로를 위로한다는 뜻으로, 의지할 데 없는 외톨이 신세를 표현한 말이다. 이밀(李密)의 〈진정표(陳情表)〉에 “외롭게 홀로 선 채 신의 몸과 그림자만이 서로 위로할 뿐이었는데, 할머니 유씨가 일찍부터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 계시니, 신은 탕약을 만들어 모셔야지 일찍이 버리고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茆莞孑立 形影相弔, 而劉夙嬰疾病 常在牀褥, 臣侍湯藥 未嘗廢離。〕”라고 하였다. 《古文真寶後集》

두 아들 이리 훌륭할지 미처 기대하지 못했네	雙珠出蚌未曾期
세상에 인을 쌓았으니 어찌 후손이 없으리	累仁斯世寧無後
덕을 심은 집안에 과연 훌륭한 아이 있네	種德人家果有兒
소강절 ¹³ 같은 원대한 학문을 보았거늘	康節佇看成遠大
범희문 ¹⁴ 이 부모 잃은 일 누구의 뜻인가	希文誰意失嚴慈
세상을 경륜할 포부 있으나 높은 재주 숨기니	經綸抱負高才閉
공명이 더더 참봉 직분일 뿐	遲暮功名寢職耳
예전에 내가 떠돌다 먼 곳에 머물 때	昔我流離留遠地
뒤늦게 교분 맺고 깊이 알았네	晚將交契托深知
만나고 헤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이나	人間聚散元常理
서울로 돌아오니 서글픈 마음뿐	洛下歸來只自悲
작년 이즈음 다시 만날 때	去歲茲辰重會地
노쇠한 얼굴에 백발로 웃으며 맞이했지	蒼顏白髮笑迎時
무단히 병들어 누워 긴 밤 이루었지만	無端寢疾成長夜
어느 곳이든 만날 때마다 단아한 모습 보았네	何處逢場接雅儀
만사에 한없는 그리움 담고 싶으나	臨輓欲題無恨思
마음이 막혀 시를 이루지 못하네	情懷抑塞不成詩

13 강절(康節) : 북송(北宋)의 사상가인 소옹(邵雍, 1011~1077)의 시호이다. 이정지(李挺之)에게 도가(道家)의 학문을 배웠고 상수학(象數學)을 정립하여 역학(易學)의 대가가 되었다. 대표적인 저서로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가 있다.

14 희문(希文) : 범중엄(范仲淹, 989~1052)의 자이다. 강소성(江蘇省) 소주(蘇州) 사람으로,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송(宋)나라 인종(仁宗) 때의 직신(直臣)이자 명재상으로 구양수(歐陽脩), 한기(韓琦) 등과 함께 내정 개혁에 힘썼다. 저서로는 《범문정공집(范文正公集)》이 있다. 불행하게도 2세 때 부친을 여의었다. 모친은 어린 그를 데리고, 산동의 장산현 주씨 집안으로 개가하여 그의 이름도 '주열'로 바꾸었다. 이후 성장하면서 생가를 알아내고는 다시 제 이름을 찾았다.

송암 기 참봉의 부음을 듣고 놀라 애도하며 짓다

聞松巖奇參奉訃音，驚悼有作

동영(東瀛) 양진태(梁晉泰)

사문이 근래 백운거사 애도하였거늘	斯文曾悼白雲蹤
송암의 부음 또 있을지 어찌 알았으랴	豈料松巖又古凶
앞으로 호남에 우리 도가 적막하리니	從此南方吾道寂
사림의 으뜸 자리 누가 이어갈런지	不知誰繼士林宗

덕계(德溪) 황신귀(黃愼龜)¹⁵는 대방(帶方)¹⁶ 사람으로, 학문으로 세상에 명성이 있었다. 구례(求禮) 백운산(白雲山)으로 옮겨 와 살았기에 백운거사(白雲居士)라고 불렸다. 여러 차례 별제(別提)와 도사(都事) 등 벼슬자리에 제수되었으나, 끝내 벼슬에 나아가지 않다가 50세에 생을 마쳤다. 기씨 어른¹⁷은 이달 27일에 죽으니, 향년 65세였다.

15 황신귀(黃愼龜) : 미상이다. 본 저본의 권2에 〈답황참봉신귀(答黃參奉信龜)〉 및 부록에 〈계해 팔월 사일 황신귀 장상(癸亥八月四日黃愼龜狀上)〉 두 간찰에 의거하면 ‘황신귀(黃愼龜, 1633~1685)’로 추정된다.

16 대방(帶方) : 전라북도 남원(南原)의 다른 이름으로, 당(唐)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남원 일대에 대방주(帶方州)를 설치했던 데서 온 말이다.

17 기씨(奇氏) 어른 : 기정익(奇挺翼)을 가리킨다.

애도시 3수

輓章 三首

덕양 ¹⁸ 가문에 어진 인물 많더니	德陽家世盖多賢
노적선 ¹⁹ 송암이 나왔네	復見松巖老謫仙
덕행을 좋아한 지 오래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耆德久爲時輩敬
학문의 연원은 직접 옛사람에게 받았네	淵源直泝古人傳
맑은 조정의 낮은 벼슬 청운의 꿈과 멀었지만	清朝一命靑雲隔
백대의 훌륭한 명성 백일처럼 환하네	百代高名白日懸
가장 기쁜 일은 만년에 후사 둔 것	最喜晚年方有後
황천에 계신 영령 멀리서 위로하네	英靈遙慰九重泉

경신년(1680, 숙종6) 이후 문곡(文谷)²⁰과 서하(西河)²¹ 여러 선생이 공을 천거하였

18 덕양(德陽) : 기준(奇遵, 1492~1521)의 호이다. 고양(高陽) 출신으로, 본관은 해주(幸州), 자는 자경(子敬), 호는 복재(服齋)·덕양(德陽), 시호는 문민(文愍)이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1514년(중종9) 문과에 급제하여 출사하였으나,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어 온성(穩城)에 유배되었다가 처형되었다. 고양의 문봉서원(文峯書院), 온성의 충곡서원(忠谷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저서는 《복재집(服齋集)》·《덕양유고(德陽遺稿)》·《덕양일기(德陽日記)》 등이 있다.

19 노적선(老謫仙) : 기정익(奇挺翼)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문의 '적선(謫仙)'은 인간 세상에 귀양 온 신선이란 뜻으로, 원래는 이백(李白)을 말한다.

20 문곡(文谷) :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의 호이다.

21 서하(西河) : 이민서(李敏敍, 1633~1688)의 호이다. 자는 이충(彝仲),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영의정 이경여(李敬輿)의 아들이고 송시열의 문인이다. 1652년(효종3)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대사간과 대제학을 지냈으며, 1683년 강화부 유수(留守)가 되고, 예조·호조·이조의 판서(判書)를 차례로 역임한 뒤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가 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으나 공은 사양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예순 살에 재취하여 두 아들을 두었다.

옛날 하서 문하에 금강 ²² 어른이 있어	河門舊有錦江翁
우리 증조부와 출처를 같이 했지	與我曾公出處同
예전에는 두 집안이 난형난제였거늘	伊昔兩家稱伯仲
지금 4대에 이르러 성쇠가 다르네	于今四世異衰隆
학구당 안에서 새 가르침 잇고	學求堂裡承新誨
여리촌에서 옛 풍속 따랐네	如理村中揖古風
서글퍼라 새벽 노래 ²³ 이제 멀어지고	惆悵晨歌從此遠
사림은 텅 비고 남방은 초췌하겠지	南方憔悴士林空

금강(錦江) 기공(奇公)과 고암(鼓巖)²⁴ 선조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선생의 동문 제자였는데, 공은 금강 기공의 현손(玄孫)이다. 조부의 행장에도 이 말이 있다.

어려서 덕양 선생께 인사드린 뒤로	少時曾拜德公床
유림의 어른다운 행동 오랫동안 알아 왔네	久識儒林長者行
후배들이 그 덕에 길이 감화되고	永使後生薰德性
선조의 기강 이어받아 가만히 빛을 드러냈네	況蒙先紀發潛光

22 금강(錦江) : 기효간(奇孝諫)의 호이다.

23 새벽 노래 : 만가(輓歌)인 <해로가(薤露歌)>를 달리 부른 것이다. 해로가의 1장(章)이 “부추 위의 아침 이슬은 어찌 그리 빨리 마르는가.[薤上朝露何易晞]”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24 고암(鼓巖) : 양자징(梁子激, 1523~1594)의 호이다. 자는 중명(仲明)이다. 소쇄처사(瀟灑處士) 양산보(梁山甫)의 아들이고,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사위이자 문인으로 유학에 깊은 성취를 보였으며, 도의로써 송강(松江) 정철(鄭澈)·중봉(重峯) 조헌(趙憲)·우계(牛溪) 성혼(成渾) 등과 교유하였다.

단표누항에 군자삼락 지니고²⁵

簞瓢陋巷存三樂

당채²⁶의 온화한 바람 집 가득 넘쳐나네

棠棣和風藹一堂

예순 다섯 나이에 세상을 뜨니

六十五年觀化盡

침문 곁에서 눈물 뿌리며 슬퍼하네

不堪揮淚寢門傍

25 단표누항(簞瓢陋巷)에 군자삼락(君子三樂) 지니고 :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생활을 말한다. 《논어(論語)》〈옹야(雍也)〉에 공자가 안회를 칭찬하여 “어질도다, 안회여! 한 대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로 누추한 시골에 사는 어려운 생활을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으니 참으로 어질도다, 안회여! [賢哉回也! 一簞食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라고 하였다. 원문의 ‘삼락(三樂)’은 군자삼락을 가리키는 말인데, 맹자(孟子)가 이르기 를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에 왕 노릇하는 것은 여기에 끼지 않는다. 부모가 다 생존하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仰不愧於天, 俯不忤於人, 二樂也。得天下英才, 而教育之, 三樂也。]”라고 하였다. 《孟子 盡心上》

26 당채(棠棣) : 형제간에 우애롭게 지내는 즐거움을 말한다. 《시경(詩經)》〈당채〉에 “당채의 꽃이여, 환하게 빛나네. 무릇 지금 사람들로서는, 형제만 한 이가 없다네. [棠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고 하였다.

송암 기공 참봉을 애도하다

輓松巖奇公參奉

고상해라 기 처사

신세 절로 한가했네

만년의 절개로 명성이 드러나고

궁한 운명에 학문 더욱 통달했네

임금의 부름에 나아가기 게을러

나물 달게 먹으며 삶을 마쳤네

그대가 가니 나는 누구를 의지할까

살아서 함께했으니 죽어서도 같이하리

尙高奇處士

身世自閒中

晩節名猶顯

窮途學益通

懶從徵召起

甘與草萊終

子逝吾安放

生同死亦同

여러 현인의 편지²⁷

諸賢手札

기 상사의 경안²⁸ 奇上舍經案

(우암 노선생이 송암에게 보낸 편지)

일찍이 보낸 편지로 인하여 의난처(疑難處)를 강론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네. 그대는 보잘것없는 나를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네. 이에 고마우면서도 한편 부끄러워 할 말이 없네. 다만 인편이 없어서 바로 답장하지 못하였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네. 대략 서울로 가는 심부름꾼에게 외람되지만 답장을 가지고 가게 하였으니, 그대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네.

나는 지금 이 상사(上舍)의 행차에 편지를 다시 받고서야 그대가 돌아가려고 의도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네. 나는 부질없이 의심하였고, 또 한편으로 황송하니 나 자신을 해명할 말이 없네. 만에 하나

27 여러 현인의 편지 : 본 번역문의 대본은 기정익(奇挺翼)의 손자 기일상(奇逸相)이 할아버지의 유고 《송암유고(松巖遺稿)》 4권으로, 송환기(宋煥箕)의 서문(序文)과 오재순(吳載純)의 발문(跋文)을 받아 1788년(정조12)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송암집(松巖集)》 건(乾)·곤(坤) 2책이다. 그 뒤 후손 기노백(奇老栢)이 《송암집》 2책에 수록되지 않은 글을 모아 정홍채(鄭泓采)의 발문을 덧붙여 1955년에 석인본으로 《송암선생문집(松巖先生文集)》 상·하 2책을 간행하였다. 원문의 〈제현수찰(諸賢手札)〉은 기정익이 사우(師友)들에게 보낸 편지 이외에 사우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말한다. 그러나 대본에는 제현의 편지마다 제목이 없다. 여기에서는 제목을 ‘()’의 형태로 달아 두었는데, 보낸 사람의 문집 등에서 의거하여 제목을 추정하여 붙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모(某)가 보낸 편지’라고만 하였다.

28 경안(經案) : 경서를 올려놓은 책상을 말한다.

이 편지가 그대에게 전해지지 않더라도 논한 바의 득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충고를 받겠네. 오직 이것을 바랄 뿐이네. 마침 장사 지내는
일이 있어 상여(喪輿)가 막 당도하니, 비통하고 심란한 마음이 유난히
심하니 이만 줄이겠네.-기유년(1669, 현종10) 7월 4일, 시열(時烈) 드림.-

(우암 노선생이 송암에게 보낸 편지)

나의 집이 불행하여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네.²⁹ 먼 곳에서 부음을
들으니 슬픔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겠네. 멀리서 그대가 특별히
위로해 주었지만 슬픈 감회가 밀려오네.

나는 10여 년 동안 산속에 숨어 지내며 친구들의 애경사를 일절 듣지
못했는데, 지금 편지를 받고서 슬픈 마음을 견디지 못하며, 또 귀신의
이치가 매우 어긋났음을 탄식하네. 사람은 태어나 혈기로 몸이 만들어
져 꺾이고 무너져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그 사이의 일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감히 말할 수도 없으나,
벗들이 어찌면 한두 명은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네. 날씨가 벌써 추워졌
으니, 그대에게 신의 가호가 있어서 먼 곳에서 정성을 보여 준 그대를
위로해 주었으면 하네. 병들어 대필을 하다 보니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하네, 삼가 감사드리네.-정사년(1677, 숙종3) 10월 14일, 기복³⁰ 상중(喪中)의
죄인 송시열(宋時烈) 올림.-

29 아내가……떠났네 : 송시열(宋時烈)의 부인 이씨(李氏)의 죽음을 말하는데, 이때 송
시열은 장기(長鬢) 유배지에 있었다.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권7 연보6에 “3월
22일 부인 이씨의 부음(訃音)을 들었다.[三月 戊戌, 聞夫人李氏訃.]”라고 하였다.

30 기복(期服) : 상기(喪期)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하는데, 조부모(祖父母)·백
숙부모(伯叔父母)·형제자매(兄弟姊妹)·처(妻) 등의 상(喪)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암 노선생이 송암에게 보낸 편지³¹)

지난가를 문안 편지를 받고 나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는 그대의 성대한 뜻을 이미 받았네. 또 ‘미발(未發)’의 말을 검하여서 보여 주었는데, 함께 강구(講究)하고 질의(質疑)하는 사람처럼 그러하였네. 이것은 스스로 알아 깨칠 수가 없으니, 부끄럽고 황송할 뿐이네. 그 뒤로 나는 줄곧 인편이 없었고 게다가 개장(改葬)하는 일 등이 있었기에, 그만 빠트리고 답장하지 못하였네.

내가 갑자기 임금의 은택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이가 부옹(涪翁)이 서감(西監)으로 취임한 고사³²의 의미로 권면하였으니, 이것은 주체님께 선현의 행위를 모방한 것이네. 그러므로 나는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사은숙배한 뒤에 곧바로 귀로(歸路)에 오르려고 하였네. 그런데 갑자기 국가로부터 지문(誌文)을 지으라는 명(命)³³을 받고 지금까지 머무르게 되었네. 이는 처음 계획한 일이 아니기에 두려움으로 날을 보내고 있네. 마침 그대가 다시 멀리서 보내 준 편지를 받아 보고 그대의 안부가 평소처럼 좋다는 것을 알게 되니, 기쁜 나의 마음을 표출하는 데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대가 별지에서 한 말에 대해 작은 종이에 간략하게 의심난 바를

31 우암……편지 : 1680년(숙종6) 2월 6일에 송시열(宋時烈)이 기정익에게 보낸 편지 〈답기자량(答奇子亮)〉을 말한다. 《宋子大全 卷102 書》

32 부옹(涪翁)이……고사 : 송(宋)나라의 정이(程頤)를 가리킨다. 정이는 부주(涪州)로 귀양을 갔는데, 휘종(徽宗) 원부(元符) 3년(1100)에 귀양지인 부주에서 돌아와서 서경 국자감(西京國子監)에 제수되자, 명을 받고는 곧 나아가 알현(謁見)하였다. 《宋史 卷427 程頤列傳》

33 지문(誌文)을 지으라는 명(命) : 송시열이 효종의 묘지(墓誌)를 찬술한 〈영릉지문(寧陵誌文)〉을 가리킨다. 《宋子大全 卷9 誌文封進筭己亥九月》《宋子大全 卷181 寧陵誌文》

적어 보냈으니 혹시 답장을 보내주어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준다면 참으로 다행이겠네. 대개 《중용(中庸)》 수장(首章)에서 주자(朱子)는 “경계하고 두려워함으로부터 요약하여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에 이르면, 조금도 치우치고 기울어짐이 없고 그 지킴을 잃지 않게 되니, 그 중도(中道)를 지극히 하여 천지가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였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사(子思)가 말한 의미에 대해 대단히 극진하게 발명(發明)하여 조금도 부족한 뜻이 없네. 그대는 선생(주자)이 다시 무슨 말을 더하기를 바라는가. 이것은 내가 우미(愚迷)하여 감히 알지 못하는 것이네. 나를 깊이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말까지 하게 되었는데, 도리어 불안함만 더하네. 나는 일찍이 길에서 넘어져 심하게 다쳤는데, 지금에 이르러 매우 고통스럽네. 대필하여 글을 쓰니, 이만 줄이네.-경신년(1680, 숙종6) 12월 6일, 올림.-

(우암 노선생이 송암에게 보낸 편지³⁴)

작년에 지나가는 길에서 만남은 실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일이었네. 이후로 나는 마음속에 그대가 늘 그리웠는데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안부를 물을 편지를 보내지 못하였네. 지금 역말 편으로 도착한 편지와 전번의 별지를 받았는데, 그 무겁게 의탁하는 그대 마음은 진실로 비천(鄙賤)하고 비루(鄙陋)한 사람이 함부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읽고 나서는 마음이 방황하여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모르겠네. 다만 일찍이 사우에게 들었는데, 공자(孔子)와 맹자(孟子) 이후로 이

34 우암……편지 : 1669년(현종10) 7월 4일에 송시열이 기정익에게 보낸 편지 <여기자량 정익(與奇子亮挺翼)>을 말한다. 《宋子大全 卷102 書》

학문이 전해지지 않고, 경서에 있는 것도 오묘하고 정밀하고 은미하여 후세의 사람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였네. 그러므로 학문에 뜻을 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문을 찾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네.

그러나 주자(朱子)가 드러내 밝힌 이후로부터는 정밀하고 거침과 근본과 말단과 작고 큼과 거대하고 자세함이 거리낄 것이 없이 명백해졌으니, 가는 터럭만큼도 의심의 여지가 없네.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은 단지 그 말을 지키면서 변화하지 않고 그 순차를 따르면서 등급을 뛰어넘지 못하니, 곧 자신이 지닌 재주의 밝고 어두움에 따라 학문의 수준도 절로 얕음과 깊음이 확정되어 버렸으니, 여기에서 나아가 논의하고 헤아리며 따지는 공부를 하지 않게 되었네.

지금 밝은 식견과 독실함을 지닌 그대도 이런 공부를 하지 못하는데, 도리어 소경 같은 나에게 눈을 빌리고 귀머거리에게 귀를 빌려서 하려고 한다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비루(鄙陋)한 내가 이에 부끄러워 식은땀이 등을 적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네.

부모님을 봉양하는 도리를 어진 그대가 어찌 참으로 모르고 이렇게 운운하였겠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시험 삼아 물어본 것이라면 종내 내가 아는 것을 숨겨 둘 수는 없네. 공자는 자로(子路)에게 “콩죽을 끓여 먹고 물을 마시더라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을 극진히 한다면, 이것이 바로 효이다.”³⁵라고 말하였네. 그러므로 자식의 도리에 여기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자는 일찍이 “아버이의 연세가 날로 늙어 가는데 살아갈 일이 더욱 쓸쓸하다.”³⁶라고 탄식하였

35 콩죽을……효이다 :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아버이를 극진히 잘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啜菽飲水，盡其歡，斯之謂孝。”《禮記 檀弓下》

36 주자는……쓸쓸하다 : “親年日老，生事益聊落。”《朱子大全 卷39 答柯國材》

네. 이 두 경우에 대해 스스로 헤아려 보고 따져서 처신해야 하니, 남에게 물을 만한 일도 아니요 또한 남이 알고 있을 만한 일도 아니라네. 아무개(송시열 자신을 말한다) 같은 사람은 이 두 경우에 대해 결코 한 터럭만큼도 비슷한 점이 없는데, 지금은 부모까지 여의어 봉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만 스스로 슬픔을 머금을 뿐이네. 그런데 지금 그대가 보낸 편지를 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굴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대와 만나 얘기할 날을 기약하지는 못하니 다만 무더위와 장마에 부모님 모시며 더욱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네. 잔병이 심하여 대신 글을 쓰게 하니 이만 줄이네. 멀리서 양해 바라네. -신유년(1681, 숙종7) 3월 13일,³⁷ 시열(時烈) 올림.-

(송시열이 답한 편지)

뜻하지 않는 흥변으로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편지를 지금 받고 놀란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삼가 생각건대 부부의 의리가 중대하니, 슬프고 침통함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삼가 깊이 자신을 너그럽게 억제하여, 멀리 있는 사람의 정성에 답해 주길 바라네.

나는 병으로 궁벽한 골짜기에 있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폐(廢)해져 버렸네. 그러므로 내가 달려가 위로하는 일은 바랄 수도 없고, 안부를 묻는 편지도 이렇게 때에 늦게 되었네. 헤아려 용서해 주길 바라네. 삼가 편지를 보내네. -임술년(1682, 숙종8) 3월 27일, 시열(時烈) 올림.-

37 3월 13일 : 《송자대전(宋子大全)》권102 〈답기자량 정익(答奇子亮挺翼)〉에는 “기유 칠월 사일(己酉 七月 四日)”로 표기되어 있다.

(박세채(朴世采)가 보낸 편지)

멀리서 생각건대 맑은 가을 날씨에 조용히 수양하는 당신은 다복(多福)하리니 구구(區區)한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는 내침을 당해 떠도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당신의 훌륭한 명성을 듣고 탄복한 지 오래입니다.

돌아보건대 저는 평생 몸이 파리하여 병이 있고 나이가 또 노쇠해져 이제 더 이상 학문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으니 감히 사방 사우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편지 한 통도 올리지 못하고 고결한 인품을 손상케 하였으니, 어떻게 비열한 내가 스스로 안심하겠습니까? 다행히 해마다 호남의 안찰사(按察使) 신익상(申翼相)³⁸이 전해 주는 인편으로 인하여 당신이 율곡 선생에 대하여 논의한 별도의 글을 두어 번 조심스럽게 읽어 보고 연달아 감탄하고, 더욱 고명(高明)하신 당신이 옛날의 도를 살피고 여진 이를 존경하는 지극한 뜻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일은 선생이 지은 <착월도(捉月圖)>³⁹는 과거시험장 답안지인데, 도가의 말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주자(朱子)의 《집록(集錄)》을 보았는데, 때때로 이를 면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경연일기(經筵日記)》 사본 같은 경우는 잘못되어 책을 전부 버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여 우옹(尤

38 신익상(申翼相) : 1634~1697.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숙필(叔弼), 호는 성재(醒齋)이다. 1680년(숙종6) 경신환국 때 특지(特旨)로 도승지에 올랐고, 이조 참판(吏曹參判)·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부제학(副提學)·대사성(大司成)을 거쳐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에 제수되었다. 저서는 시문집으로 《성재집(醒齋集)》 3권이 있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39 착월도(捉月圖) : 《율곡선생전서 습유(栗谷先生全書拾遺)》 권1 <착월도>에 보인다.

翁 송시열의 호)과 명재(明齋 윤증의 호) 등 여러 공과 함께 간행에 대해 이리저리 따져 보았는데, 우옹도 처음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이 책의 실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된 이후로는 다시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간행한 뒤에 그 목판을 석담서원(石潭書院)에 보내 놓고 여러 학생으로 조심히 지켜서 경솔하게 인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 망령스럽고 경솔한 죄에 뒤늦게나마 충분히 속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봄에 해서(海西 황해도)의 선영에 가서 머물러 있다가 집에 돌아오니 무더위로 인한 질병이 때맞추어 낫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나는 갑작스럽게 안찰사인 신익상이 체직(遞職)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후에 소식 편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대략 일상생활이나마 적어서 보내 이전 답장하지 않은 태만한 죄를 사과드립니다. 너그럽게 헤아려 주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삼가 그대는 굵어살피십시오. -임술년(1682, 숙종8) 8월 17일, 박세채 올림.-

(문곡(文谷)⁴⁰이 송암에게 보낸 편지⁴¹)

①

국상의 애통함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낭주(朗州)⁴²에 방문함을 지

40 문곡(文谷) :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의 호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구지(久之)이다. 1646년(인조24) 진사시와 1651년(효종2) 알성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육조의 판서를 두루 거쳤고, 특히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 명사들을 조정에 선임하는 데 힘썼다. 저서는 《문곡집(文谷集)》 28권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41 문곡이……편지 : 저본에서는 ①과 ②가 한 편지로 되어 있으나, 《송암유고(松巖遺稿)》에는 ① 〈문곡여송암서(文谷與松巖書)〉와 ② 〈우(又)〉 두 편지로 구분되어 있다.

금까지 마음에 잊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그대가 부모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고 슬퍼 지름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궁색하게 귀양살이하는 사람은 천리 밖으로 위문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마음속에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은혜로운 편지까지 받으니 감사와 부끄러움이 교차하여 밀려왔습니다. 그대가 선묘(先墓)의 문자를 부탁한 일은 제가 비록 합당한 사람은 아니나 감히 성대한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환으로 고통스럽게 지내기에 글을 지을 겨를이 없어 지금껏 시일만 끌었으니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틈을 보아서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지난번 병환이 가볍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운 마음이 더욱 간절한데, 보내준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늘한 가을 날씨에 몸의 조섭(調攝)으로 병이 나아 편안하리라 짐작되니, 위로가 되는 나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름이 다 가도록 쌓인 병이 몸에서 떠나지 않아 날마다 신음하면서 그저 운명에 맡길 따름입니다. 상소를 올린 유자(儒子)를 멀리 귀양 보내는 것이 이미 국법으로 정해졌으니, 남쪽의 선비가 어떻게 홀로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실로 생각해 봄직하니 어떻게 여기십니까? 상소의 원문과 계초(啓草 장계(狀啓)의 초안(草案))를 보여 주어 답답한 마음을 없애 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감사의 글을 올립니

42 낭주(朗州) : 전라남도 영암(靈巖)의 옛 이름인데, 1674년(현종15)에 김수항(金壽恒)은 이곳으로 유배되었다. 《宋子大全隨筭 卷2》

다. -문곡 김수항(金壽恒) 씀.-

(기자량(奇子亮)에게 답함⁴³ 1675년)

지난해 보낸 편지를 받은 이후로 사모하는 마음이 한층 더해지는데, 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사람의 일은 마치 겨우살이 하는 벌레처럼 지내느라 소식을 전하여 나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편지가 멀리서 와 가르침을 주니, 학문에 대한 열정과 나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처럼 정중(鄭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쁘고 송구한 마음을 부끄러워서 무어라고 비유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그동안 건강하게 지냈음을 알았습니다. 조카를 잃은 슬픔은 잘 다스려 떨쳐 버려야 할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뒤 봄이 다시 무르익었습니다. 맑고 따스한 봄 날씨에 더욱 잘 지내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한 해가 지나도록 병으로 신음하며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머리는 이미 하얗게 변해 버렸습니다. 저의 비루한 자질은 변화되기 어려워 돌연히 보통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 슬프고 한탄스럽습니다.

보내준 편지에 대해서는 삼가 별지(別紙)로 다시 답장을 올렸습니다. 만약 합당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다시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가 '남중(南中) 학자'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습니다만 한스럽게도 홀로 떨어져 지내는 바람에 서로 교유하여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 서글플 따름입니다. 지난번에 이곳 서원(書院)의

43 기자량(奇子亮)에게 답함 : 《명재선생유고(明齋先生遺稿)》 권17 <서(書) 답기자량(答奇子亮)>의 '역해운운(易解云云)' 부분에 실려 있다.

일이 있어 영남(嶺南)의 선비들을 만나느라 조금 바빠서 미처 편지를 부치지 못하고 이제야 비로소 인편을 통해 인사를 올립니다. 며칠 만에 그대에게 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디 자중자애(自重自愛)하여 우러른 마음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삼가 헤아려 주길 바라며 감사의 편지를 올립니다.-을묘년(1675, 숙종1) 3월 21일, 윤중(尹拯).-

(기자랑에게 답함⁴⁴ 1684년 7월 4일)

뜻밖에 편지를 받고 그대가 우환을 겪은 뒤에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위안이 되는 마음을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편지에 가득한 정감 어린 말은 실로 나를 염려해 주는 지극한 마음에서 나왔으니,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감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본래 용렬하고 비루하여 학문에 알맹이가 없고, 식견이 어둡고 짧은 탓에 일 처리를 잘못하여 끝내는 선친에게 치욕을 끼치고 세도(世道)에도 거둑 누(累)를 끼쳤으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지은 죄는 죽음으로써도 그 책임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들으니, 내가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의 호)에게 보낸 편지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노형이 한번 본다면 구구한 곡절을 잘 알 것입니다. 학문을 논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한 것은 나의 망견으로 이른바 ‘불평(不平)’이라고 한 것과는 서로 다른 일이니, 감히 노형이 책망했던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친이 모인(某人)과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선친을 비방하기

44 기자랑에게 답함 : 《명재선생유고(明齋先生遺稿)》 권17 <서(書) 답기자랑(答奇子亮)>에 실려 있다.

위해 만든 것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할 말은 많으나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으니, 나중에 내 생각을 토로하겠지만 한번 설파할 길이 없어 한스럽습니다. 일을 공정하게 보고 원칙에 순응하는 것은 본래부터 정당한 도리입니다. 어찌 유독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만 깊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문을 닫고 허물을 반성하면서 자숙해야 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노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승을 배신하였다는 말⁴⁵이 북인(北人)의 상소 속에 이미 낭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두 나 스스로 자초한 것이니, 다시 누구를 허물 하겠습니까. 남평(南平)이 가까이 있으니, 혹 서로 만나게 되면 조금이나마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인편이 옆에서 재촉하고 눈이 너무 어두워 겨우 답장을 씁니다. 이만 줄입니다. -갑자년(1684, 숙종10) 6월 7일.⁴⁶ 윤증.-

(윤증이 답한 편지)

말합니다. 어제 변 상사(邊上舍)가 와서 삼가 보내준 편지를 받아 보고, 가을 이후로 평소 생활에 평안하게 지내며 곧바로 밀어닥친 얼음처럼 차가운 날씨에 건강이 더욱 좋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제 마음이

45 스승을 배신하였다는 말 : 원문의 '사에(射羿)'는 하(夏)나라 때 유궁(有窮)의 임금으로 성은 이(夷)인데 활의 명수이다. 방몽(逢蒙)이라는 사람이 예에게 궁술을 배우고는, 예가 있는 한 자신이 천하에서 제일가는 궁사가 될 수 없다고 여겨 예를 시해하였다. 여기서는 이 고사를 통하여 윤증(尹拯)의 아버지 윤선거(尹宣舉)가 스승 송시열(宋時烈)을 배반하였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46 6월 7일 : 원문에는 누락되었으나, 《명재선생유고(明齋先生遺稿)》 권17 <서(書)>에 의거해 보충하였다.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어찌 비천한 저의 정성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편지 속에 있는 당신의 말을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변우(邊友)가 또한 그대가 나에게 충고하는 말을 전해 주었는데 앞뒤로 이처럼 부지런히 나를 인도하고 충고해 주니,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어찌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가슴에 새겨 놓으니 감사의 말을 무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사이의 곡절(曲切)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제 속마음에 대해서는 노형에게는 숨기지 않고 전부 다 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바야흐로 제가 문을 닫아걸고 허물을 뉘우치며 자정(自靖)하여 죽기를 기다리는 것을 제가 지켜야 할 분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서찰을 주고받은 일은 마침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니 노형은 묵묵히 헤아려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집의 재앙을 거듭 당하여 두어 달 사이에 연달아 당숙부와 숙모, 그리고 서숙부의 초상을 만나 비통하고 괴로운 마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또 저는 늙음과 병환이 해마다 더해져 깊은 병 속에서 신음하며 세월을 보내니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기회가 전혀 없어서 다만 가슴이 답답하여 병이 생길 것 같으니, 공경히 사례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변우가 돌아가는 길에 다시 만나게 되었기에 바쁜 틈을 타서 대충 답장을 씁니다. 이만 줄입니다.- 월 일 윤중.-

(신익상(申翼相)이 답한 편지)

2월 15일에 보낸 편지를 3월 20일 무렵에 비로소 받아 보았는데, 그때 사촌 동생의 상사(喪事 초상(初喪))를 만나 슬퍼하던 나머지 병이

나서 오랫동안 일을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리며 지금까지 답장이 늦어졌으니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편지에서 가르쳐 준 내용을 통해 삼가 간곡하게 돌봐 주는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또한 이전에 여러 차례 편지로 가르침을 주었는데, 일일이 답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지 않고 인도해 주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였으니, 나에 대한 지극한 염려가 없었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도 감사하여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당한 전후의 일은 모두 주고받은 사적인 편지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확대되어 온 것이니, 이 때문에 조심이 되어 문을 닫고 허물을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그 다짐을 깨기 어려워 입을 다물고 조용히 지내고 있으니, 노형은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처지에 대해서 그대가 충고한 것이 아직은 아픈 곳을 찌르지는 않았지만, 노형의 정밀한 식견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이처럼 시끄럽게 다룰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편지 끝에 ‘죄를 저질렀다고 한 말씀’에 놀라고 두려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지어 이에 연루된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니, 또다시 그대에게 누(累)를 주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살펴보건대 예로부터 양쪽 사이에 자리한 사람은 으레 양쪽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게 마련이니, 이는 또한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잠시 질문을 중단하고 시끄러운 일이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려 주기 바랍니다. 노형이 나를 가르쳐 주고 내가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여 깊이 있게 토론할 날이 어찌 없겠습니까? 진심으로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⁴⁷ 나는 집안의 초상과 재앙이 함께 거듭되어 항상 침통하게 날을 보내고 있는데 병까지 더해져 살아갈

마음이 다 없어지고, 눈이 때때로 짙은 안개가 일어난 것처럼 어두워져
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삼가 점차 더워지는 날씨에 베풀하
지 않는 생활이 다복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인편에 은혜로운 답장을 받드니 사모하고 우러르는 제 마
음을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울곡속집》을 교정하는 일은 그대의 승낙
을 받으니 사문의 다행입니다. 본책 제1권을 올리니 받아 살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좌연(左沿)을 순찰하러 나서는 길에 급히
써서 보내니, 이만 줄입니다. 삼가 살펴 주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
다.-임술년(1682, 숙종8) 2월 초 길일(吉日)에 신익상 올림. 시호는 정간(貞簡), 우
의정이다.-

(신익상이 보낸 편지)

가뭄과 무더위 속에 당신이 편안하기를 못한 제가 우러러 바랍니다.
전에 건강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미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지내는데 가뭄 재해가 이곳까지 이르러 걱정스러운
마음이 술에 취한 것처럼 그칠 줄을 모릅니다.

《울곡집(栗谷集)》은 교정이 이미 끝났으면 되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보잘것없는 부채를 약소하나마 보내드립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입
니다. 삼가 굵어살펴 주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임술년(1682, 숙종
8) 5월 13일, 익상(翼相). 여러 종류의 부채 6자루를 보냅니다.-

47 당신이……바랍니다 : 1685년(숙종11) 5월 8일에 윤증(尹拯)이 기정익(奇挺翼)에
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이다. 《明齋先生遺稿 卷17 書 答奇子亮》

(조상우(趙相愚)⁴⁸가 보낸 편지)

남쪽 지방을 오가면서부터 훌륭한 명성을 흠모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름 사립문을 두드리지 못하였으니, 어찌 우러러 보는 그리움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무더위와 장마 속 일상생활에 신의 가호가 있다고 하니, 저의 그리워하는 마음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소생이 내려와 이 지방을 다스렸는데 마침 흉년을 당하였습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굶주림을 구제할 방도를 고민하다 보니, 편지를 한번 보내 안부를 물어보려는 생각만 지니다가 결국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소생이 민첩하지 못한 죄입니다. 우연히 읍시 한 수를 지어 그리워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해지길 기다려 한번 찾아뵙고자 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만 줄입니다. 삼가 굽어살펴 주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계해년(1683, 숙종9) 6월 19일, 조상우 올림. 석어 2속(東)과 장지 1속을 보냅니다.-

48 조상우(趙相愚) : 1640~1718. 자는 자직(子直), 호는 동강(東岡), 본관은 풍양(豐壤)으로 이경석(李景奭)·송준길(宋浚吉)의 문인이다. 벼슬은 우빈객(右賓客)·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을 거쳐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병조 판서(兵曹判書)가 되었다.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지냈으며, 1709년(숙종35) 기로소에 들어가 이듬해 내의원 제조를 맡고 있을 때 최석정(崔錫鼎)·서종태(徐宗泰)의 분란에 휩쓸려 파직당하였다. 남평의 용강사(龍岡祠)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효헌(孝憲)이다.

〈이 어사가 황징군에게 주다〉라는 작품의 운자를 써서 기처사 도안에 보내다

用李繡衣贈黃澂君韻 奉訊奇處士道案

해마다 칠월이면 처음처럼 애통하여	年年七月慟猶初
매번 하시를 외며 눈물로 소매 적시네	每誦河詩淚濕裾
그대가 끊어진 맥을 일찍부터 찾았으니	嘉子早能尋墜緒
그대에 의지하여 유서를 공부하려네	憑君將欲究遺書
지음이 적음을 오래도록 한탄하더니	久歎四海知音少
천 겹이나 멀리 있어도 얼굴을 마주한 듯하네	雖隔千重接面如
백암 ⁴⁹ 에 가을 달 밝으면	擬待白巖秋月白
멀리 그대의 집에서 하룻밤 나란히 누우려네	一宵聯枕遠公廬

계해년(1683, 숙종9) 6월 초순에 조상우 올림.

(소두산(蘇斗山)⁵⁰이 보낸 편지)

상중(喪中)이라 인사를 생략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늘이 도와주지 않

49 백암(白巖)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백암을 가리킨다.

50 소두산(蘇斗山) : 1627~1693.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망여(望如), 호는 월주(月洲)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1675년(숙종1) 제주 목사로, 이어 강릉 부사(江陵府使)·의주 부윤(義州府尹)·함경북도 병마절도사(咸鏡北道兵馬節度使)·동래 부사(東萊府使)·공홍도 관찰사(公洪道觀察使)·공홍도 수군절도사(公洪道水軍節度使) 등을 거쳐 평안도(平安道)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서인이 실각되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 율분 끝에 병사하였다. 시문은 《월주집(月洲集)》이 있다.

아 거듭 하늘이 무너지는 일⁵¹을 당하였으니, 신하와 백성이 국상(國喪)을 당한 애통함이 어찌 끝남이 있겠습니까? 지난번 김형의 인편으로 형의 근래 소식의 그 대략을 알게 난 뒤, 편지를 보내려고 하였는데 병이 -원문 빠짐-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자못 한탄하고 있었는데 지금 뜻밖에 형의 편지가 먼저 도착하여 두세 번 펼쳐 읽어 보니, 마치 다른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형이 고요히 지내는 가운데 건승함을 알고 구구(區區)한 저의 슬픈 마음에 위로됨을 절로 그만두지 못하였습니다.

형이 초상(初喪)을 당한 재앙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덕을 쌓은 형의 가문에 연이어 참혹한 일이 벌어졌으니, 하늘이 어찌 차마 내린 것이겠습니까. 또한 헤아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복받쳐 올고 있으니 마치 그 죄가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올의 실 같은 생명이 모질게도 빨리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어느덧 대상(大祥)의 날이 다가왔지만 애통함이 끝이 없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질병이 날마다 더해지고 침투하여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래도록 신음과 고통을 일삼다가 지금 산증(痲症)⁵²이 나타나니, 이는 기회를 틈타 병이 거듭 일어난 것입니다. 혹 더해지기도 하고 혹 가벼워지기도 하나 날이 오래 지나도 낫지 않으니, 이러한 곤경에 빠져 회생하지 못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김형이 -원문 빠짐- 가르쳐 준 덕택입니다. 형 또한

51 거듭……일 : 국상(國喪)을 말하는데, 1659년(효종10) 효종의 죽음과 1674년(현종15)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의 죽음을 가리킨다.

52 산증(痲症) : 고환이나 음낭이 커지면서 아프거나 아랫배가 켕기며 아픈 증상을 가리킨다.

병의 상태가 무거워지거나 가볍게 되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효험이 있다면 이는 첨형(僉兄)의 은덕일 것입니다.

저는 새로 장지(葬地)를 택하는 끝 무렵에 지사(地師)가 병을 조심 하라는 말을 믿지 않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점점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배와 가슴의 고통이 점점 깊어져 마침내 더할 나위 없이 고통스런 지경으로 빠졌으니, 형이 잠깐 아팠다가 바로 멈추는 것과는 그 병의 깊고 얕음과는 절로 다릅니다. 형의 생각에는 자신이 먼저 아팠고 아우는 뒤에 아팠기에 은연중에 먼저 병에 대해 깨친 것으로 자처하였으니, 곧 형이 곧잘 하는 병폐일 따름입니다.

감여술(堪輿術 풍수지리)은 정학(正學)과는 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근원은 음양에서 나오고 오행과 팔괘가 다 여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자세하게 안다면 치지(致知)의 일이고, 성실하여 거짓이 없다면 성의(誠意)의 일입니다. 《대학》 한 권의 도리가 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채서산(蔡西山)이 스스로 점쳐 놓았던 일⁵³로 충분히 증거를 댈 수 있으니, 주자(朱子)를 독실하게 믿은 그가 어찌 나를 속였겠습니까? 그러나 지술(地術)⁵⁴은 학술(學術)만 못하고 음지(陰地)의 좋음은 심지(心地)의 좋음만 못합니다.

지금 형의 약석(藥石)⁵⁵의 가르침은 아우의 병에 정확하게 맞아 지금

53 채서산(蔡西山)이……일 : 서산(西山) 채원정(蔡元定, 1135~1198)이 자기의 밋 자리를 생전에 미리 점지하여 사 두었던 일을 가리킨다.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의하면 “계통(季通, 채원정)이 죽자 그의 관(棺)이 진파(陳坡) 언덕 위에 있는 절 가운데 돌아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전에 그가 다니던 절 위에 밋자리를 이미 사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54 지술(地術) : 풍수지리설에 근거를 두고 지리를 살펴 밋자리나 집터 등의 좋고 나쁨을 알아내는 술법을 말한다.

이후로부터 바로 고쳐질 것입니다. 아우가 여기(감여학)에 뜻을 두었으나 생각을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 빠짐~~ 일이 다급하게 되었는데도, 다만 남의 입만 쳐다보고 자기 견해가 전혀 없는 것이 싫어서입니다.⁵⁶ 제가 약간이나마 감여술을 이해하려고 한 것은 그 학술을 끝어다가 우리 학문을 증명하여 길흉이 어떠한가를 밝히려고 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정이 뒷자리를 잡는 것에 달렸으니 스스로 그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여술에 반복하여 깊이 생각하다 보니 거의 고질병이 되었으니, 형이 나에게 병적이라고 한 것은 당연한 지적이지만 저는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역(罪逆)으로 죽어 가는 몸이라 온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형과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미치니, 나도 모르게 슬프고 서글픕니다. 남은 많은 회포는 한 통의 편지로 다 할 수 없어 이만 줄입니다. 삼가 살펴 주기를 바라며 답장을 올립니다. -갑인년(1674, 현종15) 10월 1일, 죄 많은 아우 소두산 올림.-

(소두산이 답한 편지)

천만뜻밖에 형의 편지를 받고 펼쳐 보니, 다른 세상의 소식을 얻은 듯 오랫동안 쌓인 회포가 조금 풀렸습니다. 하물며 겨울이 다가왔는데 형의 건강이 무탈함을 알고 더욱 기쁨이 더했습니다. 아우의 집안은 재앙이 끝나지 않아 초상이 연이어 일어나니 차례대로 저의 목숨도 사라질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명은 포의(布衣)의 신분으로

55 약석(藥石) : 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과 침으로, 충성스러운 말을 뜻한다.

56 이 부분은 오탈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 내용을 참작하여 의역하였다.

다 하였고, 초야에 사는 것이 시세에 부침하는 것보다 나으니, 그 밖의 비방과 칭찬을 마음에 담아 두겠습니다.

만년에 후사를 바라는 것은 형과 제가 매일반이나 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역시 하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세가 이런 경지에 이르니 참으로 가엾습니다. 멀리서 서로 바라보며 살아생전에 한 번 만날 인연이 없으니, 생각하노라면 저도 모르게 서글퍼집니다.

어떤 사람이 설산(雪山)⁵⁷의 산수의 아름다움을 극도로 말하면서 한혈을 가리켜 주기에 그저께 지사(地師)⁵⁸에게 산혈 살펴보는 일을 맡겨 보냈습니다. 이 지관의 견해가 과연 저 사람의 말과 같다면 아우는 마땅히 급히 말을 몰아 달려갈 것이니, 장차 혹 허 상사(許上舍)⁵⁹의 집에서 모일 것을 도모하여 서로 배개를 나란히 하고 얘기를 나누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실로 살아생전에는 얻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아우가 근래 지나온 것은 모두 학문에 적합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매번 부족함을 걱정하였습니다. 아우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형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얻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내겠습니다.

김여석(金汝錫)⁶⁰ 형 앞으로 감사의 글을 편지 속에 넣어서 보내었는

57 설산(雪山) : 전라남도 곡성(谷城)과 담양(潭陽)의 경계를 이루는 옥과(玉果)의 옛 명칭이나, 여기에서는 송암산(松巖山)에 있는 설학(雪壑)을 가리킨 듯하다.

58 지사(地師) : 지관(地官)과 같은 말로,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뒤편 따위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사람을 이른다.

59 허 상사(許上舍) : 미상이다. 여기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추정하지 못했다.

60 김여석(金汝錫) : 미상이다. 전라남도 장성(長城)에서 거주하였다.

데 다행히 형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많은 사연은 등불 아래서 나누시다. 대신 글을 쓰게 하였으니, 이만 줄입니다. 삼가 형이 읽어 주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년 월 일 두산(斗山) 올림.-

(이세필(李世弼)⁶¹이 보낸 편지)

족하(足下)의 명성을 듣고 탄복한 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초상을 당해 칩거함으로 출입에 장애가 있으니, 한 번도 형문(衡門)⁶²에 나아가서 훌륭한 모습을 우러러뵙지 못하고 다만 마음속으로 그리워할 뿐입니다.

어제 이 생원(李生員)⁶³이 찾아와 제게 전해 준 족하의 절구시를 세 번 반복하여 읽어 보고 나도 모르게 놀랐으니,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 주는 바가 진실로 많았습니다. 아마도 죄인(나)이 작년에 우연히 읊은 시가 있었는데, 마침 곁에서 본 사람이 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사우 간에 유포하여 점점 널리 퍼졌으니, 매번 재덕을 숨기고 감추는 도리를 크게 잃어 스스로 깊이 부끄럽습니다. 또한 심술의 은미한 곳에 병폐가 되니 자세히 생각하지 않아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운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지금 족하에게 그 시가

61 이세필(李世弼) : 1642~1718.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군보(君輔), 호는 구천(龜川)이다. 이항복(李恒福)의 증손이며, 1680년(숙종6) 창릉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듬해 동몽교관이 되었고, 1684년 형조 좌랑(刑曹佐郎)을 거쳐 용안 현감이 되었다가 진위령을 지내고 삭녕 군수로 부임하였다. 저술은 경설(經說)을 논한 것과 예(禮)에 관하여 논답한 것 등 20여 권이 있다. 또한 《악원고사(樂院故事)》 1책이 있다.

62 형문(衡門) : 두 개의 기둥에 한 개의 횡목(橫木)을 가로질러 만든 사립문으로, 초야에 누추한 은자(隱者)의 집을 뜻한다.

63 이 생원(李生員) : 미상이다. 명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추정하지 못했다.

도달하여 이처럼 전혀 걸맞지 않은 칭찬을 해 주니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런 칭찬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죽하에게 섭섭한 마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병을 만나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환란을 당했을 때 서로 구원해 주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만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바라보아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만약 일을 마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곧바로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어서 한편으로는 허물이 있는 지경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히 남의 비판과 노여움을 면하게 해 주는 것이 바른 도리입니다.

그런데 죽하는 따끔한 충고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죄인 같은 사람에게 참으로 취할 것이 있는 양 칭찬의 말을 크게 더해 주었지만, 그러나 어찌 도(道)로써 사람을 인도할 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진실로 그대가 지금 이후로는 저를 자주 타일러서 어둡고 어리석은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성찰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 점검하게 하여 곧궁으로 인해 스스로 단념하거나 늙어 간다고 스스로 겁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하가 저를 인정해 준 것에 감히 비슷하게 될 것은 바라지 못하지만, 이전처럼 보잘것없이 자포자기한 인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하의 아낌없는 은혜만 바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삼가 먼저 살펴 주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정사년(1677, 숙종3) 6월 7일, 죄인 이세필 올림. 호는 구천(龜川), 일참판(逸參判).⁶⁴ 시호는 정익(貞翼)이니,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증손이다.-

64 일참판(逸參判) : ‘일(逸)’은 ‘유일(遺逸)’의 준말로, 초야에 묻혀 사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재야(在野)의 선비를 천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세필은 여기에 해당하는 다. “이세필은 유일(遺逸)로서 새로 헌직(憲職)에 제배(除拜)되었다.〔世弼以遺逸,

(동생 수량(受瀉)이 보낸 편지)

궁벽진 고을에서 살지만 오직 형과 가까이 있어 다행이나 조물주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관청의 일이 많아 얽매어 있으니 사람 간의 예의를 차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어 안부도 묻지 못하였으니, 형이 어찌 그동안 슬픔에 빠진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아우가 그저 부끄러워 달리 말할 것이 없습니다.

새해가 되어 조용하게 지내시는 가운데 기운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찍이 형이 형수와 사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 몸처럼 지내던 부부의 의리를 생각하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며 자식들의 단란한 모습을 어찌 차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원문 빠짐- 이치에 맞는 말을 -원문 빠짐- 못하고, 아우는 타향에서 머물면서 한 살 더 먹어 머리에는 흰 눈과 눈가에는 안개만 더해져 노쇠(老衰)한 티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늘그막의 심사가 저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춘(仲春) 무렵에는 마땅히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니, 그때를 공경히 기다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형이 굶어살피 주기를 바라면서 안부 인사를 올립니다.-임술년(1682, 숙종8) 1월 4일, 동생 수량 올림.-

(추(樞)가 보낸 편지)

미미한 정성을 대략 표시하니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사람을 막아 서로 안부 소식이 오래 끊어져 바야흐로 그림고 또한 슬펍습니다. 이에 안부 편지를 받고 일상생활이 평안치 못함을 알았으니, 지극히 염려가 됩니다. 비가 온 뒤 찜통더위가 뜨거운 화로 속에 있

新拜憲職.]”라고 하였다. 《肅宗實錄補闕正誤 卷42 1705年 11月 4日》

는 것 같아서 넓은 집에 있는 사람도 오히려 견디기 어려운데, 두어 칸 되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며 우거진 쭉대로 창문을 닫고 조리(調理)하는 사람은 더욱 아프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염려스러운 일은 지금 조미(糶米)⁶⁵가 남은 양이 없기에 부득이하여 고마미(雇馬米)⁶⁶한 섬을 보내려고 하니, 이는 환상곡(還上穀)⁶⁷을 반납할 때와 달라져서 머리가 아픕니다.

근래의 밀과 보리가 민간에서는 거의 떨어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⁶⁸ 상황인데, 어찌 조정의 지시만 기다리겠습니까. 관청에 저장한 곡식이 이미 고갈되어 다시 손쓸 곳이 없게 되어 끝내 백성이 사지(死地)에 들어서게 될 것을 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참혹함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대략의 물품만 구하여 애오라지 아침과 저녁 반찬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삼가 글을 올립니다.-6월 4일, 추.-

(척하(戚下)⁶⁹ 진규(鎭圭)가 답한 편지)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는데, 정다운 편지가 문득 도착하였습니다. 장

65 조미(糶米) : 국가에서 춘궁기(春窮期) 때면 기민(飢民)들에게 꾸어 주었던 환곡(還穀)을 가리킨다.

66 고마미(雇馬米) : 고마법(雇馬法)에서 역마(驛馬) 외에 민간의 말을 징발할 때 주는 쌀을 말한다. 고마법은 조선조 현종(顯宗) 때에 경기 감영(京畿監營)의 관찰로 시행하였고, 훗날에 각 도로 시행 범위를 넓혔다.

67 환상곡(還上穀) : 춘궁기에 백성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을 추수 후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던 곡물을 말한다.

68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 원문의 '웅웅(喁喁)'은 물고기가 입을 쳐들고 오물거리는 모양을 말한다.

69 척하(戚下) : 원문의 '척말(戚末)'은 편지를 보낼 때 친척들 사이에서 자기를 낮춰 부르는 말로, '척하'와 같은 뜻이다.

마 후 어른께서 평상시보다 건강이 좋아졌다니, 대단히 기쁘고 한편 그립습니다. (진(鎭))⁷⁰ 저는 병을 무릅쓰면서 일을 하는 상황이라 전혀 틈이 나지 않기 때문에 찾아볼 수 없으니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보내준 조곡(糶穀)⁷¹은 이미 다 나누어 주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1섬(石)만 보내오니,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뜰에 가득하여 소란스러우니 손과 눈이 바빠 자세히 쓰지 못하고 이만 줄입니다. 삼가 살펴보아 주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본도 수령 이세화(李世華)⁷² 대감이 이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을축년(1685, 숙종11) 4월 15일, 척하 진규 올림.-

(황신귀(黃信龜)⁷³가 보낸 편지)

아웁니다. 사람의 화복은 본래 절로 일정하지 않고, 혹여 이보다 심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존형이 만난 일은 어찌 그리도 심하단 말입니까. 대체로 친애하는 처지는 말로 조문하지 않으며 글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은 무엇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무엇으로 슬픔을 삭

70 진(鎭) : 미상이다. 여기에서는 척하 기진규(奇鎭圭)의 이름으로 추정된다.

71 조곡(糶穀) : 곡식이 귀할 때 백성에게 꾸어 주던 관곡(官穀)을 말한다. 봄에 나라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는 것을 조(糶)라 하고, 가을에 백성들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에 10분의 1의 이자를 붙여서 거두어들이는 것을 적(糶)이라 한다.

72 이세화(李世華) : 1630~1701. 자는 군실(君實), 호는 쌍백당(雙栢堂)·칠정(七井)이다. 시호는 충숙(忠肅), 본관은 부평(富平)이다. 효종 때 정언(正言)·장령(掌令)을 거쳐 황해도·평안도·경상도·전라도의 관찰사 등을 지냈고, 숙종(肅宗) 때 호조·공조·형조·병조·이조의 판서(判書) 등을 거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고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으며, 저서는 《쌍백당집(雙栢堂集)》이 있다.

73 황신귀(黃信龜) : 1633~1685.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석여(錫汝)이며, 호는 운계(雲溪)이다.

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늘이 한 일입니다. 군자의 도(道)는 어디서든지 자득하지 않을 수 없으니,⁷⁴ 곧 이것은 참으로 우리 노형(老兄)이 한번은 시험을 거쳐야 할 상황입니다. 하늘이 하였기에 어찌할 수 없으면서 애통해한다고 무슨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 것을 아는 총명한 우리 형께서 어찌 그것을 하시려 합니까.

또한 일설에 ‘태어나고 죽는 것은 반드시 겪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부인이 죽는 참상을 당한다면 그 슬픔이 어떨겠습니까. 이른바 ‘슬픔은 얼마 가지 않고 기쁨은 끝이 없다.’라고 한 것은 옛사람이 깨우친 말입니다. 만약 반대로 ‘슬픔은 끝이 없다.’라고 하여 짧게 슬퍼해야 할 기간을 늘린다면 그 미혹됨이 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의 고아한 생각과 넓은 도량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고 번거롭게 충고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그대를 애모(哀慕)하는 나의 입장에서 어찌 지나치게 걱정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지금 달려가 위로하는 일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편지 한 통도 제때에 부치지 못하니, 그리움과 애통함만 더욱 가슴에 맺힙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이니, 더욱 도를 위하여 몸을保重(保重)하십시오. 삼가 글을 올리니 굵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계해년(1683, 숙종9) 8월 4일, 황신귀가 삼가 올립니다.-

74 군자의……없으니 : 어떠한 경우가 닥치더라도 의연히 대처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4장에 “군자는 현재의 위치에 따라 행하고, 그 밖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군자는 어디를 가든지 자득하지 않음이 없다.[君子素其位而行, 不願乎其外……君子無入而不自得焉.]”라고 하였다.

(황신귀가 보낸 편지)

아웁니다. 따님의 죽음은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하물며 존형은 여러 차례 상심하여 가슴이 찢기는 듯 슬픈 마음은 배가 되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근심과 위로하려는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

저의 형은 마침내 객지에서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우리 집을 망하게 하는 재앙으로 죽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죽으려고 하여도 그럴 수 없으니, 다시 무엇을 말하리오. 이곳에 온 이후로 밤낮으로 병을 치료하였으나 끝내 낫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니, 번뇌하며 지내는 가운데 안부를 여쭙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래에는 마침 종실의 어른이 찾아와서 또한 조문하는 편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부쳤던 편지가 지체되었다가 여러 곳을 거쳐 소식이 전달되었는데, 인사가 허술하게 될 줄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존형은 바로 답장을 주어 매우 지극하게 걱정해 주니, 감사한 나머지 황송하고 부끄러우며 할 말이 없습니다.

저나 존형이나 함께 역경을 당하여 이미 만날 기회를 잃었는데, 저는 산소 자리를 점쳐 보려고 먼저 이곳을 떠나렵니다. 따라서 지난번부터 만나서 정담을 나누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구름 낀 산을 바라보니 더욱 먹구름만 끼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픔으로 혼미하고 병으로 초췌하니 어떻게 속마음을 다 말하겠습니까? 다만 존형의 문후가 절로 좋아져서 우러르는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삼가 글을 올리니 살펴보아 주길 바랍니다.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글을 올립니다.-신유년(1681, 숙종7) 1월 11일, 기복(基服) 상중(喪中)에 신귀(信龜)가 글을 올립니다.-

(이대(李垚)⁷⁵가 보낸 편지)

-원문 빠짐- 진실로 그 방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알지 못하니 다른 것은 어찌 말하겠습니까. 게다가 사람이 일찍 죽거나 장수하는 것은 절로 하늘이 부여(賦與)하여 정해 주었으니 약을 복용한다고 수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만, 음식을 조절하고 약을 복용하면 조금이나마 병이 줄어든다는 것은 참으로 천고(千古)의 달통한 지식입니다.

형은 아우의 이 말로써 내가 편벽되었다고 하지만 아우의 견해는 이와 같으므로 일찍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혹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사이 친구들은 모두 죽어 살아가는 즐거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물며 제 손가락을 꼬으며 나이를 세어 보니 벌써 이순(耳順 60세)이 넘었는데, 지금 제가 죽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일찍 죽었다고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면 적송자(赤松子)와 왕자교(王子喬)⁷⁶처럼 수를 누리더라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되니, 형은 아우의 이 말을 달통한 견해라고 여겨야 합니다.

약간의 붓과 먹을 편지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가만히 살펴보건대 지금 세상에 시끄럽게 비방하는 소리가 형과 나에게 미치지 않음이 없습니다. 진실로 이를 면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모양(牟陽)⁷⁷

75 이대(李垚) : 1627~1703.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숙고(叔固)이며, 호는 방수와(傍隨窩)이다.

76 적송자(赤松子)와 왕자교(王子喬) : 고대(古代)의 불로장수(不老長壽)했던 두 신선(神仙)을 말한다. '적송자'는 신농씨(神農氏) 때에 우사(雨師)가 되었는데, 수정(水晶)을 복용하며 불 속에 들어가 자신을 태울 수 있고, 곤륜산(崑崙山) 위에 이르러 항상 서왕모(西王母)의 석실(石室)에 머물렀다. '왕자교'는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인 진(晉)이다. 그는 생황을 불기 좋아하여 봉황의 울음소리를 내었는데, 신선인 부구공(浮丘公)을 만나 신선이 되어 함께 떠나갔다. 《列仙傳 卷上》

77 모양(牟陽) : 전라북도 고창(高敞)의 다른 이름이다.

태수(太守)와 명양(鳴陽)⁷⁸ 태수는 모두 저의 친구로 -원문 빠짐- 서로 세상의 정을 나누었으니, 만일 만날 수 있다면 이야기해 볼 만할 것입니다. 아우 이대 올림.

(이대가 보낸 편지)

무술년(1658, 효종9)에 변생(邊生)⁷⁹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편지를 받은 후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찌 조금이라도 줄어든 적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따뜻한 겨울을 형은 고요히 지내며 몸을 잘 보양하여 강건하리라 생각합니다. 도를 강론하고 이치를 탐구하여 학업을 더욱 열심히 닦고 있으실 텐데 그곳으로 가서 듣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아우는 두어 해 전부터 정신이 흐릿해지고 눈이 어두워져 체온이 가시지 않는 시체와 같고, 두 자식의 병은 모두 조금도 나아지려는 가망이 없습니다. 천한 자식 늦둥이는 올해 2월 초부터 감한증(感寒症)⁸⁰으로 인하여 점점 깊은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살만 찢고 났이 나가 사람의 물골이 아닌데, 밤에는 잠도 자지 못하고 낮에는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그 참담함을 본다면 사람으로 치지 못하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은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장손(長孫)의 병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올여름부터 조금 살아날 방도는 있으나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근심이 어떻게 끝이 있겠습니까?

78 명양(鳴陽) : 전라남도 창평(昌平)의 다른 이름이다.

79 변생(邊生) : 미상이다.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추정하지 못했다.

80 감한증(感寒症) : 추위로 인하여 생긴 병증(病症)을 말한다.

다시 지금 이미 4살이 되었는데, 그 골상과 의지를 알 수 있으니 과연 선조의 유업을 이어 집안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멀리서 만날 수도 없어 매우 답답하였는데, 마침 집의 노비가 남쪽으로 간다고 하니 지나가는 길에 이 편지를 전하게 하려고 소식을 부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종이 한 장도 채우지 못하고 벌써 글을 마쳤습니다. 이만 줄입니다.-경자년(1660, 현종1) 11월 27일, 상중(喪中)에 아우 이대.-

(이대가 답한 편지)

병을 안고 남쪽에서 돌아오니 백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형의 편지를 받으니 놀랍고도 기뻐했습니다. 세상 밖의 소식뿐만 아니라 편지의 사연을 자상히 살펴보니, 놀랍고 참혹한 일은 사람의 도리로서는 감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 형이 연거푸 당한 참화(慘禍)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참혹할 줄 헤아려 보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우는 오늘 11일에 갑자기 은진(恩津)⁸¹ 여영(昇營)에서 중병을 얻었습니다. 마침 태의(太醫)를 만나 약을 먹고 나서 다행히 죽음의 위기는 벗어났습니다만 아직도 사람과 귀신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를 형의 노비가 반드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로 보여 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완전하게 그만둘 수는 없어도 어찌 형의 처지를 위하지 않겠습니까. 형이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면 모든 것이 별 탈이 없을 것이지만 감히 바라지는 않습니다. 손이 떨리고 정신이

⁸¹ 은진(恩津) : 충청남도 논산(論山)의 옛 지명이다.

혼미하여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심부름꾼을 통하여서라도 소식을 보내겠습니다. 삼가 형이 살피 주시기를 바랍니다.-갑년(甲年 미상) 12월 26일, 아우 이대 올림.-

(이대가 보낸 편지)

근래에 형과 및 -원문 빠짐-숙(□叔)이 함께 신광(神光)⁸²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형은 돌아가고 형수⁸³만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뜻밖에도 임무를 옮겼다가 거듭 대각(臺閣)의 탄핵을 받아 교체되어 지방관으로 나왔습니다. 이 일은 정녕 본래의 소원에는 맞았다고 할 수 있으나, 극렬한 더위에 길을 떠나려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마침 22일에는 집안에 제사가 있지만 제사를 지내자마자 떠나야 하니 형은 저에게 와서 작별할 수밖에 없으니, 형은 그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작별한 뒤에라도 우리는 -원문 빠짐- 아침저녁으로 선선히질 때 형이 와서 만나게 되기를 몹시도 바랍니다. 대각에서 처리한 탄핵의 말은 처음에는 사람됨이 추잡하고 또 청렴한 명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말을 고쳐서 “인망(人望)이 본래부터 가볍고 또 청렴한 명망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전후의 말이 참으로 문제점에 맞았으니, 아우가 어떻게-이대, 원문 빠짐-

82 신광(神光)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신광골을 가리킨다.

83 형수(兄嫂) : 원문의 ‘세군(細君)’은 남에게 자기 아내를 일컫는 말이다.

송암 유허의 감회

松巖遺墟感懷

족질(族姪) 미(溍) 만회(晩悔)

여기 송암(松巖)은 바로 족숙(族叔) 참봉공(參奉公)께서 은거하며 호로 삼은 곳이다. 경인년(1770, 영조46) 봄에 종종 사람과 함께 이곳에 배우러 와서 그 근처 마을에 우거(寓居)하면서 유적을 찾아보았다. 소나무는 야인(野人)이 베어 갔고 바위와 계곡만 남아 주인 없는 땅이 되어 있었다. 애석하게도 공의 본가에서 방기(放棄)하고 지키지 못했기에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은 착잡한 감회를 이기지 못하고, 함께 이 시를 지었다. 그리고 사우들에게 화답시를 구하여 이곳을 후세에 전하는 유허의 땅으로 삼고자 하였다.

선현이 돌아가신 뒤 자취를 찾아보니	爲訪先賢去後蹤
기이한 바위 무탈하게 푸른 솔과 함께 있네	奇巖無恙伴蒼松
아름다운 명성은 상전벽해 쫓지 않았으니	佳名不逐滄桑變
살아생전 어르신께 읊하는 듯하네	如揖當年座上容

선현의 옛터 남은 자취 찾아가니	先賢古址訪遺蹤
이끼 낀 바위뿐 소나무는 보이지 않네	但有蒼巖不見松
꽃과 바위 평평한 밭은 주인이 바뀌어	花石平田移舊主
명성과 의리 생각하니 그 모습 애석하네	顧名思義惜可容

산의 꽃 원망을 품은 듯 새는 숲에서 지글대고 山花如怨鳥喧林
 옛터 찾아 지팡이 짚고 읊조리며 한낮의 그늘에 쉬네

訪古吟筇憩午陰

소나무는 금하는 이 없어 나무꾼 도끼에 어지럽고 松以禁疎樵斧亂
 바위는 발자취 끊어져 푸른 이끼 침범했네 巖因跡息綠苔侵
 맑은 시내 하얀 돌에 그윽한 취미 흠모하고 溪清石白欽幽趣
 맑은 구름 시원한 바람에 도심을 생각하네 雲淡風輕想道心
 선친께서 가르침 받은 곳이라 認是先君親炙地
 옛 자취 배회하니 슬픈 마음 깊어지네 徘徊遺躅愴懷深

산이 무너진 뒤로 몇 해나 지났는가 山頽以後幾年回
 바위 사이 손수 심은 소나무 아득히 생각하네 遙想巖松手自栽
 애석해라 푸른 솔잎 골짜기에 사라지고 可惜蒼髯舟失壑
 가련해라 바위만 남아 한갓 누대 이루었네⁸⁴ 獨憐頑骨徒成臺
 참다운 공부 누구랑 성의 정심 논할까 眞工誰與論誠正
 성학을 이어받아 전해 줄 사람 없네 聖學人無任繼開
 유희를 찾으니 깊은 감회 일어나는데 爲訪遺墟深起感
 어렴풋한 달 비치고 바람이 불어오네 依稀月到又風來

84 애석해라……이루었네 : 원문의 ‘창염주(蒼髯舟)’는 푸른 소나무의 잎을 가리키며, ‘완골(頑骨)’은 바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송암유희(松巖遺墟)에 소나무는 없어지고 바위만 남아 있다는 표현이다.

송암기

松巖記

옛날 유현(儒賢)은 스스로 호(號)를 지을 때 사물을 가지고 그 형상을 취하기도 하였고, 혹 이치를 가지고 곧은 도리를 숭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 조부께서 호를 ‘송암’으로 지으신 것은 사물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며, 이치와 곧은 도리를 취한 것이다. 사물 가운데 엄동설한에도 유독 푸른 것이 소나무가 아니면 무슨 나무이겠는가? 이치 가운데 사물이 절로 절벽에 층층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 바위가 아니면 무슨 사물이겠는가? 푸른 듯 곧은 듯 절개가 있는 양한 것은 푸르고 푸른 암반 거의 소나무요, 솟아난 듯 확고한 듯 쓸쓸한 양한 것은 우뚝 솟은 태산의 바위이다. 송암 선생이 그 이치를 찾아 곧은 듯 우뚝 솟아난 듯한 이치를 취하였으니, 그 뜻이 어찌 우연이었겠는가?

아! 오산(鰲山)⁸⁵에 사는 사인(士人) 변사문 득호(邊斯文得灝)가 일찍이 나를 일깨우면서 “소나무 숲 암벽 위에 ‘송암’ 두 글자를 새겨 송암 선생의 유적을 드러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운운하였다. 그런즉 그 선현을 우리러 사모하는 마음과 남긴 자취의 향기를 아끼고 공경하는 뜻은 아!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그 자손 되는 사람이 옛 자취에 감회가 일어 나를 흥기시키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아! 우리 할아버지는 선정(先正) 송부자(宋夫子 우암 송시열 선

85 오산(鰲山)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오산을 가리킨다.

생)의 제자였다. 일찍이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선생의 문하에서 수업하며 선생의 의리를 의리로 여기고, 선생의 학문을 학문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송부자가 특별히 호남의 지남(指南)과 정학(正學)으로 여기어 조정에 천거하여 여러 번 침랑(寢郎)⁸⁶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선생은 의를 지키고 독선(獨善)⁸⁷하면서 두문불출 글을 읽는 사람이었다. 대개 공부자(孔夫子)가 천하를 철환(轍環)한 까닭으로 안자(顏子)가 이를 가지고 문을 닫고 독선하였으니, 곧 우리 할아버지가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독선한 것은 안자와 함께 도모하지 않았으나 서로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송암 선생은 송암 아래에서 즐겁게 놀며 지냈는데, 일찍이 소강절(邵康節)의 〈수미음(首尾吟)〉을 본뜬 시에서 “세상에 내 마음 아는 이 없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길게 읊조리네.”⁸⁸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송암’ 두 글자의 뜻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암벽 위에 소나무가 있는데, 푸르고 푸르러 그 뿌리가 한 줄기 곧게 뻗어 있다. 암벽 아래 강이 있는데, 근원이 깊고 끊어지지 않아 그 흐름이 이와 같았다. 아! 선생의 고결한 품모는 강물과 함께 길게 남을 것이다.

86 침랑(寢郎) : 능침(陵寢), 원(園)의 영(令)과 참봉(參奉)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87 독선(獨善) : 세상에 나가 뜻을 펴지 못하고 자기 일신(一身)을 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맹자(孟子)》〈진심 상(盡心上)〉에 “곤궁해지면 자기의 몸 하나만이라도 선하게 하고, 뜻을 펴게 되면 온 천하 사람들과 그 선을 함께한다.〔窮則獨善其身，達則兼善天下。〕”라고 하였다.

88 세상에……읊조리네 : “天下無人知我心，無人知處且長吟.” 《송암선생문집 상(松巖先生文集上)》 권1 〈시(詩)〉 ‘수미 삼수(首尾三首)’에 보인다.

충정 원년 뒤 세 번째 무진년(1748, 영조24) 겨울 불초손 학상(學相)
은 기문(記文)을 쓰다.

송암운

松巖韻

불초손(不肖孫) 학상(學相)

우리 할아버지는 어느 해 이곳에 살았을까	吾祖何年居此地
소나무와 바위 오롯하고 강물은 부질없이 흐르네	松巖獨立水空流
고암은 멀다 해도 굳건한 의지 틈이 없고 ⁸⁹	考巖縱遠確無間
기수가 비록 길어도 여기서 쉬네 ⁹⁰	沂水雖長斯有休
골짜기 가득 나무 그늘 난새와 학이 날아다니고	滿壑樹陰鸞鶴去
해와 달이 두른 산 고반 ⁹¹ 이 그윽하네	環山日月考槃幽
불초 손자 사모하는 마음 가슴속에 새기나니	孱孫感慕留心刻
큰 도와 고상한 풍모 만세에 드리우리	大道高風垂萬秋

89 고암(考巖)은……없고 : 원문의 ‘고암’은 고암서원(考巖書院)을 가리킨다. 송시열이 국문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던 중 전라북도 정읍(井邑)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는데 6년 뒤에 신원되어 고암서원에 배향하고 유허비를 세웠다. 여기에서는 송암이 스승 송시열을 사모하는 마음이 끝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90 기수(沂水)가……쉬네 : 송암 선생의 유유자적하는 은자(隱者)의 삶을 뜻하는 말이다. 공자(孔子)의 제자 증점(曾點)이 자신의 뜻을 말하라는 공자의 명에 슬(瑟)을 울리다 말고, “늦은 봄날 봄옷이 이루어지거든 어른 대여섯 사람, 동자 예닐곱 사람과 함께 기수에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쐬고 시를 읊으면서 돌아오겠다.〔莫春者，春服既成，冠者五六人，童子六七八人，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라고 하였다. 《論語 先進》

91 고반(考槃) : 《시경(詩經)》〈고반〉에 나오는 말로, 은사(隱士)의 생활을 말한다.

또

又

족손(族孫) 학경(學敬)⁹²

소나무 눈과 바위 꽃 저녁 경치 좋으니
장석⁹³의 거문고 소리 풍류를 생각하네
봄 깊어 뜨락 풀은 덕용이 순수하고
달빛 가득 앞 시내는 도기가 아름답네
후학이 바른길 찾도록
선현이 그윽한 숲을 택했네
지난날 아름다운 자취 어디에서 보라
바위굴 맑은 향기 가을 국화에 남았네

松雪巖花晚景好
絃歌丈席想風流
春深庭草德容粹
月滿前川道氣休
後學當尋門路正
先賢爲卜上林幽
昔年芳躅看何處
巖穴清芬黃菊秋

92 기학경(奇學敬) : 1741~1809.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중심(仲心), 호는 겸재(謙齋)이다. 대승(大升)의 7세손이며, 아버지는 참의 연관(彦觀), 어머니는 여흥 민씨(驪興閔氏)이다. 무장 현감(茂長縣監)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겸재집(謙齋集)》이 있다.

93 장석(丈席) : 학문을 강설(講說)하는 자리로, 사석(師席)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학문과 덕망이 높은 기정익(奇挺翼)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서를 붙이다

又 並序

후학(後學) 변득호(邊得瀨)

우뚝 솟은 저 송암(松巖)⁹⁴이여! 어떻게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는가. 바로 참봉(參奉) 기 선생(奇先生)이 노닐던 곳이니, 선생이 ‘송암’으로 호(號)를 지음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소나무는 사계절을 이어도 이곳에서 길이 푸르고 강직하니, 군자의 절개가 있었다. 바위는 만고(萬古)에 이르러도 이곳에서 닳지 않고 웅장하니, 도리의 대체(大體)가 있었다. 곧 선생이 ‘송(松)’ 자를 붙인 것이 어찌 모두 군자의 절개를 취하여서가 아니었겠는가? 선생이 ‘암(巖)’ 자를 이은 것이 어찌 도리의 대체를 보고 알아서가 아니었겠는가? 지금 선생은 돌아가신 지 백여 년이다. 군자와 야인이 그 아래를 지나가면서 사모하는 사람은 ‘처사가 노닐며 쉬었던 곳이다.’라고 운운하였다. 그런즉 ‘편액의 글씨는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선생의 곳곳한 절개와 도학은 세상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선현의 은일 자적인 곳을 상고하면, 반드시 그림과 표지하는 방도가 있었는데, 어찌 유독 선생만은 없었겠는가. 나는 이 뜻을 가지고 선생의 어진 손자 학상(學相)에게 전해 알게

94 우뚝……송암(松巖) : 송암 기정익(奇挺翼) 선생의 유풍(遺風)을 백성들이 모두 바라봄을 비유한 말이다. 《시경(詩經)》〈절남산(節南山)〉에 “높은 저 남산이여, 돌이 많이도 쌓였도다. 혁혁한 태사 윤씨여, 백성들이 다 너를 우러러보도다.[節彼南山 維石巖巖 赫赫師尹 民具爾瞻]”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말이 매우 아름다우니, 곧바로 석공을 불러 커다란 두어 글자로 비석면을 빛나게 한다면 만고(萬古)에 전할 수 있고, 불후(不朽)의 자산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과연 ‘그 할아버지에 그 손자이다’라고 할 만하였다. 나는 학문이 영성한 후학으로, 어떻게 그사이에 군더더기를 붙여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증조부께서는 일찍이 선생에게 찾아가 낙회(洛會) 향사(香社)⁹⁵의 모임을 두고 날마다 이곳에서 함께 소요(逍遙)하셨으니, 어진 이를 흠모하고 조상을 사모하는 감개가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참람하고 고루함을 잊고 아래와 같이 대략 기록하였다.

바위에 군자라는 아름다운 이름 붙였으니	巖沾美號以君子
속류보다 빼어나 시냇가에 우뚝 솟았네	壁立溪頭拔俗流
골짜기 따라 흘러 간혹 모습이 변하는데	寧逐谷陵猶或變
어르신 쉬던 곳이라 항상 일컬었네	常稱丈老所曾休
하늘이 아끼고 땅이 숨긴 아름다운 경치에	天慳地秘區因勝
명성과 도가 높아 그윽한 아취 있네	名顯道高趣則幽
물속의 어룡도 글자를 알 터이니	水底魚龍應識字
어찌 사람의 입으로만 천추에 읊조리리	奚徒人口誦千秋

95 낙회(洛會) 향사(香社) : 기정익(奇挺翼)의 시사(詩社)를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 원문의 ‘낙회’는 본래 송(宋)나라 때 문언박(文彦博)·부필(富弼)·사마광(司馬光) 등 낙양(洛陽)의 나이 많은 자 13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서로 즐긴 낙양기영회(洛陽耆英會)를 가리킨다. ‘향사’는 당(唐)나라의 시인 백거이(白居易)가 만년에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치사(致仕)하고 나서는 향산(香山)의 스님 여만(如滿)과 함께 결성하고 중유했던 ‘향화사(香火社)’를 말한다.

또

又

족손(族孫) 택규(澤奎)

소나무와 바윗길이 불후하리니	松與巖高永不朽
맑은 자취 엄연하여 무리에 빼어나네	儼然清躅卓超流
땅에는 명성과 절의 남아 사물에 변화가 없고	地留名節物無變
도는 연원이 있어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네	道自淵源世有休
비바람 쌓인들 그 자취 사라지랴	豈謂磨磷風雨積
귀신의 유혼이 끝까지 지키리라	終看守護鬼神幽
참된 진리 찾아온 선비들이 입으로 새겨 전하나니	尋眞多士口碑字
확 트인 봄빛이 만세를 가버이 보네	磊落春光蔑萬秋

또

又

족손(族孫) 익곤(翼坤)

소나무는 굳은 바위로 인해 절개와 의리를 아나니 松因巖堅認節義
 우리 공께서 지주⁹⁶ 되어 무너지는 시류를 세우셨네 我公砥柱立頽流
 고루암에서 참된 공부 다 보고 鼓樓完見眞工確
 화석정에서 승경을 완상하며 부질없이 머무네⁹⁷ 花石空留勝賞休
 염계의 봄풀⁹⁸은 그대로 푸르거늘 春草濂溪依舊綠
 단표누항의 도는 누가 간직했나 簞瓢陋巷更誰幽
 애통해라 환구⁹⁹의 목 아직 있으나 痛哉桓寇領猶保
 유가의 부월은 추상처럼 차갑네 斧鉞儒家凜若秋

96 지주(砥柱) : 중국 삼협(三峽)의 지주산(砥柱山)을 말한다. 황하(黃河)의 급류 속에 우뚝 버티고 서서 거센 물결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지주중류(砥柱中流)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97 고루암(鼓樓巖)에서……머무네 : 기정익이 주희와 이율곡의 학문에 심취하였음을 말한다. ‘고루암’은 주희가 무이산(武夷山)에서 노닐며 지은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의 8곡을 말하고, ‘화석정(花石亭)’은 이율곡이 8세에 지은 <화석정>을 말한다.

98 염계(濂溪)의 봄풀 : ‘염계’는 주돈이(周敦頤)의 자이다. 주돈이는 뜰의 풀을 뽑지 않고 “나의 의사와 일반이다.[與自家意思一般]”라고 하였다. 곧 뜰의 풀도 천지(天地)의 생생(生生)의 기운을 받은 것으로서 사람의 뜻과 같다 하여 뽑지 않았다는 것이다. 《性理大全 卷39 周子》

99 환구(桓寇) : 송(宋)나라 사마환퇴(司馬桓魋)를 가리킨다. 공자가 송나라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큰 나무 밑에서 예(禮)를 연습하고 있을 적에 공자를 죽이려고 그 나무를 뽑아 버리니, 제자들이 공자에게 속히 떠나야 한다고 말하자, 공자가 이르기를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려 주었으니, 환퇴가 나를 어찌하겠는가?〔天生德於予，桓魋其如予何?〕” 하였다. 《史記 卷47 孔子世家》《論語 述而》

또

又

후학(後學) 박동익(朴東益)¹⁰⁰

소나무 베어지고 바위만 남았는데	松剪伐兮巖獨在
고반 유허에 산이 강을 임하였네	考槃遺躅屹臨流
불초한 손자는 오늘 공적 새기나니	肖孫此日刊銘役
어진 할아버지의 당시 자취 아름답네	賢祖當年杖屨休
병풍 같은 험한 산은 하늘이 만든 승경이요	峻嶺藩屏天作勝
빹빹한 좌우 숲은 그윽한 땅 이루네	叢林左右地因幽
선생의 지조와 절개를 이곳에서 보니	先生志節於斯見
천길 낭떠러지처럼 만년 세월 서 있네	壁立千千萬萬秋

100 박동익(朴東益) : 1715~?.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여중(汝重)이다. 유학(幼學)으로, 거주지는 신천(信川)이다.

또

又

오대손(五代孫) 금사(金賜)¹⁰¹ 11세에 짓다

호방한 산세 도기가 확고한데	磅礴形容道氣確
선생의 옛 자취 물과 함께 흐르네	先生舊跡水同流
대대로 전하는 기업 누가 만들었나	世傳基業誰能構
길 가는 이 입에 칭송이 멈추지 않네	行路稱云口不休
군자가 살아가니 명성 대대로 거듭되고	君子居之名世重
유풍이 아득해 땅은 도리어 그윽하네	遺風逖矣地還幽
송암 두 글자 환히 새겨	由來二字昭然刻
남기신 정신 만년 동안 보리라	留得精神閱萬秋

101 금사(金賜) :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의 초명(初名)이다. 자는 대중(大中), 호는 노사(蘆沙), 본관은 행주(幸州)이다. 호조 참판을 지냈으며, 서경덕(徐敬德)·이황(李滉)·이이(李珥)·이진상(李震相)·임성주(任聖周) 등과 함께 성리학의 6대가이다. 저서는 《노사집(蘆沙集)》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또 서를 붙이다

又 並序

영주(瀛洲) 고흥제(高興濟)

송암 기공(奇公)은 바로 우암(尤庵) 송(宋) 선생의 문하생이다. 우리 관란공(觀瀾公)¹⁰²과는 동문수학한 정의(情誼)가 있었다. 손자 의좌보(儀佐甫)¹⁰³ 학상(學相)이 나를 한번 보고 마음을 허락하고 서로 좋은 정을 나누며 돈독하게 지낸 수십여 년 만에 묵은 회포를 털어놓았다. 아! 의좌보는 효도하고 우애하며 독실한 학문이 진실로 속세의 선비와는 건줄 바가 아니라 게다가 그의 후진(後進)은 문채와 바탕을 함께 갖추고 학문하는 사람이 많아 남쪽 고을 유종(儒宗)의 가문을 헤아릴 때 손가락을 먼저 꼽게 하였다. 그의 종증손(從曾孫) 금사(金賜)는 어린 나이에 학문과 문장이 고금에 넓게 통하고 영특하였다. 일찍이 금사는 경서를

102 관란공(觀瀾公) : 고晦(高晦, 1636~1711)를 가리킨다. 자는 여근(汝根), 호는 관란재(觀瀾齋),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송준길(宋浚吉)과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74년(현종15) 송준길의 관작을 추탈(追奪)하는 일이 생기자, 동문 홍득우(洪得禹)·조상우(趙相愚) 등과 함께 스승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함안(咸安)에 정배(定配)되었다. 이듬해 풀려난 뒤 금천(衿川)으로 돌아와 두문불출하면서 덧집을 지어 관란재라 하고 경학에 몰두하였다. 1681년 김석주(金錫胄)와 김수항(金壽恒)의 천거로 창릉 참봉(昌陵參奉)에 제수되고 뒤에 다시 학행으로 천거되어 기린 찰방(麒麟察訪), 영희전 참봉(永喜殿參奉), 익아사 시직(翊衛司侍直)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예학(禮學)에 두루 밝았다.

103 의좌보(儀佐甫) : 기정익(奇挺翼)의 손자 학상(學相)을 가리킨다.

읽고 의미를 해석하면 터럭과 실날처럼 분석하여 선현의 취지와 논의에 부합하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학식이 높은 선비와 노련한 스승일지라도 미치지 못한 자가 많으니, 누가 훗날 금사의 성취를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송암공은 노선생(老先生 우암(尤庵) 선생)을 스승으로 삼고 따르니, 학업이 정밀하고 순수하며 문로(門路)에 바름이 있고, 또 학문의 연원(淵源)을 볼 수 있어 절로 오도(吾道)의 서광(瑞光)이 있었으나, 서로 사는 곳이 멀고 나이가 이미 쇠약하였기 때문에 덕이 있는 용모를 바라보면서 경서를 마주하여 어려운 곳을 한번도 물을 수 없음을 한으로 여겼다. 의좌보는 송암공이 남긴 덕을 추모하여 송암공이 살았던 옛터에 가서 송암의 암벽 면을 갈고, ‘송암’ 두 글자를 새겨 갱장(羹牆)의 마음을 붙여 놓고 시를 읊고 감탄하였다. 또 현손(賢孫)의 시를 내게 보여 주며 “선생은 선조들과 교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시로 화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처럼 시를 지어 주는데, 심히 다하는 성심을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감히 재주가 없다고 사양하지 못하여 못남을 잊고 화답시를 지어 주었는데, 평소 송암공의 덕을 흠모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을 대략 펴 보였다. 더구나 덕망 있는 가문에 부합한 현손이 태어난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라 오직 의좌보가 금사에게 ‘힘써 덕행을 이루도록 하라.’라고 한 말에 돌아갈 것이다. 금사(金賜)는 노사(蘆沙) 선생의 어릴 적 이름이다.

이름난 가문에 송암 어른 계시니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고 백대에 흐르네

名門有是松巖老
不沫清芬百代流

늦도록 학문하여 후학을 열고

晚計藏修開後學

일찍부터 성정¹⁰⁴의 공부 알아 선조의 아름다움 이었네

早知誠正襲先休

시와 글을 품어 가문에 전한 지 오래

詩書襟帶傳家久

산수 좋은 고향¹⁰⁵ 그윽한 곳에 집을 지었네

泉石菟裘卜築幽

태산북두 체험 고고한 모습 눈앞에 보이는 듯

山斗高儀瞻彷彿

암벽에 새긴 글자 천추에 빛나리

磨崖刻字昭千秋

104 성정(誠正) : 《대학장구(大學章句)》의 팔조목(八條目)의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을 가리킨다. 곧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공부를 말한다.

105 고향 : 원문의 '토구(菟裘)'는 본래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지명인데, 지금의 산둥성 태안(泰安)으로, 사대부가 물러나 은거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기정익(奇挺翼)의 고향 송암(松巖)을 가리킨다.

또

又

후학(後學) 고경제(高敬濟)

시냇가 소나무의 지조 태산의 바위 닮아	澗松之操泰巖像
젊은 날 스승 문하에서 으뜸이었네	少日師門第一流
선생의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杖屨儀容人廣感
학문은 대대로 아름다움을 전하네	詩書基業世傳休
누추한 누대에 버들꽃 지고	樓臺陋矣楊花落
어느덧 산수에 대숲 그윽하네	泉石居然篋壁幽
큰 덕이 외롭지 않은 법이니	大德不孤元有理
금사 후손의 도학이 천년을 이어 가리	金孫道學又千秋

공의 아호 송암은 공이 쉬던 곳	公號松巖公所憩
드넓은 비단 물결 거슬러 흐르네	錦波汪汪溯源流
천년의 남은 자취 여기 있으니	千年遺蹟於焉在
백세의 맑은 바람 멈추지 않네	百世清風也不休
강단 있던 숲이 늙어 가니 사람들이 애석해하고	樹老講壇人愛惜
암벽에 이끼 자라니 땅이 깊고 그윽하네	苔生仞壁地深幽
빛나는 두 글자 그 누가 새겼을까	昭然二字伊誰刻
고금에 훌륭한 명성 사라지지 않으리	不朽令名今古秋

또

又

후학 별검(別檢) 윤석영(尹錫永)¹⁰⁶

손 씻고 맑은 시 읽으니 공경하는 마음 일어나	淸詩盥讀起余敬
남쪽 나라 성대한 명성 북으로 올라오네	南國風聲漸北流
기개와 지조 당세에는 뜻이 없었으나	介操應無當世志
절개와 자태는 후진을 일깨웠네	貞姿多啓後人休
평생 만 권의 책에서 애오라지 즐거움 찾아	百年萬軸聊尋樂
골짜기 가득 안개구름 걷고 어둠을 밝혔네	一壑雲煙始闌幽
하늘이 손자를 주어 그 아름다움 잇게 하나니	天遺兒孫趾厥美
산봉우리 ¹⁰⁷ 마른 풀에 가을이 몇 번 돌아왔나	蒼岑枯草幾回秋

106 윤석영(尹錫永) : 1771~?. 자는 윤지(胤之),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조부는 윤광보(尹光輔)이며, 부친 유학(幼學) 윤선양(尹善養)과 모친 서명구(徐命耆)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벼슬은 교리(校理)·사간(司諫)·집의(執義) 등을 역임하였다.

107 산봉우리 : 원문의 '미잠(眉岑)'은 눈썹 모양의 산봉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나, 여기에서는 송암산을 가리킨다.

또

又

후학 변상찬(邊相璨)¹⁰⁸

송암을 바라보니 높은 자취 있어	瞻彼松巖高躅在
덕이 있는 이웃을 청류당 ¹⁰⁹ 이 차지했네	德隣曾卜我聽流
선영이 가까워 깊은 애정 두었고	先塋孔邇存深愛
나무 아래 벗과 강론하며 큰 가르침 베풀었네 ¹¹⁰	講樹移談闡丕休
초동과 목동이 함부로 나무 베니	樵牧忍能爭剪伐
사림은 오래도록 자옥한 연기 두려워하네	士林將恐久煙幽
지금 새긴 붉은 글자로	今來刻得朱填字
아름다운 호 억만년 전하리	美號將傳億萬秋

108 변상찬(邊相璨) : 1740~?. 본관은 황주(黃州), 자는 보세(寶世)이며, 장성(長城)에서 거주하였다.

109 청류당(聽流堂) : 변휴(邊休, 1640~1699)의 호이다. 본관은 황주(黃州), 자는 미경(美卿)이다. 전남 장성(長城) 출신이다. 윤拯(尹拯) 및 박세채(朴世采)와 교유하였다. 저서에 《오산명인록(鰲山名人錄)》이 있다.

110 나무……베풀었네 : 변상찬의 선조인 변휴와 기정익(奇挺翼)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눈 모습을 의미하는데, 원문의 '강수이담(講樹移談)'은 북주(北周) 유신(庾信)의 <애강남부(哀江南賦)>에 보인다. 해강이 나무 아래에서 풀무질하며 벗인 여안, 상수 등과 정담을 나누었다는 고사에서 왔다.

또

又

후학 진사(進士) 박의순(朴懿淳)¹¹¹

솔숲 사이 바위가 기이하고 빼어나	松間巖石最奇絶
선생이 머물며 세속을 초탈했네	杖屨盤旋脫俗流
취할 때는 도연명의 흥을 즐기고	凡爾醉時陶子興
평상시는 둔옹 ¹¹² 처럼 쉬었네	居然我處遜翁休
산은 도처럼 높아 앞다투어 우러르거늘	山如道屹猶爭仰
땅은 사람 이름 취했으니 왜 그윽하다 할까	地以人名豈曰幽
어진 손자 힘으로 두 글자 새기니	賴有肖孫刊二字
선생의 아름다운 호가 천추에 걸리리	先生嘉號揭千秋

111 박의순(朴懿淳) : 1761~?.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중晦(仲晦), 유학(幼學)으로 장성(長城)에서 거주하였다.

112 둔옹(遜翁) : 주희(朱熹)의 호(號)이다.

또

又

후학 변득귀(邊得龜)

예전에 송암 어른께서
우리 할아버지 손잡고 이 강에 오셨다지
푸른 가지 얼굴 스쳐 때때로 어루만지고
검푸른 반석에서 날마다 쉬셨다네
아름다운 덕이 산수에서 싹트고
고고한 자취가 골짜기 난초처럼 그윽하네
밝은 심법을 어디서 볼까
물 맑은 앞 강을 만년 달이 비추네

聞昔松巖處士丈
同携吾祖此臨流
翠柯拂面時焉撫
黥石如盤日以休
美德已從山水茁
高蹤還與谷蘭幽
燎然心法何由見
水澹前江月萬秋

또

又

후학 김신후(金信厚)

민등산 우뚝한 푸른 소나무와 오랜 바위	禿立蒼松巖盤古
아름다운 한 쌍 곁에 시냇물 흐르네	粹然雙美傍溪流
후학들이 감탄하는	伊來後學惟嗟歎
옛날 선생이 쉬시던 곳	疇昔先生白憩休
산수는 어진 이 만나 이름이 비로소 소중해지고	物得賢人名始重
골짜기에 남긴 자취로 땅이 더욱 그윽해졌네	洞因遺蹟地增幽
어진 손자 옛 감회 바위에 새기니	肖孫感舊銘而刻
천만년 지나도 맑은 풍모 사라지지 않으리	不沫清風閱萬秋

또

又

영천(靈川) 신응모(申膺模)

옛날 선생께서 이곳에 노닐 적에	憶昔先生此地遊
구름 낀 솔숲 달빛 어린 바위가 명류들을 불렀네	松雲巖月喚名流
거문고 찬바람 소리 성웅은 들어 주고	寒風琴上成翁聽
백옥의 호리병 속에서 변씨가 쉬네 ¹¹³	白玉壺中卞氏休
설학 ¹¹⁴ 의 고고한 자태 늦도록 푸르고	雪壑高姿餘晚翠
고루 ¹¹⁵ 의 참다운 경관 더욱 깊고 그윽하네	鼓樓眞景更深幽
어진 손자의 글씨 빛나는 두 글자는	煌煌二字賢孫筆
원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전해지네	千載同傳院號秋

113 거문고……쉬네 : 미상이다. 원문의 ‘백옥(白玉)’은 화씨벽(和氏璧)을 말하고, ‘호중(壺中)’은 호중천(壺中天)의 준말로, 신선의 세계를 가리킨다. ‘성웅’과 ‘변씨’는 기정익(奇挺翼)의 교우관계인 성웅(成翁)과 변씨(卞氏)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되나, 누구를 가리키는지 추정하지 못했다.

114 설학(雪壑) : 미상이다.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여기에서는 눈이 쌓인 송암산(松巖山)의 골짜기를 가리킨다.

115 고루(鼓樓) : 주희(朱熹)의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에서 8곡인 고루암(鼓樓巖)을 가리키나, 여기에서는 송암(松巖)의 다른 이름으로 보았다.

또

又

후학 김헌경(金憲警)

조부 이어 가문의 명성 여전하니

不墜家聲孫繼祖

남쪽 고을 고사의 풍류가 좋을시고

南州高士好風流

어느 해에나 선생은 쉬려나

何年杖屨能棲息

오늘은 향기 사라지지 않네

此日遺芳尙未休

소나무 황폐해져 사람들 애석하나

松爲舊墟人愈惜

바위에 새로 글자 새겨 땅이 더욱 그윽하네

巖因新刻地尤幽

온 세상이 눈 다투어 우러러볼지니

非徒一世爭瞻仰

화려한 편액 만세토록 영원하리

可以華扁閱萬秋

또

又

의성(義城) 김두해(金斗海)¹¹⁶

단단히 갇힌 목석이 주인을 만나	勁牢木石得其主
깊은 뜻 본받아 속류를 벗어났네	兒倣淵衷出俗流
아래엔 복령 ¹¹⁷ 이 있으니 신비로운 약재요	下有茯苓邦藥秘
가운데 박옥을 머금으니 아름다운 인재라네 ¹¹⁸	中含璞玉席珍休
벗이 된 세 친구 삼 형제 ¹¹⁹ 빼어난데	與之爲友三難特
아름다운 편액 있어 일체가 그윽하네	愛以扁楣一體幽
어진 손자가 새로 새긴 글자만 그리하라	豈但肖孫新刻在
사당과 산의 이름도 그리하다네	遺祠山號亦云秋

116 김두해(金斗海) : 1672~?. 본관은 도강(道康), 자는 거원(巨源)이다. 유학(幼學)으로 고부(古阜)에서 거주하였다.

117 복령(茯苓) :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천년 묵은 송지(松脂)로, 선약(仙藥)으로 꼽힌다. 《회남자(淮南子)》〈설산훈(說山訓)〉에 “천년 묵은 소나무의 밑에는 복령이 있고, 위에는 토사가 있다.[千年之松下有茯苓，上有冤絲.]”라고 하였다.

118 가운데……인재라네 : 훌륭한 인재가 큰 뜻을 품고 있음을 말한다. 원문의 ‘박옥(璞玉)’은 돌 속에 들어 있는 옥으로, 아름다운 자질과 훌륭한 기량을 품고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석진(席珍)’은 뛰어난 인물을 말한다.

119 삼 형제 :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세 형제로 난형난제(難兄難弟)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또

又

울산(蔚山) 김보현(金寶賢)

평소 공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平素工夫何所最
화합하되 중용을 지켜 무리 짓지 않는 일 ¹²⁰	和而中立不其流
자기를 엄숙히 단속함이 진실한 지취요	律身莊敬皆眞積
만물을 너그럽게 대함이 실로 아름답네	待物寬弘矧實休
뜰아래 푸른 가지가 굳은 뜻 지키고	庭下蒼條依守確
섬돌 가 험한 바위가 그윽한 집 지키네	階邊巉石護居幽
선생이 떠나신 뒤에도 그 기풍 남았으니	先生去後餘風在
지금 이 옛터 몇 년이 흘렀는가	遺址於今問幾秋

120 화합하되……일 : 화이부동(和而不同)하는 군자의 실행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中庸 第10章》

또

又

후학 신응모(申膺模)

바위와 소나무 도로써 짝을 이뤄
금강¹²¹ 가문의 원류를 이어 가네
고루의 진경에 고상함 남아 있고
설학의 곧은 자태 언제나 푸르네
유객은 올라가기 어려운 곳이라
군자가 사는 곳 그윽함을 알겠네
빛나는 두 글자 어진 손자의 글씨
일월과 빛을 다투며 만세에 영원하리

巖像松陰配以道
錦江家裡繼源流
鼓樓眞景高猶在
雪壑貞姿翠未休
自是遊人難上處
方知君子所居幽
煌煌二字賢孫筆
日月爭光閱萬秋

121 금강(錦江) : 기정익(奇挺翼)의 고조(高祖)인 기효간(奇孝諫)의 호이다.

또

又

족손(族孫) 병연(秉演)

바위가 소나무 사랑스러워	松依巖畔爲人愛
그 이름 구류에서 취하지 않았네 ¹²²	肇錫元非取九流
나무는 정을 머금어 아름다운 자취 전하고	樹自含情傳美蹟
바위는 변함없이 만물 품고 서 있네 ¹²³	石如不轉立揚休
한가한 산에서 의기투합한 일 생각하니	閑山晚契當時事
고사의 옛터 이르는 곳마다 그윽하네	高士遺墟到處幽
벼랑 ¹²⁴ 에 글자 새기며	對巖雲根應有語
한목소리로 함께 슬퍼하네	同聲人是共悲秋

122 그 이름……않았네 : 원문의 ‘조석(肇錫)’은 좋은 이름을 처음 지어 준다는 의미이다. ‘구류(九流)’는 본래 선진(先秦) 시대의 9개 학술의 유파를 말하나, 여기에서는 속된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123 만물……있네 : 양기(陽氣)가 만물을 따뜻하게 품어 기르는 것을 말한다. 《예기(禮記)》〈옥조(玉藻)〉에 “군자의 서 있는 모양은……머리와 목은 반드시 반듯하게 하며, 산처럼 의연하게 서 있으며, 때에 맞게 걸어가며, 성대한 기운이 몸 안에 꽂 차서 양기가 만물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듯하며, 얼굴은 옥빛이 나는 것이다.〔立容……頭頸必中，山立，時行，盛氣顚實，揚休，玉色。〕”라고 하였다.

124 벼랑 : 원문의 ‘운근(雲根)’은 벼랑이나 바윗돌을 의미하는 시어(詩語)이다.

또

又

후학 신이록(申履祿)¹²⁵

민둥 바위 웅대하게 서려 몸이 드넓은데	石骨雄盤磅礪體
옛 누대 아래 강물이 엉키어 흐르네	古臺之下水縈流
선생의 이름은 산처럼 무거워	先生名在邱山重
후학의 말로 선생의 아름다움 전하네	後學言傳杖屨休
그 정신 깃들여 우뚝한 산 바라보니	留得精神瞻突兀
티끌 없이 깨끗하여 깊고 그윽하네	淨無塵土絕深幽
송암 두 글자 이끼꽃도 좀먹지 못하리니	苔花不蝕松巖字
비바람 견디며 길이 빛나리	雨洗風磨閱幾秋

125 신이록(申履祿) : 1783~?.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유학(幼學)으로 충남 보령(保寧)에서 거주하였다.

또

又

후학 신덕모(申德模)

산 위에 민둥 바위 정신 빼어나	山阿石骨精神秀
고결한 사람이 속된 무리 끊은 듯하네	正似高人絕俗流
아득한 유풍은 육지 상소문의 여운 ¹²⁶	邈矣遺風餘陸軸
의연한 도체는 만물 품고 서 있네	依然道體立揚休
절차탁마하여 속세의 때 없애고	琢磨已去塵埃累
맑은 삶은 수죽의 그윽한 정취 겸하였네	蕭灑又兼水竹幽
수많은 후학이 여기서 사모하나니	來學於斯多艷慕
송암 두 글자가 천추에 홀로 남으리	松巖二字獨千秋

126 육지(陸贄) 상소문의 여운 : 기정익(奇挺翼)의 유풍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다. 원문의 '육축(陸軸)'은 당(唐)나라의 명상(名相) 육지가 황제에게 올린 글을 모아 만든 책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를 말하는데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

又

상산(商山) 김계(金桂)

소나무 절개와 바위 기상 굳건함이

松節巖形兩相固

선생의 고결한 자취와 닮았네

先生高躅亦同流

세월이 어찌 감히 그 자질을 바꾸랴

星霜焉敢移其質

귀신도 그 아름다움 보호할 줄 아네

神鬼猶知護厥休

만물은 이름이 있고서야 소중한 법

物有嘉名然後重

땅은 특별하지 않아도 어진 이를 기다려 그윽하네

地無別處待人幽

어진 손자 효성으로 둥글게 새긴 글자

團圓刻字賢孫孝

천추의 세월 동안 전해지리라

從此留傳復幾秋

또

又

봉산(鳳山) 이응윤(李應允)

선생의 자취 유허에 남아	先生杖履尙留跡
백세의 유풍이 산과 물에 깃들었네	百歲遺風在峙流
선산 ¹²⁷ 이 가까워 부지런히 성묘하고	地近楸邱勤省掃
화수 ¹²⁸ 를 돌며 마음대로 걷다가 쉬네	山回花岵任行休
жат나무처럼 기뻐하는 ¹²⁹ 이웃 많아 경서의 이치 강론하고	隣多柏悅論經理
난초 향기 ¹³⁰ 부르며 그윽한 외로움을 위로하네	遠喚蘭香慰獨幽
두 글자 새로 새겨 불후하기를 도모하니	二字新刻圖不朽
손자의 효성이 천추에 빛나리	雲孫孝思闕千秋

127 선산(先山) : 원문의 '추구(楸邱)'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을 뜻하는 말이다. 《용담집(龍潭集)》 권2 〈시(詩)〉 '차양오 팔수(次養吾八首)'에서 "선조들 모신 언덕을 생각하면 마음이 항상 쓰인다.[松楸邱壟心長繞]"라고 하였다.

128 화수(花岵) : 꽃 산봉우리를 의미하는 말이나, 여기에서는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화산을 가리킨다.

129 잣나무처럼 기뻐하는 : 뜻이 같은 무리끼리는 기운이 통하여 서로 상대가 잘되면 같이 기뻐하고 하나가 못되면 같이 슬퍼한다는 말이다. 육사형(陸士衡)의 〈탄서부(嘆逝賦)〉에 "진실로 소나무가 무성하매 잣나무가 기뻐하고, 지초(芝草)가 불에 타니 혜초(蕙草)가 탄식함을 한탄하도다.[信松茂而柏悅, 嗟芝焚而蕙嘆.]"라고 하였다. 《文選》 卷16)

130 난초 향기 : 백지(白芝)와 난초의 향기는 모두 선인을 비유하는 말로, 군자의 굳은 지조를 비유하는 말이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지란은 깊은 숲속에 나서 사람이 없다 하여 향기를 풍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芝蘭生於深林, 不以無人而不芳.]" 하였다.

또

又

장택(長澤) 고응관(高應觀)¹³¹

바위의 단단함과 소나무의 절개가 옥을 닮아	巖確松貞人似玉
지금도 삼미 ¹³² 에 흐르네	由來三美至今流
어진 손자 효성스러워 선생을 추모하고	追懷杖屨賢仍孝
선조의 덕업 아름다워 산림을 차지했네	曾卜山林德祖休
종유로 추대하는 후학의 기풍 사라지지 않고	後學推宗風不泯
새로운 책 옛 모습 완연하니 땅이 밝다네	新刊宛舊地無幽
당시의 기상 어디서 볼까	當時氣像看何處
봄날 시냇가 꽃과 가을날 밝은 달에 어렸네	花柳溪春霽月秋

131 고응관(高應觀) : 1743~1812.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원실(元實), 호는 성암(誠菴)이다. 할아버지는 준(俊)이고 동중추 가현(可賢)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영광 김씨(靈光金氏)로 정화(鼎和)의 딸이다. 벼슬은 용양위부사직(龍驤衛副司直)·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장령(掌令) 등을 역임하였고, 만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 지도에 힘썼다. 저서는 《성암일고(誠菴逸稿)》가 있다.

132 삼미(三美) : 충청남도 대전(大田)의 외삼동(外三洞) 삼미천(三美川)을 말하는 데, 여기에서는 기효간(奇孝諫)의 유허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의현(李宜顯)의 〈이조판서옥오재송공신도비명(吏曹判書玉吾齋宋公神道碑銘)〉에 “공주 삼미천에 있는 선영의 아래로 운구해 와서 부인과 합장하였다.[歸櫬公州三美川先塋下, 與夫人合窆.]”라고 하였다. 《陶谷集 卷9》

또

又

평양(平陽) 박성삼(朴聖三)

땅이 고결한 사람을 기다려 아름다운 이름 주니	地待高人錫美號
선생의 꽃다운 자취 지금까지 이어지네	先生芳躅至今流
추위 겪은 늙은 줄기에 절개가 가득하고	經寒老幹貞操葆
우뚝 선 층층 바위 기상이 아름답네	兀立層巖氣像休
지팡이 짚고 천석 ¹³³ 에 소요하며	杖屨逍遙泉石膏
길을 가다 가리켜 그윽한 산수 차지하셨네	行道指占水山幽
어진 손자 계승하여 가업을 즐기니	肖孫善繼肯堂業
아름다운 편액 두 글자 만세토록 영원하리	二字華扁閱萬秋

133 천석(泉石) : 천석고황(泉石膏肓)으로 고질병 환자처럼 산수(山水)에 중독되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이다. 자연의 승경(勝景)에 대한 혹독한 애착심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또

又

후학 곽임복(郭臨馥)

선생의 덕업 태산북두처럼 높으니	先生德業仰山斗
학문의 바다에서 연원을 만나 좌우로 흘렀네	學海逢源左右流
아름다운 유풍을 전하여 외고	嘉惠遺風傳有誦
후손의 경사 길이 이어지네	雲仍餘慶永無休
백척 높은 바위에 정신이 고아하고	巖高百尺精神古
천년 늙은 소나무에 강가의 달 그윽하네	松老千年水月幽
빛나는 두 글자 옛 자취에 남아 있어	二字煌煌留舊跡
이슬 머금은 가을 갈대 ¹³⁴ 지금도 생각하네	從今像想露葭秋

134 이슬……갈대 : 선조 기정익(奇挺翼)을 흠모하는 말이다. 원문의 ‘노가(露葭)’는 ‘상로지감(霜露之感)’을 가리키는 말로, 돌아가신 부모나 선조를 슬퍼하며 사모한다는 뜻이다.

또

又

후학 김제즙(金濟楫)

솔숲 가에 만길의 오산이 서 있고	松邊萬丈鰲山立
암벽 가에는 한 굽이 아계 ¹³⁵ 흐르네	巖頭一曲鵝溪流
계곡은 금강으로 통해 참된 근원 살아 있고	溪通錦水眞源活
산은 파잠 ¹³⁶ 을 둘러 맑은 기운 아름답네	山帶葩岑淑氣休
선조의 기업 전하여 삼대가 빛나고	基業尙傳三世顯
어진 이웃이 가르침 따라 백년토록 그윽하네	里仁從闡百年幽
선생의 유풍을 어찌 어진 손자 홀로 사모하리	遺風豈獨肖孫慕
유림의 분향이 봄가을에 이어지네	香火儒林春復秋

135 아계(鵝溪)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계곡을 가리킨다.

136 파잠(葩岑) : 미상이다. 전남 장성(長城)에 있는 송암산(松巖山) 주변의 산봉우리 이름으로 추정된다.

또

又

후학 정학명(鄭學明)

선생은 이치로써 삼역을 주해하고 ¹³⁷	先生以理解三易
온갖 책 박람하며 구류 ¹³⁸ 에 통달했네	博覽群書達九流
소나무의 곧은 절개는 눈으로 말미암고	直節松高因雪色
암벽의 참된 위용 만물을 품은 듯하네	眞容壁立又揚休
남을 사랑하는 성의는 세상과 부합하지 못하고	誠意落落爲人愛
세상과 동떨어진 그윽함 우뚝 솟아 더욱 알게 되었네	更覺巖巖隔世幽
벼랑에 새긴 글자 어찌 후대에 전하려는 뜻뿐이라	崖刻豈徒傳後意
삼엄한 유고가 《춘추》와 같네	森嚴遺稿似春秋

137 삼역(三易)을 주해(註解)하고 : 《송암선생문집(松巖先生文集)》 권4 <잡저(雜著)> ‘역상해(易象解)’를 가리킨다.

138 구류(九流) : 유가(儒家)·도가(道家)·음양가(陰陽家)·법가(法家)·명가(名家)·묵가(墨家)·종횡가(縱橫家)·잡가(雜家)·농가(農家)를 말한다.

또

又

후학 이득무(李得茂)

고루암 아래 얹혀 돌아가는 물 ¹³⁹	鼓樓巖下縈回水
연원이 남아 다 흐르지 않네	留作淵源不盡流
고반에 은거 ¹⁴⁰ 하니 속된 세상 아득하고	邁軸考槃塵邈邈
옛것을 배워 도를 전하니 즐거움 아릅답네	道傳學古樂休休
푸른 소나무 오래된 바위 선생 때문에 아릅답고	蒼松老石仍人美
호를 걸고 향기 퍼뜨려 그윽한 땅 택했네	揭號播香擇地幽
선생이 가신 후 어진 손자 있어	先生去後賢孫在
가업을 길이 이어 가리	不墜構堂度幾秋

139 고루암(鼓樓巖)……물 : 송암산의 절경을 무이산(武夷山)을 감돌고 흐르는 구곡(九曲)의 하나인 고루암을 가져와 말한 것이다. 주희(朱熹)의 <무이구곡도가(武夷九曲圖歌)> 제9수는 다음과 같다. “8곡이라 바람과 연무 그 형세 곧 겹 듯, 고루암 아래로는 댜돌아 나가는 물이로세. 이곳에 멋진 경치 없다고 하지 마오. 단지 노니는 이들이 올라오지 않을 따름이라네.[八曲風煙勢欲開, 鼓樓巖下水縈回. 莫言此處無佳景, 自是遊人不上來.]”

140 고반(考槃)에 은거 :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은사(隱士)의 생활을 말한다. 원문의 ‘매축(邁軸)’에서 ‘매(邁)’는 《시경(詩經)》 <위풍(衛風)> ‘고반’에 “숨어 살 집이 언덕에 있으니, 큰 선비의 마음이 넉넉하다.[考槃在阿, 碩人之邁.]”라는 말과 “숨어 살 집이 고원에 있으니, 큰 선비가 소요하는 곳이다.[考槃在陸, 碩人之軸.]”라는 말에 의거하면, ‘과(邁)’의 오자(誤字)이다.

또

又

불초손(不肖孫) 학상(學相)

선생이 계신 뒤로 송암에 빛이 생겨	松巖自此生顏色
바위 위 맑은 바람은 강물과 함께 길이 흐르네	石上淸風共水長
오가는 행인이 만일 본다면	來去行人如有見
선생의 유적에 빛이 나겠지	先生遺跡豈無光

또

又

죽손 익곤(翼坤)

선생이 남긴 시 바위는 여전하여
산 높고 강물 길게 흐르네
어진 손자가 선조의 뜻이었으니¹⁴¹
송암 큰 글자가 곱절로 빛나네

先生遺韻石猶在
是處山高水又長
幸有賢孫能繼述
松巖大字倍生光

141 선조의 뜻이었으니 :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며, 아버지의 일을 잘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무릇 효란 것은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며, 아버지의 일을 잘 따라 행하는 것일 뿐이다.〔夫孝者，善繼人之志，善述人之事者也。〕”라고 하였다. 《中庸章句 第19章》

또

又

황성(黃城) 변득귀(邊得龜)

바위 위 푸른 솔과 바위 아래 강물처럼

선생의 풍모와 절조가 영원하네

아름다운 시에 어진 손자 기문 있어

천년의 자취가 더욱 빛나네

巖上青松巖下水

先生風節與之長

華題幸有賢孫記

遺蹟千年又益光

또

又

영천(靈川) 신응모(申應模)

소나무 절개와 바위의 단단함이 당신의 뜻이라	松貞巖固自家志
선생의 유허에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하네	杖屨遺墟景慕長
아름다운 이름 두 글자 끝내 사라지지 않아	二字嘉名終不泯
오산의 해와 달과 빛을 다투리라	鰲山日月更爭光

또

又

후학 이득무(李得茂)

송암 어른 계시던 곳
산은 높고 강물은 길게 흐르네
후손이 선조의 학문 사모하니
두고 보라 덕업이 빛나는 걸

松老杖屨地
山高水更長
後孫慕先學
請看德業光

아! 윗글은 《송암선생문집속편(松巖先生文集續編)》이다. 선생은 호 걸스러운 자질로 남쪽에서 우뚝 일어나 북쪽의 문정공(文正公)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 문하에서 교유하였다. 문정공은 선생을 남쪽 지방의 정학(正學 유학(儒學))으로 천거하여 숙종(肅宗) 때 두 번 침랑(寢郎 참봉(參奉))에 제수되었으나, 선생은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나는 선생의 글을 우리 선조 하곡(霞谷)¹⁴² 선생의 행장에서 겨우 읽어 보고, 선생의 문집을 보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지금 다행히 《속집(續集)》 가운데 〈성리답문(性理答問)〉을 읽어 보니, 정주(程朱)를 근본으로 삼아 스승의 학설로 질정하였는데, 근원의 운행 원리를 발명하는 것이 친근하고 절실하여 전체 문집을 보지 않더라도 선생의 학식(學識) 대강을 알 수 있었다. 생각건대 노옹(蘆翁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이 제가(諸家)의 공부를 절충한 공(功)은 선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학자들이 노옹을 종유(宗儒)로 삼았으니, 그 가학(家學)의 연원이 깊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몽촌(夢村)¹⁴³ 김상공(金相公 김종수(金鍾秀))이 선생의 묘갈문을 지

142 하곡(霞谷) : 정운룡(鄭雲龍, 1542~1593)의 호이다.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경우(慶遇), 전라남도 장성 출신이다. 할아버지는 감찰 정장손(鄭章孫)이고, 아버지는 주부 정집(鄭輯)이며, 어머니는 학자 박광옥(朴光玉)의 딸이다. 기대승(奇大升)의 문인이다.

었는데, 다음의 구절이 있다. “공은 젊은 시절 과거 공부를 하였으나, 부모를 여윈 뒤로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오로지 학문에 뜻을 두었고, 만년에는 《주역(周易)》을 좋아하고, 〈상전(象傳)〉을 해석하여 밝힘이 많았다. 또 천문과 지리와 복서와 의약에도 두루 통달하여 막힘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또 이런 구절이 있다. “공이 지은 〈정전향의(井田鄉議)〉 1편이 있는데, 아마도 그 뜻은 천하에 시행되었을지라도 당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앞의 단락에서는 한 가지 작은 재주로 명성을 이루고자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뒤의 단락에서는 자신을 등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이것도 한때 저것도 한때’라는 것이다. 전현(前賢)의 출처에 대한 곡절을 오랜 후대에서 감히 가벼이 논할 수 없으나, 선생이 어찌 경국제세(經國濟世 세상을 경륜하는 일)에 뜻을 두지 않았겠는가?

아! 애석하다. 선생의 후손 노백(老栢) 씨가 문집(文集)¹⁴⁴을 출간한 이후 수집한 글이 상자에 아직 그대로 남아 근심스럽고 두려워해 마치 않더니, 마침내 가려내 속편(續編)¹⁴⁵을 간행하기로 하였다. 원집(原集)을 간행한 지 매우 오래되었고, 책의 수도 많지 않아 학자들이 근심해 왔기에 이번 기회에 원집과 속집(續集)을 합하여 중간(重刊) 작업과 속편 출간을 하였다. 모든 일이 그에 합당한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

143 몽촌(夢村) : 저본에는 ‘몽촌’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조선시대사 인물(朝鮮時代史人物)〉에는 ‘몽오(夢梧)’이다.

144 문집(文集) : 기일상(奇逸相)이 송환기(宋煥箕)의 서문(序文)과 오재순(吳載純)의 발(跋)을 받아 목판본으로 간행한 《송암집(松巖集)》 권·군 2책을 가리킨다.

145 속편(續編) : 기노백(奇老栢)이 정홍채(鄭泓采)의 발을 받아 석인본으로 중간(重刊)한 《송암선생문집(松巖先生文集)》 상·하 2책을 가리킨다.

지는 법이지만, 진실로 고가(故家)에서 전대의 사업을 이어 나가는 규모와 힘이 부족한 상황을 과감하게 타개해 내는 기세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와 같이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었겠는가. 사림이 크게 기여한 도움과 말세에 얻은 사문의 행운이 참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공(公)이 나를 선대(先代)끼리 정의(情誼)를 나눈 후예로 여기고서 책 뒤에 몇 마디 말을 붙이라고 하였으니, 내가 선생을 마음속으로 존경하며 흠모하고 있고, 선생의 명성에 의탁하여 내 이름도 빛나는 일을 어떻게 감히 확고하게 사양하겠는가.

을미년(1955) 12월 일, 하동(河東) 정홍채(鄭泓采)는 삼가 글을 지었다.

원문
原文

松巖先生文集

卷五

詩 疏 書 序

記 上樸文 行狀 碣銘

祭文 通文 箋文

詩

次陶靖節四時詞

春行喜芳澤 夏臥仰高峰
秋愛皎皎日 冬撫青青松

又用本篇水雲月松字

春水氣方至 夏雲物流形
秋月澄清肅 冬沍見松貞

大雪 訪友人馬上口號

我憂今日雪 世道去年風
風雪何時定 皇穹照我衷

內藏靈隱寺呼韻

聞道懶翁子 當年入定禪
遺蹟尋何處 飛來斗重玄

贈從弟子立〔挺然〕仍呈金賚叔

贈君一藥物 攻疾有餘醫
請看霽天夜 梧桐月上時

又贈賚叔

長卿多病人 子夏索居貧
此語君知否 正如我輩人

贈留黃子平

皇天知別苦 故今白日斜
最可留連處 茅屋明月多

贈留子平金大鳴

君不宜去有三事 我思多時又大鳴
多情最有青天月 爲照離筵十分明

見從弟挺之遺筆有感

李白騎鯨飛上天 瓊樓佳句動群仙
玉皇久恨無眞筆 爾壽如今更不延

次子平韻

風樹哀深雨露後 幸逢當日攝衣姿
知君拜墓應多感 握手相看血滿眦

又次子平韻

宅近青山與水流 客來論古更探幽
欲知卜築閒中意 明月清風擅別區

輓李同知【溟】

得壽非關偕老貴 多男雖易抱孫難
始覺蒼天偏有佑 八旬琴瑟滿庭蘭

寄讀書二三子【金鳴鶴·李燮】

衲衣來自讀書邊 爲道吾君學業專
欲識工夫真實地 獨於心上索天然

偶吟

天地動時地不墜 日方交後月生明
欲識陰陽依附理 先看這裡斡旋情

輓劉君【再榮】

曾蒙玉樹照吾門 爲愛琳瑯及本根
誰知刺刺今求輓 灑淚憑題慰斷魂

乙未臘月 贈子立及金子俊【五律】

貧居無長物 白雪滿前林
孟浩雙肩聳 文園一病深
時危窮亦樂 寒緊酒宜斟
子俊兄在否 知我百憂心

戲次大鳴食鼈韻

聖人猶食鼈 或訝妨功名
自古口同耆 恨君智不明
壯元看瑞甲 書法有庖丁
鼎鼎元非惡 今方習調烹

輓朴公【行簡】

長者風流遠 幽明恨未平
生前哭子淚 死後憶親情
五十成春夢 千秋有今名
曉花寒食節 寂寞閉佳城

秋雨

今歲秋多雨 山居更隘湫
病妻愁屋漏 稚子戲簷流
有興添詩語 無田免獲憂
因思大庇責 當世有人不

輓金公【汝鐸】

真率乃其性 不爲時世粧
人間滋味淡 天上酒星光
友愛當年著 存亡此日傷
全交餘白首 曩說未能忘

輓愼公【貞萬】

白首頻題輓 如君最可悲
床前兩妣子 雲外獨鴻危
淒涼身後事 多少訣時辭
無限泉臺恨 千年伯道知

輓柳【壽咸】

陸機作賦歲 柳子登龍年
與奪天何意 短長理亦偏
惟看滕閣咏 并軌高軒篇
莫恨今無也 高名沒益傳

輓邊主簿夫人

夫人闔範懿 福履自能成
入室宿稱德 哭夫晚喪明
眼看雙鵠峙 手撫衆蘭馨
然後髦期迫 帝鄉萬歲榮

輓姜正言【時儼】

通家始奉袂 晚覺有眞仙
直節摧權貴 清風謝俗緣
小亭滄海上 深趣白雲邊
一夕翩然去 千秋何辱焉

輓朴上舍【廷麟】

八十人間福履將 羨君身世最閒康
白圭治產多田宅 叔夜延齡富藥囊
滿篋圖書成萬軸 一園花木近千行
吾知死日無遺憾 竟得孤兒臨構堂

輓房和卿

淚落言前句不成 誰教今日輓和卿
素冠六載遺哀慕 紫樹三秋咽怨聲
二妣寧添丹穴慶 小名非敵桂宮榮
【末二句缺】

輓白公【弘源】

德門請自曾公說 獻納三更獨啓人
傑出仍孫今不少 粹然如子蓋無倫
幾年寸草心猶切 此日高堂恨莫伸
可惜立揚勤苦志 古山殘月杜鵑春

輓崔上舍〔漢〕

曾與月山李汝重 說君資質異凡倫
沈淪非是無才地 疎廣方知任性真
一鬼不鎖欺暮歲 三蘭猶在引餘春
浩然觀化悠然去 應笑風塵火宅人

輓吳上舍〔相胄〕

君家詞翰擅南湖 人道高才絕世無
刃淬當時能少試 豎嬰中歲誤長趨
每憐衢路橫奇寶 誰識光陰促暝途
嗟我禍釁餘白首 臨風拭淚獨悲呼

贈人

君我聞凶纔後前 骨寒心碎共相憐
曾備猛虎堪聞虎 但仰蒼天豈怨天
無往不還真是理 更新替舊在今年
丁寧一語非閒說 聽此須除涕灑漣

答李友【燼】

奴告早稻發 杖策立野中
星來坐巖石 看我意象窮
歸來立開緘 責出疑心題
羨君老益壯 正是風雨雞
店翁喟¹然歎 強披夫子書
爲問五箇語 荷篠還弊廬

輓朴公勝

吾友朴公勝 平生讀書人
兀兀老不倦 白首窮晷辰
由來好心事 直諒存天真
與世多抹搯 於我置心親
每將瓊琚問 追琢求無磷
看君刻苦意 至誠宜通神
遽爾一甲周 誤却百年身
科名嗟已矣 嗣續更悲辛
噫嘻一命字 窮通本不均

1 喟：저본에는 '渭'로 되어 있으나, 《송암유고(松巖遺稿)》 권8 〈시(詩)〉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請看吾身世 蒼天問無因
回首慰旅櫬 雪涕空沾巾

輓金公

禍福固無常 不敢問上帝
宿昔公無嗣 後以兒一歲
我時多子女 儼然兄若弟
日月今幾何 倏爾殊興替
鸞亭鵠峙更玉屑 公家父子成三世
我何人哉哭四子 茫茫天地無歸處
公歸我留亦何理 只自號泣不敢問上帝

輓梁參奉^{〔世南〕}

南服高名人共推 平生孤操世難知
孝思樹老庵墳月 雅趣雲深講學帷
夙昔襟期違十歲 去年團會正今時
遽然舊約尋何處 泣向前途白髮危

大雪 次昌黎贈張籍韻

只憐歲色去 翻喜雪花來
密密從仍細 浮浮風更催
漫空柳絮亂 舞日蝶腰倩
非雨能成濕 如雲忽作堆
排鋪無厚薄 徐緩却旋回
天造同妍惡 地形隨隰隈
河深肯厭愛 山兀不愁摧
廣庇千間屋 高起九級臺
野平規裡大 川曲幅邊裁
紅見園中柏 青知井底苔
陽和五出盡 陰數六稜掇
凝重質勝石 清瑩色邁瑰
貧村生潤澤 世路埋塵埃
迷亂吳門練 沒沈杜谷皑
欲齊莊叟物 乃積伯夷財
席寒登珍暖 危牆戴土嵬
暗聞鹽虎吼 潛動玉龍雷
可奪離朱目 宜浮伽葉杯
繞籬蘭蕙茁 遍樹杏梨開
黔皙寧殊樣 傾裁摠厚培
崇朝停或乍 終夕晴還來
君子唯看竹 騷人謾詠梅

色聲淡淡泯 形象蔥蔥該
火冷光猶薄 煙迷氣暫回
區連黃帝畫 封接玄冥垓
縱妬藍田屑 敢爭葭管灰
鳥文傳古篆 雁陣喪阿魁
勢大驚凌壓 根疎戒仆頽
瘴嵐澄暗昧 溪瀑塞喧豗
竿豎銀莖幻 筭懸玉子胎
看□矰弋早 當午牕扉推
烏鵲食何覓 鳳凰飢不哀
爲矜登歲福 寧恤燎原災
稚女慣行攆 老妻解酌罍
未搖剡浦棹 誰賦梁園才
夜鶴忘遺羽 春魚念曝鰓
比年所罕也 今猶遂初哉
繪畫方施巧 冰堅豈作媒
吐珠見爛爛 提刃覺恢恢
謾愧詩篇老 莫傳學語孩

疏

慕巖書院請額疏

臣等竊惟聖朝右文爲治，尊賢尚德，無間今古，建祠頒額，悉及遠邇。加以近年釐正從祀，陞黜得宜，則所謂昔所未遑，今始畢舉。一國臣民，拭目瞻仰，而獨惟麗朝節孝公徐稜之祠，尙未蒙額，雖緣臣等未及建請之罪，而實亦國家盛典中一欠事也。臣等今始冒寒跋涉，瀝血號籲，伏乞聖明，留神裁察焉。臣等謹按稜字大方，長城縣人也。仕於高麗安孝王時，位至侍中，而性本至孝，故稜之學問道德，今未細考，請以其實行之見於史冊而爲先正之所尊信者，陳之。蓋稜解官歸養者，久矣。一日母發項腫，鑿言得生蛙合藥，乃可。時當凍沍，無得生蛙理。稜乃請於鑿曰：“蛙不可得，疾將奈何。”因號泣不已。鑿曰：“無蛙合藥，亦庶減爾。”卽熬藥于樹下，默禱於心，忽有物從樹上墮鼎中，乃生蛙也。鑿驚曰：“子之誠孝，格天得蛙，疾瘳何疑。”於是用藥立愈，事載《麗史》及《三綱行錄》中。稜又嘗著《居家十訓》，一曰：“扶植綱常”，二曰：“惇叔五倫”，三曰：“寬以御下”，四曰：“禮以事上”，五曰：“臨喪致哀”，六曰：“當祭致敬”，七曰：“持心以公”，八曰：“處事以義”，九曰：“教子以正”，十曰：“待人以恕”。此則出於家乘，爲世人傳誦，故先正臣朴淳撰其碑，盛稱其感天事，且以十訓爲羽翼《呂氏鄉約》者，而證佐其所學

之正。又其舊閭之西，有一洞壑，殊甚清幽。洞有龍湫，湫上有巖，巖有大字，深刻曰，“慕巖”，而註其下曰：“取五十而慕父母之義。”此則不知何時何人之爲，而蓋其洞壑，曾爲稜所往來盤旋諷咏之所，故後學欽仰其孝德風儀而刻之，至以五十而慕擬之，則稜之德行，自當時迄後世，爲人所尊信景仰者，至如此。故萬曆庚寅間，爲之立祠於其地，而未幾值壬辰兵燹，廢墜者久矣。去己丑，鄉人又爲之重建於舊址，則蓋此祠宇實非等閒文具。而其後又以故郡守趙英圭及其子廷老，配食之。英圭，實我宣廟朝武臣也。亦長城縣人，而其性又至孝，急於榮養，業武發身，而其處心律己，以儒名者亦不及。凡七典郡縣，皆有治績。其在邊郡，法不得將母，家有蓄犬，受書往來於母所，人亦以孝感稱之。壬辰爲梁山時，值倭充斥，馳往東萊，與府使宋象賢約同城守，歸謁老母，付廷老歸家避兵，後馳還萊府，則城圍已急。英圭乃挺身奮呼，突圍入城。至城陷，與象賢同日死。其子挺老歸長城，擇避兵所，匿其祖母，出探萊府緩急，則城陷已有日矣。廷老絕甦赴賊，則賊已撤移，莫辨父屍，招魂歸來，泣血守喪，既過祥禫，以未收屍復讐，誓不見天日，爲作土室，入處其中。因執心喪，歆粥面墨，志未嘗須臾忘復，而遂不出土室以終。此其英圭父子事實大略，而事非久遠，鄉人實皆瞻聆者，故其後先正臣宋浚吉陳啓於先大王朝，始旌其閭。今奉朝賀臣宋時烈，亦以其父子事，收入於〈東萊碑銘〉中，則二臣之配食此祠，亦可尙已。噫！惟孝與忠，倫紀大經，而稜之格天，無可議爲。若英圭父子之忠之孝，亦皆罕聞，而稜與二臣者，時世雖異，既已同一鄉里，今又爲之同堂配食。全體一節，固有大小之異，而其遺風餘韻，皆足以感興百世，則顧此祠宇，宜無廢墜於無窮，以爲矜式於方來，

而尙無顯額，以爲之重，則安知不歸於世遠廢壞，人無記識，使國家興作勸戒之道，有所欠缺也哉。臣等不勝感慨，忘其僭越，唐突抗章，伏乞殿下，申令禮部，考厥典禮，渙發佳意，特頒美額，則斯文幸甚，臣等幸甚。臣等不勝戰懼昧死以聞。

伸救尤庵宋先生疏

伏以今之請殺宋時烈者，果何心哉。心痛者無緩聲，則臣等姑不敢以支蔓間說，瀆撓天聽。而言公者辭達，則臣等請先言宋時烈之爲人，而明其無罪可殺也。雖然言人之善惡者，不以其見諸行事，人所共知者，悉舉其善惡之極，已文其實，則其言雖是，而反致聽者之疑。故臣等請姑舍時烈學問之造詣，忠亮之篤至，而略以出處之槩，心術之要，在人耳目，而不可誣者，爲殿下獻，以證其議禮之無他腸也。伏乞殿下，勿以疏遠之狂瞽而棄之也。臣等竊念時烈資稟純實，文藝夙成，擢魁司馬，聲譽休暢，則登第宦達，乃其分內，而顧乃讀書求學，不妄交遊。及自丙丁之後，獨守尊周之義，謝絕名利，因入山樊，其志之不苟，初旣如是，而惟我孝廟大王，謂其傚應大志，而爰降手札，克勤禮招，置諸崇班，訪以遠圖，都兪一堂，契合日融，片辭半言，惟時烈之是聽，則相得之章，可謂三代後一時，而天降大割，孝廟禮陟。逮我顯考，魚水繼歡，而不幸亮闇之初，已有飛語之謗，時烈之退歸，固未得已，而先王之禮遇，愈久彌篤。然而時烈纔承恩命，則謗議輒起，間有無倫不道之說，橫加其身，則時烈之不能安於先朝者，非先王之本心，時烈之得已也。此則時

烈出處之大槩也。若以其心術言之。西南色目，國朝痼弊，而時烈之學，出於先正臣李珥。珥之洗滌東西者，乃其一生志願，故時烈亦以此爲心。及其秉政之日，一循公道，東西之說，不惟不存諸心，亦未嘗形諸言語。曾於政堂，顯斥郎官之言色目者，而尹鐸當日未及知名，時烈聞其棄科讀書，聰明可用，故卽薦爲持平。及鐸改註《中庸》，侮毀朱子，則時烈旋即顯絕之。聞其爲學，則薦而試之，見其侮聖，則斥而絕之，此可見秉心之公。而又有李應蒼許穆等十餘人，皆是南人，而差有賢良之名，一時超遷，其後雖有取舍，只以其心蹟而未嘗以西南字橫在其胸中也。及至庚子，權認疏斥時烈議禮之非，力救尹善道之無罪，而時烈以爲人之所論，各有其見，故終亦不以爲咎，而特全道義之交。平日論議之及認，未嘗不稱道其造詣，則時烈之平生持心，斷不外此，此則時烈心術之大槩也。噫！觀人之法，舍其出處，則宜無大者，而況其心術，乃其本源也。以時烈出處言之，則時烈之於孝廟之恩遇也，宜其感戴之不暇耶？抑宜其怨怒之不已耶？以時烈心術言之，則人之於時烈之被誣也，宜其信彼之必然耶？抑宜其察彼之不然耶？議禮一款，爲當今第一邦禁，則臣等姑不敢妄有所陳說，而若夫言者之謂時烈貶降孝廟，則臣等決知其不然也。雖使孝廟之恩遇不如是而時烈之心術不如彼，苟有一分人心者，決不可違禮追貶於旣沒之君父，而以逞其私意也。況孝廟之於時烈恩同父子，情實知己，而時烈之所以事孝廟者，心悅誠服，若七十子之服孔子者耶！若使時烈君子也，則宜其感泣契合之恩，而沒世不忘也。使其小人也，亦且戀其爵祿之利，而固結於後也，必矣，豈有進退無據，而公然怨怒於腹心之君，而敢自追貶之也？此乃天理人情必無之理也，而謂時烈爲之乎。且人莫不自

愛，則時烈之平生所守，亦自謂不忘者矣。又安忍一朝毀其所守，而公然自陷於貶君不測之罪哉。雖至愚者，決不爲此也，而謂時烈爲之乎？若病風喪性，妄言罵詈者，則有之，而時烈則人知其無是疾也，其可信彼之爲此乎？今若追論時烈之心，則孔子曰：“生事之以禮，死葬之以禮。”傳曰：“得爲而不爲與不得爲而爲之，皆不孝也云。”故時烈議禮之時，其心以爲先王之盛德至善，必不安於一毫未安之禮，則今日議禮，必不爲不得爲之禮，然後方盡以禮之訓，故不得不姑舍難明之古禮，遵用已行之今制。而若今貶降之疑，初非時烈之所思量也。時烈本心，只是如此斷斷無他，而必以此萬萬情外之說，抑勒其罪者，不已冤痛之甚乎？設使時烈之見，正失其禮，其罪不過爲考禮未詳也。古今天下，安有以考禮未詳，而受竄殛者乎？凡人無辜，尙不可殺，況今時烈以先朝禮遇之大臣，以闇昧受誅，則臣未知天下後世，以殿下爲何如主也？噫！今之請殺時烈者，果何心哉。見時烈之不仕，則指以爲索價，見時烈之守正，則指以爲偏黨，畢竟以貶君二字，作爲斷案，必欲殺之，而幸賴天地日月之明，無幽不燭，則又恐其無以回天，乃敢隱然只請其告廟，乃曰：“討罪之典，更無可論。”云者，不亦凶巧之甚耶？朝廷典禮，雖未詳知，而討逆及一罪外，未聞有告廟之舉，則今之告廟，將欲告以何事，而乃曰：“討罪更無可論。”云耶？既曰：“更無可論”而告時烈於宗廟，則是欺殿下也。既曰：“告廟”而不告時烈，則是欺宗廟也。未知府啓之意，將誰欺乎？彼乃敢謂殿下冲年，而姑以‘更無可論’之語，先罔殿下而得旨，然後及其告廟，乃迫殿下以不可不殺之意也。其心可謂出於正耶？孟子曰：“國人皆曰，‘可殺’然後察之，見其可殺焉，然後殺之。”今日：“可殺者，不過左右欺君罔上輩若干。”則

固非國人之請，而設使國人皆請，及其察之於何見其可殺也。未見其可殺，而猶且欲殺，則所謂‘何患無辭’，而獨不念萬世之公論乎？甚矣！言者之不顧其身名也。臣等雖皆疏外賤踵，尚讀古書矣。《書》曰，“天降下民，作之君，作之師。”天作君師，師猶次君，則設使臣等皆是時烈門生，若時烈正有其罪，則決不可欺君而護師也。況臣等之於時烈，以其爲儒宗而尊慕之耳。未嘗有問字之勤，其義輕重，敢比於孝廟沒世不忘之盛德乎？今若孝廟正受其誣，時烈正有其辜，而衝暑遠涉，張皇辭說，不念孝廟，敢訟時烈，則臣等正是禽獸夷狄，而逆民之律，是所甘心也。只以孝廟陟降之靈，必已洞燭，而聖上日月之明，猶有所蔽，故臣等疾聲之呼，亦不容已。伏乞恕臣等狂僭，察臣等誠心，奮厥乾斷，沛此春澤，亟斥請誅之章，特放濱死之命，使四方知大聖人所作爲，出於尋常萬萬，則豈惟臣等之幸，實國家無疆之休。臣等不勝兢惶戰懼之至，謹昧死以聞。

書

上道伯書

伏以民等竊聞，乃者儒生之建請移校，或不無風水之惑，自朝家禁而不許者，其意至矣，則今日民等，亦安敢違越朝家之意，而有所冒昧煩請乎？第念本府聖廟，久未得其地，目前傾側之憂，實非苟延之勢，今所請移之舉，元非風水之惑，則民等安敢不以聞於閣下右文之下乎？蓋本校之舍舊就新，出於亂後合縣之日，兵燹之餘，庶事粗略，未遑擇地，姑占一丘，地勢偏窄，僅容齋宇，因仍苟且，多歷年數。及乎庚子，本府陞號，增奉十哲，禮制有變，謀廣聖廟，地無餘勢。始請於朝，移設府內，而府內遠近無一好地，只占稍廣，又失精擇，卽厥水田，填坑築石，極費功力，乃安廟宇，只取人事之便，不料水土之災，本校士習不惑風水，茲可驗矣，而疎於事理之罪，又無所逃矣。厥後數年，累經大水，泉脉傍透，土壤石頽，廟宮地面，日漸墜陷，礎危柱傾，勢甚難支，猶不敢謀移，但請其重修。庚戌甲寅五年之間，已再修改，則香祝之請，已極瀆撓，虔妥之儀，又失敬謹，而猶且因循，苟延時月者，豈有他哉？每以風水之嫌，沮却擇地之計者，其亦憾矣。式至今日，圯壞之勢，更有甚焉。殿宇西傾，牆壁下頽，闌闌枯楔，俱失其所，此可見歲久益壞，變日斯生，而俄頃時月之間，又至如此者也。旣非重修之可防，又非改築

之能固，則今日之計，莫若移建，而前顧後疑，噤莫敢發。顧自念家人匹夫之葬，尚擇其地，而大聖人妥靈欽奉之地，反未得十分安吉，而苟安於一切污濕極惡之地乎？苟以風水之惑，坐闕敬謹之誠，則民等之罪，反有甚於惑左術矣。求諸一境，豈無萬全久遠之地，可安聖廟者乎？茲乃合辭齊進，以陳擇地移建之意。伏乞閣下，親自奉審，以悉其民等不敢誣罔之意，而報使達朝，以爲必宜移建之地，幸甚。

與洪府使【錫龜】

民自九月初，病寒額中，頗不省事時，下賜《參同契》來到矣。數月不瘳，無以奉閱。自今月少間後，始得開讀，略究端緒，猶未細考其詳，蓋以朱夫子尚有迷旨之歎。《契》亦有‘千周萬遍，可觀神明之訓’，則下問愚蒙，何敢遽以求解隱闕者乎？第既蒙開示勸掖之意，又承冊子，則亦不敢果置不看，而朱子解亦略而不漏，雖得其大綱用意處，而若其孔穴作料，則終未免疑信。故迄今，未敢仰復其萬一矣。因竊記頃者賜坐時，‘李諫議欲試此法，有往復問難處云云。’伏未知其所解孔穴法，果如何，而其紙若無可嫌，則竊欲得見，以證愚見，未知如何？朱子所謂‘策數’，今不得考出，且有似可疑，不可依樣摸捉。朱子亦曰：“魏公所不言者，自可以意爲之云。”則若可熟講，或有意會處，而冊子似不可久留，亦如何？

與洪府使

貴賤榮辱，不足累我明府之靈臺，而大行黃河，亦可驗其行路之風色，奈何奈何。伏問比者氣體若何，仰惟萬福。民一被容接，十分榮幸，而病日益苦，情未更伸，尋常罪負，無以自容。奄以穎川解印，無路山陰奉餞，只增歎慨而已。《參同契》，間嘗參究，而每以病發，只自黑窣窣耳。冊子不可久留，故今敢還呈，亦歎其未卒業耳。謹以所嘗研究者，錄在別紙，仰溷之。伏乞斤正更教，而勿掛別眼，俾得狂僭之名，如何？

別紙 一月三十日六十卦直日納甲子法

別紙		一月三十日六十卦直日納甲子法	
初	子	子	子
一	丑	丑	丑
二	寅	寅	寅
三	卯	卯	卯
四	辰	辰	辰
五	巳	巳	巳
六	午	午	午
七	未	未	未
八	申	申	申
九	酉	酉	酉
十	戌	戌	戌
十一	亥	亥	亥
十二	子	子	子
十三	丑	丑	丑
十四	寅	寅	寅
十五	卯	卯	卯
十六	辰	辰	辰
十七	巳	巳	巳
十八	午	午	午
十九	未	未	未
二十	申	申	申
二十一	酉	酉	酉
二十二	戌	戌	戌
二十三	亥	亥	亥
二十四	子	子	子
二十五	丑	丑	丑
二十六	寅	寅	寅
二十七	卯	卯	卯
二十八	辰	辰	辰
二十九	巳	巳	巳
三十	午	午	午

以仁義賞罰昏明喜怒，則陽當用文火，陰當用武火，而以《復命篇》詩訣，則“陰文陽武宜加減”，更詳之。仁義，只是陰陽爻，賞明喜，即朱子所謂‘注意運行’，罰昏怒，即朱子所謂‘放神冥寂’。○謹就屯蒙二卦陰陽爻，臆定作料法，要以取質。伏乞痛加剖折，斤正回示，如何？

《參同契》，豈易言哉。邵子曰：“老子得《易》之體，孟子得《易》之用。”今魏公雖其渾厚含光，不及老子，英銳得正，未若孟子，然於體用中，各得其一理，盡厥方術之妙，則可謂兼二子者矣。故朱夫子深有取焉。直就其成書中，既已考異，又爲註解，至有欲學之意，發於言，則雖是尼父假我數年之意，而亦可見《契》非異端誕妄之流也。其書以先天明其體，以後天致其用，納甲取象，直事用爻之法，莫非明體致用之妙，則所謂不虛作者，亦信矣。但先師於關鍵肯綮處，率皆引而不發，而若其作料孔穴，則亦自謂‘不知下手處’，以其幾於無不通，而猶如此者，何哉？噫！於其體用，既已眼中了了，惟是度數一款，亦有所不知云，則如問禮問官者類耶？竊以其引而不發者推究，則其體用上工夫，亦可領會，而但十二辟卦，策數一法，恐非魏公本旨也。蓋先天納甲，體有以立，而後天爻位，用有以行，則爻上六甲納音，亦必先用先天數，定其呼吸節度，然後後天應時流行之氣，方得不差。故《契》中所謂‘數在律歷紀’，‘推演五行數’，‘六甲以日辰’，‘九一之數云’者，似皆指先天數而言也。不然，則爻上六甲，終不干涉於用工上，而工夫節度多少，皆無權準處。朱子自謂‘未得作料云’者，正在於此。其所推筭策數者，雖甚整齊，且是先天，而若於爻上六甲，則似未着落，恐未若直用先天數，以定後

天爻之爲精當也。此非尙所謂老萊之所知，而孔子之所不知也耶？試以先天甲己子午九之類，例定後天爻上六甲納音之原數，然後用閉塞坎離兌三光陸沉之法，每值本爻，定其呼吸，不失子申寅戌之時，六甲納音之數，逐其仁義，發此喜怒，而賞罰昏明，用火文武，則先天相逮之水火，變作後天得位之坎離，而所謂‘子珠乃得溫養’而爲丹矣。朱子所謂‘其說甚異’者，而學《契》之能事，畢矣。雖然苟非誠正功至，理明欲去者，則其孰能與於此哉。

此《契》之所以難言也。此是一依朱子解推得來者，而直不敢用十二辟卦策數耳。近得俞琰註解一本，則南大諫所謂‘與眞一等魯衛云’者，正不誣矣。眞一等所解，雖未得見，以其魯衛者思之，則信彼之與此，爲眞魯衛也，又何足見。然俞解中所引《翠虛》等詩訣，則未知作者爲何如人，而其意往往參合魏《契》，此是道家得口訣者非耶？愛其句語之好，方欲蒐採而未能耳。南大諫跋語所見高，想今涪學餘，必能兼通此法者，而前有雲泥之嫌，後無平生之分，無由講質，可歎可歎。光牧舊簡，亦還呈耳。此無善本冊子，後難仰復其萬一，可歎。

參同契孔穴法

謹以朱子解爲主，參以俞氏所說口訣之本於《易》者，定爲孔穴作料。俞氏註解之無稽者，專不採用。若《還金》《悟眞》《復命》《翠虛》諸訣之合於魏公正文而不背於理者，各隨正文句語，錄之以證孔穴法爾。

自乾坤至律歷紀

說見朱子解。俞氏序中，有曰：“指示先天真一之大要，開說後天火候之細微。”又謹按朱子曰：“邵子發明〈先天圖〉，圖傳自希夷，希夷又有所自方士，用以修煉，《參同契》是也。”蓋自乾坤止歷紀，以先天明人身中陰陽升降之軌轍。

自月節至得其序

說見上同。謹按後天，雖朱子所不言，六十卦用後天卦位，乃魏公本旨，則此一節，以後天明工夫中節度次序之要旨。○張紫陽《悟真篇》云：“此中得意體求象，若究群爻謾役情。”此指直事而言，不可執泥群爻也。又曰：“煉藥須知曉昏。”此指動靜有早晚及春秋寒暑也。薛紫賢《復命篇》云，“火候抽添思絕塵，一爻纔過一爻生。陰文陽武宜加減，一顆還丹火裡成。”此言火候依爻用功，而遇陰爻，則用文火，遇陽爻，則用武火，自然還丹成也。蓋指‘爻辭有仁義，隨時發喜怒’及下文。陳泥丸《翠虛篇》曰：“天上分明十二形，人皆分作煉丹程。”此指‘日辰爲期度’也，‘立表以爲範，占候定吉凶’者也，‘發號順時令，勿失爻動時。’

自天地設位至國無害道

說見上同。此一節，先以先天納甲，明晦朔弦望之消息，繼以後天，明火候用功之節度。○《悟真篇》云：“甘露降須天地合，黃芽生要坎離交。”此指天地構精，日月相譚，雄陽雌陰，玄施黃包者也。○鄧鄂，俞氏以爲根蒂。〈丹髓歌〉曰：“昔日遇師

親口訣，只要凝神入氣穴。”此指凝神來軀者也。俞氏曰：“七火數也，八木數也，九金數也，六水數也。”《復命篇》曰：“一月一還爲一轉，一年九精九還同。惟憑二卦推刑德，五六回歸戊己中。”此言陽氣索滅時工夫也。古歌曰，“始青之下月與日，兩畔同升合爲一。”此指觀象凝形而言也。

自內以養己至昭昭不我欺

說見上同。自此至終篇，始言孔穴法。○按俞氏於上文管括微密百解，乃說孔穴法，不知內以養氣以下一節，正所以言孔穴也。今移置此段俞氏曰：“眼含其光，耳凝其韻。舌緘其氣，疊足端坐。潛神內守，不可一毫外用其心也。蓋眼既不視，魂自歸肝。耳既不聽，精自歸腎。舌既不聲，神自歸心。四肢不動，意自歸脾。魂在肝而不從眼漏，神在心而不從口漏，精在腎而不從耳漏，意在脾而不從四肢漏。孔竅漏五者，皆無漏矣，則精神魂魄意，相與混融，化爲一氣，而聚於丹田。迨夫一息換鼻，吾心悅然，則龍虎銜關大路開，而一渠流精入瓊漿矣。”○此法於修煉工夫，甚爲要切，參以正文，亦既吻合。今以此說，解正文曰：“內以養己，安靜虛無’，即疊足端坐，潛神內守之謂也。‘原本隱明’，即眼含光之謂也。‘閉塞其兌’，即舌含其氣也。‘三光’，即耳目口也。‘子珠’，即胎也。蓋三光，乃修煉之關鍵也。三光陸沉，則鼻調支安，在其中矣。至中篇所謂‘耳目口三寶閉塞勿發揚’，亦此意也。

律用其身，十目一心。防意惕念，體用相尋。柯則不遠，上有

六句。損去口具，庭絕塵覆。可以羽化，合作異人。言豈無據，配己以伸。

答金

通家，幸矣。俯顧，勤矣。又此清問，兼以饋儀，不知不佞何以獲此。況審新元益福多祉。僕猶是病悖昏證，而今使庭玉，念無與之相講，豈以病昏，有可取歟？不敢承當，然若使相從，或有相長處耶。

答金

玉樹遠到，瓊札隨至，新正之得，無出是右，而況審雅度益祉耶！挺翼家厄猶未盡，又哭出嫁姪女，悲摧何喻！今年歲感，以此益增，而惟以孩提登□，慰此暮年情境，承此慰賀深感。不遠姪女解胎，雖愈月，而此猶初旬之前日，祝如達矣。徐參奉曾一相面，而此未得數見爲恨，遽爲古人，痛傷何

言。每承海產之惠，而此中山峽，木實猶貴，未一奉報，深用未安，此後除却饋禮，深祝。

答朴守哲

挺翼自罹慘禍後，精神眩昏，又兼風症，所見隨看隨失，不能自攝，何以醫君之病哉。來示天人之說，孟子既爲闢頭曰：“盡其心者，知其性，知其性，則知天矣。”此使以養其心，而使之常爲一身之主，方其靜也，一性渾然而道義全具。及其動也，七情迭用，各有攸主。然則君子之學，豈有以加於養心乎。一心之間，少有差蹟，則歸於異端，不可不精義入心，可也。盡其人之仁義禮智，則必知其天之元亨利貞矣。其餘橫豎之說，逢場當面討。

答朴守哲

風翻浪湧，不知何時以濟習坎。安定字，常送於風浪中人，君雖慰我，以安心定慮，前波不定，而後波繼起，安定字已破碎分裂於風波上矣。古人怡然自安於至足之地，不以窮通而憂也，不以生死而懼也。今我不樂不知樂天知命，是亦罪也。得君之一助，而滿室解憂，若窮陰之一線太陽，可謂得‘朋友有通財之義’也。來示心性氣質之分，前賢之論，已極矣。夫理，形而上者也。氣，形而下者也。心理氣，三合渾融無間，無有罅隙，一滾出來，無有先後。但三合之中，心爲主，其未發也，此心涵是理而統氣源，其應物也，此心妙衆理而乘氣機。盖所以應萬事者，理也。覺其爲應者，心也。能應之者，氣也。理，是應物之本領，心，是應物之主宰，氣，是應物之材料。故心之應事，理亦應焉，而氣在其中。然主之者，心也。故心統

性情，其曰：“性發爲情”，又曰：“情者，心之動。”，或自其本領而該其餘，或自其主宰而該其餘。皆專言而包之也。君言“理氣一滾出來，無有先後，則朱子何以曰：‘先有理後有氣。’東儒所謂‘心先動性先動之說’，非耶云。”如挺翼者，思量未及，而心神先已憤亂矣，不得一一剖破，略舉其大槩。所謂‘先有理後有氣’者，直探其本源而言，非真有時節之可言也。故自其本體而言之，理先氣後，有理然後有氣。自其流行而言之，動則俱動，無有先後。然有氣然後理得以依矣。朱子曰：“氣以成形，而理亦賦焉。”天人一理，故人心之動，亦氣以發動而理乘焉。所謂‘理乘’者，非氣動而理後之也。但自流行而言之，則不得不如是也。然氣不空行，載理以行，而發動之機則在氣，發動之妙則在理，混濶無間，孰得以分先後哉？然此處，極難言，要在默而識之而已。若曰：“心先動。”，“性先動。”，則心性兩岐，各有主張，性動而心未及，心動而性未豫，是其混融無間之妙哉。故其曰：“性先動”者，誤看朱子理先氣後之說，而不知動靜乃此理所乘之機，而非形而上者也。其曰：“心先動”者，誤看心統性情之義，而不知心動理亦動，而妙其動靜者此理也。其言淺近，不足辨矣。比之車焉，輻輪轂三者，各自運轉，不相管攝，則幾何以不破碎分裂乎？朱子所謂‘理先氣後’者，主理而言之，從上直下而豎說之也。所謂‘性先動’‘心先動’者，從左從右，分其兩邊而橫說之也。以此辨之，則是非瞭然矣。朱子理先氣後之說，後儒或疑之。然所謂‘先後’者，猶言‘形而上形而下’者也。玩上下，則安得無先後？若曰：“有性而後有情”，則其曰：“性先動”者，不可也。動，乃情也。性安得謂之先動後動乎。其病，在動字上矣。略書前賢定論而付之耳。

理氣之說，朱子曰：“天地之間，有理有氣，理也者，形而上之道也，生物之本也。氣也者，形而下之器也，生物之具也。有此氣則有此理，有此理則有此氣，是以人物之生，必稟此理，然後有性，必有此氣，然後有形。”“若論本原，則有是理然後有氣，若論稟賦，則有是氣而後理隨而具。”“氣之發，七情是也，理之發，四端是也。”“天下無無理之氣，無無氣之理。”“四端，理發而氣隨之，七情，氣發而理乘之。”“惻隱者，氣也，所以能是惻隱者，理也。”“動靜者，氣也，所以能是動靜者，理也。”“氣無所不在，則其盛著見於造化發育，理無所不通則其實流行於日用人事。”“物物是太極，則是理無不合也。以理言之，則無不合也，以氣言之，則不能無偏。”“以氣言之，則知覺運動，人與物若不異，以理言之，則仁義禮智之稟，非物之所能全也。於此則言氣同而理異者，所以見人之爲貴，非物之所能并，於彼則言理同而氣異者，所以見太極之無虧欠，非我之所得私也。”“論萬物之一原，則理同而氣異，觀萬物之異體，則氣猶相近而理不同。以其賦與萬物之初，天理流行，只是一般，故理同，以其二五之氣，有清濁粹駁，故氣異。以其萬物已得之後，雖有清濁之不同，而同此二五之氣，故氣相近，以其昏明閉塞之甚遠，故理絕不同。”凡人之能言語動作思慮營爲，皆氣也，發以爲孝悌忠信仁義禮智，皆理也。”

黃勉齋曰：“氣有偏正，則所受之理，隨而偏正，氣有昏明，則所受之理，隨而昏明。然此心湛然，物欲不生，則氣雖偏而理自正，氣雖昏而理自明。”“合而言之，則陰陽五行，氣卽理，理卽氣也。分而言之，則形上形下，氣自氣，理自理也。”“氣則爲金木水火，理則爲仁義禮智。”“有生之初，天必所以與於我者，仁義禮智之命。有生

之後，人所以受乎天者，未嘗不異，故有指理而言者，有指氣而言者。”“〈太極圖〉曰：‘動而生陽，靜而生陰’者，言是理乘氣機之動而動化育，理乘氣機之靜而靜生氣。”“流行爲陽，生物，斂藏爲陰，成物矣。”

心性之說，朱子曰：“性者，心之理，情者，心之用，心者，性情之主也。”“性是靜，情是動，心兼動靜而言也。”“性猶太極，心猶陰陽，太極只在陰陽之中，未能離陰陽也。”“仁義禮智，性也，惻隱羞惡辭讓是非，情也，以仁愛以義惡以禮讓以智知，心也。”程子曰：“自性之有形者謂之心，自心之有動者謂之情。”五峯胡氏云，“氣之流行，性爲之主，性之流行，心爲之主。”“寂然不動者，性也，感而遂通者，情也，用之所以行者，心也。”盖元亨利貞，於穆不已，天之性也，生長收藏，變化無窮，天之情也。人受天命以生，而得其所以生我者，以爲心，故其體，卽元亨利貞之道具，以爲仁義禮智之性，其用，卽生長收藏之機形，以爲惻隱羞惡辭讓是非之情也。”“性蘊於中，爲情之體，若鑑之空，如衡之平。信乎寂然不動，而其所以寂然不動者，庸非心有以主宰之乎？”“性發於外，爲情之用，若火之燃，如泉之達，信乎感而遂通，而其所以感而遂通者，庸非心有以運用之乎？”

程子曰：“心譬則盛水之器也，性譬則在器之水也，情比則水之流出者也。”

氣質之性說，朱子曰：“有天地之性，有氣質之性。天地之性，則太極本然之妙，萬殊之一本也。氣質之性，則二五交運，而生一本之

萬殊也。”“天命之性，若無氣質，却無安頓處，比如一勺之水，非有物盛之，則水無歸着。”“性比，則水本皆清也，而以清淨之器盛之則清，以污濁之器盛之則濁，以不淨之器盛之，則臭。但本然之清，未嘗不在矣。”程子曰：“善惡，皆天理。蓋氣質之稟，一昏一明，一偏一正，其明而正者，則發無不善，其昏而偏者，則發無不惡。然其所以爲惡者，亦自此理而發也，故曰：‘惡亦不可不謂之性也。’”天地之性，雖不雜乎氣質，亦不離乎氣質，故朱子曰：“性非氣質，則無所寓，氣非天性，則無所成。”“論性不論氣，不備，論氣不論性，不明矣。”

答朴守哲

近世輕薄趨時之輩，恣睢而疾之，擲揄而弄之，但當自修勿辨，力行而不惑，固守而不變焉。烈火爍之方，辦賓鐵之性，狂瀾激之，始見砥柱之力，所以朱先生僞學之禁也。吾在吾廬，吾讀吾書，何犯人觸世之有。然口是興戒之門，氣是招嫌之媒。必須謙默，勿論朝廷之利害，勿言官員之得失，勿說人家之長短，勿評人事之是非，直須蕩蕩無偏，平平無陂。毋以此論而護其小人，毋以彼黨而詆其君子。間有鬼肝蜚心者，釀猜稔妬，惟黨是視，斷人賢否，抑何也？我東論黨之太峻，是世降之兆朕矣。

答朴守哲

往事，累經煩惱，而來事，不知安頓與否。何時可得定靜安慮乎？第所示四端七情之說，河西先生，因退溪高峯之爭難，而正其訛舛，四七之辨，於河西先生，可爲斷案矣，不可他求者也。蓋四端，惻隱之心，仁之端，羞惡之心，義之端，辭讓之心，禮之端，是非之心，智之端。仁義禮智，性也，而性卽理也。理之端倪，故曰：“理發而氣隨之。”喜怒哀懼愛惡欲七者，心之所觸，故曰：“氣發而理乘之。”心卽氣也，而無理之乘，則必陷於悖逆。雖然四端，情也，七情，亦情也，而同出一源，發處小有分，而本非二情耳。

答朴守哲

窮廬冷冽，礪水之春，與書同至，和氣便自生。昌黎詩所謂‘性情漸浩浩，諧笑方云云。’來書人君體天之說，於世道，可謂有意存焉。蓋天道不已，無爲而成，在天有五行，在人有五事。五事得，則休懲便應，五事失，則咎懲便應，人君其可以不敬天乎！動靜語默，出入起居，無往而非敬。民吾同胞也，以天下爲一家，物吾共與也，以萬物爲一體，以天之天爲己之天也。故聖人居天位備天德，心與天通，道與天契，念念而合天，何往而不濟。其大者既合，則其他無不合。若縱欲無度，天之日月星辰，地之江海山嶽，如何不變怪。

□□

答朴守哲

無極而太極之說，挺翼窮不能自存，心動身疲。晚來所業，七顛八倒，對方策，心神先已昏耄，輒與人言，不能全對，況太極至理乎？以前日聞諸師者，略說。朱子曰：“太極，所以一箇實理，一以貫之。然則‘無極而太極’，正謂‘無此形狀，有這道理’，正恐人將太極做一箇形狀底看，故又說無極，只是此理也。”“不言無極，則太極同於一物，而不足爲萬化之根，不言太極，則無極淪於空寂，而不能爲萬化之根。”“太極非別爲一物，卽陰陽而在陰陽，卽五行而在五行，卽萬物而在萬物，只是一箇理而已。”“道爲太極，以流行者言之也，心爲太極，以會統者言之也。”卽吾心而觀之，方喜怒哀樂之未發，渾然一理而已矣。無形無象之中，萬物畢具，非所謂‘無極而太極’者乎？誠以爲太極，則已屬於有氣，故周子以無極書之。所謂太極者，萬物會統之名，有理則必有氣，分則爲陰陽，五則爲五行。萬事萬物，皆原於此，人與物得之則爲性。性卽太極，仁義卽陰陽也，禮智信卽五行也。太極者，至中至正，至精至粹，至神至妙，方其寂然無思，萬善未發，是無極也。雖云‘未發’，而此心昭然，靈源不寐，是太極也。太極未動前，便是陰，動之中，自有陽之根，陽動之中，自有陰之根。太極，不是會動靜底物，乘着動機便是靜，乘着靜機便是動。主太極而言，則太極在陰陽之先，主陰陽而言，則太極在陰陽之內。蓋自陰陽未生時言，則所謂太極者，其理已具，自陰陽已生時言，則所謂太極者，卽在陰陽之中。開物之前，混沌終始如此者，太極爲之也，開物之後，有天地有萬物如此者，太極爲之也。開物之後，人銷物盡，天地又合爲混沌，亦太極爲之也。太極常常

如此，無增無減，無分無合，以未判已判言太極者，不知道也。

理氣源頭之說。動靜無端，陰陽無始，理氣只是一箇流行。就流行中截自一陰一陽初生處，以爲始，而此陰此陽未生之前，其理已具，是則所謂理氣之源頭也。自源頭而觀，則理氣無先後，而理爲氣本。自流行而觀，則理氣有先後，而理乘氣機。朱子曰：“陰陽若論流行底，則只是一箇。”以是推之，則所謂源頭者，只是在流行中，而理氣實非有先後之可見者矣。

理氣動靜之說。陰陽，氣也，太極，所乘之理也。動靜者，機也，動之靜之者，理也。故自動靜者而言，則謂之氣有動靜而理無動靜，可也。自其動之靜之者言，則謂之理有動靜故氣有動靜，可也。朱子曰：“動靜非太極。”又曰：“理有動靜，故氣有動靜。”以是推之，則此理雖不自會動靜，而亦能主其動靜矣。

理氣一原之說。就氣中不犯形氣，單指其理，則渾然全體，無所偏倚。故尊而稱之，曰太極矣。夫子所謂‘易有太極，一陰一陽之謂道’，周子所謂‘無極而太極’，程子所謂‘冲漠無眚萬象森然已具’，張子所謂‘萬物之一原’，是也。【性無不全，萬物皆同】

理氣分殊之說。就氣中各指其氣之理，則理已偏於一德，而不得爲全體。故分而目之，曰健順五常，亦不雜乎其氣之善惡而言，故其本善之體自若也。夫子所謂‘成之者性’‘各正其性命’，周子所謂‘五行各一其性’，孟子所謂‘犬之性牛之性人之性’，朱子所謂‘偏全之理’，

是也。【在人則全，在物則偏，人物不同也】

分殊之分殊說。兼指理氣，則氣有善惡，理亦有善惡，故據氣稱之，曰善惡之性。夫子所謂‘性相近’，周子所謂‘剛柔善惡’，程張所謂‘氣質之性’，是也。【人人不同，物物不同】

一原分殊只是一理之說。單指各指兼指，只在一處，理在氣中，只有一體，而單指則皆全，各指則有偏全，兼指則有善惡。朱子論性所謂‘同中識其所異，異中見其所同’者，是也。性在其中，一而已矣，就此一箇地頭，或不犯形氣，單指其理，或各指其氣之理，亦不雜乎其氣之善惡而言。故其性有一原分殊之不同。單指處，未嘗非健順五常之理，各指處，未嘗非太極之理，兼指處，未嘗非健順五常太極之理。然單指處，不可換做健順五常之殊，各指處，不可換做太極之全體，兼指處，不可換做五常本然之德。譬如看山，橫看成嶺，直看成峯，而山未嘗有二也。然看成嶺處，不可換做峯，看成峯處，不可換做嶺也。理一也，山一也，只在人看得有別耳。

萬物會統之說。程子曰：“純氣爲人，繁氣爲物。”無極之真，二五之精，妙合而凝，化化生生也，莫測其神，莫知其能。自天地觀萬物，則萬物爲萬物，自太極觀天地，則天地亦物也。人而盡太極之道，則能範圍天地，曲成萬物，而造化在我矣。陽交於陰，而生蹄角之類，剛交於柔，而生根荳之類。陰交於陽，而生羽翼之類，柔交於剛，而生幹枝之類。天交於地，地交於天，故有羽而飛，有足而走，草中有木，木中有草焉。天地有至美，陰陽有至精。物之得者，或

粹或駁，或醇或醜，故萬物之類，或巨或細，或良或惡。至于聲色形氣，各以其類得之。人之有類，亦猶物之類。動物之本，植物之本諸天，以氣機呼吸，爲聚散之漸，諸地以陰陽升降，爲聚散之漸。生物之道，天類屬陽，陽爲動。地類屬陰，陰爲植。陽之陽爲飛，陰之陰爲草。天有至粹，地有至精，人類得之，則爲明喆，飛類得之，則爲鸞鳳，走類得之，則爲麒麟，潛類得之，則爲龜龍，草木得之，則爲芝蘭爲松柏，莫不以類而得焉。天有至戾，地有至幽，人類得之，則爲妖孽，飛類得之，則爲梟鴞，走類得之，則爲虎狼，介類得之，則爲虺蜴，草木得之，則爲不材爲至毒，亦莫不以類而得焉。天地絪縕，萬物化醇，若感應不一，則氣不粹，氣不粹，則生物不善。故古之聖人，自昭明德，治化萬邦，災害不生，禍亂不作，日月星辰，不失其序，風雨晦暘，不失其常，山川鬼神一寧，鳥獸魚鼈咸若，天人之際，安可忽哉。以我絢²物，則天地亦萬物也，萬物亦天地也，何天地之有，何萬物之有。我亦萬物，何我之有，何物不我，何我不物也哉。天地之事，說得此處，無餘蘊耳。

與朴守哲

貴族祖朴守義氏，出宰長城，幸存使間，挺翼不得已，而入謝長銜。數日談話，而尤菴先師，被小人構禍之事，縷縷痛折，聞之快然，心惺處也。以先師雪冤事，亦被小人之構捏，不遠間罷歸云，又聞之

2 絢：저본에 '絢' 자는 '觀' 자의 오자로 보인다.

嗟惜不已。抑又聞之，君亦搬還于驪州先鄉云，眞耶？否耶？不如不聞也而聞之，亦惆悵不已。君之先世履衣之藏於此，既至三四世也，此亦非先鄉乎。更圖思之如何。

與朴守哲

人之所以爲學，心與理而已矣。心雖主乎一身，而其體之虛靈，足以管乎天下之理，理雖散在萬物，而其用之微妙，實不外乎一人之心，不可內外精粗而論也。是以聖人施教，使人默識此心之靈，而存之於端莊精一之中，以爲窮理之本，使人知有衆理之妙，而窮之於學問思辨之際，以致盡心之功。此巨細相涵，內外交養，未有精粗之殊。天下之事，規矩可傳，而其巧難傳，豈可以一時私見，以窮天下之萬變哉。【缺】

序

送趙都事〔龜祥〕序

驪之江山，甲於吾東，吾友趙錫美，實來居之。庚午冬，錫美以事來鰲山，鰲亦山水鄉也。錫美之意，若全在江山，則來鰲一月，何不一投足於佳山美水，而惟與舊要數三及如吾稿枯衰落者，談笑而度日也。於其別，余乃執酌而請曰：“吾見吾子之來驪，不徒在於江山也。聖人有三避之說，吾子於三，敢問所安？吾子勿吾欺也。”錫美嘿然。余於是書，以爲送別序。

記

曳尾亭記〔絕筆〕

漢陽之前金吾郎趙錫美，來驪江之明年，因事過余於松巖之草屋，後十數日再會，宿於邊美卿。因爲之敘別，余乃問驪江山之美及其來居之意，錫美不肯明言而曰：“吾既作亭於驪，而扁以曳尾，吾名適龜祥故也。子將爲我記之。”余未及固辭，而錫美卽別去。歸驪未幾，卽以書來促之曰：“盍記曳尾。”又不復略及其江山景物之何狀，亦可想名亭之大意矣。余惟古之命名者，皆有寓意。蓋錫美之肇錫也，其意若曰：“上之出於洛，背負九疇，與天地參中之爲十朋之元，決天下之疑，先於著策之用，下之爲四靈之一，爲天下文明之瑞，直與麟鳳而爲伍，上下遨遊之。”斯其所寓底意也。旣而錫美連不得志於科第，吏部用薦爲金吾郎，未幾錫美乃慨然曰：“天將以窮我也，我將爲莊生所謂曳尾，可乎。”卽日歸臥驪庄，作亭而扁之，其所寓者，亦可尙已。或有疑之者，“錫美若此，則無乃動於窮通而惴惴焉不釋然者耶？且錫美，儒者也，聖賢其讀也，君子其行也，何乃晚喜弔詭之論以自附也？抑亦近於儒名墨行者耶？吾則茲不悅。”余應之曰：“錫美也，於是乎賢遠於人也，其所取曳尾者，與莊生略同而或異。《中庸》不云乎？‘君子素其位而行。’又曰：‘不怨天不尤人。’錫美初豈欲曳尾爲哉？惟其所遇耳。天旣不使之洛也元也，又

不使之得與於方今之太平，則其所遇者何如也？無不有之萬事，有所思之一心，慕知幾之其神，悟稅駕之有所，乃於此優遊而偃息，斯不亦素位而行者耶？心無累於內，身不嬰於外，不願人之文繡，以待吾之年壽，泯默乎混世而含光，斯不亦不怨尤者耶？此則曳尾之不必惡鑽灼，不必喜泥滓。任其自然於所遇，夫豈不釋然於窮通者哉？莊生之語，善反之，則君子之至道存焉。”錫美也，有見於此墨，奚足擬哉，疑者乃解，於是書以爲記。作亭之歲乃崇禎後己巳也，記之時卽庚午臘月日也。後之登斯亭者，其有考焉。

上樑文

長城聖殿移建上樑文

通祀遍天下欽崇，已洽於遐鄉，加秩配門人廟宇，移卜於茲地，何必仍舊？是用圖新。恭惟夫子吾無間然，萬世丕惟曰祀，設爲庠序學校，制用殿廡堂齋。佐以思孟顏曾，位以州府郡縣。惟本邑合縣當日，而聖殿擇地失宜。複廟重欄，僅間架之成樣，三間四表，欠規模之如儀，組帶青襟，咸致恨於隘陋，人材儒效，又未免於濶疎。頃緣邑號一陞，將躋從享之十哲。上祇朝憲蜀廟，宜闡於寬間，下詢僉謀袁學，難便於舊址。卜云其吉，何處水麗山明？相土之宜，實是天慳地秘。矧茲營建之所，乃在邑治之東，玉津金波，一練泗洙之色，鶴岑龍岵，千丈農山之高，如有待焉，非偶然耳。致禮敬而措辦，賢哉大夫，用意而經營，允矣多士。是所謂不日成也，孰不曰自天佑之。不勞民不傷財，庶幾乎仁義兼盡，無侈前無廢後，有是哉奢儉得中。施爲映德星而流光，文明皎白日而開照。圓冠方領，周儒詠辟雍之章，麟經鳳書，魯人傳泮水之頌，非徒一時慶洽，抑爲萬世之休徵。雙樑橫飛，六偉雷動。拋樑東，朝日初生瑞旭紅。炎涼詭問何須辨，至今千載笑其童。拋樑西，截然蒼壁與天齊。聖門仁知今猶古，好山佳水遠不迷。拋樑南，巖花垂露碧氤氳。依然闕里春不老，祥雲終日繞新龕。拋樑北，丹巖水接黃龍曲。回琴點

瑟儼如侍，逝者如斯今不息。拋樑上，泰山頽後人咸仰。夜來星斗森相列，一理先天不暫妄。拋樑下，門下諸生日灑掃。槐市杏埭今復誰，教勿代□護覺舍。伏願上樑之後，鳥竄做去，風雨無災。祀事不怠，佇見文翁之化蜀，文運大啓，永言多士之生周。

筆巖書院祠宇上樑文

粵若自堯舜禹湯文武周孔之聖，上爲君下爲臣，莫不教仁義道德孝悌忠信之源，國有學鄉有序。是以道脈罔墜，唐虞三代則不容議爲，藏修以興，上下數千年有足言者。斯乃功有衛道，咸建祠而妥靈，士知象賢，競寓慕而肄業。是用投函乞額，晦翁闡白鹿之規模，聞風賜書，眞宗煥紫泥之褒美。惟我海東賢者，有若河西子乎。恭惟先生，以極高天質，得大賢地位。劈葱觀理，詠天字妙，在髻鬣而猶然。發軔得正，見道益明，蓋猶源之有自。風雲感於夏啓，道之將行，弓劍怨於鼎湖，天胡降割？時乎仕則仕止則止，去矣見所見聞所聞，泯泯幾春秋，矢死〈柏舟〉之篇，年年七月日，節昭卯山之中。哲人其亡，泰山頽而安放，先生祭社，伯夷風之廉頑。章甫依歸，二百年如一日，徽額建請，數三郡亦畢來。揭筆巖而賜扁，今才十載，顧岐山之奠基，曾已三遷。初緣灰燼之作災，今何水圯之爲患？豈以東魯之風土無地可移，何幸武夷之山川不遠而邇？聿來胥宇，且獲日吉辰良。惟斷乃成，無論舉羸時詘。宜圖新制之合式，寧嫌舊貫之改爲，鳥斯革翬斯飛，豈惟英靈之攸妥。夏宜絃秋宜誦，抑亦斯文丕昌。翠竹蒼山，如對壁立之節，清溪朗月，悅聞

瑤琴之音，小子盍歸來乎？大雅其在斯矣，恭拈短筆，助舉脩樑。兒郎偉拋樑東，睡覺東窓日已紅。想得當年超詣妙，森然萬象豁然中。拋樑西，瞻彼西山莫與齊。千古屹然磨不得，先生清節孰高低。拋樑南，前山綠樹捲朝嵐。欲知這裡盈虛處，雲影天光共滿潭。拋樑北，文章溪水流無極。溪因人號人因文，文在溪流今不息。拋樑上，曉天星月光煌朗。下學須求上達功，自強不息眞無妄。拋樑下，三門豁若神明舍。聖賢氣像有誰知，浴沂當年與點也。伏願上樑之後，香火益虔，文教大闡。麗澤講習，會友以文，博約操存，明體適用。國有思皇之美，以寧文王，國傳洙泗之風，無負先正。

關西巡營蓮幕上樑文

述夫劍外播越，嚴子雄別館於華陽，江左偏安，張公創校幕於州北。是知參謀帷幄，卽有廈屋渠渠，出入寅申，不煩往來屑屑，凡茲鄭重之舉，莫非衛國之忱。矧今太師古城，肇啓小華，盛業遺風善政，猶有存者尙矣。無以議爲天意，人事有如是乎？嗚呼未易言也。茲朝家擇其闕任，繫我侯倚以干城。朗月清風，洒胸襟於冰玉，秋霜烈日，濟寬猛於噉暄。心絕偏私，裴相之肝肺寸赤，政在簡約，羊公之將校十人。顧惟荊督之來臨，值此蓮幕之久廢，開碧油於氓舍，弊日斯生，多窘步於駿奔，制有未備。旣幃幃之無所，長缺有歌，幸詢謀之僉同，小民至願。厥位陽厥土燥，于以營之，無廢後無侈前，此亦足也。工斲不日，興替有期。廢度以興，方覺雪山之重，鳥舒其翼，益衛〈甘棠〉之春。玉帳群英交賀，爰居爰處，緋衣府吏

不愁，維鵜維鳩。體此三門規模，庶幾一乃心力。南樓翫月，或有詠史詩人，北寒籌邊，孰非殉國義士？敢爲短唱，助舉修樑。兒郎偉拋樑東，長江一帶浩無窮。欲知這裡寬閒意，天外芙蓉指點中。拋樑西，回看龍鶴曉雲低。須臾捲盡無浪風，多少奇觀未品題。拋樑南，前山綠樹捲朝嵐。試望外城箕井地，父師遺化至今覃。拋樑北，牡丹峯色接天碧。願今黽勉思酬恩，從古聲名齊北極。拋樑上，曉天星月光煌朗。從來幕府多豪客，佇待神機佐上將。拋樑下，江山千里耀殊價。箕封舊俗今猶傳，說得當年八條化。伏願上樑之後，民生樂業，刁斗長閒。漢塞風塵，永絕邊警，殷家日月，再明斯邦。

行狀

壺巖卞先生行狀

先生諱成溫，字汝潤。世家草溪君大匡輔國崇祿大夫文烈公諱庭實之後也。【藝文提學孝文六世孫】考諱球【僉知中樞府事】，生五男，先生【嘉靖庚寅生】其長而幼有異資，事父母克孝，遇諸弟盡友愛。既長，聞河西金先生，方以道學倡率後進，先生遂往師之。河西始以《小學》書授，先生既卒業曰：“作聖模範，盡在此句，於此潛玩力行，何患不成。”自是凡言行動止，一以小學爲準則。時河西家在長城，先生居茂長家，既貧儉，性又簡朴，常着平涼子，徒步往來，請益不怠，恒習九容，未嘗須臾離。一日路遇驟雨，足容猶重，不失常度。人皆譏笑其不知處變，先生應曰：“方雨下時，路距人家既遠，雖疾若飛鳥，猶不及避，與其不避而徒失吾足容，不若守吾常不變之爲愈也。”識者誠服其顛沛必於是。其爲學必務本務實，而同門諸子，皆一時博雅，而至於踐履之篤，操守之堅，則莫不推公，爲不可及。其爲孝一於誠敬，又盡心於事死一節，晨必謁廟，朔望必參。每值祭祀，必先期齋沐，親自潔器具饌，將祭之夜，深衣齊坐，通宵不寐，及灌如在之誠，尤極切至。故家人及臧獲，亦如見其所爲祭者，舉匙著飲食之狀況，若平日者然，至今隣里及同鄉之後生者，相傳爲矜式。與諸弟同居一室，怡怡湛樂而有日，成振其季也，亦天資

脫凡，先生乃導以正路，培養甚勤厚，及其志學，同受業於金先生，後往來於退溪李先生，先生叩其學甚許之，嘗作八首贈之有云。“佳山佳水日徘徊，仁智吾猶未竭才。敢叩師門有何訣，將試餘緒賁江臺。”“風雪尋師十載前，云何一瓣嘆靡傳。勸君莫被因循誤，努力須撐上水船。”先生自是學益精行益修，連床探討，竊有慕於伊洛之至樂者矣。先生晚年，益厭世紛，卜築於壺巖下，巖石絕特可愛，自號壺巖居士，而確然有三公不以易其介之意。故牛溪成先生，嘗答書曰：“如吾賢兄，身健力强，致志於學，深入山谷，與世相違，則事業之遠大，工夫之篤實，不望於兄而誰也。近閱世變推移如浮雲，君子操直道於其間，無容足之地，惟有山林爲安頓處，惟兄已得之，而足以明哲。”又曰：“伏想超然獨立，顧影無猜，自守益堅，操履益確，令人向風羨慕，不自己也。”云。思菴朴先生，亦嘗以書遺之曰：“頽世紛綸，實難形容，吾徒但當高蹈自飭，務博講討，不爲風聲所移而已。每思高明受氣不淺，才料甚優，所期於吾道者在此耳。”因贈詩曰：“紛紛多少好男兒，誰免勞心逐物移。杳杳獨尋山水去，萬株松檜一茅茨。”噫！二先生，不苟與人，而所以獎許先生如是，則以此知先生操履出處之大槩，而不幸先生卒無嗣。【季先生子敬天爲后】且經兵燹，其學問之奧，真實之功，無一記存者。獨季先生有子若孫，略記當時事實爲狀，而先生則迄無狀若銘，可勝惜哉。以余所聞先生之兄弟，蓋學同行同，而先生年記最長，故季先生之學行，皆本於先生之訓迪。所謂哭廟感虎不見，汝立木刻璣衡等語，皆先生事，而季先生與同焉，故今載季先生狀中。此則伊川所謂欲知余事，考諸斯文云者，近之庸何傷。兄弟氣質，則有差不同。先生則溫厚愿慤，有不求聞達底意味，季先生則剛毅慷慨，故處家常憂國

不已。其陳疏言事，皆先生歿後，季先生獨爲者也。先生於金先生歿後，常有反桀之誠。而世嘗諱言河西之節義，先生益悲憤慷慨，遂徒步往來於斑翼之高王父錦江公家，共折書邀邊公以中，倡立祠宇，屬梁公子徵狀焉。金先生得專不朽之美者，皆先生力也。先生於吾祖錦江公爲同門，而出處氣味，若相同焉。斑翼竊嘗與聞先生之行義，而重感其功，近百年無人狀先生者，謹將一二所聞，爲先生事實記。德陽后人奇斑翼謹書。

花庵宋公行狀

公諱柁，字時正，洪州人也。以隆慶元年丁卯六月十四日生于光州黃溪之里第。公天姿卓越，氣度閒雅，律身以禮，接人以誠。幼失所恃，極其哀毀，遠近見聞，莫不歎服，稱以天生孝子，蓋其慈良素性也。事繼母，極其誠孝，遇弟妹，盡其友愛。文章亦富，而不屑爲舉業，先君海狂公，甚器重之，凡有大小事，必召與議決焉。嘗於趙重峯之言事竄北也，海狂公將擬封章，極論時輩妨賢病國之罪，語多觸諱。公不勝悶迫，夜取疏稿及行裝，焚之泰仁旅次，因叩頭流涕，陳其實狀。海狂公歎曰：“父子天倫也，今見至情如此，而倘以身死於師友，則亦非父子全恩之道也。”慨然而止。丁酉之亂，有海島避倭之計，與其妹婿權石洲，先往務安地，營辦船隻與糧資。倭賊突入其境，嘗夜行失道，爲賊所虜，到閒山海洋，度不能生還故國，語同舟人曰：“我等生於禮義之邦，義不爲夷狄之氓。與其生而俘於醜虜，曷若死而葬於江魚之腹中。”乃奪倭劍電擊，盡斬一船

之倭。有一倭被創，投海游泗得脫，告于他賊，賊艘雲集，戈矛電掣。公遂登船大呼曰：“我乃光州宋某之子某也。不幸而陷于賊，今又不幸而死，汝諸船被虜者，早晚歸還，傳語我父母，可也。”因投水死，時年三十一。此則昌平進士李紳在倭船日，所親見而傳之於姜睡隱沆者也。公被執後，公之弟檣，又見繫累於珍原，海狂公常念不忘，夫人曰：“二子同俘，而獨思一人，何厚薄也。”海狂公答曰：“伯兒天性，異於凡人，必不苟活於讐邦，決難重逢於此生。言念所及，寧不痛傷？”及聞姜公所傳乃曰：“吾兒今既得其死矣，吾又何恨。”蓋公踐履篤實，見重於先君如此。尤齋先生所撰〈海狂公墓表〉中，稱公孝友之行及殺賊投水之事，權石洲所著〈名行記〉，亦稱公孝友仁勇及明白死烈之蹟。公嘗僑居務安之沙浦上。扁堂以花庵，至今百日紅亭遺址尙存云。公歿，公之子燧，年甫十歲，公之弟，繫入日本，十年而還，且經兵燹之慘，故公之平生事實及片言隻字，泯沒無傳於後，不能殫記云爾。

瀛州梁公行狀

公諱千運，字士亨，自號瀛洲，耽羅人。耽羅之梁，寔漢羅君洵之裔，而爲羅麗著姓，至國朝頗以文行稱，而官皆未達。諱泗源，中廟朝以賢良薦，爲宗簿主簿，號蒼巖。諱山甫，以趙靜庵門徒，己卯後隱德不仕，號瀟洒。是公之曾祖若祖也。考諱子徵，早師金河西，河西賢而女焉。世稱鼓巖先生，以德行薦爲石城縣監。公之三世，皆行誼名儒，而鼓巖尤著。及金氏無嗣而沒，復娶生員金松命之女，

生三男，公其季也。公氣貌異，而性又孝友，幼不喜弄言，笑亦罕，趙重峯一見，以玉樹稱之。中萬曆庚寅進士。當汝立之變，二兄千頃千會，以儒士言事太過，俱不得其死，鼓巖先生，大傷其不能韜晦而致此，於是，勸公以謹慎自守。壬辰倭寇犯京，鼓巖公聞變將奔問，公泣諫其老病無可自力，先生度不能行。且聞霽峯健齋二公，方興義旅，命公往助之，訣以父子同裡，幽明協力之語。高公悶其無兄弟而親老，勉使歸養。時公之娣夫安公瑛，亦迫到麾下，公與之相勉而別，後安果不旋踵，蓋公父子倡先之力也。未幾鼓巖公歿，幾及祥，金夫人又逝。公久守廬幕，哀慕如初，因述悲痛，以寓蓼莪之意。及丁酉寇深，負主避鋒，雖搶勦危迫中，必偷隙設奠以盡哀，同行避亂者，至皆感泣。至癸亥仁廟初，太學薦公以明經篤行，時大成李公慶涵，喜以爲得人。始除童蒙教官，歷司憲府監察，轉至寺瞻主簿。甲戌謝病還鄉。至丙子兵燹，公既老病無以勤王，則出處外舍，悲不自勝。聞清陰益抗節，公乃慨然曰：“吾榜可謂有人。”自此無意出世，忽感疾考終。是冬十一月，葬于鼓巖先生墓下趾巽之原，從其志也。初汝立延攬時，公始弱冠，而名已重，汝立來訪，公揖而不拜，終不與款，汝立改容而去。庚寅間，伯氏屢中發解，公未及精熟，而同入會試。伯氏先製，欲以公名先題，公不肯曰：“得失早晚何關。”公果得中，而伯氏屈。其後哭牛溪於坡溪，欲因留泮，友人林公懌止之，果以時議變也。公即歸家歎曰：“微子中，吾其殆哉。”公初與爾瞻有舊，至爾瞻主廢母論，公即絕之。一日遇諸塗，公即引避，爾瞻強與語，公只敘寒暄即別去。公所交遊，如清陰先生，及一時名勝最多，簿宦數年，一不到權貴門。初鼓巖公病革，嘗矢禱天如古人。忌辰適在季冬，雖霜雪凜冽，不憚澡浴，克慎終

身之喪，皆有人所難及處。庶叔父子湖早孤，鼓巖愛養，公遂盡其事諸父之道，至其喪葬，又盡哀恤。三娣，皆歸士人。其長吳岷之妻，遇倭不屈死，公常義而傷痛。其次安公之妻，夫既能無歸，公迎歸同室，事之益勤。徐氏妹被夫家禍，夫死於謫所，妹及子女又無歸，公又率歸，愛恤不衰。其他子姪之貧無賴者，皆收之如不及。公之家，自先世無析財契卷，公因誡子姪曰：“吾家以學相傳，本無文券，以先君子口占爲準，無忝所生。”常以〈小學〉〈三綱錄〉訓子女，使之誦習。公於經書百家，無不通貫，爲文章亦無碍滯，有來學者，諄諄訓迪不卷。時與園翁野老，杖屨相隨，屢至空匱晏如也。公生於隆慶戊辰八月二十六日，卒於崇禎丁丑九月二十一日，享年七十。初配安東金氏縣監春之孫女，有一男，夢禹進士。后配昌原丁氏，進士昌運之女，有三男，夢羲·夢炎·夢堯。禹·羲·炎，皆先公而歿。三女亦丁氏出，金南紀·崔宗海·李相夏，其婿也。側出男夢鯉無後，女嫁僉樞柳永男。夢禹二男，晉望·晉奕，三女楊文舉·李貴顯·金亨祉也。夢羲一男晉紀，夢堯三男晉秀·晉泰·晉瞻。崔宗海三男旻·晟·晟，二女生員柳宗臣·金壽五。李相夏三男春報·春輝·春芳，三女文科李克亨·梁處中·廉世柱。內外曾孫，今至數十不能盡記，勉之·翼之·任之·順之·挺之·器之·擇之·得之·敬之·應之·胤之·徽之·采之，皆曾孫男也。陳憶·張倫·閔徽·金壽仁·朴章曾·金璉·金壽河·李時說·李星弼·李漢儁，皆曾孫婿也。楊鼎基·錫基·泰基，金紀夏·大夏，外曾孫也。蓋公之行誼志操，得於家傳，而其孝友之性，實亦有自。曾按瀟洒公〈孝字賦〉，無慮數百韻，而其詞旨，切至委曲，若非有得於孝德者，有難形容說道者。故河西先生步其韻，而唱酬融融。蓋其孝德一派，自瀟洒而鼓巖，自鼓巖而公，三世所

稟然也。故公之平生律已繩墨，皆孝德之所推也，信乎所謂百行之源而爲仁之本也。吁可敬也。公之歿，距今五十餘年，尙未有狀，公之孫晉泰，懼益久而益泯，來囑挺翼益勤。挺翼謝非其人，而顧惟吾先祖錦江公與鼓巖，實同門，粗有所聞於公之世德，而於晉泰，例有契分，不可多讓，遂撮其家狀，謹撰次如右。崇貞紀元後庚午仲春下浣德陽奇挺翼，謹撰。

碣銘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柳公墓碣銘【并序】

牟陽之南十五里許，斗峙之洞，有一良士，曰柳公諱汝杰，字士俊。以崇禎紀元後甲子九月二十二日，考終于家，用其年十月二十七日，葬于家後首震趾兌之原。丙寅夏，其季子時遠，以其狀來曰：“先君孝行宜有聞，而先君平日，坎然若無所有，惡聞人稱揚。故不肖輩迄未敢記述其一二，以求言於人。今將豎小石於墓前，即不忍無一語鐫其陰，敢來請銘。”挺翼再三固辭曰：“世之爲先圖不朽者，必借有道能文，爲世所推重者，爲之乃可。余非其人，何辱焉。”時遠即泫然而拜曰：先君生既不事銜鬻，歿何忍違其志，謀厥誇張於世所奔趨之手。惟吾丈勿辭。”余惟公之行誼既高，常執謙虛訓厥子，今時遠能體之，不欲華耀，而惟務記實不誣者可尙。茲不得終讓，謹按其狀曰：“公之系出自高興。高興之柳，著麗朝，都僉議政承高興府院君英密公諱清臣，即其十一世祖。其後內資寺正諱沔，來家于今高敞縣，是於公爲五代祖。宣務郎諱諶·司直諱春英·青巖道察訪諱澧，乃其高曾祖也。考諱東仁，登武科官至萬戶。娶光山金氏生公，即辛丑九月初七日。公性本孝友，氣且剛方。生僅十餘歲，萬戶公，業武遠遊，公即幹蠱，臧獲雖悍甚者亦可服，人異之。其後益用誠意事父母，辛巳丁外憂，哀毀已甚。葬在十里外，而隨輿反

虞，皆徒步哭，從人難之。後事母夫人，久未嘗遠出，曠廢子職。歲丁酉，公年五十七，嘗嬰疾尋醫，忽一日，不勝庭闈之戀，棄醫歸家。未幾母夫人病，遂竭誠侍藥。翌年春，母夫人歿，廬墓三年，前後喪皆然。以母夫人性畏雷，公每值天雷，則雖劇雨中，必抱塚號哭，一如古昔孝子之爲。喪畢歸家，則必立廟門以待，且晨謁朔參，具祭器齊三日，及祭需零末餘滓，勿令褻踐等事，皆依古禮。年既八十，冬亦齊沐，人益以爲難。教訓諸子，友愛一弟。性且嚴毅，人有不順父母者，輒辭不見。邑宰聞而嘉之，致物以問，公曰：‘無實虛受，吾恥也。’竟辭不受。鄉人義而累薦于朝，皆不蒙施，以年格循資，拜副護軍。終於家，享年八十四矣。娶海州吳氏，生一男二女，再娶晉州鄭氏，生三男一女。男曰時裁·時昇·時成·時遠，時成，先公夭。南斗應·金德謙·朴尙明，皆其婿也。噫！公之美質，豈易得哉。公生於偏鄉，非有學問師友之益，而秉彝由天，行隣古人。其視讀經業文，得人所稱譽，而無本實者，其高下何如也？嗚呼！若公者，豈以孔子所謂善人者非耶？”其宜銘，銘曰：“行有百，源則一，一不能，百皆失。人莫察，公庶得。如不信，視此刻。”【後移葬于蜂山午坐原。】

贈效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皆伯君行通政大夫南海縣令奇公墓碣銘

丁卯春，族叔震英氏，使其從弟震璧，袖其先曾祖考皆伯君碑草本，以示挺翼曰：“碑本故獻納李公起淳所構也。其所序先祖事實，首末雖詳，若其資稟之偉抱負之大，終爲世所沈，抑而不伸者，則又鬱

而不明。爾可以吾家世守而口誦者及以爾所記聞於家傳者，略加修潤之。”挺翼竊惟皆伯君，實吾高祖錦江公之季也，以挺翼所聞於家庭，李公所述，適未之悉，而族叔之命，有不可以辭者。謹按，公諱孝謹，字叔欽，姓奇氏。奇氏著自麗初。有諱守全位平章，出入將相，民蒙其澤，寔公遠祖。自此奇氏益昌大，世有達官。至國朝，有諱虔，聞以孝廉，轉入臺省，持操名世，出爲方伯，入居銓曹，尤爲一世所服，遂錄清白。而至世祖潛邸，以判中樞，托疾不仕。諡以貞武。有諱禕，以文嗣顯，官止應教，於公爲曾祖也。祖諱遠，敦勇校尉，贈吏曹參判。考諱大有，贈戶曹判書高興君，妣咸陽吳氏，贈貞夫人，俱以公策勳。以嘉靖壬寅四月初七日生公。公自少豪邁不羈，才溢器外。及長讀書爲文，不勞而能，書法亦妙。錦江公，欲勵以遠大，課程甚嚴，公雖不敢違，及其年既長，而才未試，憂大夫人年高，急於榮養，兼習武藝。竟登己卯武科，卽選授宣傳官，兼以備邊郎。其在宿衛，眷注甚至，奉職邊司，勤敏超輩，故時望頗傾文士。時國家昇平久，武備疎畧，而州郡尤甚。宣廟欲遣御史按察，而難其人，命執政極擇有風力不阿好者，毋拘文武。執政以公啓，上卽允之。以武臣差御史，前所未有的，人皆榮之。公既受命，多劾強禦，不少貸，內外肅然，而因此齟齬者，益日多，黜爲萬戶，又爲光州判官，公益無所憚。公直奉公，有以酒荒駁公者，上不允曰：“予深知此人不應有此。”又特除平安虞侯，有論啓以驟資者，上又不允。公於是益感受知，圖效邊圉，而竟以疾未赴。公初不附權貴，又剛腸嫉惡，不悅者蜚起，至欲錮公力遏擬望。公乃慨然退臥者累年。庚寅秋，除南海，居官未久，治績最著。至壬辰倭寇充斥，公以爲賊之陸梁，自本道始，若今失禦，則是實自本道以賊遺君也，遂

治艦繕兵無遺策。而本縣實隸水軍大將元均，均以公爲先鋒，公乃勵氣奮威，力戰於泗川，斬獲甚多。賊旣挫却，幕府上功，褒陞公通政階。其後及瓜，衆議以本縣乃沿海要害，而公之威武可仗，遂共聞朝仍留之。公乃黽勉爲備禦策，通魚鹽辦糗糧，儲以待需。諸鎮舟師皆仰給，時以爲有車達之功。公解歸未及受封，而忽感疾，以丁酉九月二十一日，終于家。後八年甲辰，朝廷始錄討倭功。爭功者抑公而沒其實，公之胤子訟其冤，得蒙追錄，贈效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兵曹判書皆伯君 遣禮官致祭，即萬曆乙巳二月也。噫，此是公吏歷事實大槩。而公之氣象，洞然明秀，初無武人麤粗之習，故英偉傑特，能服俗流，伉直倔強，絕不媚悅。其詩調格，亦甚清絕，嘗詠懷曰：“天上高高地下深，中間何處展吾心。綠水青山無限意，清風明月古猶今。”此可見灑落心胸。而其爲御史巡歷也，到底吟咏，雖未盡記，而其一曰：“遠遠平郊暮靄收，官津寥落小行舟。鷗鷺不知王事急，夕陽隨意下汀洲。”及其擯不用也，有贈人絕句曰：“青青巖畔松，郁郁霜中菊。千載少知音，窓前新月白。”又曰：“盡日無人到，龍鍾任索居。多情梅與竹，伴宿一句餘。”臨亂，又吟一絕曰：“家國危如髮，君親何所依。孤臣淚橫臆，新月望依依。”初公自負筆法當世獨步。適訪名寮李弘老，弘老不在，案有新印《綱目》冊子，不書題目，蓋弘老欲待名筆而書之。公卽染翰書遍一帙而去。弘老歸見其筆法，世所稀有，遍矜於諸客，而不知某所書，久乃知之，深銜之。其後退公者，皆出其手。時弘老之黨，方用事，時事大變，名卿賢宰之知公者，皆屏黜。思庵朴相公淳，益知公而亦方遭傾陷，深惜公之爲萬戶，作詩三首送之，其一曰：“思親淚下關山笛，報主身輕矢石場。忠孝兩全知有處，平湖錦衣好還鄉。”其

二曰：“白羽雕弓身九尺，朔雲邊雪路三千。行間豈久留飛將，虎穴收功在此年。”其三曰：“胡霜晝結黃沙磧，漢月宵臨青海關。逆氣數年吹北塞，誰能生縛鬼章還。”其後識者，益歎思翁先見，公之晚節，若合符也。其在南海也，有降倭數十在本道。朝家使州郡遞饋，留置在南海，邑殘力薄，供億不贍。一日醜類，團聚作陣，突入庭下，將作亂害公。公乃奮威按劍，使一衙奴盡斬之，而倭不敢動，駢首就戮，蓋怕公威武，褫魄不敢動也。後以當斬報，監司亦不悅，然公理直，卒無事。公嘗自恨文不能少試，武又不能大展所蘊抱，命也云爾。公先娶長城徐氏，生員台壽女，贈貞夫人，有一男一女。子宗獻，登武科，官至水使，襲封幸原君，女適李文龍。丁酉亂，遇賊船于海，蒙面投水，賊欲強擒，以手拒賊船不肯上，賊遂刺之。屍乃漂流，追到文龍之船。得歸葬旌閭。再娶棠岳金氏，中直大夫賢輔女，三娶河東金氏，並無育，俱贈貞夫人。幸原君有二子一女。長曰慄生員，次曰惕校尉，女適林瀚。曰忱·恂·恬，皆后室子也。慄之子曰震英·震雄·震亨，女適宋必聞。惕之子曰震弼，瀚之子曰蕃·蘧·贅蔓也。忱子，震碩·震璧·震行，恂子，震昌·震傑，恬子，震龍·震龜。曰挺一·挺三·挺五·挺濂·挺洛·挺洙·挺泗·挺宇·挺宙，皆玄孫也。內外曾玄，不能盡記。銘曰：“文之質而武之出，人始屈，性之直而俗之僻，乃反抑。殯所讎而報所事，光所生。生也屈而死也伸，展也榮。考其實則不可泯，是爲銘。”

祭文

祭晚翠堂孔公

嗚呼！哀哉。南服一人，吾友化之。一鄉善士，吾友化之。吾友吾友，不見今何。我心孔悲，有淚如線。天何賦子，既純且一。冰清其氣，玉潔其質，孤鳴獨躍，擺脫污泥。身眇七尺，心雄萬夫，言若拙訥，行出等夷。出爲人後，連失怙恃，執喪克孝，能人不堪。將析家財，若澆爲心，咸推伯季，且辭荒頓。孤竹風清，薛生行敦，恩篤處家，義高接人。均施廣惠，咸盡其情，款引遍酬，曲致其誠。有一寒士，初師句讀，衣食斂葬，且恤其孥。又一尊老，有挾要請，委曲陳達

竟謝其命。外蔑畛域，內照黑白，一言可信，三軍莫奪。是吾所欽，猥托知己。世之爲交，惟勢是視。我本寒微，人皆掉臂，果有何勢，子不我棄。世之爲交，惟利是貴。我困糟糠，人皆笑醜，果有何利，子獨我取。世之爲交，惟名是趨。我今無聞，人皆我駑，果有何名，子終不渝。宇宙今古，一斂肝膽，死生契濶，百年相感。去歲洛邸，言甚悲切，孰意今朝，倏爾告訣。一室三喪，天何不報。我方哭兒，又聞子訃，人間此日，我懷誰訴。禍福理遣，吾固有受，偏酷子我，吾又誰咎。餘事文章，有不可言，蘊奇韜光，人誰知焉。未少有展，理不可諶，風塵出門，誰與謳吟。白雪前山，永隔知音，嗚呼哀哉。

通文

趙梁山父子追配慕巖書院通文

右通文爲。弊邑雖僻陋，尚有賢人君子接武於往古，得爲國家之所褒崇，士林之所尊奉。而獨惟我趙梁山父子之精忠至孝，今古所罕聞，而至今七十餘年，尙闕崇奉之典者，豈非弊邑之所大恥乎？今者生等，始議盛大之舉，以寓景慕之誠，而世代遼濶，風儀久遠，或恐道內諸君子，未及詳悉。故略陳兩先生行跡之梗槩，伏願僉尊，試垂察焉。竊惟故梁山郡守，趙先生諱英圭，生于長城。天稟穎悟，英姿粹質，超脫輩流。雖以武藝發身，而志操行義，迥出古人。在家而事親克孝，居官而律己清白，器度標節，大能服一世，則此亦足以槩公平生。而至於壬辰，倭鋒充斥之日，先生適守梁山，慨然爲死守之計，而自知彈丸之無可恃，卽馳往東萊，見府使宋公象賢曰：“國事至此，公將奈何。”宋公曰：“當堅守此城而已。”公曰：“吾與公，共守此城，可乎？”宋公握手大喜曰：“諾。”先生仍請宋公，歸訣老母，屬其子廷老氏，以奉歸終養之意。旋即馳馬，來到東萊，則賊已圍本府者三匝矣。公遂拔劍奮呼，躍馬突入，宋公卽開門迎納。與之講究守城之策，而宏謀偉略，多出公畫，宋公多從之。及其兵少力盡，城遂陷焉，則先生與宋公，北面再拜，從容就死，苟非烈丈夫，精忠大節，能如是乎。嗚呼，當時與宋公，同死一城者亦

多，而公爲尤著，後來與宋公，同蒙褒典者，何限而公獨不與者，何也？噫，古者巡遠，同死一城，以其節，則實無優劣，而當時媚嫉者，以爲遠不及巡，而幾乎擯，不與褒美之典。自古不樂成人之美者，類如此，安知趙公之忠，不爲當時忌疾者所掩蔽，而不得與宋公同褒錄也。嗚呼，遠雖才若不及巡者，而其節則同，趙雖才若不及宋者，而其節則同。古今前後，其揆一也，而趙公終不得褒於宋公之褒者，豈不慟哉。公之子諱廷老，忠門之孝子也。生質純美，性且至孝，平日事親，動以禮法，自幼及長，未嘗少懈。隨父在官，益勤子職，嚴鎖半門，痛絕徵納，蓋慮守宰之不治，出於衙眷之不謹，而痛自律己，期以成父之美政也。此亦足以槩公平生。而及其在梁山，拜受父命，賊兵已滿兩南矣。晝伏夜行，得還故土，安奉祖母之後，旋聞賊陷圍城。知父死所，散髮徒行奔往，東萊則積屍如山，終不得收骸，只自招魂歸葬故山。泣血三年，誠禮備盡，至其服闋，猶啜粥行素，略無勉及之意。以爲親讎未復，親骸未收，我不可與恒人齒，我不可復見天日，常自貶無所歸。而爲築土室，入處其中，爲作一笠，擁蔽頭目，爲設松枝，掩覆如廁之路。皆所以不見天日，不與人坐之意也。平居不役其奴僕曰：“吾未收父骸，安忍勞父之奴僕乎？”不許人請買在京家基者曰：“吾未修人道，安忍賣先之遺基乎？”仍不出土室，而以終其身，苟非純孝人，至誠出天者，能如是乎。嗚呼，孝非一端，而處常之孝易，處變之孝難，處變而能窮苦其身心，以全其孝者，爲尤難，至於終身慕，而不見天不見人，無一毫僞佞，無一毫勉強，以全其孝者，惟公一人而已。古者王裒，坐不西向，不忍讀蓼莪者爲近之，而其至誠刻苦，堪人之所不堪，慊乎心而無餘欠，則公又遠過矣。嗚呼，先生父子之

忠之孝，直是軒天地炳日月，而當時漏於褒典，後來逸於國乘，可勝惜哉。弊邑之先輩耆老，目見耳得，慨然奮興，屢以聞於官，達之朝，冀蒙旌異之典，而每致朝家多事，憚於考實，媿不遑，以至于今。將使軒天地之忠，炳日月之孝，泯沒而無傳焉，此豈非朝家之欠典，而吾輩之所扼腕者乎。今竊念朝家之未遑，則在士林無如何，而士林之所景仰，則豈無所以尊奉之地乎。忠孝本非二致，尊奉元無古今。在古弊邑之節孝徐先生，以至孝純行，俎豆於吾鄉，其遺風餘韻，至今聳動。後人則以今兩先生，方之於徐先生之學行，全體雖不可謂無間，而以忠孝一節言之，則雖謂之不相上下，亦非過論也。然先後主客，既有差別，全體一節，不得無間，則雖於並享之典，不敢輕議，而躋以配食，實不悖義。一堂三賢，忠孝同歸，則豈非斯文一大盛事。而生等之竭誠欽仰，鬱而不洩者，庶因茲而得伸矣。茲乃忘其孤陋，敢倡此舉，將以四月中丁，齊會安靈，而敢此發文通告道內，伏願諸君子，右日齊會慕巖書院，幸甚。【此依鄉中通文，變其措語，至於行跡，則不得不修潤文字，而於本傳旨意，不敢添一不實語。每於行跡下，略以己意論說者，以兩先生事實，不得書諸國乘，且將泯沒無傳。本邑若不辦論張大，則人或不能深思其忠孝之最著，故敢以蔓辭，輒加贊美之意。此與著聞先賢通文不同，故如是支離不簡，雖是述者，不能狀德，而比諸鄉通稍詳，幸留置此草，以待後能。】

箋文

大殿誕日箋文【代方伯作○丁未正月初四日】

電繞璇樞，咸仰體元之德，天迴玉律，載逢毓祥之辰。慶襲瑤圖，光溢寶算。恭惟岐嶷夙振，聖敬日躋。大哉乾至哉坤。既履資始之道，執其中建其極，益驗純粹之精，茲會誕厥之休，茂膺介爾之福。伏職縻鶉野，跡阻鷺班，巡行布政之勤，雖愧召伯，壽富多男之祝，竊效華封。

松巖先生文集

卷六

論 箴 策 擬

論

拚飛維鳥

天下之物，不大於大之日，而大於未大之日。天下之亂，不始於始之日，而始於未始之前。是以牛之童者，天下知其易制，而不知其大之難以擾訓。火之微者，天下知其可撲，而不知其終之不可向通。萌芽之木，倏爾蔽牛，甲坼之蔓，終至難圖，則天下之可懼可畏者，不在於方張之大，而在於毫忽之小，天下之可懲可戒者，不在於既往之終，而在於微小之始。不然則成王何以著拚飛維鳥之戒乎？請試論之，桃蠱，鳥之小者也。鷦鷯，鳥之大者也。桃蠱之小，化而爲鷦，則見鷦鷯之大者，孰知其大之由於桃蠱乎？徒知其小，而不知其小之終大。故見其棲息於榆枋，則謂‘彼物不能高飛也’，見其所食之數粒，則謂‘彼物不能攫拏也’，玩視而不懼，忸狎而不戒，至其卵而育，育而長，長而至大，則俄然而鷦也。其大無讓，其飛無碍，攫鳥而食，無所忌也，毀鳥之室，不可制也，則誰知向日之至小者，至於今日而至大也？誰知向日之槍榆者，至於今日而戾天也？始雖至小，而終至至大，始雖槍榆，而終至戾天，則向之玩視而忸狎者，始知其無可制矣。此成王之所以取譬之意，而其類於二叔之事，何者。天下宗周，王室已定，則周之視管蔡，如人之視桃蠱。百里之封，桃蠱之榆枋也，采邑之食，桃蠱之數粒也。始知管蔡之無能爲者，

其類於恃桃蠱而不能攫也。及至流言而周公危矣，及其稱亂而王室殆矣。風雨之撓，根本之蹶，已知其無所救矣。此非桃蠱之不戒，而終至拚飛者乎？執此論之，維鳥之大，不大於大之日，而大於未大之日，二叔之亂，不亂於亂之時，而亂於未亂之時，則鳥之未大者，不可謂之小而忽之於始也，亂之未著者，不可謂之微而玩之於始也。知其小之將大，而制之於未大之前，則無拚飛之患矣。知其亂之必至，而防之於未亂之前，則無竊發之憂矣。成王訪落之初，既經二叔之亂，則必以此爲戒者，吁其至矣。嗚呼！維鳥之大，出於桃蠱，而及其拚飛，則非桃蠱之可制也。二叔之親，本於王室，而及其稱亂，則非王室之可遏也。此又成王之所以取譬於此者也，此又成王之所以致治於後者也。

箴

志以道寧箴

道則心，心則志，蓋一理。形諸內，發諸外，非二致。苟非道，心不在，矧伊志。放則逸，蕩則危，莫難持。慎所之，安厥迪，將何責。不在他，盍反求，道則是。敬亦道，誠亦道，孰非道。以是敬，以是誠，志可寧。有思慮，有謀猷，惟道求。有逆順，有吉凶，惟道從。臺欲瑤，宮欲瓊，道以正。獸欲從，遊欲盤，道以安。喜讒諛，惡正直，道可克。厭長遠，安姑息，道可格。道苟主，之堯舜，之湯武。道苟去，之桀紂，之幽厲。惡是殆，善是寧，道存亡。撫昭訓，作為箴，宜是欽。

策

問心統性情

對。比嘗見蓬心鑿性而蕩其情者，卽舉世皆然，良由教不明而學不講耳。伊川所以箴乎心，而與叔所以賦性情也。今先生一問而兼之，嗚呼！執事之問，其盛矣乎。其所以明教化而續古學者，在今問其會也。如愚者性慥而心駭，雖未能道達其情，而亦何傷乎言志也？遂爲之說。曰：“心之靜者爲性，而動者爲情。心性情，盖一原耳。夫理賦於人，卽謂之性，而合理與氣，心之名立焉，本乎理而感於氣者，情之所以發也。心性情之理，固不可以異同看，而心性情之德，自不得無體用矣。是以統性與情，而心德具焉。旣發未發，而性情分焉，則心固性情之主，而性情爲其體用也。心性情之理，其如是夫。雖然莫不稟是性，而其所以爲心者，有危微之別，莫不有是心，而其所以爲情者，有善惡之異，何也。嗚呼！性本於理，形生於氣，而理無善惡，氣有清濁。故氣稟之拘性夫本然，¹ 則心與情，於是乎累矣。苟如是而不知所以用功，則天理之公，卒無以勝夫形氣之私矣。爲之奈何？加存養之功耳。存之如何？敬而已。養之如何？誠而已。請以此指而推演之。上智下愚，同一心也，同一性情

1 이 부분에 오타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也，而其所以有異者，不過爲氣稟之拘耳。五性七情，具於一心，而或動或靜，心爲之主，則五七皆心，何更言數？心性主內，物欲交蔽，則或養或正，功不可闕，而直出者情，何待矯揉？且夫雜理欲於方寸，膠外物於感發，而獨有天賦之性，能全本然之體，則性善之說，蓋如是夫。至若精一執中，心之謂也，惟皇降衷，性之謂也，喜怒哀樂之發，豈非指情而言乎。孔聖之言，包括無遺，則言其心性情，在其中。孟氏之論，本末兼備，則雖詳言情，必本心性。顏曾冉閔，本原已透，則夫人不言，言必有中。告荀韓楊，論說雖多，而大本已差，更論甚道。自是厥後，無人識道，而佛于晉宋梁隋，胡于六朝五季，則其言心性情者，雜胡佛而言也。雜胡佛而言也者，奚言而不異。噫！天未喪斯，運啓宋朝，則淵源所自四子者出，而繼往開來，說之也詳，撥亂反正，言之也功，則愚於四子之說，固無所容議。而本於性，以及心情者，周程之所以窮本原也。言其心，以舉性情者，張朱之所以明體用也。互相發明者，極親切耳，豈有異同於其間哉？嗚呼！天以陰陽，化生萬物，而氣以成形，理亦賦焉，則禽獸草木，同一理氣，而昏明通塞，絕相不同者，何也。噫！所同者理也，所不同者氣也。人之所以明且通者，非氣之清粹乎？物之所以昏且塞者，非氣之駁濁乎？雖然獼烏之孝，禽獸之仁也，著椿之靈，草木之智也。昏塞之中，或有一點子明者，蓋以此類而推耳。嗚呼！盈天地之間者，只一理耳。天之所以賦於人，人之所以受於天者，何莫非‘一陰一陽之道而繼之者善成之者性’，則其所以爲心者，性之具也，其所以爲情者，心之發也。其體則有仁義禮智信，其用則有惻隱羞惡恭敬是非，人之所以爲人者，以其有此也。人之所以求爲人者，舍此何以哉？固宜省察於此，存養於此，以求

其當然之則，不失其爲人之理，而奈之何人不知學，學未知方，魯莽而滅裂，委靡而頹放者，舉皆爲末流之弊也。噫！苟求其本。何患不知，而彼昏罔念，終不下功，近取諸身，道不遠人，而彼愚不明，豈能反求？雖欲有爲，而知有未及，則率多氣質之偏，無所用心，而只事悠泛，則莫非含糊之習，人之有心性情者，豈宜如是哉？嗚呼！人之所以異於禽獸草木者，以其有天畀也。天之所以畀於人者，如何，而我之所以爲吾人者，如此也。天雖有畀於人之理，而我失其受於天之道，則是亦禽獸也，是亦草木也，烏見其非禽獸草木也。”執事見其禽獸草木也而有憂之，欲使明善而人其人，嗚呼！執事其仁矣乎。雖然執事之所以人其人者，果能欲人，則人而不係夫所以人人之方乎？愚雖不能知何事爲人人之方，而亦嘗知學者之功，必有入頭處也。今欲祛其禽獸草木，而續其人者，盍求其本，而所謂求本者，以正心爲先歟？以養性爲先歟？噫！心與性，一也。孰先正焉，孰後養焉？其亦交相致功，而無先後也。嗚呼！《大學》，明教之書也，《中庸》，明理之書也。明教而不先言心，則人不知所以入德，明理而不先言性，則人不知所以體道。而言心者，未嘗不本於性也，言性者，未嘗不體於心也。人之爲學，皆可取無可舍也。雖然人之所以養性正心者，徒知其養正，而不知所以養正之功，則是亦捨楫而行舟也，其何能有得乎？此《庸》《學》之所以誠敬爲開卷第一義也。誠使學者，從事於養正，而必以無妄之功，主一之法，存其德性而無或不養，收其放心而無或不正，以至於至靜之中，無所偏倚，湛一之域，無有查滓，則其所以渾然在中，隨感而發者，無所往而不得其和矣。夫如是，則人皆堯舜之盡顏曾，² 學者之能事，畢矣，國家之教化，行矣。尙何有執事之所憂乎？嗚呼！愚於執事

之間，既陳其所蘊，而於篇終，惓惓而欲畢其說者，何也？誠以我聖后新服景命，將大有爲，則愚於此心性情之說，徒以聞於執事，而不效旅³若之意乎？我願聖后先養其性，而以養人性，我願聖后先正其心，而以正人心，我願聖后先和其情，而以和人情。此乃正心以正萬邦，致中和天地位萬物育之意也。執事轉而聞之我明明后。謹對。

問琴

對。先生語諸生琴曰：“琴其可知也。聲正于雅，流于蕩，曲清于和，濁于淫。而獨不聞之灑灑之諷諷乎？而又不聞之嘈嘈之切切乎？而其取舍之。”愚既卒業，作而曰：“先生語愚以好琴。先生之好琴甚，則我國其庶幾乎！昔先王爲之樂以宣其壹鬱，琴又樂之一，而禁人之邪心者也。蓋其體方圓而有天地之象，其絃文武而有強柔之道。行其用於陰陽屈伸之者，皆所以節人之逸志，感人之善心，而昭融其邪穢，蕩滌其查滓，卒能格神人，和上下，則琴之用，豈不大矣乎？雖然琴雖禁人之邪，而其用則物也。人雖取琴之用，而其本則心也。物在外者也，心在內者也。不本在內之心，而徒求在外之物，聲律以蕩其性，曲譜以放其情，則綠綺遞鍾，適爲邪僻之具，而〈別鶴〉〈幽蘭〉，只作哇淫之資耳。亦何補於禁人邪乎？嗚呼！孔子見

2 이 부분은 오탈자가 있는 것 같다.

3 旅：오자로 보인다.

捕鼠而聲感幽沈，伯牙聞海水而情移杳冥，況乎衆人之感，失其正，而情移流蕩者乎！然則如何？曰：‘惟涵養乎。’請一唱而三歎之，麗徽作於牛元，清角名於軒后，則琴之體用，權輿於此乎。枯桐貢於徐州，蜚絲賦於兗州，則琴之材用，莫備於斯矣。風薰五絃，民解其慍，鳳儀九成，德以相讓。噫！光華日月，天且不違，則況於民乎！太和元氣，民既囿化，則矧爾禽乎！盡善盡美，無得以稱。父師作操，悲哀爲主，姜里有譜，患難是憂。噫！佯狂之傷也，徵麥穗之墟，拘幽之憂，竟致岐陽之鳳，則聖人窮通，其亦異哉。學譜入海之襄，囿元和於解圍，取友捨瑟之點，穀天機於奉袂。噫！天縱大德，正雅頌之原，春生陋巷，得絃誦之樂，則孔顏之樂，豈專在琴？教人以樂，百里太古，旣祥援琴，三年不壞，則游夏之樂，其異於人乎！清風北窓，素樸無弦，明月前溪，玉徽高張，則二子之樂，取其興也。高山流水，能知伯牙之心者，非子期乎？危言苦語，淚下雍門之曲者，非孟嘗乎？嗚呼！琴於音律，爲物最貴，而心於吾人，爲用至神。以是琴而養是心者，乃所以禁其邪，而斯可謂之琴矣。外是心而玩是琴者，反所以助其淫，而非吾所謂琴也。觀於古人，其可驗乎。噫！今人之琴，亦異於古人矣。金鴈玉柱，手語徒工，而瑤琴至音，心得無人。膝上焦尾，流蕩五性之原，脂下〈流泉〉，淫佚七情之發。啁啾之音，只效長短之節，鄙俚之曲，莫卞雌雄之律，清濁高低，徒亂人耳，燥濕緩急，孰貴其譜？噫！龍頤鳳尾，今之制，猶古之制，而急促淫哇，今之音，非古之音也。〈白雪〉〈陽春〉，今之彈，猶古之彈，而浸淫邪穢，今之聲，非古之聲也。古調猶不能彈，則況望其大音之不亡乎！嗚呼！琴之設，豈端使然哉？本可以致天地之和，而如是而能致其和耶？本可以致神人之格，而如是

而能致其格耶？嗟夫！聲樂之於爲國，其用至大，而今日之樂，廢壞至此，則愚未知惟戢厥咎，而終不可以改絃更張也耶。愚聞聞樂而竊扑者，賞音之耳也，見疾而探藥者，醫者之心也。愚也，雖非賞音之耳，而竊效醫者之心，可乎？噫！執事好琴，請以琴喻。今有〈南薰〉杏壇之琴，而人之性也，非帝舜仲尼，則其能解民愠解匡圍乎？今有鄭衛桑間之琴，而人之性也，若夔也回也，則其無致鳳儀鼓天機乎？誠能使今人先養性情之正，以致中和之極，而手提乎琴，心得以撫，專其神氣，宣其壹鬱，則發之爲音者，其有不和者乎？奏之爲曲者，其有不正者乎？發於和，而反和其性，本於正，而反正其心，所以禁人之邪者，其不在此？而執事所謂‘與聖賢同調一律，措國步於灝灝諷諷’者，如是而足矣。”嗚呼！執事勸愚而〈陽春〉之曲，則所謂‘奏〈流水〉而何慚’者，此也。愚請反之。曰：“愚有一張古琴，而其制古，其質朴。材非嶧陽之桐絃，非桑土之絲，上不能奏之於薰風儀鳳之際，下不得和之於杏壇陋巷之間。而子期已遠，知音者誰。寧學北窓之無絃，放浪前溪之明月，而顧初志永違，亦非吾之所樂，則濂溪風月，和瑤琴之餘譜，武夷春風，挹大音之遺響，是愚之志也。執事倘以爲可聽，則愚將一彈而聞之。執事其肯傾耳而聽之乎？謹對。”

問知人

對。我國其庶幾乎。孔子曰：“爲政，在於得人。”夫政固得人，而爲人豈不知，而得乎？嗚呼！不知，胡得，不得，胡政。今先生，職爲

政策，知人于士，先生之求知人甚，則我國其庶幾乎。請爲執事言之。曰：“爲巨室者，必擇工師，有璞玉者，必擇玉人，爲國家而圖治者，可不知其人而擇之乎？蓋親賢遠奸，爲國之先，而人不能皆賢，不能皆不肖。知其賢而用之則治，而反是則亂，知其不肖而去之則治，而反是則亂。賢不肖之進退，惟在吾之知不知，而國之治亂係焉，則知人任使之道，顧不重矣乎？雖然賢不肖在人，而知不知在吾，不能盡乎在吾之知不知，而能察於在人之賢不肖者，難矣哉。安知不以賢爲不肖，不肖爲賢，而以賢之用用不肖，不肖之用用賢乎？然則如何？曰：‘盡公明。’有鰥在下，歷試於登庸之時，爲胥築野，作相於惟肖之日。噫！禪位之重，異於用賢，則武丁知人，豈賢於堯乎？束帛莘野，釋耒鰲然，卜獵川渭，撤竿載後。噫！立賢無方，聿求元聖，而風期暗親，何待穆卜？悲歌牛口，舉以爲相者，語在充傳，一言堂下，携手以上者，於傳有之。若夫淮陰國士，遇知蕭相，而隆中臥龍，見稱徐子，狄公之賢，反毀師德不拭之德，而臧文之知，不用柳季三黜之直。噫！蕭相所能，而文子不能，徐子猶知，而狄公不知，知人亦未易，豈虛語哉！食餌之奸，誤我君實，而眼中之釘，陷彼萊公，不容人過，彥博擯於朝著，爭功有累，世忠老於江上。噫！君實不及而石子過矣，萊公見欺而魏公失德，人固未易知，不其然矣乎？嗚呼！自秦穆以上，上而爲君，知人而任之，自秦穆以下，下而爲臣，或知或不知，而均之爲古人，而無及也。請以聖朝以繼之。嗚呼！皇天睠東，聖后垂衣，鼎路生光，賢相定席，明並日月，而照遍容光。清鑑懸鏡，而炯不受塵，宜其舉措得宜，不負孔聖之訓，旌別不忒，無愧周王之戒。而奈之何楚筵辭醴，賢者日遠，漢廷臭銅，鄙夫日進？側席之誠，雖切於上，而奮庸

之才，無聞於下，則聖上之於求賢睿知徒勤。薦拔之心，不容少懈，而干祿之輩，不求自來，則賢宰之於舉人，無賴識鑑。親策賢良，而章句之徒，無補於實用，掌選門蔭，而庸錄之類，反歸於壞事，則科試薦法，無一可取。私立名目，互相擠陷，則誰下跼夷於漢朝，競相稱譽，各護黨與，則莫識雌雄於衛烏。噫！如是而賢才壞，如是而闢葺顯，將至於國不爲國，而亂亡無日矣。噫！上有聖明之君，則謂之知人之未盡者，不可也。下有賢智之相，則謂之任用之未宜者，亦未可也。反覆思之，未得其故，則宜吾君相之日講而未得也。若愚者，芻蕘之姿，狂夫之見，蓬累其行，埳埳其計，則得不爲聖世之棄物者，難矣。況今救弊之策，聖君賢相之所未思，而曰思之乎？雖然臨博而岐竦，聞樂而竊扑者，或有賞音而識道，懸雖朱愚，儻可與此輩比並乎？愚聞愛憎之私起，而好惡之心不公，物我之欲誘，而是非之見不明。仁者能好惡，以其秉心之公也，智者能是非，以其觸理之明也。愚未知我后之用人，雖已至矣，而取舍之際，能盡好惡之公耶？我后之知人，雖已至矣，而薦拔之時，能盡是非之明耶？一恩之濫施，非公也，一藝之遺失，非明也。纔萌於中，使害於外，纔弊於前，使失。

於後，一毫未盡，不害爲大德之累也。德既有累，而能望盡知人之道耶？其始自今，先去愛憎之私，以公好惡之心，先去物欲之誘，以明是非之見。必曰：‘內多嬖幸，吾心之不公也，野有遺賢，吾智之不明也。’公天下之心，而衡不偏於輕重，明萬里之目，而鑑無私於妍蚩，則朝有亮采之羹，而庶明勵翼，官無囂訟之徒，而耆德者進。君子得轡，如茅之拔，小人銷亡，如鉅之脫，而唐虞三代之治，一舉而致之不難也。尙何有執事之所憂乎？愚於執事之間，

以公明爲言者，豈無意乎？今日公明之未盡者，又有其源，執事其未之察乎？今之以朋黨爲言者，皆未能切中其病也。自古朋黨之禍人國家者不一，而猶不至於喪其心術者，何也？君子爲一朋，小人爲一朋，而互相進退而止耳。今之黨者，其亦甚矣。此非盡君子也，彼非盡小人也。雖有絕人之學，高世之才，口不言黨論，則必曰關雎而斥之，雖有至愚之品，極陋之人，掉臂於黨議，則必曰豪傑而引之。名爲君子者，不必引君子，指謂小人者，不必附小人，惟別其彼此而進退之。唯其如是，故今世之人，生髮纔燥，而先問其黨之誰。某父兄教之，儕友引之，每以朋黨之說，爲得仕之梯。苟其黨也，雖其仇讎，視如父子，苟非黨也，雖其親戚，視如狼毒。如是而能保其心術之正乎？公明之道，盡爲朋黨之所壞，而河北之賊，誰得以去之？嗚呼！痛矣。伏願執事白上，而謀所以治之也。謹對。

問器量

對。先生奚以器量問？以大小問乎？以淺深問乎？夫器量，可知已。自其器量而觀之，則小固不如大，淺固不如深。自其變者而觀之，則小亦大也，淺亦深也，果且有大小淺深乎哉？先生之問器量，其欲聞矯治變化之說乎？愚請傾倒焉。竊謂人之器量，氣稟而已。蓋盈天地之間者，莫非氣也，而稟是氣而生者，亦莫不有形氣，則器量之大小深淺，其非由於氣稟之偏全乎？是以氣之偏全而器有大小，器有大小而量以淺深，則包容含洪，而爲聖爲賢，偏迫急切，而爲愚爲惡者，夫孰非氣稟之所使哉？雖然偏全者，氣也，純善者，

性也。寬洪偏急之異，雖有形氣之局，而矯治變化之功，豈非性分內事乎？嗚呼！貌有妍醜，而醜不可變而爲妍也，形有長短，而短不可變而爲長也。惟其器量，則偏迫者可變爲寬容，而非若妍醜之一定，急切者可變爲洪廣，而非若短長之一定者，何哉？豈非性爲之本，而加存養之功哉？存養如何？非學不可。請白之。極其大而有天地江河之量，極其小而有釜斛斗筲之量，所稟，然耳，豈有他哉？承相行府，人莫不敬，而馭吏之吐，非故慢侮，則能知大體者，其無容乎？閹人失儀，罪固當笞，而投床之怒，終至自焚，則性之燥暴，害至於此乎？其寬其偏，不須卜也。室人試量，羹污朝衣，而問其煖手，既寬且和。雞子逃箸，擲地已甚，而下床履踏，是亦何狀。其大其小，無可論也。今史受笞，不察杖輕，則彼哉遺臭，刺吏量不足稱。郎官被撞，急呼床下，則有是苛切天子，其器小哉。強寇在場，而飲博爲事者，寬廣之度，要以鎮物也。與人對枰，而爭道投局者，強褊之性，有何足道乎？澄清易挹，不如汪汪之難量，從容雅度，遠邁回穆之恂夫，則四子之大小淺深，不難知矣。戒盛滿而期不拭唾，則婁公之賢，可以保身。被人擲而便懷不平，則王氏之量，不其小乎？蘭玉在坐，試以碎器者，吾知其文正也。髻兒誤字，怒以嚙臂者，豈非皇甫湜乎？清燭燎鬚，眚固宜赦，而卽還免笞，足見慈仁，蒼蠅集筆，物無足責，而怒爾投筆，亦一遷怒，則高下自判，又何足煩？清靜寂滅，實類於龍，輕佻浮淺，方於沐猴，則取比之義，可謂精矣。噫！人之器量，若是其不同歟！大而天地江河，小而釜斛斗筲，亦欲其大，略有此數等耳，非謂其大小淺深之量，盡於此數等也。試以明問中所及者，論之。丙吉劉。

寬之寬，萊公叔度之弘，至於婁公呂公魏公之和緩，況彼老子

之以自然爲道者乎！只此數人，雖亦有大小高下之別，而大抵爲器大量深也。其餘邾子王述輩諸人，或燥暴或偏急，而其淺狹急切之病，若是其方歟。嗚呼！圓顙方趾，莫非人也，知覺運動，同是靈也，則器欲其大，量欲其深矣。其氣象之軒豁牢落，而有振衣千仞高之象矣，其度內之弘廣厚重，而有遊心六合外之量者，孰不有是心哉？然而六尺之身，局於軀殼，方寸之靈，牿於私欲，外物感觸，事變無窮，則動其中而量不能容，發於外而器隨而動。輕燥者不能制其輕燥，浮薄者不能鎮其浮薄，狹促者狹促，淺窄者淺窄，每有偏急之患者，誠有如執事之所歎也。嗚呼！同是人也，而寬大弘廣有如彼，偏迫浮淺有如此者，何也？噫！人之生也，何莫非二氣，而氣有偏全，所稟各異，則器量之大小淺深，實不外於偏全之氣，而寬弘褊急，有萬不同，則執事所謂‘資稟於有生之初’者，誠爲不易之論。而人各受中而生，同得本然之善，則執事所謂‘不容用力’者，愚竊謂無是理也，何者？人之器量，局於形氣，而形氣之不同，果皆二氣之所使也。至於渾然天理，賦人爲性，而不以堯舜而有餘，不以桀紂而不足，則獨於器量之褊淺者，嗇其至公之理乎！唯其有性，萬善皆足，則由萬善而求變其一箇偏氣者，有何難事乎？不然，則踴躍築土之孟子，不得爲亞聖，暮歸喜獵之程子，不得爲大賢，而呂伯恭打破家事者，終於下愚而止耳。彼三賢者，初間氣象，誠如何，而卒之爲聖賢者，又如何用功也？誠以存養之功，着力於學，日加矯治，勉勉不怠，則執事所謂‘自然宏大，不至於狹隘’者，愚竊恐不外於此。而孔子所謂‘性相近習相遠也’，《中庸》所謂‘雖柔必強，雖愚必明’者也，《孟子》所謂‘人皆可以爲堯舜’者也。愚以未盡之法，更贅於篇尾，曰：“執事之間器量，豈徒然哉？人之病根，莫過於器

狹。內而害於心，外而害於事，終至於禍天下國家者，則匹夫自證者，尚不可以量狹而能濟事也，況居廟堂之上而任經綸之責者乎！喜遵約束，非大也，喜事變更，非大也。格君心之非，引君而當道者，非大臣之大乎？格君者，大也，引君者，大也，而又不能容而受之，虛而納之，則愚竊恐不大之責，又有所歸乎執事。苟不以王請大之說，進於冕旒，則愚竊恐執事之不大也。謹對。

擬

唐侍御史馬周請如貞觀之初以爲長久之計

惟皇作極，方恢萬代之丕基。若帝之初，盍圖永年之長策。欲之則是，不可它求，欽卽位以來仁義而已。論周秦之脩短，幾自反求。辨魏封之是非，先以教化。所以祈天永命，咸仰如日方昇。第以今日所聞，竊恐初志漸懈。始也若保之政，無以議爲。今焉倒懸之民，有不忍見。營繕是事，奚爲宮室崇歟？邦本日頽，此誠存亡秋也。亡秦續耳，於隋何顏。《詩》云鮮克終，豈意陛下有是？《易》貴不遠復，宜圖今後免夫。夫豈求人，執柯伐柯猶遠，是誠在我。念茲釋茲如初。亟圖至誠之治，以救方蹶之運。輕徭薄賦，何獨行於當年。發政施仁，不難再於此日。盍念縱囚之令，可愛非民？更存却獻之誠，不寶異物。節檢恭勤之德，今何不然。馳聘戈獵之娛，宜改此度。苟能悉復其舊，傳之子孫。豈不申命用休，期以萬億。此誠綿曆之道，宜加反身之功。克念聖岡念狂，豈無其本。一世亡萬世久，端不外茲。望察臣之忠，納臣之懇。圖厥終惟其始，率由舊章。脩吾已答天心，以圖新命。則太平今日，永垂無強。無不自己致之，可以永保休矣。當百年圖報，一心不渝。懷若撻之忠，雖愧伊傅。建久安之策，庶勉賈生。

宋左僕射李綱請治張邦昌潛逆之罪以勵中外

亂臣賊子何代無，未有甚於此者。元惡大憝不可赦，宜及時而殛之。王請勿疑，皆曰可殺。欽靖康之禍，撥亂而興。勢成擒胡，禍轉亡胡，爭俟我后。天欲祚漢，民惟思漢，咸曰吾君。再讓三讓便即真，有罪無罪唯我在。顧茲邦昌逆節，實是振古罕聞。當舉族就虜之時，甘心奴顏婢膝。暨敵人易姓之日，敢逞狐假虎威。是可忍乎，自稱大楚皇帝。維其極矣，竊據趙宋乾坤。有血氣莫不痛心，爲臣子何可忍說。二百年綱常掃地，未快人人之得誅。六七君英靈在天，莫慰冥冥之飲泣。幸今日光復舊物，而大逆尙斬邦刑。豈惟王法帝章終有失於顯戮，猛將勁兵爭解體於奮勇。抑亦人心天意實未愜於正名，忠臣義士共切齒於扼腕。不可使一日遊魂，宜亟加五刑極律。苟容假息，尙久稽於嬖倖。亂領妖腰，寧暫緩於金木。矧王業儉安此日，伊國家存亡之秋。令反側自安，奚足疑於光武。殲渠魁允濟，可取法於仲康。振朝著已頽之綱，然後可致。勵臣民不入之志，夫豈在他。是所謂刑法得宜，茲豈非恢復急務。望察臣討賊之義，諒此衛國之忱。殺無道就有道，咸與惟新。徵一人勵百人，使之知懼。則奸凶屏跡，億兆歸心。中興之功可坐而策，太平之治自此庶幾。當臨亂忘身，見危授命。鞠躬盡瘁死而後已，益勵孔明之效忠。擊楫誓江有如此水，不學祖逖之飲恨。

宋婺州處士呂祖泰請亟斬韓侂胄代以周必大

竄聰明作元后，擅威名於赫臨。親賢臣遠小，人宜黜陟於乾斷。見賢能舉，去邪勿疑。欽值有爲時，膺無疆恤。明消長往來之數，其君也哉。盡陟罰臧否之公，用人惟已。上有聖天子賢宰相，民樂太平象四海春。第未去侂胄之陰奸，尙播棄必大之忠慤。蕩乎帝堯之德，試可伯鯀之凶。惜哉漢文之明，不納賈宜之策。手握皇綱，口銜天爵，彼何人斯。舟橫野渡，驥服塩車，有如是者。天下之道學坐錮，月望而君子征凶。眼釘莫拔於當年，臣民共憤元惡。天變警余，不惟皆曰可殺。深衣空老於洛邑，都鄙咸望吾公。神所勞矣，豈特當世知名。此正旌閭之秋，盍施刑之典賞？竊觀古今之致治，端係進退之得宜。纔罪四凶，虞舜旋舉元凱。既誅二叔，成王必任召周。亂領妖腰寧，暫緩於金木。清標粹德，宜亟升於聖朝。如脫斯距，如拔斯茅，將皆披霧見日。孰無是心？孰不是望？庶幾振紀肅綱。矧王業偷安此時，而臣庶渙散已久。國家社稷存亡之係，斯理固無忒可不懼歟？天意人心去就之在，此知而不爲是無勇也。肅刑書而誅邪，魯國中興。思恭默而夢良，殷祚綿曆。古有行者，今何不然。望諒臣遏揚之忱，納臣剋瀝之懇。赫然下明詔，首誅共兜。黽勉眷孤忠，任用房杜。則奸回屏跡，俊乂在官。鄭室棟方隆，足支大廈。周川櫟行刻，庶不迷津。當爲聖人氓，沐休世澤。處士橫議，雖未免越俎之嫌。漆室有憂，庶將進致君之術。

宋兵部侍郎朱熹請察天理人欲之分以爲用心處士之公

克明德作新民，方恢更化之道。遏人欲存天理，盍先端本之要？刻苦工夫，真實心地。欽聰明作后，仁孝出天。當天下有爲之時，不欲循途守轍。念祖宗無疆之恤，每擬存心出治。爭賀一人元良，方看四海咸戴。第於接應之際，尚有屋漏之嫌。十手十目其嚴，雖能敬畏於臨事。獨多獨知之隱，抑恐真妄之錯行。好惡邪正是非得失之機，動靜語默飲食起居之節。或出非道，意未誠於脩身。豈盡合宜，政多失於爲國。竊念公與私之別，只在理與欲之間。人心惟危，道心惟微，雜二者於方寸。罔念作狂，克念作聖，容一髮於界分。惟精一可以察之，華勛之心法在此。非敬禮不能守矣，丘軻之學術無他。請念于茲，道在於邇。無一點之查滓，心地宜廣於方塘。有萬善之渾全，性天可回於活水。窒欲要在乎猛省，明善豈外夫操存。生而知之學而知之困而知之，及其至則一也。仁之端也，義之端也，禮之端也，擴而充之可乎。然後進退賢邪如鑑照物，以之揔覽幾務若碁布盤。豈曰勉強而行，其必從容中道。不可驚於虛遠，要自始於喚醒。慎思明辨審問篤行詳說之，請事斯語。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端不外茲。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之倫，賴而不晦。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之道，從此以明。實國家萬世之休，請今日一變至道。匪臣言髦，惟聖之謨。望察臣承弼之忱，納臣益聖之術。克己復禮，惟日孜孜。閉邪存誠，儼其穆穆。則繼天立極，前後之聖一揆。垂衣篤恭，馨香之治可治。當益勵啓沃，不怠論思。莫如我敬王，所願則孟軻之心。俾厥后猶舜，庶不負伊尹之志。

漢朝群臣賀除挾書律

皇建其有極，四海方樂於太平。天未欲喪斯，一律奄除於不日。道已西矣，文在茲乎。竊念挾書之禁，肇自呂政而始。皇墳五典詩書百家之語，盡入酷炎。唐虞三代禮樂文物之宗，並歸淫禍。坑之族之而慘，今文古文誰論。千載衣冠，已入毒痛之天地。三微制度，變作左衽之侏離。連此禍之流來，貿長夜而莫悟。逮先帝優武之日，旣云未遑。幸聖上肯構之心，奄先及此。催藝苑之學士，玉音丁寧。降紫泥之溫綸，鴉墨昭著。蕩除百年之陋習，煥燦一代之文明。麟經鳳書，方新赤製之軸。丹篇寶傳，重理綠玉之籤。紫洛靈龜，再呈九疇之數。瑞河龍馬，更負八卦之圖。萬物覩聖作之休，多士應雲起之會。杏壇之春風不老洋洋絃誦之聲，圓冠方領再聚子夏之堂。鄒谷之英氣猶解孜孜仁義之說，組帶青襟皆入仲由之室。文章皎白日而開照，講業暎德星而流光。峰秀學山，魯宮備泮水之頌。瀾清道海，周人詠壁雍之章。非徒一時之休徵，抑爲萬世之蔓洽。人文天理從此以伸，三綱五常賴而不墜。欽聖圖天縱，大德日生。當狂秦肆暴之時，幾發文王之歎。暨商顏羽翼之後，更效成湯之革新。道旣冠於姬周，將見大有爲也。功不在於禹下，豈曰小補之哉。玉津同波，德水應千年之色。金堤茂澤，崇山動萬歲之聲。帝載咸熙，吾道永辭。念文墨有志，汗馬無功。近天子之光儀，獲瞻聖人之顯謨。仰典學之時敏，願效虞殿之賡歌。

漢大將軍霍光謝賜〈周公負成王圖〉

幸卒護太子，方愧輔導之無能。求其爲周公，特落丹青之惟肖。見思齊矣，吾從周乎。念非聖人徒，固庸材爾。立不失尺寸地，雖知謹厚於事君。坐待朝兼三王，蔑效輔相之弘道。敢望有爲亦若，直是無所能人。頃緣小海之驚波，繼有前星之定位。十四月而載誕，慶洽堯母之門。一千年而河清，敬承禹父之德。同天下之引領，只願不死於須臾。瞻日月之繼明，每歎無補於螢爝。不圖驚質之衰朽，遽叨蛟負於重恩。人豈不自知，讓日磾而不得。帝曰惟汝往，愧虞夔之惟諧。方思小人之負乘，又何大聖以責我。擎出數幅之縑素，驚却百年上儀形。背有六尺之孤，誦尚幼耳。面朝八百之國，公在茲乎。吐哺焉握髮焉，聖人復起。制禮也作樂也，周道可觀。臨在上質在傍，不必素王之夢見。心有思目有見，實數赤舄之留傍。見而知之，希之則是。罔俾專美，責效可想於宸衷。卽有我師，戮力敢緩於維則。昔之鹵莽滅裂，只守漢官威儀。今也觀感作興，更覩聖世文物。非曰能而願學，惟永圖而無怠。彼何人予何人哉，臣雖未敢。念在茲釋在茲矣，其殆庶幾。遇予欲云云，治以進進。思貽謀於燕翼，痛悔戾子之含冤。戒恒存於秦亡，深創趙高之傳亥。肆將輔幼主之弘業，兼寄元聖事於微臣。不以聖自期，惟日企及。做無象而聞鳥，雖未及於馨香。王有過而撻禽，庶無衍於荒墜。

漢孔臧乞爲太常典守家業

生逢堯舜，君姿既乏於諫諍。以復孔氏，舊心竊願於禮官。寧欲仕乎，吾有受也。念大聖苗裔，少竊粃糠。退學禮退學詩，雖未及於趨過。善繼志善述事，庶罔愆於方來。才不才兮各言，道其道而私淑。毋忝爾所生矣，恒切戰戰兢兢。子亦有異聞耶，只欲承承繼繼。頃緣聖朝之乏士，猥側夙夜之群賢。官以諫爲名，素昧君子之無隱。世不絕其祿，亦念聖祖之有孫。以爲賢乎，恐不稱於其職。非余望者，乃所願則不然。顧惟世業之猶全，固是先子之所制。於若子若孫之世，莫不以是相傳。雖不孝不肖之人，實若於身親見。余宜肯構，違世業之可懷。汝作秩宗，願我縻以好爵。彼箕裘之守業，尙能爲箕爲裘。況禮義之傳家，豈曰無禮無義。是宜守而勿失，莫嫌官不及私臣。非見而知利而行，乃世守也。但願踐其位行其禮，非敢僭焉。後世之氣脉猶存，固異弟子之列。先朝之綿蕝可習，何惜叔孫之官。非有望於顯名，亦可見夫衛道。波寒百歲之洙泗，絃誦何年？世降三代而澆漓，遽際今日。無拘臣以文法，得守緒餘。雖由此而死亡，萬無悔恨。曰余有後，將見陟降臣身。勉爾無怠，那堪拜荷帝德。可以定漢氏之禮樂，雖短誼言。孰不歸文王之作興，請從隈始。幸承恩於聖代，是所望於微臣。望特察承先之忱，俯採傳後之懇。遵過魯牢祀之義，益尊先師。恢刊經鴻都之儀，俾守舊業。則室家相慶，臣民聳觀。尋墜緒於遺經，後世有述。得餘馥於往古，面牆無憂。謹當孜孜無荒，勉勉益勵。施于有政，雖未足以爲邦。傳之無窮，俾不衰於來世。

松巖先生文集

附錄

附錄

松巖奇公墓表

金鍾秀【夢村】

湖南士人奇逸相，袖其祖考，《松巖遺稿》四卷，示余請余，所以表公墓者，余受而讀之，公之學問，盖自得於心者爲多。噫！湖南，古以文獻名，而及公之時，則幾乎絕矣。乃公起於絕學之餘，自力爲學。晚始請業於尤庵文正先生之門，而凡於義理·性命·象數·名禮之際，以舊學就正焉者，類多精深微妙。雖與師說，略相牴牾，而有不避也。嗚呼！古之學者，專用心於內，故其所以窮格而講劇之者，能不蹈襲前人。而見自己出如此，噫！若公者，真古所謂‘豪傑之士’也。案遜齋朴光一，所爲公行狀，公諱挺翼，字子亮，奇氏幸州人。貞武公諱虔，以學問節義，有名端宗世祖祖，於公爲九代祖。高祖諱孝諫，號錦江。河西金文正公門人也，亦以道學名，於服齋，從孫也，高峯，從姪也。考諱震鐸，進士，娶錦城羅氏，司憲府監察，贈禮曹參議茂春之女，以天啓七年丁卯七月十一日丁酉生公。幼穎悟，孝友絕人。少爲舉子業，屢魁發解，及喪考妣，則不復應舉，專意學問，晚年著《周易》。嘗曰：“《易》之道三，理·數·象，獨象《易》，不傳於世，”遂就象傳訓釋，以發明其意義，而未卒也。於天文·地理·卜筮·醫藥，亦旁通無礙。肅宗辛酉，以文正公薦，授齊陵參奉，後又授孝陵參奉，皆不就。初居長城，中徙靈光，已而還于長城松巖，其屋后山也。庚午十二月二十五日，疾卒于家，享年六十四。配享于長城秋山，貞武公書院。公，娶光山金氏參判汝鈺之女，生男灝。後娶昌平吳氏輯之女，生二男洙·得。公狀貌魁偉，性質凝重，平居恂恂和厚，及其臨事，以義理斷之，則確然也。所著有《井

田鄉議》一編，蓋其意，舉而措之，當世而不疑也。先輩如尹童土舜舉諸公，一見公，皆推服以爲‘南土第一人物’云。方逆鑑¹之，有盛名于世也。公言‘其必敗鑑’，竟伏法。公臨歿，自言‘其當死’，未幾而死。若是者，豈《易》道之推歟！

輓奇參奉

李任漢

人何德厚命何奇 默數平生但涕洟
 氣宇雄沈爲國器 胸襟灑落脫塵姿
 詞章俊逸超文苑 道學淵源接武夷
 早捨科場章句業 晚探聖賢奧微辭
 粹盎面背看成□ 恭儉溫良見品資
 山嶽降生應有意 窮通與奪更誰尸
 顏回自是貧猶樂 子夏如何禍酷罹
 三子長成淪逝盡 一身漂泊影形危
 寬排鰥獨非難忍 講討經書老不衰
 天使厄窮終至此 人無定力孰如斯
 俄看繼室新居樂 更起茅齋古縣陲
 八子似鴉何必羨 雙珠出蚌未曾期

1 鑑：저본에는 ‘鑑’으로 되어 있으나 ‘윤휴(尹鑑, 1617~1680)’의 이름자인 ‘鑑’로 바로 잡았다. 뒤의 ‘鑑’도 이를 따랐다.

累仁斯世寧無後 種德人家果有兒
康節佇看成遠大 希文誰意失嚴慈
經綸抱負高才閉 遲暮功名寢職耳
昔我流離留遠地 晚將交契托深知
人間聚散元常理 洛下歸來只自悲
去歲茲辰重會地 蒼顏白髮笑迎時
無端寢疾成長夜 何處逢場接雅儀
臨輓欲題無恨思 情懷抑塞不成詩

聞松巖奇參奉訃音 驚悼有作

東瀛 梁晉泰

斯文曾悼白雲蹤 豈料松巖又古凶
從此南方吾道寂 不知誰繼士林宗

【德溪黃慎龜，帶方人，以學問名於世，徙居求禮白雲山，仍稱白雲居士。累除別提·都事等職，終不赴，年五十終。奇丈，今以是月二十七卒，年六十五。】

輓章【三首】

德陽家世蓋多賢 復見松巖老謫仙
耆德久爲時輩敬 淵源直溯古人傳
清朝一命青雲隔 百代高名白日懸

最喜晚年方有後 英靈遙慰九重泉

【庚申以後，文谷·西河諸先生薦之，公謝不起。六十再娶，有二子。】

河門舊有錦江翁 與我曾公出處同

伊昔兩家稱伯仲 于今四世異哀隆

學求堂裡承新誨 如理村中揖古風

惆悵晨歌從此遠 南方憔悴士林空

【錦江奇公與鼓巖先祖，同門于河西先生，公其玄孫也。公於王考行狀，亦有此語。】

少時曾拜德公床 久識儒林長者行

永使後生薰德性 況蒙先紀發潛光

簞瓢陋巷存三樂 棠棣和風藹一堂

六十五年觀化盡 不堪揮淚寢門傍

輓松巖奇公參奉

尙高奇處士 身世自閒中

晚節名猶顯 窮途學益通

懶從徵召起 甘與草萊終

子逝吾安放 生同死亦同

諸賢手札

奇上舍經案

曾荷垂書，因有所講討疑難。若以無狀爲稍有知識者。然感媿交至，無以爲喻。第坐無便，未卽修謝，心不敢安。畧因京使，猥以復書付去，冀其轉達矣。今於李上舍行，復承手帖，始審所圖之歸。虛訝且皇悚，無說自解也。萬一不至喬沉，則所論得失，庶蒙終教，惟是之冀。適有葬埋之事，喪柩纔至，悲擾特甚，不宜。【己酉七月初四日，時烈拜。】

時烈白。私家不幸，室人奄忽喪逝。遠地聞訃，悲悼不自堪。遠蒙尊慈特垂慰問，哀感之至。十餘年來，屏處山間，知舊慶戚，一切不聞，今承示諭，不勝愀然傷畫，又歎神理之甚舛也。人生以血氣爲身，摧敗顛頓，理所宜然，奈何奈何？此間事，不須言亦不敢言，諸友還歸，想或一二矣。天時已寒，緬祝加護，以慰遠誠。病倩不宜。謹謝狀。【丁巳十月十四日，莽服累人，宋時烈狀上。】

去秋蒙賜問書，已荷不鄙之盛意。兼以‘未發’之說見示，若將與之講質者然。自知無以獲此，但有愧悚而已。厥後一向無便，且有遷厝等事，闕然不報。忽被恩召，而或以涪翁西監之義相勉，此可以僭爲依樣。故冒昧出脚，謝恩之後，旋尋歸路。忽此國家，仍受誌文之命，留滯至今。殊非始計，悶蹙度日耳。此時復辱遠書，仍知學履平善，區區慰喜，不容多言。別紙所諭，略於小紙，申稟所疑，倘賜回證。隔此迷惑則何幸如之。大槩《中庸》首章，朱先生既曰：“自

戒懼而約之，以至於至靜之中，無少偏倚，其守不失，則極其中而天地位矣。”竊謂此於子思之意，發明極致，無復餘蘊，高明於此，更欲使先生復着何說乎？此愚迷之所不敢知者也。荷相與之深，傾倒至此，還增悚仄。此曾於道上墮傷甚重，方此苦痛。倩草不宜。

【庚申十二月初六日，狀上。】

去歲逆旅之拜，實出望外。爾後心常懸慕，而相去甚遠，無由奉尺書以候矣。今茲官褫傳到惠札並前書別紙，其所托重之意，誠非賤陋所敢承者，奉讀徊徨，不知所以爲對也。第以所嘗聞於師友者，則孔孟之後此學不傳，其在經書者，又奧妙精微，後人未易窺闚。故雖有有志於學者，而莫能得其門而入矣。自朱子闡明之後，則精粗·本末·小大·巨細，無不坦然明白，無纖毫可疑。今之學者，只當守其說而不變；循其序而不躐。則隨其才之明暗，而所至自有淺深矣，不必更有論量議擬之功矣。今以賢者之高明篤實，而不此之爲，反欲借視於瞽；借聽於聾，則無乃爲傍觀者之所笑乎？賤陋於是乎，自不勝愧汗浹背也。至於奉養之道，則賢者，豈真不知而有此云云耶？抑欲試之而觀其所知之如何，則亦不敢終有所隱矣。孔子謂子路曰：“啜菽飲水，盡其歡，斯謂之孝。”人子之道，孰有加於此哉？然朱夫子嘗歎‘親年益高，生事益寥落。’於斯二者，自可斟酌商量而有所處矣，非可以問於人，亦非人之所可知也。如某於斯二者，終無一毫彷彿，而今則孤露餘生，無所逮及，只自銜恤，而今承來諭，涕淚汪然，尤不知所以爲言也。未有面討之期，只祝暑雨侍奉增慶。自餘病甚，倩草不宜。遠照。【辛酉三月十三日，時烈狀上。】

時烈白。不意凶變，賢閣奄忽違世，今承示諭，驚愕不能而已。伏惟伉儷義重，悲悼沉痛，何可勝任？伏乞深自寬抑，以慰遠誠。時烈病伏窮峽，廢絕人事。趨慰非所望，而候問之書，亦復後時。蒙恕諒耳。謹奉狀。【壬戌三月二十七日，時烈謝狀上。】

遠惟清秋，尊靜履動止對福，區區馳慰。世采雖在屏廢流徙中，亦知講服盛名者久矣。顧以平生羸疾，年又衰邁，無所開益，不敢求助於四方士友。茲故尙稽一奉只尺之紙，以恩清塵，是豈鄙劣所自安者耶？比歲幸因湖南申按使傳致左右所論栗谷先生別幅，數番謹謹玩閱，繼以感歎，益仰高明稽古尊賢之至意也。第念所爲捉月圖，既是科場文字，又其所用道家語，曾見朱夫子《集錄》，往往有不免此者。至如《經筵日記》寫本舛誤，如成全棄之書。故不得已，與尤翁·明齋諸公，商量入梓，尤翁初亦持難。及聞此書到今無人不見之實，然後不復堅執矣。況欲更謀刊後，送置厥板於石潭書院，使諸生謹守而不敢輕印，則亦足以追贖妄率之咎矣。未知如何。春初往滯海西壟下，歸家又患暑病，不克以時脩效矣。猝聞按使之遞。此後信便，亦未易，茲敢畧致起居，以謝前慢。想在恕諒。餘不宣。伏惟尊下照。【壬戌八月十七日，朴世采拜。】

國哀普深，尙何言哉？朗州承枉，迄茲不忘于心。晚聞鉅創，逕切驚怛。而窮累人事，無緣致慰。問於千里之外。居常耿耿，拜辱惠書，感愧交至。先墓文字之托，雖非其人，不敢終孤盛意。而疾病倥傯，苦無鉛槧之暇，尙此遷就，愧負難勝。然當俟小隙勉勵也。

向聞愆度頗不輕，倍切馳溱，茲辱書問。就想秋涼得攝蘇安，慰瀉何量？壽恒經夏積敗，病不去身，日事呻楚，亦自任之而已。疏儒流竄，已成邦憲，南士豈能獨免？此固所以料者，奈何奈何？疏本啓草，蒙示破鬱，良荷良荷。不備謝狀。【金文谷壽恒書。】

自承前歲德音，一倍²瞻嚮，而病伏人事，作一蟄虫，無由時通信息，以寄區區。不意辱札遠投，申以講誨，若非進學之誠，不鄙之意，何以鄭重至此？忻悚兼極，愧戢難喻。仍審向來素履珍愆。猶子之戚，當在理遣。書後春事又闌矣。竊想對時清和，益以佳適。拯經歲呻吟，尚未昭蘇，顛毛已改。陋質難變，兀然爲庸人而已，私自憚歎。示諭謹以別紙仰復。如有未當，更乞培教。‘南中學子’，深幸聞名，恨我³索居，無由相從游，以資勝己之益，只堪悵然。昨有此中院事，得逢嶺下章甫，而稠擾忽忙，未及附書，今始憑遞修敬。未知幾日可達案下耶。千萬加愛，以副馳仰。伏惟崇照，謹謝狀上。【乙卯三月二十一日，尹拯。】

意外伏承手札，憑審憂患之餘，道履神相，區區慰幸，無以容喻。況此滿紙情教，實出於見念之至意，三復以還，不勝感戢。拯本以庸陋，學無實得，見識昏短，處義謬妄，終於貽羞先人，重累世道，公私罪戾，死難塞責。聞鄙書之抵玄石者，既已播傳云，老兄

2 倍：저본에는 ‘信’으로 되어 있으나 《명재선생유고(明齋先生遺稿)》 권17 <서(書)> ‘답기자량(答奇子亮)’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3 我：저본에는 ‘此’로 되어 있으나 《명재선생유고(明齋先生遺稿)》 권17 <서(書)> ‘답기자량(答奇子亮)’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若一見，可知區區曲折矣。‘論學云云’，自是妄見與所謂‘不平者’，自爲兩事，非敢如老兄所責也。至於‘先人之不絕某人’云者，乃以此爲先人之謗耳，非實事也。語長未暇猝竟，後當一暴，恨無由一場敘破也。公正順應，自是正當道理，何獨於今日爻象間熟講，然此則唯當自今閉戶省愆，爲自靖之地而已。未知老兄以爲如何。射羿之說，則北人疏中已狼藉矣。無非自取，復誰咎哉？南平在近，或者相遇，則或可諒多少矣。千萬便忙眩劇，僅僅草復。只此。【月日，尹拯。】

拯白。昨於邊上舍之來，謹承下札。伏審秋來，素履安貞，卽惟永寒，靜養增愆，區區瞻慰，豈勝鄙誠？書中示諭，敢不拜承？邊友又以教意傳道，前後警誨，至於此勤，若微相愛之義，何以及此？重切銘篆，無以喻謝也。第其間曲折，似有未悉，鄙人心曲者，於老兄不當有不盡者，而方以杜門念咎，自靖待盡爲分。且以書札懲羹，終不敢爲覩縷之計，老兄可以嘿諒耶否？拯家禍仍洊，數月之內，連遭堂叔父·叔母·庶叔父之喪，悲痛酸苦，不自堪忍。衰病歲加，沈痛之中，呻吟度日，餘無可道者矣。千萬無由面展，多少只覺瞻結病，未能預修謝敬。及逢邊友之回過，始乘忙草復。只此。【月日，尹拯。】

二月望日惠書，三月念間，始得承拜，而其時遭從弟喪，悲慘之餘，因致憊病，久未省事。因仍遷就，稽謝至今，豈勝愧負。書中所教，謹悉眷眷之意。且前者屢教，未能一一奉答，而不以斥外，誨導彌勤，若非見念之至，何以如此。誠切感戢，不知所喻。第鄙人所遭

前後事，皆因往復私書，轉輾至此，以此懲羹，已定杜門念咎，待盡無言之計。茲難破戒，未免泯默，竊想仁明，有以俯垂諒恕也。至於鄙人情勢，所加以砭針者，猶未筭著痛處，以老兄精義之見，當久自知之。奚待此嘵嘵也。紙末觸犯罪斥之論，不勝驚恐。鄙人孽自己作，連累漸廣，豈料又以仰累於執事耶。竊觀自古居間者，例未免被誚於兩邊，亦必至之勢也。誠願姑勿賜問，以俟紛紜之少熄。老兄之所以見誨，鄙人之所以質疑者，他日豈無講究到底之日也。千萬心察。一家喪禍洵並，常以沉痛度日，億病添加，生意殆盡，目昏有時如重霧作，此不成字。惟乞漸熱，素履清福。

便回承拜惠復，帖用慰瞻仰之私，不容云喻。《栗谷續集》校正之役，荷尊領可，斯文之幸也。本冊第一卷送上，考納如何。方作左沿之巡，臨行草附。不宣。伏惟尊照。謹上狀。【壬戌二月初吉，申翼相頓首。謚貞簡右相。】

即惟旱炎，尊履珍相，區區仰凜。前聞有不安節候，未知已獲耶。鄙生厪遣，而旱灾至此，憂心如醉，不知所止。《栗谷集》其已畢校，幸付還。劣筆忌畧奉呈耳。餘不宣。伏惟下照，謹狀上。【壬戌五月十三日，翼相。各樣扇六柄。】

自出入南州，欽高名久矣。尚未得一叩雲扉，曷堪瞻昂之私。即惟炎霖，起居神相，區區慰溯。生來守此土，適當凶歲。自春至今，日惱凋飢，一書相候，有意未遂，不敏罪也。偶占一律，以寓慕戀之懷。稍待秋涼，庶圖一就。萬萬不備。伏惟尊下照，謹拜狀上。【癸亥

六月十九日，趙相愚頓首。石魚二束，壯紙一束，汗呈。】

用李繡衣贈黃激君韻 奉訊奇處士道案

年年七月慟猶初 每誦河詩淚濕裾

嘉子早能尋墜緒 憑君將欲究遺書

久歎四海知音少 雖隔千重接面如

擬待白巖秋月白 一宵聯枕遠公廬

【癸亥季夏上浣，趙相愚拜。】

省式。吾東不天，荐遭杞天之崩，臣民如喪之痛，曷有其極？頃因金兄之便，兄邊消息，盖得其略而奉一書申□病未能也。殆以爲歎，卽茲意表，兄札先至，披覆再三，如憑隔世音耗。況諦兄靜履清勝，區區哀慰，不能自己。兄之所遭，尙何言哉，以兄德門喪禍比酷，天乎胡忍理？亦難斟。念之嗚咽，不啻在已罪。弟一縷餘命，頑不速滅，以至于今。再期已迫，哀痛罔極，益復何喻。加以種種疾患，日日侵攻，自夏至秋，長事呻痛，見今疝症，乘時重發。或加或輕，日久未瘳，困此一卦，自分不起。幸賴金兄，指教□□□□，兄亦加減於其間，終若試之，而有效則，僉兄之賜也。新卜葬地之餘，不信時⁴師之病，久而不已，轉輾沈痛已成。自家腹心之疾痛之彌深，漸入不痛之域，如兄乍痛而旋輟者，自有深淺之不同。而兄乃

4 時：앞뒤의 내용으로 보면 지관에 대해 말한 것으로, '時'는 '地'의 오자로 보인다.

自稱先痛，而謂弟始痛，隱然以先覺自處，此則兄好爲之病耳。堪輿之術，雖與正學有間，其原出乎陰陽，而五行八卦皆備焉，知無不盡，則致知事也；誠實無僞，則誠意事也。一部《大學》之道，亦不外乎是矣。古者蔡西山之自卜，亦足徵之。朱夫子之篤信，豈欺余哉？然地術不如學術；陰地好亦不如心地好。今兄藥石之誨，正中弟病，自今以後，庶幾改之。弟之有意於此者，非有欲改之意也。□事出急。遽徒仰人口，全沒己見，第欲稍解其術，援彼證此，以明吉凶之如何而已。而至情所在，不能自己。反覆沉潛，幾乎成癖，則宜兄之謂我病，而是弟之願安處也。罪逆垂死之身，無意生全，與兄相會，未易拜期，念之至此，不覺哀悵，餘萬萬所懷。非一書可盡，只此。伏惟入照，答疏上。【甲寅十月初一日，罪弟蘇斗山頓首。】

千萬不謂，獲承兄札，披來如得隔世消息，稍慰積阻之懷。況審至冬，兄靜履清勝，欣喜尤甚。弟家禍未殄，喪憾連仍，自分次第湮盡。而功名極於布衣，郊居勝於乾沒，餘外毀譽，何足介懷？暮景救嗣，兄及弟一般，是願之成不成，亦天也。身世到此，絕可憐也。相望落落，無緣一會於在世之前，念之不覺悽然。有人極言雪山山水之美。因指一穴，再昨委送地師，此見果如彼言，則弟當馱疾，自將或可謀會於許上舍家，以做連枕之樂耶？此實一死生間，難得之會也。弟之近所歷，皆非文房所宜之地。歸栖以來，非藉人則，每患乏絕。弟亦如此，而況兄乎？從若有獲，可以奉副耳。金兄汝錫甫前，謝書胎封以送，幸望傳致。餘萬燈下。倩草，不宜。伏惟兄照，謹謝狀上。【年月日，斗山頓。】

講服高名，非一日矣。顧此罪蟄，有礙於出入，未嘗一造衡門，仰接英眄，只令人馳神而已。昨者李生員來鄙，傳誦足下之所製一絕，三復以回，不覺懼然，所警於昏愚者，固爲多矣。槩累人於昔年，偶有所詠，而適爲傍見者，傳落人耳。士友之間，流布漸廣，每以大失韜晦之道，深自爲愧，而且覺心術隱微之處爲病，非細思之汗悚，噬臍無及。不意今者，又達于座下，有此萬萬不近似之獎諭，撫躬罔措，無承當也。累人竊有憾於足下者何哉。今日吾輩，實有同病相憐，同患相救之意，則不可以不相見，有所忽視也明矣。如有處事之乖當，卽施針砭，諄諄教誨，一以爲不入於罪過之地，一以爲俾免於別人之譏怒可也。今者足下，不但不施之針砭，又從而大加稱道，有若累人，真有可取者，然以豈導人以道之意乎？苟足下自今後，頻加警責。使昏愚者，惕然發省，隨地點檢，不以窮厄而自割，衰頹而自憊則，雖於足下推許之意，不敢望其彷彿，而亦不至於如前無狀，全爲暴棄之人。願足下無惜其惠也，如何如何？餘不宣。伏惟崇照，謹拜上狀。【丁巳六月七日，累人李世弼拜。號龜川，逸參判，諡貞翼，白沙曾孫。】

得此僻邑，惟以與兄相邇爲幸，而顧爲化兒所苦。且緣官務多滯，曠廢人事，闕於馳候，兄豈知這間悵介之懷耶？負負無可言者。卽惟新年靜裡，氣味如宜。曾聞兄有叩盆之歎，其在一體胖合之義，悲何堪，庭玉欒欒之狀，何忍相對耶？□□□□不□名言，弟濡滯他鄉，又添一牙，頭雪眼霧，衰謝益甚，暮境心事，想同之也。仲春間，當有歷叩之便。千萬祇待那時，不宣。伏惟兄下照，謹候狀上。【壬戌元月初四日，弟受澆頓。】

畧表微惊，視至爲望。潦雨關人，相問久絕，方用瞻悵。此承問札，憑審動靜欠安，不勝貢慮之至。雨後蒸炎，如在洪爐中，巨巨之屋，尙難堪，居數間斗屋，蓬蒿閉牖調攝，不無添傷？尤用慮念，糴米今無餘儲，不得已，以雇馬米一石送，似此則異於還上還納之際，不無頭痛。近來牟麥，幾盡民間，喁喁之狀，豈待尊教，而洞知官儲已渴，更無下手處，終使子遺，未免立死，慘然奈何？略干物，聊助朝夕之饌。餘不宣。謹拜謝狀。【六月四日，樞。】

阻濶之餘，情札忽枉。憑審雨後，尊起居勝常，不任感欣瞻慰之至。（鎮）強疾應務，苦無餘隙，未遂就敘，可歎可歎。下示糴穀，已盡分給，所儲無多。只將一斛送，似愧恨。饑民滿庭喧聒，手眼俱忙，草此不宣。伏惟下照，拜謝上狀。本道方伯李世華台爲之云。【乙丑四月望日，戚末鎮圭頓。】

信龜白。人間禍福，本自無常，而又或有甚焉者。今尊兄所遭，何其甚又甚也。凡在親愛，無語以吊，無辭以慰。不知吾兄，何以爲心，何以爲遣，然可奈何可奈何？事之不可容人力者，天也。而君子之道，無入而不自得焉，則此真吾老兄一試過之地矣。知其無可奈何，而爲無益之痛，以吾兄明達，豈爲之哉？且有一說，‘有生有死，必至之事也’。一遭婦化，憂樂何在？所謂‘悲不幾時而不悲者無窮’，實古人先得之言也。若反爲‘無窮之悲’，以促其無幾之時，則其惑亦甚矣。此皆已在高懷曠度之內，不必煩剩，而以區區哀慕之私，亦豈無過計之憂哉？馳往奉慰不難，而雖一書附遞，尙未以時，瞻望悼怛，益增耿耿。餘更祝尊體，爲道保重。謹奉狀，伏惟下察。【癸

亥八月四日，黃信龜狀上。】

信龜白。令愛之喪，何其慘酷耶？況審此爲尊屢傷之患，痛割之情。想一倍難堪，憂慰益切。信龜家兄，竟不起疾于旅館。此實我亡家之禍，欲同死無知而不得，更何言更何言？來此之後，日夜救病。又知其畢竟不淑，憂惱之中，未遑修候。適承宗英之來訪，而亦不能爲書仰吊。只將舊封之見滯者，爲遞通消息之路，而未暇計人事之疎漏也。尊乃卽賜答書，傾倒甚至，感荷之餘，惶愧隨之，無以爲喻。彼此俱逢逆境，已失追逐之會，而信龜又以占山事，先離此處。向來攀晤之計，遂墮茫然，回首雲山，益復黯結。萬萬悲迷病瘁，何能盡懷？只祝尊候，深自寬保，以慰瞻仰。謹奉狀，伏惟鑑察。不備謹狀。【辛酉正月十一日，葦服人信龜狀上。】

□信其方而不自知，他又何說？且人之壽夭，自有天賦之定。非服藥所可轉變，節食服藥，差可小病，真千古達識矣。兄必以弟此言爲自私之癖。而弟見如此，故嘗以世人爲皆惑耳，如何如何。年來知舊，零落殆盡，少無在世之樂。而況屈指筭齒，已過耳順，今雖死矣，人豈謂之夭哉。不足於心，則雖享松喬之壽，不自足，兄須以弟此言爲達識可矣。若干筆墨，侑簡以呈，竊觀今世擾攘謗議，無不到兄及弟矣。苟免於此則幸矣。牟陽鳴陽太守，皆弟故人而□相贈世情，可見如相對說及。

弟垞頓。

戊戌⁵歲，因邊生，得慰狀書後，絕不聞消息。戀戀之情，何嘗少弛？

卽想冬暖，兄靜裡順養康勝。講道探蹟，進修益勤，而恨無由致身而參聽也。弟數年以來，神耗眼昏，只一未冷之尸，而兩子之病，殆無差愈之望。賤子晚男，自今二月初，因感寒漸沉至痼，今則肥肉換奪，不似人形，夜不眠晝不食。所見極慘，人雖不數，慈情一也。長孫之疾，三年于茲，自今夏稍有生道，而完復未易。此中憂虞，庸有其極？復見今已四歲，其骨相心意，可以知之，果可能繼先業而克家耶？遠莫之見，殊可苑苑，適因家奴之南歸者，過傳此以寄聲信。縷縷，非滿尺可旣。只此。【庚子至月二十七日，服弟李垚。】

抱病南來，百無一好，而今朝忽見兄札，驚喜之私。不趨世外消息，而及詳辭說，則驚慘之事，有非人理所可堪者。在京雖因人聞兄連遭慘禍，而豈料若是惻怛者乎？今不欲言之也。弟今十一日，忽得重病於恩津昇營下。適逢太醫，服藥見效，幸脫死境。而尙在人鬼關頭，兄奴必聞之而知矣。示意謹悉，雖不能全釋，豈無爲兄地哉？兄若惠然，則都無事矣，而不敢望也。手顫神昏，不能備宣。近當俾人相聞也。伏惟兄照。【甲臘二十六日，弟垚頓。】

近欲與兄及□叔，期會于神光，因以兄歸，遣兄細君矣。不意移職，重被臺劾，交代已出，可謂正中本願，而當此極熱作行，爲可念爾。二十二日家有祀，事過此卽發，兄不可不來別，兄其有意否？一別之後，吾輩□兄，須以朝暮乘涼來會，千萬企企。臺彈措語，則初

5 戊戌：저본에는 '戊辰'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의 아래 구절 "아우는 두어 해 전부터[弟數年以來]" 및 아우 이대(李垚)가 편지를 보낸 해, '경자년(庚子年)'에 의거하여 바로 잡았다.

以‘爲人麤雜，且無廉名 云云。’翌日改之曰：“人望素輕，且無廉名 云云。”前後之辭，實中病處，弟何□。【李塋。】

松巖遺墟感懷

族姪 瀾【晚悔】

右松巖，卽族叔參奉公，棲隱而爲號之地也。庚寅春，與宗人來學，寓其近村，往尋遺跡。則松爲野人伐去，只餘巖溪，便作無主地。惜其本家等棄，不能守護而然也。吾二人，不勝嗒嗒之感，共賦此詩。仍要和於士友，以爲傳後之地焉。

爲訪先賢去後蹤 奇巖無恙伴蒼松

佳名不逐滄桑變 如揖當年座上容

先賢古址訪遺蹤 但有蒼巖不見松

花石平田移舊主 顧名思義惜可容

山花如怨鳥喧林 訪古吟筇憩午陰

松以禁疎樵斧亂 巖因跡息綠苔侵

溪清石白欽幽趣 雲淡風輕想道心

認是先君親炙地 徘徊遺躅愴懷深

山顙以後幾年回 遙想巖松手自栽

可惜蒼髯舟失壑 獨憐頑骨徒成臺
眞工誰與論誠正 聖學人無任繼開
爲訪遺墟深起感 依稀月到又風來

松巖記

古之儒賢自號者，或以物而取其象：或以理而尙其直。吾祖之號，以‘松巖’者，非物非象而是理是直也。物中之獨也青青於隆冬者，非松而何？理中之物自巖巖於絕壁者，非巖而何？青青如直直如節節如者，青青巖畔松也。巖巖如確確如落落如者，巖巖泰山巖也。松巖先生，尋其理而取於直直巖巖者，其意豈偶然也哉？噫！鰲山士人邊斯文得灝甫，嘗提撕余曰：“刻‘松巖’二字於松巖之上，而表松巖先生之遺蹟者，美事云云。則其慕仰先賢之心，愛敬遺芬之義，吁亦美矣。爲其孫者，豈可無感舊起余之心乎？”嗚呼！惟我王考，卽先正宋夫子之門弟也。早拋舉業，遊於夫子之門，而義夫子之義，學夫子之學。故宋夫子，特以湖外指南正學，薦于朝。而累除寢郎。守義獨善閉門讀書者。蓋與孔夫子，先爲轍環於天下。故顏子以此閉門獨善，則吾祖之不仕獨善者，與顏子不謀，而相符也。松巖先生，盤遊於松巖之下，而嘗效康節〈首尾吟〉曰：“天下無人知我心，無人知處且長吟。”斯可推‘松巖’二字之義也。巖之上有松，蒼蒼其本孤直。巖之下有水，源源其逝如斯。先生高風，與水俱長。
崇禎後三，戊辰冬，不肖孫學相記。

松巖韻

不肖孫 學相

吾祖何年居此地 松巖獨立水空流
考巖縱遠確無間 沂水雖長斯有休
滿壑樹陰鸞鶴去 環山日月考槃幽
孱孫感慕留心刻 大道高風垂萬秋

又

族孫 學敬

松雪巖花晚景好 絃歌丈席想風流
春深庭草德容粹 月滿前川道氣休
後學當尋門路正 先賢爲卜上林幽
昔年芳躅看何處 巖穴清芬黃菊秋

又並序

後學 邊得灝

節彼松巖，胡爲乎得此佳名也。卽寢郎奇先生，杖屨之所，而先生之以‘松巖’自號者，夫豈偶然也哉？松者，貫四時而長青勁直焉，有君子之節；巖者，亘萬古而不磨磅礴焉，有道理之

體。則先生之貼以‘松’字者，豈非取諸乎君子之節也。繫以‘巖’字者，看得乎道理之體耶？先生乘箕之後，百有餘年于今。而君子野人之過其下，而瞻慕者必曰：‘處士遊憩之所’云。則雖曰：‘無扁額之刻’，而先生風節道學，不必有泯沒之時也。然而考諸先賢盤桓之所，必有墨花表識之道，則何獨於先生無也。以此意傳知于令孫學相氏，則答曰：“君言甚佳，即召石人，加以數字之斗，煌煌於石面，則能傳萬古之光色，而以圖不朽之資。”可謂‘有是祖有是孫’也。予以蔑劣後學，何敢贅說於其間。而鄙家曾王考，之於先生，曾有洛會香社之契，而日共逍遙于斯，則不無羹牆霜露之感。故援其僭越固陋，略記于左。

巖沾美號以君子 壁立溪頭拔俗流
寧逐谷陵猶或變 常稱丈老所曾休
天慳地秘區因勝 名顯道高趣則幽
水底魚龍應識字 奚徒人口誦千秋

又

族孫 澤奎

松與巖高永不朽 儼然清躅卓超流
地留名節物無變 道自淵源世有休
豈謂磨磷風雨積 終看守護鬼神幽
尋真多士口碑字 磊落春光蔑萬秋

又

族孫 翼坤

松因巖堅認節義	我公砥柱立頽流
鼓樓完見真工確	花石空留勝賞休
春草濂溪依舊綠	簞瓢陋巷更誰幽
痛哉桓寇領猶保	斧鉞儒家凜若秋

又

後學 朴東益

松剪伐兮巖獨在	考槃遺躅屹臨流
肖孫此日刊銘役	賢祖當年杖屨休
峻嶺藩屏天作勝	叢林左右地因幽
先生志節於斯見	壁立千千萬萬秋

又

五代孫 金賜【十一歲作】

磅礴形容道氣確	先生舊跡水同流
世傳基業誰能構	行路稱云口不休
君子居之名世重	遺風邈矣地還幽

由來二字昭然刻 留得精神閱萬秋

又【並序】

瀛洲 高興濟

松巖奇公，卽尤庵老先生門弟也。與我觀瀾公，有同門之誼。而其孫學相儀佐甫，一見余而敘舊許心相好情篤者，數十有餘年。噫！儀佐甫，孝友篤學，誠非俗士之比，而且其後進彬彬，多文學之人，計南州儒宗之家，指先屈焉。其從曾孫金賜，年未成童，學問文章，博洽英發。嘗讀經釋義，毫分縷析，無不契合於先賢旨論，雖以宿儒老師，有多不及者，他日成就，何可量哉？松巖公，從師老先生，學業精純，門路有正，則亦可見淵源，有自吾道有光，然地相遠也，年既衰矣，恨不能一觀德容，對經而問難。儀佐甫，追慕松巖公遺德，就於松巖公舊基，松巖之巖面磨而刻‘松巖’二字，以寓羹牆之懷而詩以詠歎。且以賢孫詩示余曰：“子有先契，盍以詩和之。”索之甚勤，而不至止焉。不敢以不文辭，忘拙和呈，略敘平昔景仰之心。且契德門賢孫之生，不偶然，惟儀佐甫，歸於金賜‘勛哉成德’。金賜，蘆沙先生幼名。

名門有是松巖老 不沫清芬百代流
晚計藏修開後學 早知誠正襲先休
詩書襟帶傳家久 泉石菟裘卜築幽

山斗高儀瞻彷彿 磨崖刻字昭千秋

又

後學 高倬濟

澗松之操泰巖像 少日師門第一流
杖屨儀容人廣感 詩書基業世傳休
樓臺陋矣楊花落 泉石居然賃壁幽
大德不孤元有理 金孫道學又千秋

公號松巖公所憩 錦波汪汪溯源流
千年遺蹟於焉在 百世清風也不休
樹老講壇人愛惜 苔生仞壁地深幽
昭然二字伊誰刻 不朽令名今古秋

又

後學 別檢 尹錫永

清詩盥讀起余敬 南國風聲漸北流
介操應無當世志 貞忒多啓後人休
百年萬軸聊尋樂 一壑雲煙始闡幽
天遣兒孫趾厥美 蒼岑枯草幾回秋

又

後學 邊相璨

瞻彼松巖高躅在 德隣曾卜我聽流
先塋孔邇存深愛 講樹移談闡丕休
樵牧忍能爭剪伐 士林將恐久煙幽
今來刻得朱墳字 美號將傳億萬秋

又

後學 進士 朴懿淳

松間巖石最奇絕 杖屨盤旋脫俗流
凡爾醉時陶子興 居然我處遜翁休
山如道屹猶爭仰 地以人名豈曰幽
賴有肖孫刊二字 先生嘉號揭千秋

又

後學 邊得龜

聞昔松巖處士丈 同携吾祖此臨流
翠柯拂面時焉撫 黦石如盤日以休
美德已從山水茁 高蹤還與谷蘭幽

療然心法何由見 水澹前江月萬秋

又

後學 金信厚

禿立蒼松巖盤古 粹然雙美傍溪流
伊來後學惟嗟歎 疇昔先生白憩休
物得賢人名始重 洞因遺躅地增幽
肖孫感舊銘而刻 不沫清風閱萬秋

又

靈川 申膺模

憶昔先生此地遊 松雲巖月喚名流
寒風琴上成翁聽 白玉壺中卞氏休
雪壑高姿餘晚翠 鼓樓眞景更深幽
煌煌二字賢孫筆 千載同傳院號秋

又

後學 金憲警

不墜家聲孫繼祖 南州高士好風流
何年杖屨能棲息 此日遺芳尚未休
松爲舊墟人愈惜 巖因新刻地尤幽
非徒一世爭瞻仰 可以華扁閱萬秋

又

義城 金斗海

勁牢木石得其主 兒傲淵衷出俗流
下有茯苓邦藥秘 中含璞玉席珍休
與之爲友三難特 愛以扁楣一體幽
豈但肖孫新刻在 遺祠山號亦云秋

又

蔚山 金寶賢

平素工夫何所最 和而中立不其流
律身莊敬皆真積 待物寬弘矧實休
庭下蒼條依守確 階邊巉石護居幽

先生去後餘風在 遺址於今間幾秋

又

後學 申膺模

巖像松陰配以道 錦江家裡繼源流
鼓樓真景高猶在 雪壑貞姿翠未休
自是遊人難上處 方知君子所居幽
煌煌二字賢孫筆 日月爭光閱萬秋

又

族孫 秉演

松依巖畔爲人愛 肇錫元非取九流
樹自含情傳美蹟 石如不轉立揚休
閑山晚契當時事 高士遺墟到處幽
對颺雲根應有語 同聲人是共悲秋

又

後學 申履祿

石骨雄盤磅礪體 古臺之下水縈流
先生名在邱山重 後學言傳杖屨休
留得精神瞻突兀 淨無塵土絕深幽
苔花不蝕松巖字 雨洗風磨閱幾秋

又

後學 申德模

山阿石骨精神秀 正似高人絕俗流
邈矣遺風餘陸軸 依然道體立揚休
琢磨已去塵埃累 蕭灑又兼水竹幽
來學於斯多艷慕 松巖二字獨千秋

又

商山 金桂

松節巖形兩相固 先生高躅亦同流
星霜焉敢移其質 神鬼猶知護厥休
物有嘉名然後重 地無別處待人幽

團圓刻字賢孫孝 從此留傳復幾秋

又

鳳山 李應允

先生杖屨尙留跡 百歲遺風在峙流
地近楸邱勤省掃 山回花崕任行休
隣多柏悅論經理 遠喚蘭香慰獨幽
二字新刻圖不朽 雲孫孝思閱千秋

又

長澤 高應觀

巖確松貞人似玉 由來三美至今流
追懷杖屨賢仍孝 曾卜山林德祖休
後學推宗風不泯 新刊宛舊地無幽
當時氣像看何處 花柳溪春霽月秋

又

平陽 朴聖三

地待高人錫美號 先生芳躅至今流
經寒老幹貞操葆 兀立層巖氣像休
杖屨逍遙泉石膏 行道指占水山幽
肖孫善繼肯堂業 二字華扁閱萬秋

又

後學 郭臨馥

先生德業仰山斗 學海逢源左右流
嘉惠遺風傳有誦 雲仍餘慶永無休
巖高百尺精神古 松老千年水月幽
二字煌煌留舊跡 從今像想露葭秋

又

後學 金濟樾

松邊萬丈鰲山立 巖頭一曲鵝溪流
溪通錦水真源活 山帶葩岑淑氣休
基業尚傳三世顯 里仁從闡百年幽

遺風豈獨肖孫慕 香火儒林春復秋

又

後學 鄭學明

先生以理解三易 博覽群書達九流
直節松高因雪色 眞容壁立又揚休
誠意落落爲人愛 更覺巖巖隔世幽
崖刻豈徒傳後意 森嚴遺稿似春秋

又

後學 李得茂

鼓樓巖下縈回水 留作淵源不盡流
邁軸考槃塵邈邈 道傳學古樂休休
蒼松老石仍人美 揭號播香擇地幽
先生去後賢孫在 不墜構堂度幾秋

又

不肖孫 學相

松巖自此生顏色 石上清風共水長
來去行人如有見 先生遺跡豈無光

又

族孫 翼坤

先生遺韻石猶在 是處山高水又長
幸有賢孫能繼述 松巖大字倍生光

又

黃城 邊得龜

巖上青松巖下水 先生風節與之長
華題幸有賢孫記 遺蹟千年又益光

又

靈川 申應模

松貞巖固自家志 杖屨遺墟景慕長
二字嘉名終不泯 鰲山日月更爭光

又

後學 李得茂

松老杖屨地 山高水更長
後孫慕先學 請看德業光

跋

嗚呼！右爲《松巖先生文集續編》也。先生以豪傑之資，崛起南服，北遊尤庵宋文正公門。文正公，薦以南土正學，肅宗朝，再除寢郎，皆不就。泓采，於先生之文，僅讀吾霞谷先祖行狀，而未見其集爲恨。今幸只於《續集》中，見其〈性理答問〉，推本程朱，質以師說，原頭流行，發明親切，蓋不待全稿，而見先生之學識其大者。意者蘆翁折衷諸家之功，實自先生權輿之。學者宗蘆翁，而不深其家學淵源可乎。夢村金相公，撰先生碣文曰：“公少爲舉子業，及喪考妣，不復應舉。專意學問，晚年喜《易》就〈象傳〉，多有發明。天文·地理·醫藥·卜筮，旁通無碍。”又云：“所著〈井田鄉議〉，蓋其意舉而措之當世，而不疑也。”前段，見不欲以一善成名，後段，見如有用我之願，此所謂‘彼一時此一時’也。前賢出處曲折，曠世之下，非敢輕論，而先生豈無意於經濟者哉？嗚呼惜哉！先生後孫老栢氏，以續蒐尚在巾衍，憂懼不已，竟辨設剗剗役，而以原集刊行甚久，且帙數未多，學者病之，乘時原續合役，重新并舉。凡事待其人而修，而苟非故家述事之規模，果斷力綿之勢，安得如此其巨大也。士林多與之助，叔季斯文之幸，可謂大矣。以泓采爲先誼後裔，命置數言于後。尊仰在心。托名爲光，安敢固辭。

歲乙未拉月日，河東鄭泓采謹識。

역자

나상필(규남박물관 연구원, 전남대학교 고전번역협동과정 박사과정)

엄찬영(조선대학교 문학박사)

이관성(한국학호남진흥원 일반연구위원, 문학박사)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 1

송암집 하 松巖集下

인쇄 2019년 1월 25일

발행 2019년 1월 31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기정익

역자 나상필 엄찬영 이관성

편집제작 흐름

55019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59

전화 063-287-1231 팩스 063-287-1232

비매품

ISBN 979-11-966113-8-5 93910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호남한국학진흥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